

논술·면접 지도 요령

논술·면접 지도 요령

연구책임자 : 이 명 준

연 구 원 : 조 용 기
김 명 화
박 영 석
신 명 선

연 구 조 원: 김 종 윤

연구협력관: 김 영 윤
오 석 규
김 연 석

< 집 필 진 >

강남식(한국양성평등진흥원)	김범(국사편찬위원회)
김범수(방송대)	김성환(대진대)
김영정(서울대)	김주성(한국교원대)
김진엽(성공회대)	김진엽(홍익대)
박경태(성공회대)	박정하(성균관대)
박찬국(서울대)	박효종(서울대)
서이종(서울대)	우진운(단국대)
유현상(상지대)	이규영(서강대)
이봉재(서울산업대)	장대익(KIST)
장윤희(한남대)	정일준(아주대)
정준영(방송대)	조은희(조선대)
최지현(서원대)	홍욱희(세민환경연구소)

< 검 토 진 >

김영운(교육인적자원부)	김연석(교육인적자원부)
동효관(한성과학고)	안종제(관악고)
오택환(노원고)	이선영(송실고)
이창운(전남 장성고)	정인수(진주 대아고)
조일수(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은옥(수도여고)
차조일(경인고)	

< 연구 협력진 >

김왕근(춘천교대)

김영수(서강대)

르브렝(하비에르 국제학교)

배식한(세종대)

안병학(고려대)

유원기(계명대)

이정옥(한국교육방송공사)

정명교(연세대)

김종식(제주도 교육청)

김성제(한양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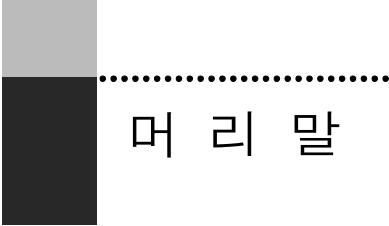
문명숙(하비에르 국제학교)

신원동(서울대)

오석규(교육인적자원부)

이상욱(한양대)

이창우(가톨릭대)



머 리 말

논술은 학생의 문제 해결 능력, 논리력, 사고력, 창의력, 표현력 등을 신장시키는데 매우 유용하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대학입학전형자료로서 그 비중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 지도 시 참조할 수 있는 적절한 교사용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원은 고등학교에서 논술 지도 시 참조할 수 있는 논술·면접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자료는 『논술·면접 지도 요령』, 『논술의 실제 I(인문 영역)』, 『논술의 실제 II(사회 영역)』, 『논술의 실제 III(과학 영역)』의 총 4권이다. 『논술·면접 지도 요령』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교사용으로 개발되었다. 첫째, 논술과 면접의 기본 개념 및 특성을 파악하여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논술 지도 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논술 및 면접 지도 시 고려할 사항을 파악하여 교수 학습 개선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논술 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시도를 통해서 실제 논술 지도 방안 탐색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학교 논술 교육을 안정화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논술의 실제 I, II, III(인문 영역, 사회 영역, 과학 영역)』은 교사가 실제로 논술을 지도할 때 참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도 자료 제공 차원에서 교사용으로 개발되었다. 교사는 자료집의 구성 및 흐름을 따라가면서 논술을 지도할 수도 있고 구체적인 교수 목표에 맞추어 자료집의 일부를 재가공하여 또 다른 논술 지도 자료를 만들 수도 있다.

이 자료집의 학습을 통하여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도 논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 연구를 수행한 연구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자료집에 실린 자료가 교사와 학생의 논술과 면접의 능력을 함양하는 작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5년 12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 장 정 강 정



일러두기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이 바뀌고 지식 및 능력에 대한 개념도 변화하였다. 객관식 지필 평가의 한계가 분명해지면서 최근에는 스스로 사고할 줄 하는 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고, 그 교육적 대안으로 논술 및 면접이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논의들에 비해 논술 및 면접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그리 많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논술 및 면접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 개발 차원으로 수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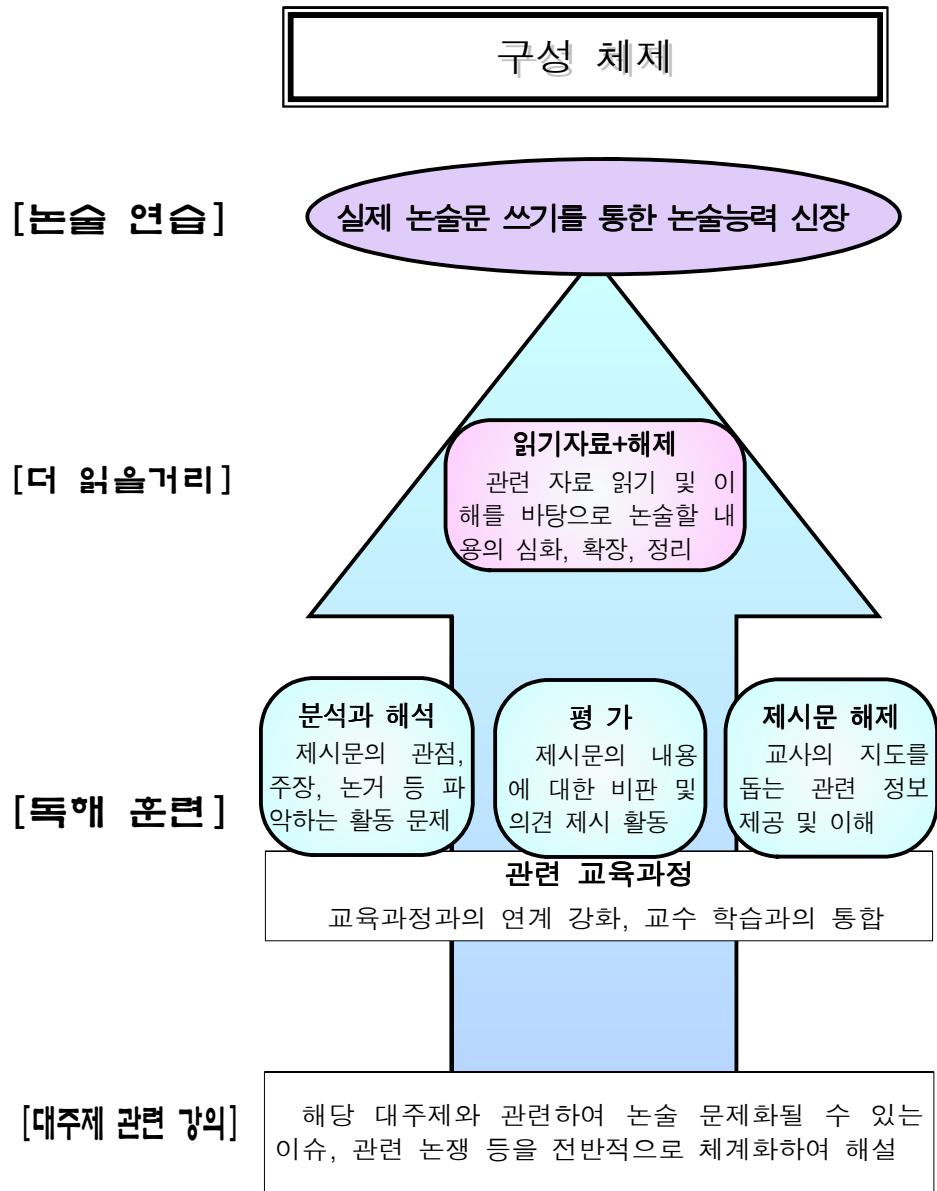
이 책자는 ‘대입·논술 면접 지도 자료 개발’ 연구에서 산출한 것으로, 『논술·면접 지도 요령』 1종과 인문, 사회, 과학 영역의 『논술의 실제』 각 1종을 합한 총 4종 중의 하나이다. 『논술·면접 지도 요령』은 대입 ‘논술과 면접’을 지도하기 위해 교사가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논술 및 면접의 ‘개념, 특성, 유형, 지도, 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실질적인 지침 등이 주 내용이다. 인문, 사회, 과학 영역의 『논술의 실제』 각 1종은 구체적인 교수 학습 현장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 것으로, 일반형 논술에 필요한 사고력, 창의력, 논리력 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논술 능력 신장을 이끌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논술 및 면접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논술·면접 지도 요령』을, 실제 교수 학습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논술의 실제』를 참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책자는 교사용 지도서나 교사용 참조 자료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자에는 학생들이 곧 바로 소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교사는 이 책자에 담긴 내용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기 전에 먼저 해당 내용을 깊이 있게 숙지해야 한다. 또한 이 책은 일종의 자료이므로, 교사가 스스로 논술 목표나 지도 계획 등을 수립한 후 필요한 부분만을 선별하여 내용을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논술의 실제』는 인문, 사회, 과학의 세 영역으로 나뉘어 개발되었다. 주지하다시피, 각 학문 영역의 주제는 매우 광범위하고 그 내용도 깊다. 본 자료집은 가능한 각 영역의 전체 내용을 포괄하려고 노력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모든 내용을 개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다수의 이론들을 모두 소개하는 것도 힘들다. 따라서 본 자료집에 제시된 각 학문 영역의 관점, 이론, 주장 등은 본 연구의 기본 입장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

고자 한다. 교사는 참고문헌에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내용을 보강 및 확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필요시 팀티칭을 활용하면 효과적인 논술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구성과 효율적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주제 관련 강의

대주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주제와 관련하여 나올 수 있는 논술 내용을 예측 및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대주제 전체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지식 확인
- 대주제와 관련된 배경 지식 활성화
- 지도 내용 파악 및 예측

대주제 관련 강의

지은 우리에게 아주 חשוב
그 나라의

독해 훈련

3~4개의 소주제 제시 하였고, 각 소주제마다 ‘분석과 해석, 평가, 제시문 해제, 관련 교육과정’이 있음.

대주제 분석과 해석

1. 첫 단락과 둘째 단락 정리하기

분석과 해석

제시문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둔 활동 문제로 구성됨.

- 제시문의 관점, 주장, 논거 등 파악
- 제시문의 핵심 내용 정리

대주제 평가

1. 이 글에서 말한 것을 평가하시오.

평가

제시문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시문의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시문의 내용을 비판적, 창의적, 논리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활동 문제로 구성됨.

- 제시문의 내용에 대한 비판 및 의견 제시
-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추론적 사고 및 창의적 사고 활성화

대주제 제시문 해제

- 위 글은 배이커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두

제시문 해제

제시문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상세하게 해석하고, 관련 정보를 첨가함.

관련 교육 과정

제시문의 내용이 현 고등학교 교육 과정 및 교과서의 어떤 부분과 관련을 맺고 있는지 제시함

- 현 교육과정과 논술과의 관계 제시
- 교과서 내용 지도와 논술 지도의 연계성 강화

관련 교육과정

'지식의 정의'는
과학적 방법

더 읽을 거리

독해 훈련의 읽기 자료 내용과 관련된 다른 읽기 자료 (유사한 관점이나 반론 등을 담은 글)를 통해 해당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읽기 자료와 해제로 구성.

- 논술 내용의 심화, 확장, 정리
- 논술할 내용의 생성, 조직 훈련의 밑거름.

더 읽을 거리

'국가의 정의'를 말하며
다른 바 무

논술 연습

실제 논술 과제를 제시하고 해당 과제의 논제 분석, 제시문 분석, 글쓰기 방향 및 개요, 예시 답안 등을 제공하여 논술 쓰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

제시문 (가)는 과학이 대두한
근대사회의 지식기

논술 연습

참고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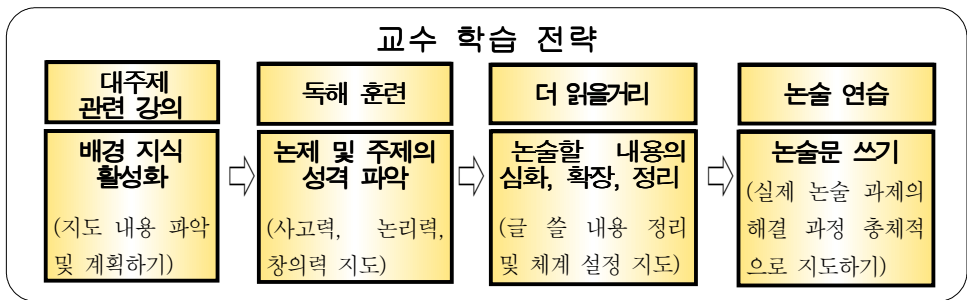
해당 대주제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문헌 등의 자료 소개

- 해당 대주제에 제시된 읽기 자료들의 출처 제공
- 교사가 대주제와 관련하여 알아야 할 기본서 제공

참고 문헌

마약사 약으로 이근우·전주
이근우

이 책의 구성과 효율적 사용 방법을 참조하여, 교사는 논술 지도 시 이 책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연구를 진행할 때 논술 및 면접의 교수 학습에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가 시발점이 되어 앞으로 논술 및 면접 교육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실제 논술 교수 학습 현장에서 이 책자가 유용하게 사용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차 례

◆ 1부 논술 ◆

I. 논술의 개념과 특징	2
1. 논술의 개념	2
2. 논술과 지식	11
3. 논술과 사고	17
4. 논술과 논증	27
5. 논술과 교육과정	33
II. 논술 문제의 유형과 특징	41
1. 분류 기준	41
2. 유형별 접근 방식	44
III. 논술 방법	72
1. 논술 문제 분석	72
2. 글쓰기 방법	81
3. 우수 답안 사례 분석	104

IV. 논술 지도	111
1. 첨삭 지도의 특징과 종류	111
2. 첨삭 지도의 절차	112
3. 첨삭 지도 요소	114
4. 첨삭 지도 사례	121
 V. 논술 평가	 171
1. 논술 평가의 원리	171
2. 논술 평가의 문제점	173
3. 논술 평가 방법	176
4. 논술 채점	181
5. 논술 채점시 유의 사항	190

◆ 2부 면접 ◆

I. 심층면접의 시행 배경	197
II. 평가로서의 심층 면접	199
1. 면접 시험의 이해	199
2. 심층면접의 성격	205
III. 심층 면접의 방법	210
1. 설득을 위한 논리성의 구성	210
2. 요소별 조건 구비	214
IV. 심층 면접 지도	219
1. 일반 원칙	219
2. 심층 면접 훈련 : 학생들을 위한 지침	227
<부록>	233

<표 차례>

<표 1> 논술에 필요한 능력	3
<표 2> 블룸의 정신 과정 분류 체계	15
<표 3> 고등 사고 능력의 7범주	17
<표 4> 사고의 7범주와 창의성의 두 유형	20
<표 5> 비판적 글쓰기의 기본 구성	26
<표 6> 논술 교육과 교과와의 관계	35
<표 7> 총체적 평가 기준의 예시	178
<표 8> 분석적 평가 기준의 예시	180
<표 9> 서울대학교 논술 평가 채점 기준표	183
<표 10> 성균관대학교 논술 평가 채점 기준표	185
<표 11> SAT 논술 평가 채점 기준표	186
<표 12> ACT 논술 평가 채점 기준표	188

<그림 차례>

<그림 1> 논술의 과정	37
---------------------	----

1 논술

I. 논술의 개념과 특징

1. 논술의 개념

(1) 논술의 정의

논술(論述)이란 무엇일까? 단어의 사전적 의미만을 고려하자면, “**제시된 주제에 관하여 필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¹⁾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서술(敍述)은 글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도 할 수 있으므로,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논술은 글쓰기뿐만 아니라 말하기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말로 하는 서술은 ‘구술(口述)’이라는 용어를 따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논술’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글쓰기에 국한하여 사용되고 있다.

논술에 필요한 능력은 크게 **비판적 읽기 능력,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논리적 서술 능력**으로 나눌 수 있다.²⁾ 비판적 읽기란 반성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글을 읽는 것을 말하며, 창의적 문제해결이란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태도로 독창적인 해결책을 끌어내는 것을 말하며, 논리적 서술이란 근거를 제대로 설정하여 조직적으로 글을 구성하고 그것을 상황에 맞도록 설득력 있게 표현해내는 것을 말한다.

논술을 하기 위해서는 제시문을 비판적으로 읽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는 ‘논술에 주어진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 및 분석, 비판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치환될 수 있다. 제시문과 논제를 파악한 뒤에는 논술할 내용을 생성 및 조직해야 한다. 이 때에는 두 가지 능력이 요구되는데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심층적, 다각적, 독창적

1) 교육인적자원부, 2005년 8월 30일자 보도자료(학사지원과장 박용수 외) 5쪽. 『한컴 사전』에도 ‘논술(論述)’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어떤 것에 관하여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함. 또는 그런 서술.”

2) 논술에 필요한 능력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 비판적 읽기 능력과 논리적 서술 능력은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의 범주 안에 속하는데 비해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은 그 범주가 다르다는 점에서 이들의 위계나 범주화의 체계를 문제 삼을 수 있다. 글을 읽는 과정은 독자가 읽기 상황에서 자신에게 부딪힌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며, 글을 쓰는 과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사실상 비판적 읽기 능력이나 논리적 서술 능력도 문제해결 능력으로 볼 수 있다. 논술에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으로 논의를 전개할 수 있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 서술 능력이 그것이다.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은 자신의 주장이나 논거에 대한 반론, 가정, 전제, 함축 등을 고려하여 논지를 심층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가, 발상이나 관점을 전환하여 여러 개념이나 가능한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암묵적으로 가정된 전제 등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논지를 다각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가, 문제를 독창적으로 통찰하고 새로운 관점, 주장, 논거 등을 통해 논지를 독창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가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논리적 서술 능력은 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에 대한 타당한 논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 글이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짜여 있어서 일관성이 유지되면서 논리적 비약은 없는가 등과 같은 물음으로 구체화된다. 논술할 내용을 생성 및 조직한 뒤에는 이를 적절하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는데, 이 또한 논리적 서술 능력에 속한다. 이는 적절한 어휘나 자연스러운 문장을 사용하고 적절한 비유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맞춤법, 원고지 사용법 등 포함)와 같은 물음으로 치환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논술에 필요한 능력

논술 과정	필요한 능력	
	종류	각 능력에 대한 설명(혹은 예)
제시문 읽기	비판적 읽기 능력	논술에 주어진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 및 분석, 비판할 수 있는가
논술할 내용 생성 및 조직하기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심층적, 다각적, 독창적으로 논의를 전개할 수 있는가
	논리적 서술 능력	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에 대한 타당한 논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 글이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짜여 있어서 일관성이 유지되면서 논리적 비약은 없는가
표현하기	논리적 서술 능력	적절한 어휘나 자연스러운 문장을 사용하고 적절한 비유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맞춤법, 원고지 사용법 등 포함)

“비판적으로 글을 읽는 능력”은 주로 이해·분석력에 상응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하는 능력”은 주로 창의력에, 그리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은 주로 논증력과 표현력에 상응한다. 물론 실제 비판적 읽기에는 이해·분석력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논증력, 창의력 등도 활용된다. 그렇지만 다른 능력보다는 이해·분석력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창의적 문제해결이나 논리적 서술하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논술에 필요한 능력을 고려하면 논술은 “**비판적 읽기와 창의적 문제 해결하기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 글쓰기(서술하기)**”라고 간략히 재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논술에 대한 이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논술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주어진 지문 등에 대한 이해력, 분석력, 비판적 사고력, 사고 내용에 대한 논리적 서술력 등 종합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것”³⁾이라는 설명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2) 논술에 속하는 글쓰기의 종류

논술은 글쓰기의 일종이므로, 글쓰기의 종류를 살펴보고 논술에 해당하는 글쓰기와 그렇지 않은 글쓰기를 알아보는 것은 논술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글쓰기는 크게 그 성격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시, 소설 등 문학작품류의 글쓰기인 창작적 글쓰기(creative writing), 설명문이나 해설문류의 글쓰기인 해명적 글쓰기(expository writing)⁴⁾, 논설문류의 글쓰기인 비판적 글쓰기(critical writing)가 그것이다.

해명적 글쓰기와 비판적 글쓰기는 설명문과 논설문을 생각하면 구별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설명문은 기계 조작 방법을 설명하는 매뉴얼 같은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이고, 논설문은 주장과 그 정당화 근거로 구성된 논증적 글인 신문 사설 같은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기계 조작 방법에 대한 설명은 주장이나 논증을 포함하지

3) 교육인적자원부, 위와 같은 보도자료.

4) ‘expository writing’에 대한 번역어는 ‘해명적 글쓰기’보다는 ‘해설적 글쓰기’가 더 적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해설적 글쓰기’와는 달리 ‘해명적 글쓰기’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낯설기 때문이다. 그러나 expository writing(해명적 글쓰기)에는 설명문과 해설문이 속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새로운 용어의 도입이 불가피하였다. ‘**해명적 글쓰기**’를 ‘**해설·설명적 글쓰기**’를 줄인 용어라고 이해를 해도 될 것이다.

않는다는 점에서 이 둘은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여기에 해설문이 끼어들면 상황은 갑자기 복잡해진다. 해설문은 설명문과 논설문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주로 인과적 설명이나 연역-법칙적 설명의 형태를 띠고 있다.⁵⁾ 개념에 대한 설명이나 기기조작에 대한 설명 형태를 담고 있는 해명적 글쓰기(설명문)와는 달리 인과적 설명이나 연역-법칙적 설명 형태를 담고 있는 해명적 글쓰기(해설문)는 비판적 글쓰기(논설문)와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설명문과는 달리 해설문과 논설문은 둘 다 모두 추리(reasoning)를 그 근간으로 하는 글쓰기이기 때문이다. 즉, 해설문과 논설문은 그 특성상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 때문에 ---이다.”를 그 골격으로 가지고 있다.⁶⁾

해설문과 논설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예를 통해 살펴보자. “2백년 묵은 저 고목나무가 쓰러진 것은 벼락 때문이다”는 논증이 아니라 인과적 설명이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어떤 주장과 그 주장에 대한 정당화 근거가 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2백년 묵은 저 고목나무가 쓰러진 사실(피설명항)에 대한 인과적 설명으로서 벼락(설명항)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으로 글을 썼다면, 그것은 해설문일 것이다. 그러나 “저 고목나무가 새까맣게 탄 것을 보니 벼락을 맞은 것이 틀림없다”는 논증이다. 왜냐하면 고목나무가 벼락을 맞았다는 주장과 그 주장에 대한 근거로 고목나무가 새까맣게 탔다는 것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으로 글을 썼다면, 그것은 논설문이 된다. 그러나 인과적 설명과 논증은 모두 추리(reasoning)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즉, 둘 다 분석해 보면 “A 때문에 B이다”의 형태를 띠고 있다.⁷⁾ 위의 예에서, 인과적 설명은 “벼락 때문에 저

5) 연역-법칙적 설명 모델(Deductive-Nomological Model of Explanation)에 관한 예를 들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자: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는다. 왜 그럴까? 어제 밤에 기온이 매우 내려가 수도 파이프가 언 모양이구나.” 이것은 분명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는 까닭에 대한 설명을 의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이 추리의 형태로 구조화 될 수 있다.

- (1) 기온이 매우 내려갈 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수도 파이프가 언다.
- (2) 어제 밤에 기온이 매우 내려갔다.
- (3) (수도 파이프가 얼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4) 그러므로 수도 파이프가 얼었다.
- (5) 수도 파이프가 얼면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는다.
- (6) 따라서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는다.

6) “A 때문에 B이다.”는 “A이다. 그러므로 B이다.” 또는 “B이다. 왜냐하면 A이기 때문이다.”로 고쳐서 생각해도 무방하다.

7) ‘추리’는 “A 때문에 B이다” 또는 “B이다. 왜냐하면 A이기 때문이다”와 같은 형태에서 볼 수 있듯이 “적절한 이유를 연결고리로 진행되는 사고의 연쇄”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추리’는

고목나무가 쓰러졌다.”의 형태를 띠고 있고, 논증은 “저 고목나무가 새까맣게 탔기 때문에 벼락에 맞은 것이 틀림없다.”의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개념에 대한 설명이나 기기조작에 대한 설명 형태를 담고 있는 글은 ‘설명문’으로 인과적 설명이나 연역-법칙적 설명 형태를 담고 있는 글은 ‘해설문’으로 구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설명문’, ‘해설문’, ‘논설문’의 3종류로 구별했을 때, ‘설명문’과 ‘해설문’의 구별보다는 ‘해설문’과 ‘논설문’의 구별이 더 어려울 경우가 많다.

논리적 서술을 근간으로 하는 논술은 이와 같이 추리를 기반으로 하는 논설문이나 해설문의 형태를 주로 띠게 되고, 부수적으로 개념적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문의 형태를 띠게 된다. 따라서 논술은 비판적 글쓰기와 해명적 글쓰기를 아우르는 글쓰기 형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주로 어떤 주장을 제기하고, 왜 그 주장이 정당한가 하는 것을 논증하거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예측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글쓰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⁸⁾

인문·사회 논술뿐 아니라, 과학·공학 논술도 보통 비판적 글쓰기나 해명적 글쓰기 또는 이 두 글쓰기의 혼합 형태를 띤다. 특히 실험 관찰과 관련된 과학 논술은 이 두 글쓰기의 혼합 형태를 주로 띠게 되는데, 실험 도구나 방법 또는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해명적 글쓰기의 형태가 그리고 실험 결과를 평가하는 대목에서는 비판적 글쓰기의 형태가 주도적으로 나타난다. 또 수학·공학적 수식과 관련된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된 명제들의 집합”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이에 반해, ‘논증’은 “주장과 정당화 근거로 구성된 명제들의 집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논증은 모두 추리이나 모든 추리가 논증인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인과적 설명은 논증은 아니지만 추리의 일종이다. 그리고 추리(reasoning)와 대비되는 개념은 연상(association)이다. 추리는 이유나 근거를 연결고리로 하여 진행되는 사고이지만, 연상은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나 이미지를 연결고리로 하여 진행되는 사고이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기호논리학에서는 논증과 인과적 설명의 구별이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호논리학에서는 기호로 된 전제와 결론이 있을 뿐이지, 그 기호로 된 결론이 주장인지(이 경우, 논증이 됨) 사실에 대한 기술인지(이 경우, 인과적 설명이 됨)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 기호논리학에서는 추리와 논증의 구별 또한 별 의미가 없게 된다.

- 8) 흔히들 설명 방식에는 지정, 비교와 대조, 분류와 구분, 예시, 정의 등이 있다고 말한다.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나 다소 오도적인 측면이 있다. 그것은 이러한 방식들이 설명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논증에도 쓰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비교를 이용한 논증 방식의 하나가 바로 유비 논증이고, 구분을 통한 논증 방식의 하나가 밀의 방법이다. 그리고 예를 통한 논증을 예증이라고 부른다. 또 은밀한 재정의의 오류와 같은 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정의를 통해 논증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정, 비교와 대조, 분류와 구분, 예시, 정의” 등은 설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논증 등에도 사용되는 보다 보편적인 사고의 형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들을 논증과 설명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용의 글들은 주로 그 수학·공학적 수식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작업이 주도적으로 진행되므로 보통 해명적 글쓰기의 형태를 띤다.

결국 논술에서 제외되는 것은 시, 소설 등 문학작품류의 글쓰기인 창작적 글쓰기(creative writing)인 셈이다. 물론 이것이 논술의 제시문으로 문학작품을 사용할 수 없다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사고의 단초로서 문학작품은 훌륭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제시문으로 문학작품을 사용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바람직한 일이다. 창작적 글쓰기가 논술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단지 논술 시험을 치루면서 시나 소설과 같은 문학작품을 직접 창작하게 하는 것은 논술의 본래 성격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앞선 설명에 따르면 논술이 창의력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논술에서는 창의력이 중시되는 창작적 글쓰기가 그 근간을 이루어야하지 않는가? 그에 대한 궁금증은 창의력에도 발산적 창의성과 수렴적 창의성 2종류가 있다는 것을 다루고 있는 3절 ‘논술과 사고’에서 풀릴 수 있을 것이다.

(3) 일반형 논술이란 무엇인가?

앞서 논술을 “비판적 읽기와 창의적 문제 해결하기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 글쓰기”라고 간략히 재정의한 바 있다. 그리고 논술은 논설문, 해설문, 설명문의 형태를 포괄하는 글쓰기로서, 주로 어떤 주장을 제기하고, 왜 그 주장이 정당한가 하는 것을 논증하거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예측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글쓰기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하였고, 주요 대학들이 2008년부터 실시하겠다고 하는 ‘일반형 논술’이란 무엇인가?

그동안 논술고사가 훌륭한 도입취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암기중심의 죽집계식 논술대비 교육에 대해 부분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보여주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형 논술고사는 바로 이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중등교육의 바람직한 교육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반형 논술고사는 학생들의 수학능력을 비교적 정확히 측정해 낼 수 있어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으로서는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일반형 논술의 강조점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암기를 통한 지식 중심 교육에서 사고력 중심 교육**으로, 둘째는 **결과 중심적 교육에서 과정 중심적 교육**으로, 셋째는 **교과 내 칸막이식 교육에서 교과영역이 소통하는 학제간(interdiscipline) 교육**으로의 변혁이 그것이다. 이 세 요소는 따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엮여 하나의 통합된 구조물로 작동하고 있다. **사고력 중심, 과정 중심, 영역전이 중심**이란 이 세 요소는 논술고사의 도입 취지일 뿐만 아니라 교육 일반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반형 논술’이란 용어는 새로운 특이한 형태의 논술을 도입하겠다는 의도로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논술의 원래 근본 취지에 충실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도입된 용어일 뿐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하고 있는 ‘논술고사 여부의 판단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데,⁹⁾ 이는 일반형 논술의 특징과 부합한다.

- (1) 답안 유형이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가? 단답형 또는 선다형으로 되어 있는가?
- (2) 이해력, 사고력, 표현력, 창의력 등 종합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것인가? 단순히 (국, 영, 수 등 특정교과의) 지식을 측정하는 것인가?
- (3) 논리추론 등 과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단순 암기 위주의 결과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 (4) 질문을 해결해 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것으로 다양한 답이 가능한 것인가? 정형화된 하나의 답을 요구하는 것인가?
- (5) 주제에 대한 주장, 의견 진술의 전개 과정을 평가하는 것인가? 지식의 숙지 여부를 주로 평가하는 것인가?
- (6)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이해한 학생들이 풀 수 있는 수준의 것인가? 고교 교육과정 수준 이상의 지식수준을 요구하는 것인가?

항목 (1)은 일반형 논술이 글쓰기 시험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필수적으로 지켜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항목 (2), (3), (5)는 일반형 논술이 **암기를 통한 지식 중심 교**

9) 교육인적자원부는 논술고사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유형(예시)으로 다음 4가지 항목을 들고 있다. ① 단답형 또는 선다형 문제, ② 특정 교과의 암기된 지식을 묻는 문제, ③ 수학과학과 관련한 풀이의 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 ④ 외국어로 된 제시문의 번역 또는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

육에서 사교력 중심 교육으로의 변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형 논술의 성격에 부합한다. 항목 (3), (4), (5)도 일반형 논술이 결과 중심적 교육에서 과정 중심적 교육으로의 변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부합한다. 위의 항목들 중에는 일반형 논술의 한 특징인 교과 내 칸막이식 교육에서 교과영역 간의 소통교육으로의 변혁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항목은 없지만 항목 (2), (4)가 암묵적으로 이에 부합한다. 항목 (6)은 일반형 논술의 지향점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중등학교 교육 현장과 대학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 하에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결과이다. 대학에서는 현행 교과서에서 선택한 제시문이나 현행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주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학교에서 중등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학생 스스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논술 문제를 출제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논술고사에 대한 준비가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준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 간의 연계 관계에 유념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등교육 현장에서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과 기계적인 문제풀이식 반복학습을 통한 기존의 입시위주의 교육으로부터 탈피하고,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독서, 토론, 맞춤형 글쓰기(예컨대, 맞춤형 첨삭지도) 위주의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여, 지식 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힘을 기울일 수 있는 교육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반형 논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전과정의 교과서가 논술 준비의 가장 기본적인 교재이며, 논술 주제는 국어나 작문뿐만 아니라 전 과목에 걸쳐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과서의 내용을 단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교과서가 다루는 주제에 대하여 여러 형태의 독서, 토론, 글쓰기를 통해 다양한 시각과 깊이 있는 접근 방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울러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책을 읽고 생각하고 쓰고 토론하는 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교사는 그 과정이 분석적이고 논증적임과 동시에 보다 다각적이고 심층적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일반형 논술고사 개념이 도입되기 이전, 기존의 논술고사 대비용 논술교재들은 사교력 중심, 과정 중심, 영역전이 중심이라는 논술의 근본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체적 접근 방법을 알고 있지 못해, 주로 배경지식에 대한 암기를 중심으로 하는 논술대비 교육으로 학생들을 인도하였다.

논술교재들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의 영역에서 논술의 주제나 소재로 채택할 만한 내용들을 뽑아 그것들에 대한 배경지식을 알기 쉽도록 요약 정리해주고, 학생들은 논술교재에 일목요연하게 요약 정리된 내용을 요령껏 암기하여 유사한 주제의 제시문과 논제가 시험에 출제되었을 때 암기된 내용을 대충 짜맞추어 원고지의 칸을 메우는 결과 중심적 방식으로 논술고사에 대비를 해왔다.

논술 교재들은 대부분 논리적 사고력, 상상력, 표현력 등이 논술에 필요하다는 간략한 설명을 붙인 후, 배경 지식들을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정리하여 알려주고, 약간의 첨삭 예제들을 싣고 있다. 그래도 조금 나은 책은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논리적 내용을 일부라도 추가하고 있는 책들이다. 그렇지만 사고력을 위한 논리적 내용을 추가하고 있는 책들마저도 효과적인 논술 학습법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논술과 논리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주지 못하고, 논술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논술 내용대로, 논리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논리 내용대로 따로 따로 암기할 것을 은연중에 권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암기를 통한 논술 훈련이 완전히 나쁘기만 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유사한 맥락에도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된 응용능력을 제대로 길러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이처럼 **암기된 지식 중심, 결과 중심, 개별교과 중심**이라는 기존의 논술 교육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일반형 논술 개념이다.

지금까지는 결과 중심적인 평가만을 하여 암기를 통한 점수 획득이 어느 정도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종적으로 쓰여진 글뿐만 아니라 그 최종적인 글에 이르는 중간과정까지도 평가를 하여 암기를 통한 점수 획득을 가급적 막고 비판적-창의적 사고에 대한 평가를 보다 더 중시해야 한다. 실제로 일반형 논술 문제는 사고 과정을 중시하기 위해, 하나의 논제를 주고 그에 의거하여 최종 결과로 씌어진 글 하나만을 평가하는 기존의 단수 논제 형태의 문항 구성 방식을 지양하고 중간의 사고 과정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 논제도 함께 출제하는 복수 논제 형태의 문항 구성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학생들이 암기된 내용을 대충 짜맞추어 원고지의 칸을 메우는 결과 중심적 방식으로 논술고사에 대비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2. 논술과 지식

사고력 중심, 과정 중심, 영역전이 중심이라는 일반형 논술의 3가지 특성을 보다 선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블룸의 정신과정 분류>, <지식의 2가지 유형>, <학습의 3단계> 이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블룸의 정신과정 분류> 이론은 암기를 통한 **지식 중심 교육에서 사고력 중심 교육으로**의 변혁이 뜻하는 바를, <지식의 2가지 유형> 이론은 **결과 중심적 교육에서 과정 중심적 교육으로**의 변혁이 뜻하는 바를, 그리고 <학습의 3단계> 이론은 **교과 내 칸막이식 교육에서 교과영역 간의 소통교육으로**의 변혁이 뜻하는 바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학습의 3단계 이론부터 살펴보자.

(1) 학습의 3단계

학습에는 일반적으로 3단계가 있다.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암기를 통한 학습 단계이다. 이 암기를 통한 학습 단계는 동일한 문제가 동일한 상황에서 반복해서 발생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획득하게 하여준다. 그러나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그 지식을 응용하여 활용하기가 어렵다. 원리에 대한 이해의 결여로 응용력이 없는 지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나온 것이 그 다음 단계로 원리 이해를 통한 학습이다. 어떤 내용을 단순히 암기하여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반성적 사고 속에서 원리 이해를 통해 지식을 획득하기 때문에, 그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동일계 영역에 속한 유사 유형의 문제의 경우에는 비록 그 문제가 다르다 할지라도 응용을 통해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원리 이해를 통한 학습 단계에서는 그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동일계 영역에서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식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원리 이해를 통한 학습에 의해서는 영역 전이적 지식을 획득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것은 설령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한 두 문제가 같은 원리에 의해서 풀릴 수 있는 성격의 문제들이라 할지라도, 영역이 바뀌면 새로운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가 바로 그 원리에 의해 풀릴 수 있는 성격의 문제인가 또 그 문제에 어떻게 원리를 적용해야 실제로 풀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해내기가 결코 쉽지 않

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 단계의 학습은 영역 전이적 통찰력(적용력)을 키우는 학습으로, 이러한 영역 전이적 통찰력은 능동적인 반성적 체화를 통한 학습에 의해 획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영역 전이적 통찰력은 여러 영역에 걸친 유사 응용문제 풀이를 반성적 사고 속에서 능동적으로 반복 수행함으로써 체화 학습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¹⁰⁾

사고력 교육의 일차적 목표는 2단계 학습이나,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것은 2단계가 아니라 바로 이 3단계 학습인 능동적인 반성적 체화를 통한 영역 전이적 통찰력(적용력) 학습인 것이다. 원리 이해가 일차적으로 중요하기는 하나, 단순한 원리 이해만으로는 지식의 활성화 값을 극대화시켜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고 능동적인 반성적 원리 체화의 단계에까지 도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반성적 원리 체화의 정점은 궁극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습득한 원리를 전혀 다른 새로운 영역에다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영역 전이적 통찰력(적용력)의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단순히 일반화된 지식이나 원리의 이해(2단계 학습)만을 가지고는, 활용 가능성이 극대화된 지식을 산출해 내지는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를 하나 살펴보자. 한국의 고등학생이라면 10여년 동안 덧셈을 공부하여 왔기 때문에, 덧셈의 원리를 모르는 학생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복잡한 계산 문제라도 그 계산 결과가 틀릴 수는 있을지언정 계산 문제를 풀지 못하겠다고 하는 학생은 거의 없을 것이다. 덧셈 문제가 같은 영역에 속한 유사 유형의 문제일 경우 아무리 복잡한 계산 문제일지라도 덧셈의 원리를 확장 적용하여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체득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일한 덧셈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지만 다음과 같이 기호를 사용하는 다소 이질적인 영역의 문제가 주어지면 상황이 전혀 달라진다. 영역 전이를 할 수 없는 원리 이해는 결코 창의적인 사고에까지 다다를 수가 없는 것이다.¹¹⁾

10) 이것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다음 절에서 ‘수렴적 창의성’과 관련하여 주어진다.

11) 영역 전이에는 가까운 영역 전이(near transfer)와 먼 영역 전이(far transfer)가 있다. 단일 교과 내에서의 영역 전이는 가까운 영역 전이라 할 수 있고, 교과 간의 영역 전이는 먼 영역 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예로 주어지고 있는 덧셈 문제는 가까운 영역 전이를 보여주는 문제이다.

【문제】 다음은 덧셈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다음 문제에서 각 영어 알파벳 문자는 0에서 9사이(0과 9 포함)의 수를 나타냅니다. 같은 문자는 같은 수를 나타내고, 다른 문자는 다른 수를 나타냅니다. 각 알파벳 문자가 무슨 수를 나타내는지 찾아보세요.

$$\begin{array}{r} \text{E A} \\ + \text{E D} \\ \hline \text{A D A} \end{array}$$

실제로 역사적인 창의적 행위를 가능케 해주었던 핵심 요소가 영역 전이적 통찰력(적용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들은 역사상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 물이 넘치는 것을 처음으로 본 사람이 아니며,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처음으로 본 사람이 아니다. 또 주전자에서 증기가 소리쳐 나오는 것을 와트가 처음 본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태들의 함축이나 숨은 전제 등을 얼마나 정확하고,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파악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능력은 높은 영역 전이적 사고 능력이며, 이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했던 창의적 통찰을 가능케 하였던 것이다.

(2) 지식의 2가지 유형

전통적인 인식론에서는 지식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왔다. ‘어떻게’에 관한 지식(knowing how)과 ‘어떠함’에 관한 지식(knowing that)의 구별이 그것이다. 전자는 예컨대 덧셈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앎 같은 것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적 지식으로도 불리며, 후자는 예컨대 “지구는 둥글다”에 대한 앎과 같은 것으로 명제적 지식으로도 불린다. 이러한 구별은 심리학자들이 하는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과 서술적 지식(declarative knowledge) 사이의 구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어떻게’에 관한 지식은 전형적으로 절차적 지식의 형태로 나타나며, ‘어떠함’에 관한 지식은 대부분 서술적으로 기술된다. ‘어떻게’에 관한 앎인 절차적 지식의 예는 자전거를 어떻게 타는지를 앎이며, ‘어떠함’에 관한 앎인 서술적 지식의 예는 자

전거는 두 바퀴를 가졌고 또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만 한다는 것을 아는 것과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다른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에 대한 지식을 가짐이 없이도 그것과 관련된 ‘어떠함’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함’에 대한 지식을 가짐이 없이도 그것과 관련된 ‘어떻게’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예를 생각하여 보자. 한 초등학생 A는 산수 덧셈 문제를 외어서 100점을 맞았고, 다른 초등학생 B는 덧셈의 풀이 절차를 익혀서 100점을 맞았다. 이 경우, 앞 학생 A는 명제적 지식을 이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고, 뒤 학생 B는 절차적 지식을 이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셈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실제적 성취(actual performance)에 있어서는 A와 B가 같으나, 잠재적 능력(potential competence)에서는 A보다 B가 더 우수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응용문제 풀이에 있어서는, 그것이 동일 영역 내의 응용문제이든 다른 영역에 속한 응용문제이든, 풀이 절차를 익혀 얻어진 잠재적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실제적 성취 결과만 보아서는 그 학생의 진정한 능력을 알 수 없고 그 과정까지를 보아야 잠재적 능력까지를 포괄하는 진정한 능력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과정 중심 교육이라는 것은 열린 가능성을 키워주는 잠재 능력 중심의 교육인 것이다. 따라서 일반형 논술 교육은 명제적 지식(knowing that)이나 서술적 지식에 대한 학습보다는 문제해결 방식(knowing how)이나 절차적 지식에 대한 학습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실제적 성취보다는 잠재적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블룸의 정신과정 분류

지식과 사고력에 대한 대비는 블룸(Bloom)의 정신과정 분류 체계에서 분명히 파악될 수 있다. 고등사고 영역에 대한 블룸의 분류는 아래와 같은 블룸의 인지 영역에 대한 교육 목표 분류에 잘 반영되어 있다.¹²⁾

12) Bloom, B. S. et al (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handbook 1: Cognitive domain*. New York: Longman.

<표 2> 블룸의 정신 과정 분류 체계

기초정신 과정	지식 (knowledge)		- 개별적 구체적 사상에 관한 지식 - 방법과 수단에 관한 지식 - 보편적 추상적 사상에 관한 지식
	지적 기량 (intellectual skill)	이해력(comprehension)	- 의미 파악¹³⁾ - 번역/해석 - 외삽/내삽
고등정신 과정		적용력(application)	- 추상 개념의 적용 - 방법 및 원리의 적용 - 이론 및 체계의 적용
		분석력(analysis)	- 요소의 분석력 - 관계의 분석력 - 조직원리의 분석력
		종합력(synthesis)	- 독특한 의사전달의 구안 - 계획 및 시행 절차의 구안 - 추상 관계의 도출
		평가력(evaluation)	- 내적 증거에 의한 판단 - 외적 증거에 의한 판단

블룸은 위와 같이 정신 과정을 크게 기초정신과정과 고등정신과정으로 이분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지식과 이해력은 기초정신과정에 속하고, 적용력, 분석력, 종합력, 평가력은 고등정신과정에 속한다. 그리고 지식, 이해력, 적용력, 분석력, 종합력, 평가력의 여섯 범주는 복잡성의 원칙(principle of complexity)에 따라 위계적 순서를 가지고 있다. 복잡성의 원칙이란 여러 가지 지적 영역의 행동 목표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되는 지적 능력 및 작용으로 보아 가장 단순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것의 순으로 조직되는 것을 지칭한다. 지식 없는 이해가 있을 수 없고, 무엇을 종합하자면 그에 필요한 지식, 이해력, 분석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복잡성의 원칙은 지적 행동의 습득 과정에 비추어 보아서도 가장 학습하기 쉬운 것에서부터 가장 학습하기 어려운 단계로 분류하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블룸의 이러한 분류 체계는 매우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필자도 매우 설득력 있는 분류 체계라고 인정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룸의 이러한 분

13) 원래 블룸의 이해력에 대한 설명에는 의미 파악과 내삽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번역, 해석, 외삽만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필자가 이 영역에 의미 파악과 내삽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추가하였다.

류 체계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중 평가력과 적용력에 대한 것만 언급하여 보자.

첫째, 평가력은 이해력, 분석력, 종합력과 같은 층에 속하는 능력이 아니라 독자적인 새로운 층을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해력에 대한 평가, 분석력에 대한 평가, 종합력에 대한 평가와 같이, 특정 사고 능력에 대한 상위 능력의 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⁴⁾ 우리는 이해를 잘 하는가? 분석을 잘 하는가? 종합을 잘 하는가? 등등을 아주 자연스럽게 물을 수 있다.

둘째, 적용력 또한 이해력, 분석력, 종합력과 같은 범주의 능력이 아니라 평가력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새로운 층을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해의 맥락에서 개념, 원리, 이론의 적용을 잘 하는가? 분석의 맥락에서 개념, 원리, 이론의 적용을 잘 하는가? 종합의 맥락에서 개념, 원리, 이론의 적용을 잘 하는가? 등등을 물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떤 내용을 이해하는데 개념, 원리, 이론을 잘 적용하는가? 어떤 내용을 분석하는데 개념, 원리, 이론을 잘 적용하는가? 어떤 내용을 종합하는데 개념, 원리, 이론을 잘 적용하는가? 등등을 아주 자연스럽게 물을 수 있다. 더구나 적용 능력은 흐름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단순한 하위 수준의 지적 기량만은 아니다. 원리나 이론 및 체계를 새로운 분야에 영역을 달리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고차적인 영역 전이적 통찰력을 요하는 능력인 것이다.

셋째, 위에서 적용력과 평가력을 제외할 경우, 고등사고능력으로 분류되는 것은 분석력과 종합력만이 남는데, 이 분석력과 종합력은 좀더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이 두 능력을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력(分析力), 추론력(推論力), 종합력(綜合力), 대안력(代案力)으로 나누는 것이 적합하다. 이 능력들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이 절에서는 사고력 중심, 과정 중심, 영역전이 중심이라는 일반형 논술의 3가지 특징을 지식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제 나머지 절들에서는 논술에 대해 앞서 내렸던 정의인 “비판적 읽기와 창의적 문제 해결하기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 글쓰기”를 사고 개념 및 논증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14) 물론 평가력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평가력에 대한 평가는 이해력/분석력/종합력의 평가와는 다른 층위를 이룬다고 보아야 한다.

3. 논술과 사고

(1) 고등사고능력의 7범주

단순 기억(memory) 능력이나 상기(recall) 능력과 같은 저차적 사고 능력을 제외한 고차적 사고 능력은 아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7범주로 구별될 수 있다. 수리성 방향의 최고 능력으로 기호적 사고가 있으며, 예술성 방향의 최고 능력으로 상징적 사고가 있다. 기호적 사고는 수렴적 사고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으며, 상징적 사고는 발산적 사고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두 사고능력은 매우 중요한 사고능력이기도 하나, 보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고 능력에 관한 논의를 할 때는 그 차지하는 비중이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표3> 고등 사고 능력의 7범주

비판-창의적(critico-creative) 사고 (느슨한 의미의 비판적 사고, 느슨한 의미의 창의적사고)						
<== 수리성방향	비판적 사고					=> 예술성방향
Formal Symbolic Thinking 기호적 사고	Analytical Thinking 분석적 사고	Inferential Thinking 추론적 사고	Synthetical Thinking 종합적 사고	Alternative Thinking 대안적 사고	Divergent Thinking 발산적 사고	Material Symbolic Thinking 상징적 사고
	개념적 분석 텍스트 분석	분석적 추론 : 연역 종합적 추론 : 귀납	귀추 논리 퍼즐 의사 결정 상황 추리	관점/발상전환 대안 창안, 시야/시계확장 재정의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광의의 논리적 사고 (수렴성)					협의의 창의적 사고 (발산성)	

수렴적 사고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기호적 사고**의 대표적 예로는 형식 논리학이나 수리 논리학적 업적 등과 관련된 예들을 들 수 있다. 산술의 완전하고 일관적인 형식화는 불가능하다는 산술의 불완전성 정리를 증명한 괴델이나, 수학원리(Principia Mathematica)를 쓴 러셀과 화이트헤드 등이 모두 이러한 기호적 사고 능력을 잘 발휘하여 인류에 기여한 예들이다.

발산적 사고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상징적 사고**는 실증적 방식의 사고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형상화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세계, 내면(內面), 관념 등을 상징·우의(寓意)·표징 등의 수법으로 이미지의 매개를 통해 발전 전개시키고 전달하는 사고 기능을 말한다. 상징적 사고의 대표적 예로는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들 수 있다. 훌륭한 예술가들은 상징의 형태로 담겨있는 진선미성의 의미를 파악해내고 표현해냄으로써 인류에 기여한다. 예술가들은 무절제한 상상력이 아닌 상징적 상상력을 통해 훌륭한 작품들을 창조해내는 것이다. 플라톤은 ‘창의성’을 상징하는 뮤즈 여신들의 후예인 시인이나 비극작가들을 자신의 이상국가에서 추방하였다가 후에 다시금 자신의 이상국가 속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것은 플라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상징(symbolism)이 그 본성상 상상적 형식 속에 가려져 있는 진리를 파악해 내는 통로일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보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의 사고 능력인 비판적 사고 능력에는 이 기호적 사고와 상징적 사고와 같은 특수 사고 능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물론 비판적 사고 능력에 대한 훈련과 계발이 기호적 사고나 상징적 사고 능력의 계발에 도움이 안 된 다거나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그러한 특수 능력들에 대한 훈련과 계발의 핵심적인 통로가 바로 비판적 사고 훈련과 계발일 것이다. 그러나 비판적 사고 자체가 바로 기호적 사고나 상징적 사고를 의미하거나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사고력의 7범주 중 기호적 사고와 상징적 사고의 2개 범주를 뺀 나머지 5개 범주는 보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의 사고 능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의 사고능력 5개 범주 중에서 발산적 사고를 뺀 나머지 4개 범주 즉 분석적 사고, 추론적 사고, 종합적 사고, 대안적 사고가 (표준적 의미의) 비판적 사고의 범주에 포괄되는 사고 능력이라 할 수 있다.

Guilford¹⁵⁾에 따르면, **발산적 사고**의 범주에는 유창성(fluency), 융통성(flexibility), 독창성(originality), 정교성(elaborativeness) 등의 요소가 포함된다. 유창성이란 생성해낸 아이디어의 수를 말하며, 융통성이란 아이디어들이 속하는 범주의 수 즉 다양성을 말하며, 독창성이란 남들이 생성해내지 못한 비범한 아이디어를 생산해 내는 것을 말하며, 정교성이란 아이디어를 상세하게 잘 발달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15) Guilford, J. P. (1956). Structure of intellect, *Psychological Bulletin*, 53, 267-293쪽.

벽돌과 같은 물건의 용도를 주어진 시간 내에 가능한 한 많이 나열해 볼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대한 반응의 수가 많고(fluent), 다양하고(flexible), 독특하고(original), 정교한(elaborative) 것일수록 창의적이라고 본다.

분석적 사고는 이해력과 분석력을 모두 포괄하는 사고기능으로 이해력에는 의미 파악능력, 번역 능력, 해석 능력, 외삽내삽 능력 등이 포함되며, 분석력은 이해력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있는 기능으로서, 자료를 그 구성성분으로 분해하고, 그 부분간의 관계와 그것이 조직되어 있는 방식을 발견해 내는 능력이다.¹⁶⁾ **추론적 사고**(또는 논증적 사고)는 연역 추론 능력과 귀납 추론 능력으로 구성되며, 어떤 주장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주어진 자료로부터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낼 줄 아는 능력을 말한다. **종합적 사고**는 여러 개의 요소나 부분을 전체로서의 하나가 되도록 묶는 능력이나 다양한 매개변수(parameter)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대안적 사고**는 주어진 사태에 대해 발상전환적 접근을 하거나, 시야의 지평을 확대하여 문제에 접근을 하거나, 보다 나은 대안을 창안해 낼 줄 아는 능력을 말한다. Torrance가 말하는 창의성 개념 중의 ‘재정의’가 바로 이 대안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종합적 사고와 대안적 사고는 ‘변증적 사고’란 이름으로 하나로 묶일 수 있다. 그것은 종합적 사고와 대안적 사고가 창의적 측면을 부분적으로 그 자체 속에 포함하고 있다는 공통점뿐 아니라, 변증적 사고의 핵심이 종합과 새로운 대안 추구라는 점에서 종합적 사고와 대안적 사고가 변증적 사고 아래 포섭될 수 있기 때문이다.¹⁷⁾

여기서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 개념의 아주 일상적인 다른 한 가지 사용에 대해 언급하고 넘어가자.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 개념이 아주 느슨하게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서로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판-창의적 사고(critico-creative thinking)’란 용어와 마찬가지로 전체 고등사고능력을 대표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 경우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는 마치 한 동전의 앞뒷면에 해당하는 셈이다. 다시 말해, 앞면의 모습을 강조하여 말하면 창의적 사고가

16) 엄밀하게 말해, 분석적 사고에 이해력을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블룸이 지적하였듯이, 이해력은 기초사고기량인 반면 분석력은 고등사고기량이다. 비록 이해력이 기초사고기량이라는 하지만 그 역할이 중대하기 때문에 고등사고능력을 논의하는 이 대목에서 분석적 사고에 포함시켜 논의하였다.

17) 비판적 사고 능력에 해당하는 4종류의 사고 기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http://logic.snu.ac.kr) 참조.

되고, 뒷면의 모습을 강조하여 말하면 비판적 사고가 된다.

(2)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성

논술에 대해 앞서 내린 정의인 “비판적 읽기와 창의적 문제 해결하기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 글쓰기” 속에는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논리적 사고의 3개념이 모두 포괄되어 있다. 여기서는 문제해결 맥락에서 말하는 창의적 사고란 무엇인지 그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자.

앞서 창의성 개념이 아주 포괄적으로 느슨하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비판적 사고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판-창의적 사고(critico-creative thinking)’란 의미의 전체 고등사고능력을 대표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창의성’을 전체 고등사고능력 모두를 대표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받아들일 경우, 창의성은 수렴적 창의성과 발산적 창의성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기호적 사고, 분석적 사고, 추론적 사고, 종합적 사고, 대안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창의성이 수렴적 창의성이고, 발산적 사고와 상징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창의성이 발산적 창의성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종류의 창의성 중에서, 예술의 맥락에서 요구되는 창의성은 주로 발산적 창의성임에 반해, 과학의 맥락에서 요구되는 창의성은 주로 수렴적 창의성이다. 특히 이 수렴적 창의성이 바로 문제해결 맥락에서 중요하게 작동하는 창의성인 것이다.

<표4> 사고의 7범주와 창의성의 두 유형

↙ 수렴성방향	비판적 사고					↘ 예술성방향
기호적 사고	분석적 사고	추론적 사고	종합적 사고	대안적 사고	발산적 사고	상징적 사고
		연역, 귀납	변증적 사고		유창/융통/ 독창/정교성	
수렴적 창의성					발산적 창의성	
수렴성(비판성)					발산성(생산성)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수렴적 창의성이라는 개념이 의아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왜

나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창의성 개념의 요체는 발산적 사고이고, 발산적 사고 없는 창의성 개념은 생각할 수 없다고 전제할 정도로 창의성에서 발산적 사고 개념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비판적 사고는 수렴적 사고(convergent thinking)인 반면, 창의적 사고는 발산적 사고(divergent thinking)라고 생각하여,¹⁸⁾ 창의성하면 보통 발산적 창의성만을 생각하기 쉽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목에서 요구되는 것은 수렴적 창의성의 개념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러한 수렴적 창의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실 있는 해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수렴성과 발산성은 서로 대비되는 말로, 수렴적 사고는 논리적 사고(위의 도표에서 왼쪽 5범주의 사고들)를 일컫는 말이며, 발산적 사고는 비논리적 상상적 사고(위의 도표에서 오른쪽 2범주의 사고들)를 일컫는 말이다. 수렴적 사고는 가능한 가장 훌륭한 접근을 추구하고 단지 합리적인 대안들만을 고려함에 반해, 발산적 사고는 가능한 한 많은 대안들을 창안해내려고 노력할 뿐 그 대안들이 꼭 합리적일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수렴적 사고는 대안적 방법들을 찾는다 할지라도 합리성의 틀 안에서 논리적인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 찾아나가나, 발산적 사고는 우연성의 개입을 환영하며 비약을 허용하면서 나아간다. 또 수렴적 사고는 논리에 의해 움직일 방향이 규정된 경우에만 움직이나, 발산적 사고는 영감이나 육감의 인도 하에 방향 자체를 산출하기 위해 움직인다. 따라서 수렴적 창의성이 의식적, 논리적, 질서를 강조하는 것이라면, 발산적 창의성은 무의식적, 비약적, 탈질서를 강조한다.

보통 창의성하면 “기존 형식이나 고정된 제약으로부터의 이탈 그리고 혁신적 성격의 질적 비약”을 머리에 떠올린다. 그렇다면 비약과 무질서를 배척하는 수렴적 사고에서 어떻게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을까? 논리와 질서를 강조하는 수렴적 사고에서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근거로 한편으로는 심층성(深層性)과 다각성(多角性)을 들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영역 전이성(領域轉移性)을 들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그 깊이와 폭에 있어 같지 않다. 어떤 사람은 같은 사안에 대해 더 깊은 함축을 생각해내고, 또 숨어 있는 전제를 더 명확히 집어내어, 그 함축과 전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천착한다(심층성). 또 더 나아가, 보다 바람직한 함축을 지니기 위해 사안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며, 숨어 있는 전제를 달리 하였을 때 사안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지를 반성적으로 고찰한다(다각성). 이

18) 비판적 사고가 수직적 사고(vertical thinking)임에 반해 창의적 사고는 수평적 사고(측면적 사고, lateral thinking)라고도 말한다.

와 같이 남들이 하지 못한 심층적인 사고나 다각적인 사고를 하였을 때 우리는 창의적 사고를 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창의성 개념은 영역 전이성에까지 도달하여야 획득될 수 있다.

앞서 ‘영역 전이성’ 개념을 학습과 연결시켜 설명하였는데, 학습에는 일반적으로 3단계가 있다고 하였다.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암기를 통한 학습 단계이고, 그 다음 단계가 원리 이해를 통한 학습 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영역 전이적 통찰력을 키우는 학습 단계인데, 이 3단계 학습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영역 전이적 통찰력은 반성적 체화를 통한 학습에 의해 획득될 수 있다고 하였다. 반성적 체화 학습이란 사고력을 증진시키려는 자각적 목표 하에 ‘메타인지’의 영역에서 좋은 사고의 모형이나 기준을 토대로 여러 다양한 유사 상황들과 반복적으로 조우함으로써 수행되는 학습을 말한다. 다시 말해, 영역 전이적 통찰력은 다양한 유사 문제 풀이를 좋은 사고의 모형이나 기준을 참조하여 반성적 사고 속에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체화 학습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

여기서 반성적 사고란 주어진 규칙이나 틀에 따라 기계적, 무의식적, 무자각적으로 진행되는 사고가 아니라, 스스로 무슨 사고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능동적으로 의식하면서 사고하는 것이다. 즉, 어떤 사고를 할 때, 무슨 사고를 하고 있는지, 그 사고의 목적이 무엇인지, 현안 문제가 무엇인지, 중심 개념이 무엇인지,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더 요구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핵심 주장인 결론이 무엇인지, 행간에 숨어있는 함축이 무엇인지, 생략된 전제가 무엇인지, 관점이 무엇인지, 맥락이 무엇인지 등등을 능동적으로 반추하며 자각적(自覺的)으로 사고하는 것이다.

반성적 사고는 지식의 활용 가능성을 높여주는 고차적 사고 기법이다. 즉, 반성적 사고를 통해 획득된 지식은 필요시 곧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높은 활성화 값을 지니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도록 변형·결합, 분석·종합하여 활용하기 용이한 상황 적응적 지식인 것이다. 이와 같이 목적, 맥락, 관점 등의 고려 하에서, 어떤 명제가 함축하는 바를 반성적으로 따지고, 숨은 전제를 찾아내어 그 숨은 전제의 정당성을 반성적으로 따지는 훈련은 새로운 영역에서도 활용가능성이 높은 영역 전이적 지식의 산출을 가능케 하는 영역 전이적 통찰력을 키우기 위한 핵심 작업인 것이다.

결국, 수렴적 창의성의 핵심 요체는 어떤 아이디어들이 새로운 영역의 문제를 해결해줄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아이디어들을 변형·조합하

여야 하는지를 파악해낼 수 있는 영역 전이적 통찰력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새로운 문제 영역에 대한 포괄적이고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비판적 이해 능력을 토대로, 새로운 영역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특정 아이디어의 문제 해결 유용성에 대한 통찰력인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새로운 문제 영역과 그 문제 영역에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들을 제대로 이해·분석하고, 그것들의 함축과 전제들을 파악해 내고, 관련된 여러 요소들을 변형·결합, 분석·종합해보고, 어떤 가능한 발상 전환적 해결책이 가장 적절한 것인가를 평가해낼 줄 아는 능력인 것이다. 이와 같이 새로운 문제 상황과 그 문제 상황에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들을 이해·분석하고, 함축과 전제를 파악하고, 관련 요소들을 변형·결합하고, 가능한 해결책들을 평가하는 능력이 바로 수렴적 사고 능력의 핵심인 것이며, 이러한 수렴적 사고 능력이 다른 아닌 비판적 사고 능력인 것이다. 수렴적 창의성이란 이러한 비판적 사고 능력이 문제 해결 등과 관련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작동할 때 드러내는 속성인 것이다.¹⁹⁾

이제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비판적 사고의 기본 속성은 능동적인 반성성(reflectivity)이며, 비판적 사고가 지향하는 주요 특성에는 심층성, 다각성, 영역 전이성이 있다. 심층성은 어떤 명제(주장 내지 믿음)의 함축이나 귀결을 반성적으로 따짐으로써 얻어질 수 있으며, 다각성은 어떤 명제(주장 내지 믿음)의 근거나 전제를 찾아내어 그것의 정당성을 여러 각도에서 반성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결국 심층성과 다각성은 그것 자체로서 창의성의 원천으로 작동하기도 하나, 궁극적으로는 영역 전이성의 핵심인 것이며, 바로 이 영역 전이적 통찰력이 창의성의 가장 주요한 원천인 것이다.

19) 여기서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것이다. 실제로 창의성 연구가들은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의 핵심은 둘 다 수렴적 사고(convergent thinking) 또는 수직적 사고(vertical thinking)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창의성과 관련된 많은 책들에서 이 둘을 상호 대치 가능한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필자도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가 대체로 같은 외연을 지닌 개념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해 이 둘이 완전히 외연이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비판적 사고는 상황과 맥락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가급적 상황과 맥락을 배제하려는 논리적 사고와는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 사고가 비판적 사고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논리적 사고 훈련이 비판적 사고 훈련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분명하다.

이 둘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논문 “비판적 사고와 학술적 글쓰기 5단계”(김영정), “논리학과 비판적 사고”(김영정)를 참조하기 바람. 이 두 논문은 인터넷 사이트 <http://logic.snu.ac.kr>의 자료실에 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3) 비판적 읽기와 창의적 문제해결

논술을 어떻게 하여야 잘 할 수 있을까? 앞서 논술의 정의를 통해 시사하였듯이, 논술 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비판적 읽기 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논리적 서술 능력을 종합적으로 배양하여야 한다. 비판적 읽기란 반성적 사고를 통해 사람들의 주장을 보다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능동적으로 책을 읽는 것을 말하며, 창의적 문제 해결이란 이러한 비판적 읽기를 통해 얻어진 문제의식을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것을 말한다. 논리적 서술 능력에는 글 구성 능력, 근거 설정 능력, 표현 능력 등이 포함되며, 이 논리적 서술 능력은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서술하는 훈련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

논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실제적인 글쓰기에 앞서 어떤 주제에 대해 특정한 입장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이 비판적 읽기를 통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할 것인가?”하는 주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나 반대하는 입장을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글을 읽는다. 그 글을 읽을 때 우리는 수동적으로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의 의미를 꼼꼼히 따져보면서 읽어야 할 것이다. 즉 “저자는 어떤 목적을 위해 글을 쓰고 있는가?” “저자는 안락사에 대해 찬성하는가?” “저자의 주장이 과연 그 글에서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는가?” “저자의 주장은 적절하게 정당화되고 있는가?” “저자의 주장으로부터 더 나아간 어떤 함축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 “저자가 글에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숨은 전제는 없는가?” “저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독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등등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논술은 “어떻게 글을 쓰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글을 읽는가?”로부터 시작한다. 즉, 논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글쓰는 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비판적으로 글을 읽는 법을 익혀야 한다.

비판적으로 글을 읽는다는 것은 위와 같은 의문을 제기하면서 글을 읽는 것이다. 그것은 곧 위의 주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면서 글을 읽는 것이다. 비판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단순히 문제점을 찾아내고 흠집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비판적 사고란 사람들의 주장을 보다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기 위해 그것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반성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다. 비판적 사고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이디어와 정보를 단지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동적 방식으로 배우는 것이라기보다는 능동적 과정에서 스스로 혼자 힘으로 끝까지 사고를 철저하게 전개시키고, 스스로 질문을 제기하고, 적절한 정보를 찾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 비판적 사고는 주어진 규칙이나 틀에 따라 기계적, 맹목적, 무의식적, 무반성적으로 진행되는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 목적적, 의식적, 반성적으로 진행되는 사고이다.

비판적 사고는 우리가 논술문을 작성하는데 또 그것을 위해 구체적인 자료들을 심도 있게 파악하는데 궁극적인 기초가 되는 사고이다. 비판적 사고를 구성하는 요소는 목적, 문제, 개념, 전제, 정보, 결론(추론), 관점, 함축, 맥락의 9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는 이 요소들 각각에 대해, 분명함, 정확성, 명료성, 적절성, 중요성, 논리성, 폭넓음, 충분함, 깊이라는 9가지 기준에 의거해 평가해야 한다.²⁰⁾

그렇다면 비판적인 사고를 기초로 한 읽기를 마친 후 어떻게 글쓰기를 시작할 것인가? 비판적으로 글을 읽고 나면 어떤 주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피력해야 할지 대략적인 생각이 떠오를 것이다. 이제 떠오른 생각들을 실마리로 해서 글을 구성해야 한다. 논술문은 보통 서론, 본론, 결론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개 서론에서는 주제를 소개하고 그것에 대한 배경지식을 알려준다. 용어를 정의하기도 하고 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알려주기도 한다. 논술의 본론은 자신이 다루려는 문제에 대한 상세한 진술과 그 문제에 대한 해결 과정을 담고 있다. 문제에 대한 여러 가능한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그것들의 장단점을 평가한 후 자신이 선택한 해결책을 옹호하는 부분이 본론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 그리고 자신의 해결책에 대한 가능한 비판을 생각해 보고 그것에 대한 답변이 본론에 포함되기도 한다. 결론에서는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고 이후의 과제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

20) 비판적 사고의 9요소와 9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저술 참조: 『비판적 사고와 학술적 글쓰기』(김영정 외),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연구노트 3. 『오란디프 논술』(김영정 외), 오란디프.

<표5> 비판적 글쓰기의 기본 구성

서론	본론	결론
1) 독자의 관심유도 2) 화제와 입론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 3) 핵심용어 정의 4) 배경지식 제시 5) 낯선 용어, 특수 용어 정의	1) 문제의 진술 2) 글의 구조에 대한 진술 3) 가능한 해결책들에 대한 진술 4) 제안된 해결책을 옹호하는 논증 5) 가능적 반론들에 대한 답변 논증 6) 요약, 해결(해소) 또는 결어	1) 서론 내용 재진술 2) 현안문제의 광범위한 함축고려 3) 입론을 예증할 일화 제시 또는 4) 간략한 요약

논술이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²¹⁾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채워 넣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본론의 주요 내용에 대한 구조화는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 해결책들을 제시할 수 있는가? 또 가능한 해결책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가능한 선택지들 가운데 내가 택한 것을 어떻게 옹호할 것인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더 필요하다. 실제로 서론, 본론, 결론의 내용을 구조화하려면, 자료 읽기에서 동원했던 **비판적 사고의 9요소와 9기준**에 의거해 사고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본론에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를 실제로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게 된다. 그 문제 해결 과정에서, 어떤 **개념**을 정확하고 더 자세하게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또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찾아야 하고 그 정보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또 어떤 주장(**결론**)과 그 정당화 근거(**전제**)를 찾아내 **추론**을 구성하고 그 추론을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가능한 여러 해결책들 중 자신의 해결책을 선택하려면, 역시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찾아내고 전제와 결론을 확인하고 추론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가능한 반론들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본론에

21) 논술문이 짧은 글일 경우는 서론과 결론은 생략되고, 오로지 본론만 있는 경우가 많다. 본론만 있는 경우에도 본론의 1) 문제의 진술과 2) 글의 구조에 대한 진술이 서두의 역할을 하고, 6) 요약, 해결(해소) 또는 결어가 말미의 역할을 한다.

좋은 논술문이 꼭 서론, 본론, 결론 또는 서두, 본문, 말미의 형식을 취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초보자들은 이 형식을 제대로 익힌 후에 다른 형식의 논술문 쓰기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 설정한 문제에 대한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의 순차적 과정을 구조화하여 쓰면 훌륭한 논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본론 구성은 문제 해결 과정에 상응한다. 그래서 필자는 논술을 문제 해결적 글쓰기라고 부른다. 논술이란 “비판적 읽기를 토대로 문제 해결의 과정을 구조화시켜 우리의 사고체계가 가장 조용하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서술하는 문제 해결적 글쓰기”에 다름 아닌 것이다.²²⁾

4. 논술과 논증

(1) 논술과 논리 : 글의 구성 조직 능력

논술에 대한 두 정의 “비판적 읽기와 창의적 문제 해결하기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 글쓰기”와 “비판적 읽기를 토대로 문제 해결의 과정을 구조화시켜 우리의 사고체계가 가장 조용하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서술하는 문제 해결적 글쓰기”의 내용을 비교 검토해보면, 논리적 글쓰기란 우리의 사고체계가 가장 조용하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서술하기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고체계가 가장 조용하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서술하기 위한 논리적 사고 기법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하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분명하게 이해시키기 위해 어떤 전략들을 빈번히 사용한다. 가령 우리는 어떤 것과 다른 것을 비교·대조하기도 하고, 어떤 것이 다른 것의 원인이라고 명시한다. 우리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패턴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반적인 주요 사고패턴에 근거한 글쓰기 기법을 글쓰기 전략으로 채택한다면 우리는 보다 설득력 있는 글을 쓸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독자들도 역시 우리가 사용하는 글쓰기 기법을 근거로 한 사고패턴을 지녔기 때문이다.

논리적 사고 기법으로서 로젠버그가 제시한 10개의 1차적 글쓰기 전략은 다음과 같다:²³⁾ 분석(analysis), 논증(argumentation), 원인과 결과(cause and effect), 분류

22) 문제 해결적 글쓰기에 대해서도 다음 저술 참조: 『비판적 사고와 학술적 글쓰기』(김영정 외),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연구노트 3. 『오란디프 논술』(김영정외), 오란디프.

(classification), 비교와 대조(comparison and contrast), 정의(definition), 기술(description), 예시(illustration), 이야기 서술(narration), 단계별 과정(process). 각각의 전략은 사고를 정돈하는 각기 다른 패턴이다. 또한 각 전략은 우리가 쓴 것이나 읽은 것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이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도구를 필요로 하는가? 그것은 당면한 과제가 무엇이나에 따라 다르다. 어떤 과제는 논증이나 분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지만 어떤 과제는 필요로 할 것이다. 여기서 제시되는 기법들은 우리가 글을 쓸 때 사용할 수 있는 사고의 도구들로 그 자체로서는 목적이 아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사고를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을 돕는 도구이다

로젠버그는 논리적 사고 기법으로 글쓰기의 10가지 1차적인 전략들 이외에 14가지의 2차적인 전략들도 제시하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비판 예상하기, 질문하기, 다이어그램과 그림, 대화, 비유적인 언어, 역사적인 자료, 유머, 과장, 개인적 경험, 인용, 권위에 호소, 반복, 수사학적 질문, 통계. 이 전략들 중에는 새로운 것도 있지만, 1차적인 전략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설명인 것도 있다.

위의 다양한 기법들 중 어떤 기법(전략) 중심의 논리적 글쓰기 방법을 채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나름대로 훈련이 필요하다. 글쓰기를 할 때 내용의 성격에 따라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글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일런지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통합적 판단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2) 논리와 논증 : 근거 설정 능력

위에서 제시된 24개의 1차2차적 글쓰기 전략 중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기법은 바로 논증 기법이다. 논증 기법은 글 구성 조직 능력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근거 설정 능력에 있어서도 핵심을 이루기 때문이다. 실제로 글쓰기의 맥락을 떠나서도 논증이 논리의 꽃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논증(argument)이란 서로 간에 일정한 관계에 놓여있는 일련의 명제들의 묶음이다. 즉, 논증이란 명제들의 집합이다. 그렇지만, 명제들을 그냥 모아 놓는다고 논증이

23) Vivian M. Rosenberg, *Reading, Writing, Thinking: Critical Connections*, Random House, New York, 1989, 101쪽.

되는 것은 아니다. 논증을 구성하고 있는 명제들이 주장과 그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제시된 근거의 역할을 할 경우에, 그 명제들의 집합을 논증이라 한다. 다음의 논증을 살펴보자.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면, 이 세상은 가장 좋은 세상이 아니다.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가장 좋은 세상이 아니다.

위의 예에서는, “이 세상은 가장 좋은 세상이 아니다”가 주장이 되고, 나머지 두 명제가 그 근거가 된다. 하나의 논증 안에서 주장의 역할을 하는 명제를 그 논증의 결론이라고 부르고, 근거의 역할을 하는 명제를 전제라고 부른다. 결국, 논증은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된 명제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논증 안에서 결론은 하나이나 전제는 하나 이상 여러 개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래서’, ‘따라서’ 등등의 단어들은 논증에서 적절하게 사용되었을 경우, 그 단어 바로 뒤에 오는 명제가 결론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 바로 뒤에 나오는 명제가 전제라는 것을 알려준다.

우리는 앞으로 ‘논증’과 ‘논변’을 같은 뜻을 지닌 단어로 혼용해서 쓸 것이다. 그러나 ‘논증’과 ‘추론’은 완전히 같은 뜻을 지닌 단어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증’과 ‘추론’은 혼용해서 써도 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서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어떤 주장과 그 정당화 근거들을 머리 속에서만 전개시켜 본다면, 그것은 추론이 된다. 그 추론이 머리 밖으로 나와 언어로 표현될 때, 그것이 논증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추론은 심리적 활동이고, 논증은 언어적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심리 내적 활동으로서의 추론은 상호 논의나 평가의 대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논리학에서는 ‘추론’보다는 ‘논증’이라는 용어가 선호된다.

그러면 논증적 사고를 구성하고 있는 추론력과 논증력은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 위의 ‘추론’과 ‘논증’의 구별처럼, 추론력은 어떤 주장과 그 정당화 근거들을 머리 속에서 그려볼 수 있는 능력이고, 논증력은 실제로 어떤 주장과 정당화 근거들을 언어를 통해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고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이 둘은 차이가 없다. 사고의 측면에서 이 둘을 구별할 수 있으려

면, 머리 속에서 그려보는 것과 실제 언어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 갖는 서로 상반되는 사고 내적 특징을 잡아내야만 할 것이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보통 상대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주어진 전제들(근거들)로부터 결론(주장)을 도출해내는 순차적 과정을 밟으나, 언어를 통해 표현을 할 때는 보통 상대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주장(결론)을 제시하고 그 주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들(전제들)을 제시하는 역순의 과정을 밟는다. 따라서 추론력은 주어진 자료들(전제들)로부터 귀결되는 내용(결론)을 도출해내는 능력이고, 논증력은 어떤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적절한 논거들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논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연역 논증이고 다른 하나는 귀납 논증이다. 연역 논증은 전제들 속에 묵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을 결론에서 명시적으로 밝혀 준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이 있으며, 귀납 논증은 전제들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지식을 결론으로 확보하여 지식을 확장시켜 준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이 있다.

다음의 귀납논증의 예를 살펴보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백조는 모두 흰 것이었다.

따라서, 만약 남극에서 백조가 발견된다면, 그 백조도 흰 것이다.

비록 우리가 지금까지 본 백조가 모두 희다는 것이 참이라고 할지라도 남극에서 새로이 발견될 백조가 꼭 흰 것이라는 필연적인 보장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본 백조가 모두 예외 없이 희다는 것을 토대로 남극에서 새로이 발견될 백조가 흰 것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다.

연역 논증은 결론 속의 정보나 사실적 내용이 전제들 속에 이미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전제들이 참이라면 결론이 결코 거짓일 수 없다는, 즉 결론이 필연적으로 참이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올바른 연역 논증에서 전제는 결론에 대한 결정적인 (즉, 타당한) 근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귀납 논증은 결론이 전제들 속에 함축되어 있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제들이 모두 참이라고 할지라도 결론은 개연적으로 참일 뿐 필연적으로 참이지는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귀납 논증에서 전제는 결론에 대한 상당한 (즉, 유효 충분한) 근거의 역할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연역 논증의 장점은 전제와 결론의 관계가 필연적이라는 것(즉, 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지식을 명시적으로 밝혀 준다는 것)이고 약점은 지식의 확장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점임에 반해, 귀납 논증의 장점은 지식의 확장을 가져다준다는 점이고 약점은 전제와 결론의 관계가 개연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명시적 지식을 산출해 주는 연역 논증에는 직접추리, 정언논증, 가언논증, 양도논증 등등이 있으며, 확장적 지식을 산출해 주는 귀납 논증에는 귀납적 일반화논증, 통계적 삼단논증, 유비논증, 인과논증, 밀의 방법, 가설연역 방법 등등이 있다.

(3) 논리와 수사 : 표현능력

논리적 서술 능력에는 글 구성 조직 능력과 근거 설정 능력 이외에도 표현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이 표현 능력은 수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데, 수사의 특성으로는 맥락 및 상황 적응성에 대한 강조와 언어적 표현의 설득적 힘에 대한 강조의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논리적 서술 능력 훈련에는 바로 이 상황 적응성과 설득적 표현 능력을 고양시키는 방법에 대한 훈련이 추가되어야 자체 완결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 훈련에서는 구체적으로 독자를 염두에 둔 상호작용적 글쓰기와 적절한 수사적 표현 능력에 대한 훈련이 주요 내용이 된다. 예컨대, 전문 학자들을 대상으로 쓴 글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 바꾸어 써보게 한다거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쓴 글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 고쳐 써보게 함으로써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논리(비판적 추리)와 수사의 관계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가자. 왜냐하면 수사의 잘못된 오용이나 남용은 글쓰기에서 항상 경계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원래 수사학의 주된 목적은 감동을 주고자 하는 것 보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가능한 폭넓은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청자의 상황을 비롯한 담론의 환경과 표현적인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수사는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최선의 전략을 구상하는 종합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다. 그 사고력이 ‘속임수 추리’와 같은 것으로 나타날 때는 변질된 소피스트적 수사가 되지만, ‘비판적 추리’로 나타날 때는 수사학의 본래 정신이 발현되는 때이다.

우리는 여기서 논리(비판적 추리)와 수사학 간의 의미있는 연결 고리를 발견할 수 있다. 논리의 환경에 대한 고려가 표현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수사학의 본래 정신이었고, 수사학이 표현적인 요소들을 중히 여긴 것은 논리의 상황 및 환경에 대한 추리의 결과였을 따름이다. 상황에 적합한 설득의 전략을 구상하는 추리력이 수사력의 바탕에 있었지만, 이 추리력이 참되고 정의로운 것을 지향하려는 성향에서 벗어나 어떻게든 청자의 태도만을 변화시키겠다는 목적을 지향하기 시작할 때 수사학은 변질의 역사를 걷기 시작했던 것이다.

결국, 우리는 수사적 표현이 가진 두 얼굴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좋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서 단지 언어의 힘만으로 상대의 믿음, 욕구, 행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반면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합당한 이유를 바탕으로 한 설득의 행위에 있어서 언어의 종류에 따라 설득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하는 태도이다.

(4) 논술과 통합적 사고능력

논술은 다양한 내용을 글 속에 담는다. 따라서 하나의 글쓰기 속에서 체득한 원리를 (그것이 글쓰기 자체와 관련된 원리든 글의 내용과 관련된 원리든) 다른 영역의 내용을 담은 글쓰기 속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영역 전이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논술 교육의 의의와 지향해야 할 방향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논술 교육은 일차적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점들을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토론하고, 또한 심사숙고와 증거의 뒷받침을 근거로 사안들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배려의 토대 위에서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태도를 길러줄 것이다. 이러한 태도와 능력은 학생생활을 효과적으로 영위하는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여 담당하게 될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능력이며, 합리적인 민주 사회를 지탱하는 시민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기본 능력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점은 논술이 효과적인 의사 전달과 원활한 의사소통의 도모라는 소극적 목표를 넘어서서 창의성의 토대가 되는 영역 전이적인 통합적 사고 능력의 배양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훌륭한 논술 능력과 훌륭한 영역 전이적인 통합적 사고 능력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으로, 논술 교육은 창의성 교육을 위한 통합적 영역 전이성 훈련의 가장 훌륭한 장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더욱 긴요하고 또 의의가 있는 것이다.

결국, 논술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동일 영역내의 유사한 유형에 대한 응용력에 초점을 맞춘 원리 이해(2단계 학습)를 넘어서서 능동적인 반성적 체화 학습을 통한 통합적 영역 전이성(3단계 학습)에 다다르는 것이며, 이에 따라 논술 교육은 앞서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영역에서도 활용가능성이 높은 영역 전이적인 통합적 사고 능력의 배양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암기를 통한 지식 중심 교육에서 사고력 중심 교육으로의 변혁, 결과 중심적 교육에서 과정 중심적 교육으로의 변혁, 교과 내 칸막이식 교육에서 교과영역 간의 소통교육으로의 변혁**은 이 시대의 필수적인 요청인 것이다.

5. 논술과 교육과정

논술 교육의 목적은 논술 능력의 신장이라고 볼 수 있다. 논술 능력이란 어떤 X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논술 능력은 사고력과 상통하기 때문에, 그동안 논술 교육의 방법 등에 대한 논의는 주로 사고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루어져 왔다(이형근, 2003; 김형자, 2002 등).

사고력의 본질에 대한 탐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 일반 모형과 교과 모형이 그것이다. 일반 모형은 특정 주제나 교과 등과 상관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고 영역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모형에 의하면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칭 ‘사고’와 같은 새로운 교과를 신설하여 특별한 교육적 처치를 시행하는 것이다.²⁴⁾ 이에 비해 교과 모형은 사고란 특정 주제 X와 관련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 모형에 의하면 각 교과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는 과정에서 사고력은 자연히 신장될 수 있다.²⁵⁾

24) 일반 모형의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반적인 사고 능력과 기능, 과정, 전략이 존재한다. 둘째, 일반적인 사고 기능, 과정, 전략 등은 의도적이고 체계적이며 명시적인 방법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 셋째, 일반적인 사고 기능, 과정, 전략을 향상시킴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일반 모형은 현 교육 실태를 고려할 때 실현하기 어렵다. 사고력 전담 교사나 교육 이수 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내용 영역 안에서 전이의 일반화 현상은 잘 드러나지만 내용 영역 밖에서의 전이는 잘 일어나지 않고, 지식을 별로 요하지 않는 단순한 문제에 있어서는 비교적 전이의 일반화가 잘 일어나지만 많은 지식을 요하는 복잡한 문제에 있어서는 전이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고 기능, 과정, 전략 등을 직접적인 교수나 훈련을 통해 가르친다고 사고력이 향상된다는 보장은 확실치 않다.

마찬가지로 교과 모형도 한계를 갖고 있다. 교과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하면서 기존의 교과 내용만 잘 학습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고력도 높아진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큰 효과가 없다. 학생들은 다른 교과나 영역에 걸쳐 있는 기본적인 고도 일반적인 사고 기능의 사용과 적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통합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분리적인 사고만 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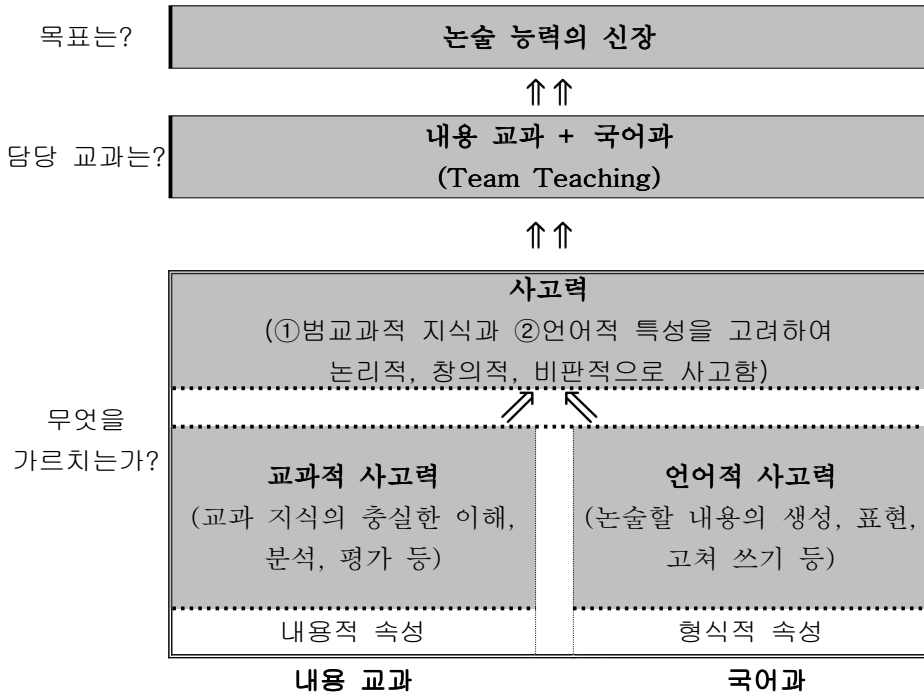
최근 인지 심리학의 연구에 의하면 영역과 무관한 일반적인 기능(domain-independent skills)과 교과 관련 기능(domain-dependent skills)이 상존한다. 전자는 초인지 기능이나 자기 조정 전략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친숙하지 않은 영역의 문제에 직면할 때 많이 발현된다. 후자는 특수 지식 분야 내에서의 기능을 가리키는 것으로 교과와 관련된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강력하지만 일반적인 문제에는 한계를 갖는다. 위와 같은 인지 심리학의 연구 결과는 일반 모형과 교과 모형의 통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²⁵⁾

위와 같은 사고력에 관한 논의는 논술 교육이 일반적인 논리 능력 신장에만 초점을 두거나 특정 교과의 교육 내용 이해에만 초점을 두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학생들의 논술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논술 일반에 작용하는 사고 기능, 사고 과정, 사고 전략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각 교과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논술 교육은 다음 <표6>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5) 교과 모형의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내용과 분리된 사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일반적인 사고의 기능도 존재하지 않다. 둘째, 사고 기능은 내용 영역별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교과를 가르치르는 전이 현상은 불가능하다. X라는 분야의 비판적 사고자가 Y 분야의 비판적 사고자는 아니다.

26) 최근 사고력 관련 논의에서도 ‘일반 모형’과 ‘교과 모형’을 합친 ‘교과 통합 모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6> 논술 교육과 교과와의 관계



위의 <표6>은 논술 교육과 교과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국어과와 기타 내용 교과가 협동하여 논술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논술 능력이 효과적으로 신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글을 쓰는 과정에서는 논술 일반에 작용하는 사고 기능, 사고 과정, 사고 전략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교과적 사고력이 필요하며 그러한 모든 것을 언어화시킬 수 있는 언어적 사고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 내용 교과에서는 교과적 사고력 부분을, 국어과에서는 언어적 사고력을 담당하되, 일반적 사고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교과들이 서로 협동할 필요가 있다.

교과적 사고력과 언어적 사고력은 분리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언어적 사고력은 범교과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실현되며, 교과적 지식은 언어적 사고의 결과로서 교과적 사고력 역시 언어를 통해 발현된다(사실상 일반적 사고력과 교과적 사고력 및 언어적 사고력과의 경계도 분명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두 사고력을 구분한 것은 내용 교과와 국어과의 논술 지도 초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다. 좋은 논술문을 쓰기 위해서는 해당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한데 이

는 각 교과에서 담당하고, 글을 쓰는 방법이나 언어적 표현화와 관련된 지식은 국어과에서 담당할 수 있다.

예컨대 ‘배아줄기 세포와 관련된 윤리적 논쟁’에 관한 글을 제시하고 ‘배아의 지위에 대한 여러 입장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다음 초기 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2000자 이내로 기술하시오’란 논술 문제가 있다고 하자. 이 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아줄기세포 개발과 관련된 생명공학적 지식, 생명의 존엄성 등에 관한 윤리적 관점, 사회의 변동과 미래 사회의 전망 등에 관한 사회학적 지식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식들은 모두 현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일차적으로 생물 I의 ‘(7) 생식과 발생’, 생물 II의 ‘(5) 생물학과 인간의 미래’에 나오는 내용과 관련되며,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생물 I의 ‘(9) 생명 과학과 인간의 생활’, 생물 II의 ‘(5) 생물학과 인간의 미래’의 내용과 연결된다. 또한 생명의 존엄성 등에 대한 윤리적 관점은 고등학교 시민윤리 과목 II의 ‘현대 사회 문제와 시민윤리’의 1단원 ‘1. 생명존중과 환경윤리’와 관련을 맺고 있는데, 이 단원에서는 ‘생명과 윤리’라는 소주제를 다루면서 생명의 존엄성 또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 동서양의 생명존중 사상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배아줄기세포가 가져올 사회적 대변화를 고려할 때, 사회 교과의 “(10)사회변동과 미래사회” 단원의 ‘대변혁의 시대’와, 법과 사회 교과의 “(5) 법생활의 발전과 과제” 단원의 ‘인간배아복제와 법률 문제’라는 내용과도 관련된다.

또한 논술이 근본적으로 쓰기 과제임을 고려할 때, 언어적 표현화와 관련된 국어 교과의 작문 교과와도 근본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위의 논제와 관련된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글 쓸 내용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논리적으로 조직하며 언어로 표현화하는 일련의 과정(생성 → 조직 → 표현)은 작문 교육과정의 주 내용이다. 어떤 대상 X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이를 논리적으로 조직하여 표현해 내지 못한다면 논술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국어 교과의 작문 교과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끄집어내어 정리하고 분석하여 글 쓸 내용을 생성하며, 이를 논리적으로 조직하는 방법, 정확한 표현을 선택하는 방법 등을 가르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논제의 경우에는 과학 교사, 사회 교사, 윤리 교사, 국어 교사가 서로 협조하여 논술을 지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교육과정 상 국어과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 신장’을 목표로 하는 교과로서, ‘논술 능력의 신장’ 역시 국어과의 몫으로 볼 수 있다. 사실상 학교 현장에서 논술은 주로 국어과 선생님이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논술의 유형이 다양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고난이도의 지식을 요하는 문제들이 많아지면서 국어과에서 논술을 전담하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논술 지도 시 국어과 선생님과 각 내용 교과 선생님들이 협조하여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주제의 특성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이를 논리적으로 언어화시킬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최근 논술은 범교과적 지식과 실제 문제 사태를 접목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로써 논술은 실제 문제 사태 속에 지식들이 살아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실천 통로가 되고 있다. 그런데 범교과적 지식과 실제 문제 사태를 접목하고 창의적, 논리적,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언어화시키는 과정은 매우 고차원적인 사고를 요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순차적 과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그림 1> 참조).



<그림 1> 논술의 과정

국어과 교사와 내용 교과 교사의 팀티칭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 방식은 단순한 결합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내용 교과 교사는 논술 과정(그림1) 중 1단계에, 국어과 교사는 3단계에 각각 좀 더 초점을 두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오직 그 단계에만 집중한다면 논술 지도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학생들이 논술을 하는 과정 자체가 순환적이고 역동적인 만큼 국어과 교사와 내용 교과 교사의 팀티칭은 매우 긴밀

한 협조 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논술의 과정 첫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팀티칭을 하는 교사들이 서로 협조해야만 논술 교육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99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서 밝힌 논술의 범교과적 성격 역시 개별 내용 교과 교사 1인이나 교과 교사들의 단순한 결합 방식만으로는 논술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는 국어과와 내용 교과들 사이도 마찬가지이다.

다양한 학문 분야에 적합한 능력 및 창의성과 사고 전개 과정의 타당성 및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일반적인 주제나 통합교과적인 소재를 대상으로 서술식으로 출제, 고졸 수준의 이해력에 적합하고 애매 모호하거나 너무 단순하지 않으면서 창의적, 논리적, 비판적 사고와 폭넓은 독서를 요구하는 문제 출제 권장(교육부, 1997:9-10).

논술이 범교과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논술에 필요한 지식이 범교과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논술의 주제가 특정 교과에서 다루는 내용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식도 어느 한 교과의 범주를 뛰어 넘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논술의 범교과적 성격은 범교과적 지식과 사고를 요하기 때문에 논술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모든 교과 교사들의 긴밀한 협조 체제 아래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초나 연말에 연간 학습 계획을 수립할 때 논술 지도의 내용과 방법을 교사들이 서로 협의하여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논술 교육의 주 내용은 크게 지식, 기능, 태도로 나눌 수 있다. 논술의 개념, 중요성, 필요성 등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논술을 써 보는 구체적인 수행 과정과 논술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역시 교육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지식이 없는 수행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며 수행 없는 지식 역시 논술 능력 신장을 이끌 수 없다. 논술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갖게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즐거움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꺼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들에게 논술이 갖는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논술을 대학입학시험 준비용으로만 생각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논술 교수 학습 시 가장 주의할 점은 논술 능력은 단순한 지식의 암기 등에 의해서 절대로 신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사실 학원을 중심으로 논술 과외가盛行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이들 학원에서 논술의 유형과 미리 작성된 모범 답안을 외우고 있다. 논술이 대학입학시험의 일종으로 자리 잡자, 최근에는 일선 학교에서조차 논술 유형과 미리 작성된 모범 답안을 외우게 하는 논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듯하다.

논술 능력은 사고력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로는 절대 신장될 수 없다. 개별 교과에 대한 지식과 이들 지식을 가로지르는 범교과적 지식에 대한 철저한 학습, 그리고 실제 사태에 각 지식들을 접목시켜 비판적, 창의적, 논리적으로 (재)해석해 보려는 진지한 노력,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언어화시켜 보는 구체적 경험 등을 통해서만 논술 능력은 신장될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폭넓은 독서를 권장하고 토의 및 토론 학습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논술 교수 학습 시 교과서는 매우 유용한 교수 학습 도구가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교과 모형이 강조하고 있듯 각 교과 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는 사고력 신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각 교과 내용은 관련 도서나 미디어 등을 찾아보는 과정을 통해 더욱 풍부해지고 깊어지며 그에 따라 사고력 역시 심화 및 확대될 수 있다. 또 교과서에 제시된 교육 내용은 비판적, 창의적, 논리적으로 (재)해석되어 다양한 논술 교육 자료로 제작될 수 있으므로 교과서를 논술의 1차적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논술 평가 시 가장 주의할 점은 논술 평가를 학생들의 수준을 가늠하는 도구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평가는 등급화 및 서열화의 척도만은 아니다. 평가는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평가는 학생들이 논술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교수 학습 과정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 등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과정이다.

논술 평가는 논술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도 포함해야 하며, 논술에 대해 학생들이 갖고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수행 능력과 태도 등을 포함하여 통합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평가를 수행할 때는 실제 상황과 맥락이 고려되어야 하며 평가 기준과 영역을 공개하여 투명한 평가가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논술의 경우 객관식 평가보다는 실제 논술 과제를 통한 직접 평가 방식이 많이 이용되는데, 이 방식은 평가의 객관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때문에 논술 평가에서는 분명하고 섬세한 평가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논술 능력을 점검할 수 있는 자기 평가 기회를 자주 제공하고 학생들 상호 간의 평가도 적극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논술 능력을 메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수업이 완전히 끝난 뒤에만 일회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중에도 실시하는 등 평가를 지속적, 순환적으로 실시하여 평가의 결과가 순간순간 교수 학습에 송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평가가 종국적으로는 학습을 위한 평가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평가는 교수 학습 과정에 녹아들 때 사실상 가장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 논술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순간순간 학생들의 성취 정도를 점검하면서 학생들이 부족해 하는 점을 보충해 주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교육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논술 능력은 더욱 효과적으로 신장될 수 있다. 예컨대 학생들의 논술에 대한 첨삭 지도는 평가이면서 동시에 교수 학습 과정도 될 수 있다.

II. 논술 문제의 유형과 특징

1. 분류 기준

논술 문제를 분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문제의 형태에 따라서 요약형, 자료 제시형, 단독 과제형 등의 구분도 있고 논제의 성격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한다. 그동안 자주 소개되었던 분류 방식들은 나름대로 다 의미 있는 분류이고 이론적으로 중요한 함축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논술답안을 쓰는 학생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분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 자료집에서는 이론적 의미가 강한 분류보다는, 실전을 더 염두에 둔 분류를 새롭게 시도해 보고 이에 따른 접근법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실제 논술 고사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논술 고사에 대한 학습을 지도하는 교사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1) 답안의 성격에 따른 구분 : 문제 해결형과 찬반 논의형

우선 학생이 써야할 글, 즉 답안의 성격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논술 문제가 어떤 유형의 글을 요구하고 있는가에 따라 분류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접근할 때 논술 문제는 문제 해결형 글을 요구하는 유형과 찬반 논의형 글을 요구하는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논술은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겨냥하는 글쓰기이다. 따라서 어떤 현상이나 제도의 문제점이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이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논술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신문 사설이 논설문의 전형이고 칼럼도 유사한 성격의 글이라고 할 때, 이런 글들의 반 이상은 바로 이렇게 문제점이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글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논술은 문제 해결을 겨냥하는 글쓰기이다. 그런데 문제점이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쟁점들이 등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런 문제에 대하여 각자의 견해를 논거와 함께 제시하여 합리적으로 논쟁하는 과정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쟁점을 놓고 찬반 논의하는 글도 결국 논술의 기본 유형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두 입장으로 나뉘어 찬반 논의하는 방식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서너 가지 선택지를 주고 여기서 입장을 선택하게 하는 경우도 근본적으로는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하겠다.

(2) 답안의 분량에 따른 구분

다음으로 학생이 써야 할 답안의 분량에 따라서 논술문제의 유형을 나누는 것도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 대입 논술은 제한된 시간 안에 제한된 분량의 글을 써 내어야 하는 시험이다. 문제의 수준이나 형식이 시간과 분량을 고려하여 정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느 정도 분량의 글을 써야 하는가에 따라서 답안 작성에서 주안점이나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량에 따라서도 분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분량에 따라서는 크게 일반적 분량 (1,600자 내외), 짧은 분량(1,400자 이하), 긴 분량(2,500자 내외)으로 나누는 것이 좋겠다. 물론 이 분류는 현재의 정시 논술을 주된 모델로 한 것이고 수시나 2008년에 변화될 논술 유형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수시나 2008년 변화될 논술 고사에서도 한 편의 완결된 글을 쓰게 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는 분류이다.

(3) 고전 논술에서의 구분 : 논제와 제시문의 성격에 따른 구분

마지막으로 이른바 ‘고전 논술’의 관점에서 문제를 분류해 보는 것이다. 고전 논술의 성격이 상당히 약화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접근이 유지되고 있다. 이 분류는 결국 제시문과 논제의 성격을 기초로 접근하는 것이다. 현재 논술 문제의 전형적인 형태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첫째는 물음, 즉 논제 부분이다. 무엇 무엇에 대하여 쓰라고 문제의 요구사항을 드러내 보여주는 부분이다. 둘째는 제시문이다. 사실 제시문 없는 논술 문제, 이른바 ‘단독 과제형’ 문제도 논술 문제의 훌륭한 한 유형이다. 단독과제형 문제는 학생의 사고 방향을 자유롭게 열어놓음으로써 사고의 깊이와 문제 의식을 총체적이며 다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학생의 글 읽기 능력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

서 현재의 논술 문제 대부분은 학생의 글쓰기 능력만이 아니라 글 읽기 능력까지 측정하기 위해 제시문을 주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는 ‘유의사항’ 부분이다. 유의사항 부분에도 때로는 중요한 요구사항이 들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형식적인 조건이나 분량에 대한 지시로 이루어진다.

논술 문제의 세 부분 중 물음(논제)과 제시문의 연관 방식에 따라서 고전 논술의 유형을 나눌 수 있다. 흔히 고전 논술이라 하면 고전 제시문을 주고 거기에서 어떤 관점이나 내용을 해석해 내어서 현실이나 현대의 상황에 적용하는 유형만을 떠올리기 쉬우나, 이것은 고전과 논술이 만난 고전 논술의 한 유형일 따름이지 고전 논술 전체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물음(논제)과 제시문의 성격에 따라 고전 논술은 크게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유형은 고전 제시문에 현대적, 현실적 논제를 주는 문제로서 이것은 고전 논술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다. 고전적인 제시문을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쟁점이 되는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이다. 물론 이때 고전은 옛 문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현대 문헌이라도 고전에 반열에 오를 만한 문헌까지 포함한다. 둘째 유형은 고전 제시문에 고전적인 논제를 주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만 쟁점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문제가 될 법한 고전적인 논제를 주게 된다. 셋째 유형은 제시문에 주로 고전이라고 보기는 힘든 문헌에서, 특히 시사적이거나 현실의 사실을 기술·평가하는 내용을 골라서 주고, 이것을 고전적인 논제로 연관지어 논술하게 하는 문제이다. 물론 이것 말고도 실제 논술 문제 중에는 시사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의 제시문을 주고 현대적, 현실적 쟁점에 대하여 논술하라는 문제도 자주 출제된다. 하지만 이것을 고전 논술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고전 논술의 유형 분류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이 세 유형은 전형적인 유형을 가리키는 것이고 실제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형태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제시문에 고전 제시문과 시사적인 비고전 제시문을 함께 주고 이를 기반으로 현대적 쟁점에 대해 논하게 하는 문제 등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 유형 분류는 논술과 고전의 만남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분류이지 실제 문제에는 이런 단순한 분류가 직접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도 지적해 둔다.

2. 유형별 접근 방식

(1) 답안의 성격에 따른 구분

가. 문제 해결형

(가) 예시 문제

문제 해결형은 논술 문제의 가장 기본 유형으로서 문제점을 비판하거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문제이다. 다음 문제들이 바로 이 유형에 속한다.

(가)~(다)는 현대인이 처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글이다. (가)~(다)에서 그 양상을 분석해내고, (라)를 바탕으로 현대인이 처한 상황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2001학년도 한양대 정시)

<제시문>

- (가) 에릭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 (나) 루이스 멀포드의 『예술과 기술』
- (다) 김승옥의 소설 『서울, 1964년 겨울』
- (라) 존 단의 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다음 제시문 (가)에 나타난 사회 현상을 제시문 (나)와 (다)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대안을 논하시오. (2004학년도 연세대 정시)

<제시문>

- (가) 데이비드 쟁크의 『데이터 스모그』
- (나) 마르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 (다) 『장자』

(나) 접근법

① 문제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절한 분석이 중요하다.

대체로 이 유형의 문제는 요구사항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첫째는 문제점이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에 대해 대책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때 학생들은 그냥 분석과 대책의 내용만을 채우는데 급급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요구 사항 사이의 비중을 가늠하고, 또한 두 요구 사항 사이의 논리적 연결까지 고려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요구사항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 제시될 경우, 대체로 원인이나 문제점을 분석하는 요구사항과 대책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요구사항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비슷한 비중을 가진다. 내용상으로는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적절한 대책이 나올 수 없으니 분석이 중요하지만, 목표는 결국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비중은 비슷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분석하는 과제에는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꼼꼼하게 접근하지만, 대책은 원칙적이고 당위적인 차원에서 그쳐서 “잘해 보자”라는 차원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책, 대안 제시가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논의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과제 사이의 논리적 연결도 중요하다. 대책을 제시할 때, 앞서 분석한 원인이나 문제점 중 어디에 대응하는 대책인지가 분명해야 한다. 문제점 분석과 대책 제시가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첨삭 지도 시에 이 점을 유의해서 검토하고 지적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 장 ‘논술 방법’의 ‘논제 파악’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하자.

② 깊이 있는 분석과 다각적인 대책 제시가 필요하다.

문제점이나 원인을 분석할 때에는 드러난 겉모습만 보면서 피상적인 분석에 그쳐서는 안 된다. 내적인 관계나 실상을 드러내어야만 깊이 있게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여러 문제점이 있더라도 그것들이 혹시 어떤 근본적 원인에서 파생된 것이 아닌지, 혹은 그 문제 중 어떤 문제가 근본적 원인이 아닌지를 검토해 보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대책을 제시할 때에는 단편적이고 원칙적인 차원에 그치지 말고, 다양한 관점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대책을 제시할 경우에

는 이렇게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유형의 문제에서 학생들이 가장 자주 범하는 문제는 대책 제시가 당위적이고 원칙적인 차원에 그쳐 너무나 당연한 주장에 그치고 만다는 것이다. 대책 제시는 구체적이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문제의 요구사항이 해결 방향을 제시하라고 할 경우에는 목표만 추상적으로 밝혀도 무방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할 경우에는 목표 제시에 그치지 않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도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것이다.

③ 때로는 미괄식 구성이 바람직하다.

문제 해결형 논술 문제에 대한 답안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익숙해져 있는 미괄식 구성을 따라도 별 무리가 없다. 서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본론에서 문제점 혹은 원인을 분석한 다음, 결론에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분량이 긴 글을 쓴다면 본론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과 대책에 각각 할애하고 결론에서는 간략히 요약하면서 전망을 덧붙이는 것이 무난하겠지만, 대입 논술 답안은 길지 않은 글이라서 대책 제시를 결론으로 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많은 학생들은 결론 단락이 반드시 짧아야 한다는 고정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근거 없는 고정관념이다. 논의 흐름상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결론이 될 경우 그 내용에 따라서 결론 단락이 한 단락이지만 길어도 상관없고, 혹은 결론에 해당되는 단락이 두 단락으로 이루어져도 대입 논술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짧은 서론-긴 본론-짧은 결론’이라는 고정관념은 실전에서는 벗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요구에 따라서 유연하게 접근하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나. 찬반 논의형

(가) 예시 문제

찬반 논의형은 서로 주장이 엇갈릴 수 있는 쟁점을 주고 자기 입장에 대한 정당화를 요구하는 문제이다.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그 예이다.

다음 각 제시문에 나타난 ‘앎’을 개념화하여 설명하고,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앎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서로 비교하여 1600자 내외로 논술하시오. (2003학년도 고려대 정시)

<제시문>

(가) 로열드 호프만의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

(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다) 공자의 『논어』

(라) 찰스 반 도렌의 『지식의 역사』

다음 (가), (나)의 지문을 읽고 사이버 세계의 유용성에 관한 글쓴이의 입장을 정리한 후, 이에 대해 가능한 반론을 제시해 보시오. (2003학년도 이화여대 모의평가)

<제시문>

(가), (나) 마가릿 버트하임의 『공간의 역사』

지문 (가)에 제시된 ‘선거’의 양상을 살펴보고, 지문 (가)에 제시된 ‘추첨’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2005학년도 건국대 정시)²⁷⁾

<제시문>

(가) 이병주의 「관부연락선」

(나) 버나드 마넉의 『선거는 민주적인가』

(4) 접근법

① 어떤 입장이 선택 가능한지 먼저 섬세하게 검토해야 한다.

입장을 정할 때는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 실제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문제보다는 다양한 입장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더 많다는 것을 학생들

27) 이 문제의 경우 첫째 요구사항은 양상을 분석하는 요구이기에 분석 대책형의 분석에 해당하고 둘째 요구사항은 찬반 논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 유형이 합쳐진 복합적인 성격を 가진다.

은 자주 간과한다. 따라서 선택지를 빠짐없이 검토한 다음 자신의 입장을 섬세하게 정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찬반의 경우에도 단순한 찬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강하게 찬성 혹은 반대할 지를 생각해야 한다. 적극 찬성과 조건부 찬성, 적극 반대와 조건부 반대 정도로 나누어 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적극 반대로 출발했다가 마지막에서는 조건부 반대로 가서 논지의 일관성을 해치는 경우들이 흔히 생겨난다. 이 경우 논거를 제시할 경우에도 만일 적극 찬성의 입장을 택했다면 우선 왜 반대가 아니라 찬성인지의 논거도 제시해야 하지만, 왜 찬성 중에도 조건부 찬성이 아니라 적극 찬성인지에 대한 논거도 제시해야 한다. 아예 문제가 찬반 논의의 구도보다는 세 가지 이상, 혹은 네 가지 이상의 선택지를 미리 주고 여기서 입장을 선택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② 자신의 입장을 명료하게 제시해야 한다.

자신의 입장을 선택해서 정당화하는 것이 이 유형의 목표이므로 가능한 입장들을 다 검토한 다음에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고 명료하게 제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입장을 선택할 때에는 당연히 적절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③ 두괄식 구성이 효율적이다.

찬반 논의형 문제의 경우 독자인 채점자는 무엇이 먼저 궁금할까? 당연히 학생이 어떤 입장을 선택했는지가 먼저 궁금하다. 또한 학생이 선택한 입장을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나오는 논거가 얼마나 적절한지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채점자의 관심을 고려할 때, 두괄식 구성을 해서 자신의 결론적 입장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자연스럽고 자연바람직하다. 그런데 학생들은 이 유형의 문제도 버릇처럼 ‘짧은 서론 - 긴 본론 - 짧은 결론’의 형태로만 답안을 구성하려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로는 이런 고정관념과 습관에서 벗어나 두괄식 구성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④ 상대 입장에 대한 대응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답안의 길이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에 따라 유동적인 면이 있지만, 폭넓은 접근을 위해서는 상대 입장에 대한 대응을 포함시켜 주는 것이 좋다. 달리 말해 상대

편 입장을 비판하거나 예상되는 반론을 논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내가 틀렸다’에 그쳐서는 정당화 자체가 불충분하고, ‘내가 맞다’까지 가면 정당화는 수행한 셈이다. 그러나 ‘너는 틀렸고, 내가 맞다’까지 가게 되면 완벽한 정당화를 수행할 수 있다. 내 입장에 대한 적절한 논거와 더불어 상대방 주장에 대한 논박 및 대응이 합쳐지면 더 완벽한 답안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은 자기 입장에 대한 논거를 찾는 데 급급하거나 거꾸로 상대방을 비판하기만 하는데 급급한 경우들이 많다. 두 작업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⑤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 서 있음을 보여주라.

반론을 제기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상대 입장의 타당한 점이나 자신의 약점을 슬며시 인정해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편협한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입장에 서있음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후의 논의에 설득력을 더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너무 강하게 인정하면 자신의 논지가 흔들리게 되므로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에만 매달리다 보면 학생들은 상대의 문제를 더 과장하고 상대의 장점은 무시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다. 그렇게 되면 논의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⑥ 제시문에만 의존하지 말라.

이 유형의 경우 제시문에 선택 가능한 입장들이 제시되어 있고, 각 입장들에 대한 논거도 어느 정도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보니 제시문에 의존해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논거들을 재구성하는 수준에 그치는 학생들이 많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다. 제시문에 나와 있는 논거는 보완 설명을 붙이면서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제시문에 없는 추가적인 논거를 확보해야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자기의 배경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논거를 다각적으로 제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⑦ 해결 방안도 보충해 주면 좋다.

찬반 논의형 문제일지라도 찬반 논의에만 그치지 말고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가서 생겨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 혹은 전망을 간략히 언급해 주는 것이

좋다. 만일 어떤 입장이나 제도를 찬성한다면, 거기서 생겨나는 부작용이나 약점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고, 어떤 입장이나 제도를 반대한다면, 대안적인 입장이나 제도를 밝혀주면 더 좋겠다. 논술은 문제 해결을 겨냥하는 글이므로 글의 성격상 마지막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요구사항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 물론 논제의 주요 요구사항은 아니므로 가볍게 다루면 된다.

(2) 답안의 분량에 따른 구분

학생 입장에서는 연습이나 실전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바로 답안의 분량이다. 분량에 따라서 접근법이나 시간 운영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유형별로 접근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자.

가. 일반적 분량 (1,600자 내외)

1,600자 내외의 글을 요구하는 대학은 다수이며, 1,600자 내외의 글은 그동안 계속 시행해 왔던 유형이기에 준비 방법이 이제 일반화되어 있어서,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동안 채점 과정에서 많이 지적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보자.

(가) 제시문 파악이 특히 중요하다.

1,600자 유형을 출제하는 대학들은 갈수록 제시문에 대한 독해 능력을 측정하는 비중을 높이고 있다. 그래서 점점 제시문의 수준이 높아지고 제시문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제시문의 수준이 높아지는 이유는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대학 입장에서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접근을 하게 된다. 제시문의 분량을 늘리거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다. 제시문의 분량이 길어지거나 제시문 자체의 수준이 높아지면, 평소에 독서를 풍부히 하면서 독해 능력을 길러 놓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가리기가 더 쉬워진다. 그리고 짧은 제시문을 주더라도 단순히 하나하나의 내용을 파악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제시문들을 서로 특정한 방식으로 관련지어서 논술하게 하는 요구들이 최근 많아지고 있는 것도 제시문

독해에서 변별력을 높이려는 대학들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더구나 이제 교육부가 발표한 논술 기준에 따라서 영어 제시문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국문 제시문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또한 그림이나 사진, 도표 등 다양한 제시문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읽기 지도를 특히 강화해서 제시문 독해 능력을 기르도록 지도해야 한다. 수능 제시문 길이보다 호흡이 긴 제시문이나, 더 짧지만 밀도가 높은 제시문들을 많이 다루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나) 반드시 개요를 짜되, 문장 개요를 짜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느 수준 이상의 학생들은 1,000자 미만의 글은 메모식의 화제 개요만으로도, 혹은 때로는 개요 없이도 원래 구상한대로 작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1,600자 유형의 답안을 개요 없이 원래 의도했던 방향을 유지하면서 체계적으로 작성기는 쉽지 않다. 메모식 화제 개요만으로는 접근하면, 원래의 의도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답안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비켜 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꼭 사용할 문장들을 미리 만들어 적절히 배치한 문장 개요를 짜고, 이 문장들을 사용하면서 답안을 작성해야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된다. 이런 점에서 귀찮더라도 문장 개요 짜기는 매우 중요하다.

(다) 짜임새 있는 단락구성이 관건이다.

1,600자의 글도 긴 글이 아니다. 분량이 제한된 대입 논술 답안은 주어진 지면에 누가 심층적인 내용을 짜임새 있게 배치하는가에 의해 평가가 갈리게 된다. 따라서 문제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답해야 할 내용을 정리한 다음, 우선 한 단락에 한 가지 내용을 배치하고, 나아가 각 단락의 연결에 논리적인 비약이 없도록 전체를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지도해야 한다. 내용이 반복되거나 논의가 산만해지면 치명적인 감점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라) 첫 단락은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 된다.

1,600자 유형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첫 단락에 필요 이상의 분량과 시간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현명한 전략이 아니다. 첫 단락은 필요한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 된다. 첫 단락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서론의 기능, 즉 문제 제기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두괄식으로 글을 쓸 경우에는 첫 단락에서 문제 제기와 더

불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혀줄 필요도 있을 것이다.

1,600자 유형을 답안에서는 첫 단락의 서술이 장황해지면 정작 필요한 본론의 논거 부분이 허약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첫 단락에서 괜히 멋을 부리려고 고민하다보면 시간이 모자라서 정작 중요한 본론에서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따라서 쓸데없는 과욕을 부리지 말고 첫 단락은 비교적 간략하면서도 필요한 내용을 담담하게 충실히 담고 빨리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결론에서는 요약이나 강조에 그치지 않도록 하자.

마지막 단락에서 학생들은 거의 기계적으로 앞의 내용을 요약하고, 강조하는 것으로 마친다. 그러나 이런 결론은 실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1,600자 글 중에 아무런 새로운 내용이 없이 요약하고 강조하는 단락을 300자 쓴다면 실제 글은 1,300자 글에 불과한 것이 된다. 내용이 부실한 글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 단락은 요약이나 강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내용이 첨가되어야 한다. 어떤 내용이 첨가되어야 할까? 앞서 밝혔듯이 논술이라는 글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마지막 단락이 문제 해결의 방향이나 전망, 대책이나 대안 같은 것을 제시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 또는 본론에서 이미 이런 내용을 밝혔으면 자기주장이 가진 사회적 의미나 함축을 제시하는 것도 좋다.

특별한 경우에만 마지막 단락에 요약이나 강조의 내용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대입 논술에서는 분량의 제한이 있는데, 이 제한을 어겼을 경우에는 상당히 감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아무리 노력해도 요구하는 분량을 채울 수 없을 때에는 마지막에 요약, 강조의 단락을 써서라도 요구하는 분량을 맞추어야 한다.

나. 짧은 분량 (1,400자 이하)

대입 논술에서는 800자에서 1,400자 정도 사이의 분량으로 답안을 요구하는 대학들도 상당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논술 답안을 작성할 경우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가) 글의 내용이 중요하다.

짧은 답안일수록 글의 내용이 채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커진다. 형식을 제대로 갖추어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내용도 너무 많은 것을 담고자 과욕을 부리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을 취사선택해서 접근해야 한다. 논제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논거도 가장 핵심적인 논거만을 선택하여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논거의 양보다는 질로서 승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유형의 경우 때로는 논증보다는 아이디어나 발상을 중심으로 보면서 논리적 엄밀성 보다는 창의성을 더 중시하는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학생들로 하여금 문제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아이디어 제시에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핵심 논거 제시에 중점을 둘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나) 본론 중심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짧은 글에서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을 단락을 나누어 제대로 갖추려고 하면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본론을 쓴다는 기분으로 접근하면서 첫 단락의 앞부분은 도입, 마지막 단락의 뒷부분은 결말이라는 느낌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 달리 말해 주어진 쟁점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첫 단락부터도 문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서론과 결론 단락을 따로 구성하더라도 최대한 분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내용을 충실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서론은 핵심 문제만 제시하고, 결론은 대안을 간략히 제시하는 방식 등을 활용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다) 단락을 나누되 단락 수를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짧은 글이므로 단락 수는 가급적 많지 않은 것이 좋다. 물론 전체를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글의 논리적 구성을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없어서 독자에게 체계적인 전달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단락을 너무 잘게 나누면 논의가 산만해지거나 각 단락의 내용이 부실해져서 심층적인 논의가 힘들어진다. 따라서 단락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나누어서 글의 논리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말해 1,200내외라면 네 단락 정도도 큰 무리 없이 구성될 수 있겠지만, 1,000자 미만의 답안이라면 세 단락 정도면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 긴 분량 (2,500자 내외)

현재 2,500자 내외의 답안을 쓰게 하는 학교는 서울대 밖에 없다. 서울대도 2008학년도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다른 대학 중에도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분량을 늘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

(가) 글의 분량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다.

답안의 길이가 과거 1,600자 내외에서 2,500자 내외 수준으로 늘어난 것은 단기간의 학습을 통해 외어서 쓴 답안과 창의적인 사고를 보여주는 답안을 쉽게 구별해 내기 위한 것이다. 이 유형에 대해서는 수능 이후에 단기적인 대비를 통해서도 결코 좋은 성적을 낼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평소에 읽고, 생각하고, 쓰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이 분량의 글을 지속적으로 구성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요구하는 분량에 답안이 미달할 경우에는 감점 처리되며, 크게 미달할 경우에는 과락이 적용될 수 있다.

(나) 문제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분량과 시간이 늘어나면서 생긴 변화는 문제의 성격과 관련된 것이다. 이 유형 문제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복합적이라는 것이다. 분량과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과거처럼 비교적 간단한 요구사항을 단순히 연결시켜 논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당히 복잡한 방식의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선 두 제시문의 내용을 파악한 다음, 그 내용을 주어진 쟁점이나 문제와 관련하여 각각 발전시키면서 논리적으로 연결지어서 어떤 대상이나 문제를 분석한 다음, 거기에다가 그 대상이나 문제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덧붙이는 방식이다. 따라서 제시문을 독해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하고 제시문에 기반 해서 자신의 견해를 특정 방식으로 세우고 이를 전개시키는 능력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다) 창의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논술고사는 글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 창의적으로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창의력이란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논제에 접근함으로써 독창적인 사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런데 대체로 학생들은 아직도 단편적 암기를 통한 점수 위주의 학습에 많이 빠져있다 보니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창의력이다. 그래서 이 유형을 시행하는 서울대 논술에서는 창의력에 대한 평가가 강조되고 있다. 독자적인 사고를 보여주는 답안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창의력이라는 것이 엉뚱한 생각, 특이한 생각을 해내는 능력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창의력이라는 것은 자기 나름의 생각을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장이 새롭고 참신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런 주장을 얼마나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정당화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3) 고전 논술의 유형 구분 : 논제와 제시문의 성격에 따른 구분

가. 고전 논술의 유형 구분

앞서 고전 논술은 제시문과 논제의 성격에 따라서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자.

가) 유형 1: 고전 제시문-현대 논제

이 유형은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유형이다. 예시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논제> 다음 제시문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피그말리온 이야기이다. 현대인의 삶에 비추어 볼 때 피그말리온 신화는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이 신화가 현대 사회에서 시사하는 바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1998학년도 연세대)

<제시문 요약> 조각가인 피그말리온은 여자의 결점을 너무나도 많이 본 나머지 마침내 여성을 혐오하게 되어 평생 결혼하지 않고 지내기로 작정하였다. 그는 어느 날 빼어난 솜씨로 상아(象牙)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이 얼마 나 아름다웠는지 살아 있는 어떤 여자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였다. 이 조각상은 부끄러워서 움직이지 않을 뿐이지 정말 살아있다고 여겨질 만큼 완벽한 처녀의 모습이었다. 피그말

리온은 자신의 작품에 감탄하여 자연의 창조물 같은 이 조각상과 사랑에 빠졌다.

그는 조각상에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는 보석을 끼우고,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주었으며, 귀에는 귀걸이를 달아 주고, 가슴에는 진주타래를 늘어뜨려 주었다. 옷은 조각상에 참 잘 어울렸으며, 옷을 입은 맵시는 옷을 입지 않았을 때나 매한가지로 매력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자기의 아내라고 부르며 사랑스러워 했다.

마침내 피그말리온은 아프로디테의 제전 때 제단 앞에서 자신의 상아 처녀를 인간으로 만들어 아내로 삼게 해 달라고 빌었다. 피그말리온이 집으로 돌아가서 보니 그리하여 조각상은 정말 살아있었다. 아프로디테 신의 그의 소원을 들어 준 것이다. 피그말리온은 여신에게 감사의 말을 드리고, 살아 있는 처녀의 입술에 입 맞추었다. 입맞춤을 받자 처녀는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 수줍은 듯이 눈을 뜨고는 사랑하는 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아프로디테는 자신이 맺어 준 이 한 쌍에게 축복을 내려 주었다. 이들로부터 아들 파포스가 태어났는데, 아프로디테에게 바쳐진 도시 파포스의 이름은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이 문제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피그말리온의 이야기를 제시문으로 주고 이 신화가 현대 사회에서 시사하는 바를 스스로 분석해보라는 것이다. 전형적으로 고전 제시문에 현대 논제를 준 문제이며, 논제의 경우도 어떤 제한을 주지 않고 완전히 개방된 형태로서 학생이 현대 사회에 대한 나름의 문제의식에 따라 신화의 내용을 자유롭게 해석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전 텍스트, 특히 신화는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열린 텍스트이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 대한 학생의 문제의식이 사실은 신화를 해석하는 관건이 될 것이며, 따라서 자신의 관점을 투영하여 비판적으로 글을 읽으면서도 자의적인 해석에 빠지지 않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고전 텍스트가 함축하고 있는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현대의 상황에 비추어서 읽어내어 논술하는 문제로서 <고전 제시문 - 현대 논제>의 대표적 유형이라 하겠다.

(4) 유형 2 : 고전 제시문-고전 논제

고전 제시문에 고전적인 논제를 주는 문제도 고전 논술의 전형적 유형 중 하나이다. 우선 예시 문제부터 보자.

<논제> 다음 제시문은 죽음에 대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태도 중 일상적인 일부가 드러나 있다. 이를 논거로 활용하여 인간이 죽음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논술하라. (2001학년도 서강대)

<제시문 요약>

(가) 플라톤 『파이돈』 중 죽음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주장 :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마음의 정화라는 것은 결국 육체의 쇠사슬에서 분리되어 영혼이 해방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고 해방되는 것이다. 따라서 죽음이야말로 철학자들이 추구하던 목표와 유사한 상태로 가는 것이기에 하등 마다하거나 슬퍼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참된 철학자는 늘 죽는 일에 마음을 쓰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죽음을 가장 덜 무서워하는 자일 것이다.

(나) 『장자』에서의 죽음에 대한 태도 : 죽음을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은 생사라는 자연의 도리에서 벗어나 진실을 거역하고 하늘로부터 받은 본분을 잊는 것이다. 사람이 어찌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태어날 때를 만났기 때문이며, 그가 어찌다 이 세상을 떠난 것도 죽을 운명을 따랐을 뿐이다. 그 때를 편안히 여기고 자연의 도리를 따라간다면 기쁨이나 슬픔 따위 감정이 끼여들 여지가 없는 것이다. 태어나기 이전의 근원을 살펴 보라. 본래 삶이란 없었던 것이다. 삶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래 형체도 없었고, 비단 형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시 기(氣)도 없었다. 그 저 흐릿하고 어두운 속에 섞여 있다가 변해서 기가 생기고, 기가 변해서 형체가 생기며, 형체가 변해서 삶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시 변해서 죽어 가는 것이다. 이는 춘하추동이 되풀이하여 운행함과 다르지 않다.

이 문제의 제시문은 죽음에 대한 전형적인 입장 중 일부를 보여주는 고전 텍스트이다. (가)는 죽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이다. 죽음을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을 얻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나)는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중립적인 관점이다. 자연의 도리에 순응하는 것이다. 두 입장은 모두 삶에 더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죽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일상인의 모습과는 다른 태도를 보여준다. 이 문제는 제시문을 적절히 이용하여 죽음이라는 고전적인 주제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둘째 유형은 현대의 관점에서 고

전 제시문을 이해하고 이를 다시 현대에 적용하는 첫째 유형과는 달리 고전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하여, 가능하면 보편적인 관점에서 논술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논의 과정에서 현재의 문제 상황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현대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직접 건드리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첫째 유형과 다르다고 하겠다.

(다) 유형 3 : 비교전 제시문 - 고전 논제

이 유형은 주로 제시문에 시사성이 강한 내용을 주고, 논제에는 고전적인 물음을 주는 것이다. 예시문제를 보자.

〈논제〉 다음 제시문은 싸이보그도 인간과 동일한 존재로 인정되어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 하되,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주된 논거로 삼아 논술하라.

〈제시문〉 싸이보그도 기술적으로 발전되어 자신만의 기억을 갖고, 자의식을 갖게 되면 비록 생물학적으로는 자연적이지 않고, 인간에 의해 제작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의 상태를 기준으로 할 때 하나의 인격체로 간주될 수 있고, 따라서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의 내용.

이 유형의 문제에서는 제시문은 주로 시사적이거나 최근에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등장한다. 예시 문제의 경우도 싸이보그라는 현대적이며 아니 오히려 미래적인 대상에 대한 논의를 제시문으로 준다. 그러나 묻는 물음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고전적 물음이다. 변화된 상황 속에서 인간에 대한 고전적 이해 중 어떤 이해가 적절한 관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고, 혹은 문제에 따라서는 고전적 물음에 대해 어떤 새로운 답을 추가할 수 있는지를 묻게 된다. 복제가 일반화되고 용이해짐으로써 지식의 공유가 일반화되어 가는 정보사회를 배경으로 주고 ‘사적 소유’ 개념의 정당성 여부를 묻는다든지, 특정 사이트 폐쇄와 관련된 기사를 주고, 자기표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묻는 문제 등도 이 유형에 속하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고전 논술 문제를 세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유형상의 분류만은 아니다. 고전과 논술이 만나는 가능한 방식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고, 고전을 논술 지도에서 어떻게 이용할 것이지를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다음 작업은 각 고전 논술 문제의 유형을 실마리로 삼아 각 유형별로 고전과 논술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고, 고전이 논술 지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될 것이다.

나. '유형 1'에 대한 접근법

(가) 제시문 이해가 결정적이다. 우선 제시문을 잘 이해해야 한다.

이 유형의 문제는 역시 글쓰기 이전에 글 읽기가 중요함을 잘 보여주는 유형이다. 예시 문제를 보자.

<예시 문제 1> (1998학년도 서울대)

• 논제 : 다음 글은 어느 소설의 한 장면을 옮겨 놓은 것이다. 이 글은 '복서'의 죽음을 둘러싼 이야기를 통해 인간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암시하고 있다. 어떤 문제들이 이 글에 암시되어 있는지 글의 내용에 근거하여 밝히고, '복서'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자의 견해를 논술하라.

• 제시문 내용 : 우직할 정도로 성실하게 일하는 말(복서)은 풍차를 만드는 작업을 마치기 위해 돌덩이를 혼자 운반하다가 부상을 입는다. 복서가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렵게 되자 농장의 지배자인 우두머리 돼지 나폴레옹과 그의 수하인 스켈러는 복서를 폐마 도살장에 팔아넘긴다. 그리고는 복서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복서의 추모제를 열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돼지들끼리 복서를 팔아치운 돈으로 술을 사다 마신다.

이 문제의 경우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 농장』(1945)의 한 장면을 제시문으로 주었다. 이 작품은 동물들을 의인화하여 인간 세계를 풍자한 고전적인 우화 소설이다. 자유와 평등의 이상을 위해 농장주를 몰아낸 동물들이 그들의 왕국을 건설하지만, 권력을 잡은 돼지 나폴레옹의 독재와 기만적 술책으로 유토피아가 실현되지 못함을 그리고 있다. 이 소설은 스탈린 시대 소련의 독재 권력 체제를 풍자하고 있다는 평을 받기도 하였다.

논제는 “인간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라고 지칭하기 때문에 꼭 현대의 상황만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쟁점의 성격 상 현대 사회의 문제와 연결하지 않을 수 없다. 제시문으로 선택된 부분은 독재 사회에서 권력 구조의 속성이나 지배 구조의 모순과 연결지을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등장하는 지배 계급의 횡포 문제, 혹은 지배 계급의 정보 독점과 미디어 조작에서 비롯된 피지배 계급에 대한 기만 현상,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따르는 피지배 계급의 순응적 태도 등의 문제들이 의미 있게 논의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을 건드리면서 자신의 입장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유형의 고전 논술의 경우, 우선 제시문의 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이 논술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시문을 제대로 이해해야 제시문의 내용에 조응하는 쟁점과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 제시문에서 지배 권력 문제를 도외시 한 채 자본가의 횡포와 노동자의 희생이라는 경제적 측면만을 부각한다든지, 혹은 산업사회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기계화, 노동의 도구화나 소외 문제로만 초점을 맞춘다면 제시문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이처럼 분명한 주제가 있는 제시문의 경우에는 제시문 이해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고전 논술의 출발이다.

(나) 자신의 문제 의식을 창의적으로 살려야 한다.

첫째 유형의 고전 논술에서는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는 역시 그에 대응하는 자신의 문제 의식을 명료하게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의 쟁점 중 어떤 쟁점과 연관시킬 지가 과제로 주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다. 앞서 보았던 예시 문제를 다시 검토하자.

<예시 문제2> (1998학년도 연세대)

• 논제 : 다음 제시문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피그말리온 이야기이다. 현대인의 삶에 비추어 볼 때 피그말리온 신화는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이 신화가 현대 사회에서 시사하는 바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이 문제는 피그말리온 신화의 상징적 의미를 잘 파악하여 현대 사회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능력을 측정한다. 특히 신화의 의미를 현대 기술 산업 사회에서 파생되는 인간관계의 문제와 기술 문명의 문제에 적용하여 재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며, 결국 학생의 문제의식이 강하게 투영될 수밖에 없다. 일단은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처럼 상징성이 강한 열린 제시문의 경우에는 과연 이 신화를 어떻게 해석해서 현대 사회의 어떤 문제와 연결시킬지가 더 관건이 된다. 실제로 이 신화는 현대 사회의 여러 차원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현대사회의 인간 소외 및 그로 인한 고립감과 애정 결핍, 인간과 사물에 대한 사랑과 애정의 부족, 종교적 믿음의 상실, 컴퓨터에 대한 몰입으로 인한 개인의 고립화 현상, 사이버 공간을 마치 현실 세계라고 여기는 경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고 그에 탐닉하는 문제 등등 다양한 문제들에 적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전의 내용을 적용할 문제를 명료하게 규정하지 않은 채, 학생의 문제의식 자체를 측정 대상으로 삼는 논제들은 채점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변별력을 높이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주 출제된다. 답안의 앞부분만 읽어도 학생이 평소에 나름의 문제의식이 있는 학생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특히 이런 문제는 답안의 앞부분에서 자신의 문제 의식을 얼마나 명료하고 첨예하게 드러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다) 문제의 요구 사항을 잘 따라가야 한다.

첫째 유형의 고전 논술의 경우 때로는 현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주기도 한다. 이럴 경우에는 특히 문제의 요구 사항을 잘 따라 가는 것이 중요하다. 대입 논술 문제로는 형식이 새로운 문제 하나를 예시 문제로 보자.

<예시 문제 3> (2001학년도 성균관대)

• 논제 : 아래에 제시된 고대의 신화나 설화들은 각기 여러 가지 복합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 함의들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 청소년 문화의 성격을 검토하는데 유효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찾아, 이에 비추어 청소년 문화의 다양한 현상들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논술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 문화의 어떤 현상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든 이는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1) 소재(素材)로 제시된 어휘들 및 자료문들을 반드시 모두 활용하고, 2) 논의의 내용들이 각기 자료문 중 어느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지 드러나도록 하시오. 또, 3) 소재 어휘들 및 자료문들이 제시된 순서에는 구애받지 말고 논술하되, 논술문 가운데 등장하는 소재 어휘에는 밑줄을 그어 그것이 활용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시오.

※ 소재 어휘 : '스타', 자아, 벗, 사이버 세계, 욕망, 관계

• 제시문 내용 :

- 1) 『삼국유사』의 효성왕과 신충 일화 : 효성왕이 신충과 했던 약속을 잊었다가 신충이 잣나무에 붙인 노래를 보고는 약속을 기억하여 약속을 지키는 일화
- 2) 『장자』에 나오는 ‘의태(意怠)’라는 새가 주는 교훈 : 앞장서거나 나서지 않기 때문에 재난을 면하는 새와 같이 자기를 꾸미거나 돋보이게 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이 현명하다.
- 3)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오뒤세우스의 일화 : 바다의 요정 세이렌의 노래를 듣지 못하게 하도록 자신의 몸을 묶고 귀를 막아 살아 남은 오뒤세우스 일화
- 4)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 이야기 : 샘물 수면에 비친 자기 모습에 반해서 샘 가를 방황하면서 제 모습만 보는 나르키소스 이야기

이 문제는 고전 제시문을 주고 오늘날의 청소년 문화라는 구체적인 문제를 지정해서 이에 고전의 문제의식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 특이하게도 ‘소재 어휘’를 힌트로 삼아서 접근하도록 하고 있다. 소재 어휘를 제시한 이유는 논술 내용의 모색에 도움을 주면서, 암기해 놓은 어떤 내용을 적당히 주제에 연관시켜 기술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문제의 요구 사항을 충실히 따라 가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소재 어휘가 고전 제시문과 현실의 문제를 연결하는 매개가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문제에 접근하면 된다.

우선 소재 어휘들을 문제의식의 실마리로 삼아서 청소년 문화의 여러 현상과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벗’, ‘관계’는 지나친 경쟁 문화나 왕따 현상과 연결시키고, ‘스타’, ‘욕망’은 지나친 스타 추종 현상과, 그리고 ‘자아’, ‘사이버 세계’는 인터넷 중독 현상 등과 연결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제시문과 소재 어휘를 연결시키면 된다. 이때는 제시문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따라 다양한 조합들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면 ‘벗’, ‘관계’는 제시문 1과, ‘스타’는 제시문 2와, ‘욕망’은 제시문 3과, 그리고 ‘자아’, ‘사이버 세계’는 제시문 4와 연결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연결을 기초로 하여 제시문의 내용을 오늘날의 청소년 문화의 문제에 적용하면 될 것이다.

다. ‘유형 2’에 대한 접근법

둘째 유형은 고전 제시문을 주고는 고전적인 문제에 대하여 논술하게 하는 유형이다. 첫째 유형이 고전의 문제의식을 현실에 적용하는 문제였다고 한다면, 둘째 유형의 경우 제시문으로 고전을 주는 것은 첫째 유형과 마찬가지로, 이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고전적인 문제에 대하여 물음을 던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대체로 인간이 삶 속에서 부딪히는 보편적인 문제를 물음으로 삼고, 이를 위한 실마리가 되거나 혹은 전형적인 대답에 해당하는 제시문들을 주는 둘째 유형도 대학 입시에서 자주 출제되어 온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 유형에 대한 접근 방식을 살펴보자.

(가) 제시문 보다는 쟁점 자체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

이 둘째 유형의 경우에는 제시문에 대한 이해보다는 논제가 다루는 쟁점 자체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 그 쟁점 자체가 왜 문제가 되며 어떤 점에서 쟁점거리인지를 이해하고 있으면,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논술해 나가기가 그만큼 쉬워지는 것이다. 쟁점 자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 쟁점에 대한 논의의 지도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쟁점에 대하여 어떤 서로 다른 입장들이 가능하며, 각 입장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입장들 서로 간에 어떤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세세한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체 그림을 대충 그릴 수 있다면, 둘째 유형의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접근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평소에 사회나 시대의 특수성을 뛰어 넘어서 인간 삶에서 보편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되는 문제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서도 근본적인 고민거리로 내재해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얼마나 진지하고 깊이 있게 성찰하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결국 이 유형은 학생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등 평소의 관점과 문제의식을 드러내게 하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보다

는 얼마나 고민의 과정을 겪으며 자신의 관점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평가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 유형에서 자주 출제되는 보편적인 쟁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 보편적으로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 가령 자유, 평등, 정의의 문제.
- 보편적 인류애와 관련되는 문제, 가령 이웃 사랑의 의의, 국가 간의 전쟁은 불가피한가, 세계의 평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문제.
- 선악의 근본 문제, 즉 무엇이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에게 옳은 일이나 하는 문제, 이 양자의 구별과 그 의의.
- 공동체 원리의 문제, 가령 개인간·계층간·계급간·지역간·국가간 갈등의 원인 분석과 문제 해소 방안.
- 역사 원리의 문제 또는 인간사를 긴 안목으로 보아야 함을 일러 주는 사례·사건의 조명.
- 우주에서의 인간의 지위 문제, 예를 들어 인간은 자연 안에 있는가, 자연 위에 있는가 하는 문제.

(나) 쟁점의 눈으로 제시문을 읽을 필요가 있다.

쟁점 자체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한 유형이다보니, 제시문을 읽힐 때에도 쟁점에 대한 지도를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이런 유형은 문제가 되는 쟁점에 대한 대표적인 입장들을 제시문으로 주기 마련이다. 서로 대립되는 입장을 대변하는 두 제시문을 주는 경우도 많지만, 고전적인 쟁점들에 대한 접근은 보통 찬반이라는 단순한 구도에 그치지 않고 다각적인 구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셋 이상의 제시문을 주는 경우가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유형의 문제에서는 찬반 논의형 문제가 주종을 이룬다. 왜냐하면 현재의 문제를 다룰 경우에는 문제점이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문제 해결형 문제도 가능하지만, 고전적인 물음을 물을 경우에는 결국 그 쟁점에 대하여 자신의 가치관에 기반 한 학생 개인의 입장과 관점을 제시하도록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유형의 물음에 대해서는 애매한 절충적 입장에 서기보다는 확고한 자기 입장을 밝히고 논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는 접근법이다.

예시 문제를 하나 검토해보자.

<논제> 아래 제시문들은 학문을 하는 이유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가)와 (나)와 (다)의 관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학문을 하는 이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1999학년도 이화여대 모의평가)

(가) 주희, 『석자중에게 보내는 답장(答石子重)』 중 일부

- 요지 : 학문을 하는 까닭은 성인의 마음을 갖추기 위해서이다.

(나) 프랜시스 베이컨, 『학문에 관하여』 중 일부

- 요지 : 학문을 하는 것은 즐거움과 장식(裝飾)과 능력을 위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즉 적절한 효용성 때문이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학문을 경멸하거나 숭배하지 않고 이용하는 지혜를 갖추고 있다.

(다) 막스 베버, 『직업으로서의 학문』 중 일부

- 요지 : 학문을 하는 이유는 세계를 주술적으로 이해하는 데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서이다.

이 문제는 ‘학문을 왜 하는가?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라는 고전적인 쟁점을 묻고 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제시문에는 이 문제에 대한 동서고금의 대표적 입장 세 가지가 나와 있다. (가)는 고전적인 동양의 입장으로 자아 완성, 인격 완성을 내세우고 있고, (나)는 근대 과학기술의 발전을 뒷받침했던 대표적 입장으로 실용성을 내세우고 있고, (다)는 현대의 입장으로 합리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 쟁점에 대한 대표적인 접근이 이렇게 세 가지 입장이 있다는 것을 대충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문제를 찬반 논의형 문제로 보고, 어떤 입장이 자신의 견해에 가장 가까운지를 정한 다음 다른 입장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해 갈 것이다. 그런데 쟁점에 대한 지도가 전혀 머리 속에 없는 사람은 어렵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에서는 논의의 전체 구도를 전혀 모를 경우, 논제의 ‘비판적으로 검토’하라는 표현을 오해하여 세 입장을 다 비판하고 문제를 지적하면서 반박하고자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학생은 어려움에 처한다. 셋 다를 비판하고 나면 셋을 애매하게 절충하거나 아니면 제4의 견해를 제시해야 하는데, 양쪽 다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애매하게 절충

할 경우에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견해가 될 수 있고, 고전적인 세 견해를 모두 물리치고 전혀 다른 제4의 견해를 창안해 낸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다) 자신의 가치관과 입장을 적극 투영해야 한다.

둘째 유형의 문제는 일반적으로도 자신의 관점과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특히 아예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 놓고 논의하기를 바라는 경우도 많아 이럴 경우에는 더더욱 자기 관점을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논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이때 실제로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다수가 택하는 일반적인 관점을 자기 관점으로 채택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소수가 택하는 특수한 관점을 자기 관점으로 채택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문제이다. 물론 평소의 자기 생각에 기반하여 접근해야 하겠지만, 특히 논술시험의 경우에는 다수 입장을 택하려니 너무 평범하고, 소수 입장을 택하려니 너무 튀고 해서 고민스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실 어떤 입장을 택하는가 하는 것은 채점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대체로 논술문제의 ‘유의사항’에 ‘학생 개인의 가치관은 문제 삼지 않음’이라는 항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채점의 대상은 자기가 택한 입장을 얼마나 적절한 논거를 들어 정당화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소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소수 입장을 택해서 나름의 논거만 제대로 들 수 있다면 그쪽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고득점을 위한 기술적인 테크닉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아무리 소수파의 생각일지라도 떳떳하게 자신의 견해를 최대한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예시 문제를 하나 들어 보자.

<논제> 인간은 때때로 극복하기 어려운 역경과 고통에 처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방식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카뮈의 소설 '페스트'에는 페스트로 인한 재난의 상황 (제시문 A)에서 고통 받는 오랑 시(市) 주민들의 사고와 행동이 나타난다. 제시문 (가), (나), (다)의 세 인물(기자 랑베르, 신부 파늘루, 의사 리유)이 각각 역경에 대처하는 방식을 정리하고, 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자신의 인생관과 관련지어 비판적으로 논술하라. (2000학년도 서강대)

<제시문 내용>

- (가) 기자 랑베르 : 개인의 행복을 위해 페스트로부터 피신하는 모습
- (나) 신부 파늘루 : 페스트를 신의 징벌로 해석하여 반성을 촉구하는 모습
- (다) 의사 리유 : 페스트와 맞서 싸우는 모습

이 문제도 전형적인 둘째 유형의 문제이다. 결국 논술자는 자기 인생관에 비추어서 역경과 고통에 대한 세 인물의 대응을 나름대로 유형화시켜서 검토해보고 자기 입장을 선택해야 한다. 제시문 독해 방식에 따라서 세 인물에 대한 유형화는 위의 방식과 달라질 수도 있다. 여하튼 이렇게 세 방식으로 유형화시켰을 경우, 꼭 페스트에 맞서 싸우는 리유만을 선택할 이유는 없다. 때로는 합리적인 관점과 개인주의적 인생관을 강조하면서 기자 랑베르를 지혜로운 인물로 평가하고 옹호할 수도 있고, 종교적 세계관이나 인생에 대한 겸손한 관점을 제시하면서 신부 파늘루를 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문제는 얼마나 자신의 관점을 명료하고 일관되게 제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이런 일관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른 입장에 대하여 합리적인 비판도 가능해야하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입장에서 제기되는 반론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가치관과 입장을 적극 투영시키되 최대한 논리적 일관성을 견지하는데 온 힘을 쏟는 것이 중요하다.

라. ‘유형3’에 대한 접근법

(가) 고전 논술의 새로운 유형

지금까지 대부분의 논술 문제는 제시문에서 읽을 자료로 고전을 주기 때문에 ‘고전 논술’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현대의 저서라 할지라도 그것이 고전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전형적인 한 입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이론적인 책이거나, 전형적인 인간형이나 사건을 제시하는 문학 작품의 경우에는 현대의 고전으로 인정해서 고전 논술의 범주에 들어 올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다시 말해 ‘고전 논술’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는 제시문의 성격에 의해 붙여진 이름이다. 따라서 앞서 다루었던 두 유형, 즉 고전 제시문을 주고 현대적인 물음을 묻거나, 고전 제시문을 주고 고전적인 물음을 묻는 두 유형이 고전 논술의 일반적인 유형이다.

그러나 논술 문제를 제시문의 성격만으로 나누게 되면 무리가 따르게 된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사실 제시문이 논술 문제에서 가지는 비중은 오히려 부차적이다. 오히려 문제의 물음, 즉 일반적으로 ‘논제’라고 부르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결국 학생이 자신의 견해를 밝혀야 할 대상은 논제이기 때문에 논술 문제의 성격은 무엇을 읽을 자료로 주느냐 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묻는가 하는 것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또한 실제로 학습 방법이나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도 제시문 보다는 물음의 성격이나 묻는 방식에 따라 더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전 논술’이라는 분류 방식이 단지 외형적이고 피상적인 분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학습 과정 및 문제에 대한 접근 과정을 유도하는 교육적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논제’의 성격에 대해서도 최소한 제시문 만큼의 비중은 두고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논제가 고전적인 쟁점을 다루고 있는가 아니면 현대적이고 시사적인 쟁점을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고전 논술’ 여부를 가늠하는 본질적인 기준으로 추가할 경우, 제시문과 논제 중 적어도 하나가 고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 일단 ‘고전 논술’이란 범주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제시문만 고전인 경우 논제만 고전적 쟁점인 경우, 양자가 겹친 경우들을 다시 나누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 유형으로 구분했던 것이다.

(나) 세 유형의 보완적 성격

대입 논술 문제를 놓고 보면 지금까지는 ‘고전 논술’에서 제시문을 고전으로 주는 문제가 주류를 차지하였다. 다시 말해 고전의 문제의식을 현실에 적용하거나 그 문제의식 자체를 보편적인 접근을 통해 다루어 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현대적이고 시사적인 제시문을 주고 고전적인 논제를 주는 세 번째 유형의 빈도가 전보다는 높아질 수 있다. 정보화, 세계화 등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새로 등장하는 문제나 논쟁거리들을 단순한 호기심이나 시류에 사로잡혀 유행처럼 다루지 않고, 문제의 본질적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삶의 보편적인 문제지평 속에서 해석해내는 능력이 요청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문제의 성격과 그 속에 내포된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 내어야만 다음으로 풍부한 고전의 자원들을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버전으로 바꾸어 응용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 자체가 적합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고전 논술의 세 유형은 실제로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되는 다음과 같은 3단계 과정에 대응하여, 각 단계에 필요한 적절한 능력을 훈련하는 교육적 의미를 가진다.

[1단계] 문제 인식 단계 : 새롭게 제기된 문제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단계

- 현대적이고 시사적인 내용의 제시문을 고전적 쟁점과 연결시키는 훈련 (고전 논술의 유형 3)

[2단계] 대안 수집 단계 : 해결을 위한 대안들을 수집하고 검토하는 단계

- 고전의 내용들이 어떠한 고전적 쟁점에 대하여 어떠한 전형적인 입장을 보여주는지 이해하는 훈련 (고전 논술의 유형 2)

[3단계] 문제 해결 시도 단계 : 고전적 입장을 현실의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단계

- 고전의 내용을 현실적 쟁점에 적용하는 훈련 (고전 논술의 유형1)

문제 해결 과정을 전투에 비유하여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라는 말을 적용해 본다면, 해결해야 할 문제의 성격을 정확하게 아는 과정인 1단계는 무찔러야 할 적을 아는 과정이다. 대안을 수집 검토하는 과정인 2단계는 나를 아는 과정이고, 적절한 대안을 현실에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해내는 3단계는 승리하는 단계에 해당될 것이다. 결국 적을 아는 것이 승리의 출발점이듯이, 문제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기에 1단계의 중요성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고, 따라서 고전 논술에서도 이 단계와 관련된 셋째 유형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 현실에서 고전적 쟁점으로 : 전형적 예

이미 출제된 것은 아니지만 현대 제시문으로 고전적 쟁점을 다루는 전형적인 경우 하나를 생각해보자. 낙태 문제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낙태가 성행하고 있고, 이와 연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가 되어 버린 낙태를 법적으로 상당 부분 인정함으로써 실제로 관리가 가능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낙태의 법적 허용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어 왔고, 얼마 전에는 응급 피임약의 도입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그런데 이렇게 현실적 논의가 담긴 제시문을 주고 이 문제

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고전적인 쟁점을 다루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낙태와 관련된 현실적 쟁점들은 우선 낙태가 살인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로 귀착될 가능성이 크다. 살인으로 볼 것인가 여부가 낙태의 법적 인정 여부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논리적으로는 태아가 인간인가 아닌가 하는 쟁점과 연결된다. 왜냐하면 만일 태아를 인간으로 볼 수 있다면 낙태는 살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태아를 완벽한 인간으로 볼 수 없다면 낙태도 살인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다. 바로 이 차원에서 이른바 종교계로 대변되는 보수주의와 여성계로 대변되는 자유주의가 실제로 대립하고 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더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쟁점이 이 문제 밑에 놓여 있다. 바로 ‘인간이란 무엇인가?’하는 문제이다.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태아가 인간으로 판단될 수도 있고, 완벽한 인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의 낙태 문제와 관련된 현실적이고 시사적인 제시문을 주고, 이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논술하게 하는 논제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인간이란 무엇인가?”하는 물음이 낙태 문제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보아 최소한 두 가지 대립된 접근이 있다. 하나는 자연적인 접근으로서 인간을 생물학적이고 유전학적인 차원에서 보아, 특정한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종으로 보는 접근이다. 이렇게 보면 태아는 인간의 유전자를 완벽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낙태는 살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접근에 서게 되면 심지어 인간의 수정란도 인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수정되었더라도 착상을 방해해서 임신을 막는 응급 피임약도 결국 살인약이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간에 대한 문화적 접근이다. 인간을 인격체(person)로 보는 것이다. 즉 자의식과 반성능력을 가진 존재로 보는 것이다. 이 입장에 서게 되면 태아를 인간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태아가 자의식을 가졌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낙태는 살인에서 멀어진다. 이처럼 현실적 쟁점인 낙태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보편적이고 고전적 쟁점의 차원까지 나아가야 의미 있게 논의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셋째 유형의 문제를 출제하기에 아주 적합한 주제로 판단된다.

낙태 외에도 복제 인간과 관련된 현대적 내용의 제시문을 주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혹은 ‘개인의 정체성의 토대는 어디에 있는가’와 같은 고전적 쟁점을 문제화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예를 들어 한동안 문제가 되었던 ‘소리바다’ 사이트 관련 제시문을 통해 P2P 문제를 다루면서 소유라는 고전적 문제와 관련된 쟁점을 논제로 던질 경우에도 같은 유형의 문제가 성립될 것이다. 제시문에 꼭 첨단의 논의가 들어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이 직접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치열한 입시 경쟁과 관련된 제시문을 주면서 삶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제를 던져도 훌륭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이 유형의 문제는 학생들이 주위에서 자주 듣거나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에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자신의 경험을 투영할 수 있는 논술 문제가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점이 있으므로 교사들의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III. 논술 방법

1. 논술 문제 분석

(1) 논제 분석

가. 논제 분석의 원칙

논술 문제를 받아들이고 나서 학생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할 것도 없이 논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일이다. 출제자가 무엇에 대해 논하라고 요구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내용의 글이라도 결코 좋은 평가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학 논술 고사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바로 이 논제 분석과 관련되어 있다.

현재 각 대학의 논술 문제는 대부분 ‘자료 제시형’으로 출제되고 있다. 자료 제시형은 제시문을 참고하거나 아니면 제시문의 내용에 근거하여 논지를 전개하는 논술 문제 유형이다. 자료 제시형 문제는 크게 ‘논제²⁸⁾’와 ‘제시문’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논술의 주제, 즉 논제는 바로 ‘물음’ 속에 포함되어 있다. 논술 문제의 물음은 “무엇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박하라.”, “무엇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논술하라.” 등 다양하게 주어진다. 물음 자체가 논제가 될 정도로 비교적 분명한 논술 문제도 출제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원리적이고 깊이 있는 논제의 경우, 정확하게 무엇에 관해 논술하라는 것인가 또는 어떤 측면에 주목하여 논술하는 문제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논제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출제자가 ‘무엇’의 ‘어떤 측면’에 대해 논하라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을 말한다. 결국 이 두 가지 요소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논제 분석의 요체이다.

첫째는 ‘무엇’에 대해 논술하라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논제 파악의 핵심적인 측면으로서 제시문을 정확하게 독해하여 논술 문제의 ‘물음’ 속에 포함된 논제를 구체화하는 일이다. 자료 제시형에서 제시문은 그냥 주어지는 것

28) 보통 제시문까지 포함된 문제 전체를 ‘논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단 여기서는 논제의 의미를 좁혀서 제시문과 함께 출제된 물음에 한정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이 아니라 물음 속에 포함된 논제를 구체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제시문을 정확하게 정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독할 때 그저 읽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물음과 관련하여 분석적으로 읽어야 한다. 논제 파악의 어려움은 주로 논술 문제의 물음과 제시문 내용을 면밀히 비교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출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물음과 제시문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비교하여 그 연관성을 정확히 포착해야 한다.

비유하자면 논술 문제의 물음은 ‘낚시 바늘’이고 제시문은 ‘고기가 노는 강이나 못’이다. 낚시 바늘에 고기가 걸려들게 하려면 온 정신을 낚시 바늘에 집중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제시문을 읽어 가면서 문제의 물음을 한 순간이라고 잊지 않을 때만 물음을 구체화시킬 단서를 제시문에서 찾아낼 수 있다. 물음과 제시문이 이렇게 내용적으로 연결될 때 논제는 정확하게 포착된다. 제시문의 정독을 통한 정확한 독해와 이를 통한 ‘물음’의 단서 확보가 논제 파악에서 관건이다.

둘째는 ‘어떻게’ 논술하라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일이다. 논제에 대해 어떤 측면에서 접근해서 어떤 방식으로 논술하라는 것인가에 대한 제반 요건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한 논술을 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의 측면이 유의 사항에서 제시될 수도 있다.

대입 논술은 짧은 시간에 짧은 분량의 글을 요구하면서 효과적인 실력 측정을 위해 논제에 이렇게 요구사항을 적절히 배치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때 이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논제 파악의 핵심이다.

나. 논제 분석의 실제

논제를 분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명심해서 접근해야 한다.

(가) 논제에 나오는 용어 하나하나 낱말 하나하나 신중하게 파악해야 한다.

출제위원들은 용어 하나하나 낱말 하나하나 다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선택한다. 따라서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를 한 번 훑어 보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낱말 하나하나 따져야 하는 것이다. 전형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

<논제> 다음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과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 각기 발췌한 글이다. 이 글을 읽고 논제에 답하라. 개인들 간의 관계에 관한 예시문의 논지를 활용하여, 국가들 간의 관계를 국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당한가에 대하여 구체적 사안을 들어 논술하라. (제시문 생략)

이 논제의 경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학생이 국가들 간의 관계를 국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의 ‘필요성’과 ‘정당성’ 둘 다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하고 정당한가에 대하여”라고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요성 논의만 하고 끝난다든지, 아니면 정당성 여부에 대한 논의에서 그치게 되면 논제 파악이 잘못된 것이다. 어떤 논지를 택하건 두 차원을 다 건드려야만 논제 파악이 올바르게 된 것이다.

용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문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잘 보여준다. 만일에 출제자가 이 문제에서 ‘규제’라는 표현 대신에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에 적절한 제시문을 주었다고 해보자. 학생들의 답안의 분포는 어떻게 될까? 아마도 국가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이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므로 답안의 논지들이 한 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출제자는 찬반 논의가 다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규제’라는 강한 표현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논제의 단어 하나하나에 다 출제자의 의도가 담겨있고, 나름의 의미가 숨겨져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나) 문제의 요구사항이 둘 이상일 경우 요구 사항들 사이의 비중도 가늠하고, 요구 사항들 사이의 논리적 연관관계도 따져 보면서 접근해야 한다.

논제에서 요구사항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단지 요구 사항의 내용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선 요구 사항들의 비중을 가늠해보아야 한다. 두 요구 사항이 항상 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비중을 따져서 좀 더 중요한 요구 사항에는 시간과 분량을 더 투여해야 할 것이다. 예시 문제를 보자.

<논제> 사람들은 흔히 자기 생의 참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이웃과 사회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아래의 대화에서 드러난 사랑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논의의 근거로 삼아 자신이 생각하는 실천적 사랑의

모습과 그 실현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술하시오. (제시문 생략)

이 논제는 요구사항이 많은 대표적인 예이다. 이 문제는 문제 해결형 답안을 요구하는 유형이다. 그래서 요구사항은 크게 두 부분이다. 대화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과 이에 기반 하여 자신의 견해를 펼치는 부분이다. 대화 내용 분석에서도 ①사랑의 특성, ②문제점을 분석해야 하고, 자신의 견해 부분에서도 ③자신이 생각하는 실천적 사랑의 모습과, ④그 실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앞부분에 필요 이상의 많은 논의를 투여할 경우, 중요한 뒷부분의 논의에 대해서는 부실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고, 좋은 평가를 받기는 힘들어 진다. 따라서 나름대로 비중을 가늠하고 논의해야 한다. 물론 비중을 정하는 데에는 정답은 없다. 관점에 따라서 달리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관점에서 비중을 정하고 이를 답안에 반영하는 자체가 중요하다. 이 문제의 경우 예를 들어 네 요구사항의 비중을 2:2:2:4로 잡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 이유는 논제의 목적이 바로 실현 방안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라고 보고, 실현 방안을 다각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과제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논제처럼 요구사항이 여럿일 경우에는 요구 사항 사이의 논리적 연결도 신경 써야 한다. 이 문제는 직접적인 연결이 필요하다. 제시문에 나타난 사랑의 특성이 분석되면,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랑의 문제점을 분석해야 한다. 다음으로 내가 제시할 바람직한 사랑의 모습은 최소한 그런 문제점은 극복한 모습이어야 하며, 실현 방안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실현할 방안이어야 한다. 어떤 논리적인 비약도 없이 각 내용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대입 논술 문제에서 모든 요구사항들이 항상 이렇게 직접적인 연결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 연결 문제를 따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다음 물음을 보자.

<논제> 아래 예시문은 홍대용(洪大容)이 18세기에 저술한 『의산문답(醫山問答)』에 나오는 글로서, 실옹(實翁)이 허자(虛子)에게 지구에 대하여 가르치는 대목이다. 여기서 실옹이 보여 주는 과학 교사로서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교사의 상(像)을 제시해 보라. (제시문 생략)

이 문제의 경우에는 요구 사항이 다음 두 가지이다. ①실용이 보여주는 과학 교사로서의 장·단점 분석, ② 바람직한 교사의 상 제시. 여기서는 두 요구사항 사이의 논리적 연결이 직렬적이지 않다. 앞의 요구사항은 특수한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보여주는 과학 교사로서의 장, 단점에 대한 것이지만 뒤의 요구사항은 교사 일반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과학 교사로서의 장점으로 분석된 내용이 곧바로 교사 일반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과학 교사만의 특수한 장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요구 사항 사이의 논리적 연결이 항상 직접적인 것은 아니므로 요구 사항의 성격을 고려하여 그 논리적 관계를 가늠하는 과정이 논제 분석에서는 중요하다.

(2) 제시문 분석

가. 제시문 분석을 위한 훈련

제시문 분석은 따로 특별한 요령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에 대비하여 읽기 훈련을 하는 과정이 바로 제시문을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다. 단 학생들이 2,000자 이내의 수능 언어 영역 제시문 길이 분량의 글에만 익숙해 지다보면 대입 논술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 더 호흡이 긴 글이나, 더 짧지만 밀도 있는 글을 많이 읽히는 훈련이 필요하다.

제시문을 분석할 때에는 제시문의 논증구조를 파악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앞서 설명되었던 비판적 사고의 9요소 중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에 대한 저자의 결론은 무엇이며, 그 결론은 위해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즉 그 글의 논리적 뼈대를 찾아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차례로 던져야 한다.

- 1) 현안 문제가 무엇인가?
- 2) 결론적인 주장은 무엇인가?
- 3)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물론 근거를 찾을 때에는 텍스트에 들어나 있는 근거도 찾아 봐야 하지만 암묵적으로 깔려 있는 기본 가정이 무엇인지도 찾아낼 필요가 있다.

이런 기본적인 이해는 실제 현장에서 제시문 분석의 주된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심층적인 독해가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 과정에서는 제시문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요소들을 적용하여 심층적인 이해와 분석으로 나아가갈 필요가 있다. 심층적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답해야 한다.

- 4) 다루고 있는 주요 개념이 무엇인가?
- 5) 어떤 정보들을 이용하고 있는가?
- 6) 어떤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가?

어떤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주목하면 쉽게 파악된다. 어떤 개념이 주요하게 다루어 지고 있으며 그 개념이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제시문 분석에서 아주 중요하다. 개념 규정이 달라지면 글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집필 목적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을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때로는 저자나 집필 상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도 하다.

더 나아가 제시문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파악할 뿐 아니라 글 밖에서 그 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나 그 글에서 더 발전될 수 있는 내용을 파악해서 글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 7) 어떤 관점에 서서 논의하고 있는가?
- 8) 논의의 함축은 무엇인가?
- 9) 어떤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는가?

저자는 자기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심층적 독해를 위해서는 저자의 관점이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자가 드러난 주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그

것이 바로 함축이다. 또한 저자가 어떤 독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가도 때로는 중요하다. 맥락에서 독자라는 요소는 빠질 수 없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시문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나면 제시문에 대하여 평가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제시문을 평가할 때에는 앞서 언급한 비판적 사고의 9기준을 적절히 활용하여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접근하는 것이 비판적 평가의 과정이다.²⁹⁾

- 1) 적절한 논의인가?
- 2) 중요한 논의인가?
- 3)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가?
- 4) 분명한 논의인가?
- 5) 명료한 논의인가?
- 6) 정확한 논의인가?
- 7) 폭 넓은 논의인가?
- 8) 깊이 있는 논의인가?
- 9) 충분한 논의인가?

물론 실제 논술 고사 현장에서 제시문을 파악할 때에는 이런 질문들을 모두 던질 필요는 없다. 훈련과정에서 이렇게 치밀하게 이해하고 평가하는 훈련이 되면 문제가 요구하는 수준에서 제시문 분석이 유연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나. 현장에서의 제시문 분석

현장에서는 시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분석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때로는 제시문이 길거나 여럿인 경우들이 있고, 더구나 익숙하지 않고 난해한 개념들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또 문학 작품인 경우에는 문학적 수사나

29) 인문, 사회, 과학 각 자료집은 주어진 제시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훈련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각 제시문에 대하여 이해하고 해석하는 질문을 던진 다음, 제시문을 평가하는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논술 실전 현장에서도 주어진 논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성상의 복선 때문에 제시문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제시문 전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잘 파악이 안 되는 부분에 얽매어 시간을 낭비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제시문 각 단락별로 대체적인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정도로도 논제에 대한 글을 쓰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세밀한 부분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제시문 독해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제시문 자체에 대한 완결적인 독해보다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측면과 관련된 내용에 맞추어서 제시문을 요약하고 정리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때로는 단락별로 정리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핵심 단락을 찾아내어 그 단락을 중심으로 파악할 필요도 있다. 제시문에 따라서는 주된 주장이 특정 단락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조건 각 단락별로 주제문을 찾고 이를 연결하여 전체를 파악하는 방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곤란하다. 다음 예를 보자.

<제시문 예>

“전쟁장관 스티븐슨에게 명령해 군사 목표물은 (일본의)지상군과 해군일 뿐, 민간인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들이 아무리 야만적이고 무자비하며 광란적이라 하지만, 목표물은 역시 군사적인 것만을 대상으로 국한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1945년 8월 가공할 위력의 원자폭탄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하기로 최종 결정하던 날에 쓴 일기의 일부다. 그러나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분명히 일본전선에서 인구 밀집지역에 속해 있었다. 트루먼이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고 한다면 일기에 적힌 트루먼의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독일의 드레스덴시(市)는 17세기 이후 문화, 예술이 크게 발달해 ‘엘베강의 피렌체’로 불릴만큼 유서 깊은 도시였다. 그런데 1945년 2월 13일부터 두 달 동안 연합군은 이 드레스덴시에 다섯 차례에 걸쳐 무차별 공습을 퍼부었다. 연합군측은 아무런 군사적 목적의 시설도 없는 이 도시에 의도적으로 공습을 감행했던 것이다.

저간의 사정은 이러했다.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후 독일군은 계속 후퇴를 거듭했고, 많은 피난민들이 연합군의 공격을 피해 드레스덴으로 몰려들었다. 피난민들이 몰려들었던 이유는 드레스덴이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들이 즐비한 문화 유적의 도시이기 때문에 연합군의 폭격을 피할 수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었다. 영국의 랭커스터폭격기 8백50대와 미국의 B-17기 4백50대로 구성된 연합군 공군의 무차별 용단 폭격으로 13만 5천명이 사망했고, 숭한 문화유산들은 잿더미가 되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 그리고 드레스덴 공습 뿐 만이 아니다. 월남전에서 미군이 월맹군을 상대로 채택한 포격 전술, 그리고 최근 걸프전에서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 대한 연합군의 공습과 같은 일들도 전쟁에 직접 참가해 있는 군인 및 군사시설에 국한된 전쟁행위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무차별 집중 포격은 정당한 전쟁행위인가 아니면 반복되어서는 안 될 비도덕적 만행일까?

무차별 집중 포격을 바람직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 택할 수도 있는 전쟁수행의 한 가지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전쟁 당사국의 목표는 적군의 군사력을 분쇄하여 승리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볼 때 할 수만 있다면 적국의 주요 인구 밀집 지역에 집중적 포격을 가함으로써 적군의 사기를 급격히 저하시키는 것도 하나의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전략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전쟁이 하루라도 빨리 끝날 수 있다면, 그 만큼 전쟁으로 인해 희생될, 아군이건 적군이건 간에, 더 많은 인명의 손상을 막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 후방이 따로 없는 현대전에서 전쟁과 완전히 무관한 시민이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력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적군의 군사적 시설에 대한 조준 포격을 가했는데 부근에 사는 무고한 시민이 살상되는 경우는 전쟁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이런 경우에 포격 명령자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전쟁이란 특수 상황에서 조준 포격과 무차별 포격 사이를 엄밀하게 구분한다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인가?

이 글의 경우 글의 핵심 내용은 마지막 두 단락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각 단락을 동등한 비중으로 다룰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제시문을 분석할 때에는 우선 전체 주장이 집약되어 있는 핵심 단락이 있는지를 찾고, 그런 단락이 없는 경우 단락별로 정리를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2. 글쓰기 방법

(1) 논술 답안 구상

가. 논지 설정

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논점을 분명하게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 핵심적으로 어떤 주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 이것이 논지 설정이다. 논지 설정은 논술의 주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다. 논술 문제를 읽고 논의 주제를 파악하고 나면 논지 설정이 가장 시급하다. 논지를 설정할 때 유의할 점을 정리해 보자.

(가) 주어진 논점에 맞추어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하라.

물음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논지로 삼도록 하라. 초점이 어긋나면 논점일탈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 문제는 해결 가능한가?” 라고 물었는데 이에 대한 대답 없이 “해결 해야만 한다.”라고 주장에 그치면 논점 일탈이다. 또한 애매한 절충에 그치거나 양비론이나 양시론에 그치는 논지는 일반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자기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 논지는 분명하고 명료해야 한다.

논지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거나, 의미를 모르는 낱말들로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논지 설정의 내용 문제라기보다 논지를 표현할 때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자기가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즉 객관적인 근거를 댈 자신이 있는 방향으로 논지를 설정해야 한다. 논지를 표현하는 주제문이 짧게는 한 문장, 길게는 두세 문장 정도로 분명하게 표현되는 것이 좋다.

(다) 선택 가능한 입장들을 빠짐없이 고려하여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

입장을 정할 때는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 실제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주제보다는 다양한 입장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더 많다. 찬반의 경우에도 단순한 찬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강하게 찬성 혹은 반대할 지를 생각해야 한다. 최소한 적극 찬성과 조건부 찬성, 적극 반대와 조건부 반대 정도라도 나누어야

한다. 논거를 제시할 경우에도 만일 적극 찬성의 입장을 택했다면 우선 왜 반대가 아니라 찬성인지의 논거도 제시해야 하지만, 왜 찬성 중에도 조건부 찬성이 아니라 적극 찬성인지에 대한 논거도 제시해야 한다.

논지를 섬세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예를 앞에서 다루었던 논제를 통해 살펴보자

<논제> 다음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과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 각기 발췌한 글이다. 이 글을 읽고 논제에 답하라. 개인들 간의 관계에 관한 예시문의 논지를 활용하여, 국가들 간의 관계를 국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당한가에 대하여 구체적 사안을 들어 논술하라. (제시문 생략)

이 문제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논지는 다양하다. 우선 필요성과 정당성 모두를 긍정하는 입장, 부정하는 입장, 둘 중 하나만 인정하는 입장 등 네 가지 선택지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라 둘 다 긍정할 경우에도 ‘필요하다, 그리고 정당하다’며 둘 다를 비슷한 차원에서 인정하는 입장과 ‘필요하다, 그러므로 정당하다’며 둘을 연결시켜 필요성을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하는 입장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필요성은 긍정하고 정당성을 부정할 경우에도 한 가지 입장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부당하지만 필요하기에 필요악이다.”는 입장도 가능하지만, “규제는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의 규제는 강대국 위주로 정당하지 않다. 따라서 정당한 규제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입장도 가능한 것이다.

혹은 아예 “구체적 사안을 들어 논술하라.”라는 부분에 착안하여 사안을 나누고 사안에 따라서 필요성과 정당성을 달리 논의하는 방식도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가능한 논지를 빠짐없이 검토하는 과정이 논지 설정에서 필요하다.

(라) 자신의 입장을 과감하게 주장하라.

논지를 설정할 때 주의할 점은 우선 자신의 평소 생각 내지는 지론과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볼 때 자신의 생각과 다른 논지를 설정하고 논의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자신의 평소 생각과 맞지 않은 논지를 설정하게 되면 틀림없이 일관된 논의 전개를 하기 어렵게 되므로 자신의 생각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논지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자기 생각이 소수파의 입장에 속할지라도 적절한 근거만 있다면 과감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 다수파의 의견, 이미 인정된 의견만 따르다 보면 발전은 있을 수 없다. 자기 의견을 드러내고 필요하다면 논쟁해야 한다. 자신의 의견을 과감하게 밝히되 최대한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논거 마련

논지를 설정하고 나면 다음으로는 논거를 마련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은 실제로는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일 수도 있다. 논거를 마련하기 힘든 논지는 지탱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 어떤 논지를 내세울 때 아무렇게나 주장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모든 논지가 제대로 되려면 적어도 나름대로의 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논술의 핵심은 근거 있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정된 논지도 제대로 된 논거들과 결합해야만 논증력을 갖게 된다. 그런데 훌륭한 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 ① 논거들이 실제로 받아들일 만한 것인가?
- ② 논거들이 논지를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는가?

두 원칙을 차례로 살펴보자.

(가) 첫째 원칙 : 논거들이 실제로 받아 들일만 한가?

논술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논지를 글 읽는 사람에게 설득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글 읽는 사람이 승인할 만한 논거, 다시 말해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승인할 수밖에 없는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 대체로 논거가 납득할 만하면 논지도 쉽게 받아들여진다. 어떤 논지가 받아들일 만한지 아닌지는 그 논지를 뒷받침하는 논거로 제시된 것들이 그 자체로 믿을 만한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관찰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거나, 이미 참이라고 검증되어 있는 배경 지식, 혹은 전문가나 교과서 같은 믿을만한 원천에서 나온 정보 등이 논거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추측하여 제시한 논거는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나) 둘째 원칙 : 논거들이 적절히 제대로 뒷받침하는가?

논거는 논지와 관련 있는 것이어야 한다. 논거 자체는 합리적인데 논지의 옳고 그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한다면 논거가 논지를 지지하지 않는 꼴이 된다. 논지의 옳음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논거가 제시되어야 비로소 논증적인 글이 된다. 여기서 충분한 논거란 논지의 옳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논거의 질이 확보되어야 함을 말한다. 어떤 경우에 논거가 논지를 지지하지 못하게 될까?

우선 제시된 논거가 자의적이고 부적절해서 논지를 뒷받침하기에 부적절한 경우가 있다. 또 설명이 부족하여 논지를 정당화하기에 부족한 내용을 논거로 제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뿐 아니라 논지의 옳음과 관련된 결정적인 논거가 빠져 있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예 1> “우리가 걸을 때나 운전할 때 신호에 걸려 멈춰야 하는 경우가 있다. 지나가는 사람이 없다면 일부는 신호를 위반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호를 지킬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라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의 사례는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나 아니냐를 논하라는 것과 관계된 내용이다. 이 글은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지 아니라는 논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통 신호를 지킨다는 사실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교통 신호를 지키는 것이 공동체 의식이나 우리의 양심 때문이라는 논지는 반론의 여지가 있는 자의적인 내용이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면 이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통 현실에서 교통 신호를 지키는 것이 양심보다는 오히려 습관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교통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자신이 위험에 처하거나 아니면 숨어 있는 경찰에게 적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또 다른 예를 들어 보자.

<예 2> “어떤 사람들은 환경오염의 해결책으로 과학 기술 발전의 유보를 논지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러므로 우리는 환경오염의 해결책 또한 과학 기술에서 찾아야 한다.”

위의 사례는 설명이 부족한 논거에 해당한다. 이는 제시된 논거가 논지와 적절한 관련이 있지만, 그 논지를 정당화하기에는 설명이 부족한 경우이다. 때문에 이를 피하려면 제시된 논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테면 위 글에서 논거로서 기능하고 있는 “동참을 촉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의 내용을 자세하게 밝혀야 한다. “사실 그 동안 산업화 덕분에 누린 편리한 생활을 포기하거나 적어도 현 수준에서 멈추는 일은 현실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해결책은 아니다.” 예컨대 이런 식으로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 논지의 옳음을 입증하기 위한 논거가 보다 분명하게 제시된다.

다. 개요 짜기

논제를 파악하고 자신의 논지가 정해지면 글의 논리적인 짜임새를 위한 개략적인 계획을 짜야 한다. 바로 개요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개요 작성은 실제로 글쓰기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루어져야 할 단계이다. 개요 작성은 글의 성패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글쓰기 단계이므로,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가) 개요 작성의 필요성

개요란 글을 쓰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는 글의 전체적 열개, 윤곽을 말한다. 다시 말해 개요란 글을 원고지에 쓰기 전에, 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생각해 놓은 것이다. 개요는 집을 지을 때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한다. 설계도에 따라 집을 짓듯이 원고지에 글을 쓰기 전에 그 준비 과정으로서 미리 글의 윤곽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이처럼 개요 작성이 무엇인지를 알면 왜 개요를 작성해야 하는지가 쉽게 이해된다. 글의 개요는 집의 설계도와 같으므로 개요를 잘 짜면 글 전체의 뼈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개요를 작성하지 않고 머리 속에서만 구상하여 글을 쓰면, 글의 흐름이 뒤죽박죽되기 쉽고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글이 글을 따라가는 식으로 되기 쉽다. 따라서 개요 작성은 무엇보다도 글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개요를 작성하지 않으면 논거로서 타당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으며,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빠지거나 글의 앞뒤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개요를 작성하게 되면 논술문이 원래 의도했던 방향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아 주며 글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된다. 당연히 불필요한 내용이 반복되지 않고 필요한 내용도 빠뜨리지 않게 된다. 그리고 글의 앞뒤 순서를 지켜 논리적이고 질서 있는 글이 되며, 글의 전체와 부분, 그리고 부분 상호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논술 시험에서 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나아가서 글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기 위해서 반드시 개요를 작성해야 한다.

(나) 개요 작성 지침

① 개요 작성의 순서는 서론-본론-결론의 순서와 다르다

개요 작성에 앞서 해야 할 일이 논제의 정확한 파악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논제를 파악한 후에, 출제 의도나 요구 사항에 유의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구체적으로 개요를 작성해야 한다. 그런데 개요 작성을 할 때 학생들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오류는 개요 작성의 순서를 서론-본론-결론의 순서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둘의 순서는 다르다. 개요 작성의 순서는 글 구성에 대한 사고의 순서인 반면, 서론-본론-결론의 순서는 글의 서술 순서이다. 따라서 개요 작성은 사고의 순서를 따르는 것이 좋다.

② 자신의 입장을 먼저 정한다.

남이 쓴 글을 독해하거나 요약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글의 중심 논지를 파악하는 일이다. 중심 논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그를 기준으로 중심 논지를 정당화하는 논거나 핵심 개념들도 뒤따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유에서 자신이 직접 글을 쓸 때도 자신의 입장을 맨 먼저 확정해야 한다. 글을 쓸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글의 중심 논지, 글의 중심 주장을 확정하는 일이다.

③ 논거를 찾아서 정리한다.

다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논거나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밝혀야 한다. 논거나 원인을 밝히는 것은 개요 작성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지만 글의 체계적 서술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 논거나 원인은 반드시 본론에서 다루어져야 한

다. 그리고 논거나 원인을 밝힐 때 대충 생각하지 말고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서론의 내용을 생각한다.

결론과 본론 개요를 작성한 다음 서론에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지를 구상해야 한다. 글의 서술 순서와는 달리 서론은 결론과 본론의 줄거리를 확정된 다음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만 서론에 군더더기 표현이나 장황한 내용을 없앨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이 서론을 장황하게 쓰는 것은 개요 작성을 하지 않아 알고 있는 사실을 서론부터 쏟아 놓았기 때문이다. 본론과 결론의 개요를 먼저 작성하고 나면 서론에는 내용의 중복을 피할 수 있다. 결론과 본론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으므로 서론에는 더 이상 다른 쪽으로 쓸 말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론은 개요 작성과 더불어 첨가할 부분이 없을 정도로 완성된 형태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⑤ 주제가 복잡하거나 어려울 때는 문장 개요가 더 바람직하다.

개요는 남에게 보여 주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자로 쓸 필요는 없으며, 글을 쓰는 사람 자신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된다. 개요를 작성하는 방식에는 문장 개요와 화제 개요의 두 종류가 있다. 완결된 문장의 형태로 개요를 작성한 것을 문장 개요라고 한다. 이에 비해 핵심 어구나 단어로 개요를 작성한 것을 화제 개요라고 한다.

문장 개요는 각 항목의 요지를 소주제문 중심으로 구성한다. 이는 글의 전개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고,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 내용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일목요연하게 사고 과정을 개괄할 수 없으며 시간이 많이 걸려 비능률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화제 개요는 일목요연하게 사고 과정을 개괄할 수 있고, 작성하기가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시간이 지나면 글쓴이조차 그 내용을 잘 모르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개요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글쓴이가 글을 쓰는 데 필요한 계획표일 뿐이며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실제 개요를 작성할 때는 문장 개요와 화제 개요의 일반적인 장단점을 염두에 두되 글쓴이의 마음이 쏠리는 데 따라 어느 한쪽을 택해서 작성해도 좋고, 둘을 섞어서 작성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주제가 복잡하거나 어려울 때는 문장 개요가 더 바람직하다.

⑥ 어떤 개요든 글을 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작성해야 한다.

개요의 작성은 글을 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문장 개요를 선택하든 화제 개요를 선택하든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논술문의 핵심어가 반영되도록 작성해야 한다. 주장하고자 하는 바나 논증하고자 하는 바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게 되면 논지가 어긋나기 쉬우므로 개요 작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또한 구체적인 생각을 담지 않으면 글의 내용이 막연하게 되므로 개요 작성은 하나 마나한 셈이 된다. 그리고 개요 작성시 각 항목의 배열 순서는 논리적 질서에 따라 긴밀하게 연관되어야 하며 각 하위 항목은 상위 항목의 내용을 모두 다루도록 해야 한다.

⑦ 개요 작성에는 최소한 글 전체 작성 시간의 대략 1/4정도가 할애되어야 한다.

개요를 자세하게 작성한 후에 글을 읊기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충분히 여유를 갖고서 개요를 작성해야 한다. 최소한 전체 논술문 작성 시간의 1/4정도 이상을 개요를 작성하는 데 할애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120분에 한 편의 논술문을 쓸 경우 최소 30분 정도를 개요를 작성하는 데 할애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개요를 짜고 살을 붙여 거의 완성시켜 놓으면 실제 그 개요를 보고 글을 읊기는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는다.

⑧ 개요 작성과 더불어 글의 분량 표시를 해 두는 것이 좋다.

개요를 작성한 다음에 각 문단별로 소요될 분량을 대충 계산한 다음, 원고지에 각 문단별로 쓸 분량을 살짝 표시해 두고 가급적 그 분량을 지키면서 답안지를 채워나가는 것이 좋다. 문단을 배치할 경우에 제일 중요한 논거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문단을 본론의 첫 문단으로 삼는 것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문단과 둘째 문단의 글 분량은 약간의 차이가 나도 무방하다. 그래야 정해진 원고지 분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초과하는 사태를 막으면서, 각 문단별로 글의 분량을 균형 있게 배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예시 개요 및 답안

개요와 이에 따른 실제 답안의 예는 다음과 같다.

<논제>

다음 글들은 비판적 사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글들을 참고로 하여 비판적 사고가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밝히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러한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제시문 생략)

<예시 개요>

서론> 정보화 사회에서 비판적 사고는 필수 능력이다.

-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현대인은 다양한 견해를 접한다.
- 어떤 주장의 장단점을 냉철하게 판단하여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은 주체적인 삶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본론 1>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 첫째 이유 : 거시적 차원

- 정보화는 의사소통을 증가시킨다.
- 처음에는 의사소통의 도구를 습득하는 과정이 중용하다. (영어)
- 다음으로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 그러므로 비판적 사고는 정보 사회에서 민주 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초능력이다.

본론 2>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 둘째 이유 : 학문적 기본 능력

- 학문적 활동의 중요한 특징은 정당화 작업이다.
- 학문과 신앙의 차이는 합리적 정당화 여부에 있다.

본론 3>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대한 평가 :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나 한계가 뚜렷하다.

- 이전의 학력고사에 비하면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는데 더 크게 기여하고 있다.
- (통합교과적, 고차적 사고능력 평가, 스스로 지식을 재구성하고 종합)
- 많은 수의 수험생의 역량을 동일한 척도로 평가하는 선택형 시험,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하는 일종의 순발력 평가 시험의 성격이 있다.

결론> 대안 제시 : 논술

- 입시 제도로는 논술이 비판적 사고를 강화할 수 있다.
-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논증 제시, 논쟁적인 반론 제기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가 함양된다.

<예시 답안>

정보의 홍수 속에 파묻혀 있는 현대인은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자신이 옳음을 주장하면서 우리를 자신의 동조자로 만들고자하는 도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도 대체 어떤 의견이 옳은 것이며, 어떤 생각은 또 그른 것인지 하루에도 수많은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어떤 주장의 장단점을 냉철하게 판단하여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은 주체적인 삶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비판적 사고는 구체적으로 왜 필요한 것일까?

우선 거시적으로 보면 비판적 사고는 정보 사회의 전개 과정을 고려할 때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온라인을 통한 소통이 주가 되는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의사소통의 양과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의사소통이 증가한다는 것은 곧 언어활동이 증가하고 언어활동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우선은 의사소통의 도구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세계화 시대에 영어가 필수 과목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 단계에서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논리적 관점에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의사소통의 양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공허한 의사소통에 이를 뿐이며,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제대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비판적 사고가 꼭 필요한 것이며, 따라서 민주 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초 능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비판적 사고는 대학에서 학문 활동을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학문적 활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정당화 작업이다.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면서

근거를 함께 제시할 수 없다면, 믿음에 기초해서 정당화 작업을 배제하는 신앙이나 주술과 학문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학문적 작업의 성과가 ‘논문’이란 형태로 제시되고, 또 우리가 대학 입시에서 논술고사를 치는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합리적 정당화 작업이 학문 활동에서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거의 올바름 여부를 따져 물을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은 학문 활동의 기본 능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고등학생들의 학습의 방향을 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이러한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그 이름 그대로 대학에서 학문 활동을 위한 기초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학력고사에 비하면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는데 더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통합교과적이면서, 단순 지식보다는 고차적인 사고능력 평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단순하게 지식을 암기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스스로 비교하고 재구성하고 종합하는 과정 속에서 비판적 사고 능력이 향상되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매년 많은 수의 수험생의 역량을 동일한 척도로 평가하는 시험인데다가 그 시험방식이 선택형이고, 또한 한 문제를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해 내야 하는 일종의 순발력 평가 시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만약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입시 체도를 채택한다면, 역시 논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쟁점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논증을 제시하고 반대 견해에 대하여 논쟁적인 반론을 제기하는 글쓰기 훈련이 지속되면 비판적 사고는 자연스럽게 향상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2) 논술 답안 작성

가. 서론쓰기

가) 서론의 역할

서론은 글 전체의 얼굴이다. 일반적으로 독자는 글을 읽어가면서 서론의 첫 인상

을 늘 염두에 둔다. 서론이 독자에게 주는 첫 인상은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대입 논술 답안에서 서론이 중요한 이유는 인상 때문만은 아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를 알맞게 끼우지 못하듯이 서론을 잘못 쓰면 본론과 결론도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이다. 채점자는 서론만 보고도 논제 파악을 제대로 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서론은 어떻게 써야 좋을까? 누구나 글을 읽을 때에는 글머리를 통해 그 글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어야 더 효과적으로 글을 읽어낼 수 있다. 따라서 서론은 문제 제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가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한다.

- ① what?(무엇에 관해 글을 쓰고자 하는가)
- ② why?(왜 그것을 쓰고자 하는가)
- ③ how?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두괄식으로 글을 쓸 경우에는 첫 단락에서 문제 제기와 더불어 자신의 입장을 밝혀주어야 한다. 이때 가능하면 명료하게 자신의 입장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더 좋지만, 어색할 경우에는 암시적인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서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 문제 제기이다. 문제 제기는 논의될 주제의 초점을 정확히 나타내면서 글의 논의 방향을 독자에게 알려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서론 쓰기에서 실제로 어려운 점은 어떻게 글을 시작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인가이다. 필자가 서론의 첫 머리에서 느닷없이 문제 제기만 하면 독자는 글의 주제나 논의 방향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독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거나 관련 배경을 설명해 줄 필요도 있다. 화제를 도입하여 독자의 관심을 끄는 부분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도입은 어디까지나 서론의 주된 부분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주된 부분은 문제제기이다. 도입을 멋있게 썼지만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주객이 전도된 서론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4) 서론의 구조

서론의 구조가千篇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서론의 구

조는 서론의 역할에 맞게 구성되어야 자연스러울 것이다. 서론은 일반적으로 화제를 도입하는 부분과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앞서 설명했듯이 화제를 도입하는 부분은 논술 주제와 관련된 화제를 도입하면서 관심을 끌거나 배경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논술 주제의 핵심 쟁점 또는 논의의 초점에 집중하면서 글의 방향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물론 논리적 비약 때문에 화제 도입과 문제 제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간에 이를 연결시키는 부분이 추가될 수도 있고, 혹은 화제 도입 부분과 문제 제기 부분이 겹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기본은 화제 도입과 문제 제기의 두 부분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서론을 시작하면 문제 제기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서론의 첫 문장은 대체로 일반적인 진술로 내용을 소개하는데서 시작하나 차츰 내용을 좁혀 나가 어떤 하나의 초점으로 집중시키면서 마침내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쟁점을 던지는 데로 나갈 수 있다. 이처럼 자연스럽게 서론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더 알아보자.

(㉔) 서론을 시작하는 방식

① 용어를 풀이하거나 정의하며 시작하기

논술 주제와 관련된 개념이 생소하거나 애매하여 글을 쓰는 이가 나름대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낱말이나 어휘에 대한 정의를 소홀하게 취급하면 논의 과정에서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무리 중요한 낱말일지라도 논술 주제의 초점이나 쟁점을 가리키는 핵심어가 아닐 경우에는 굳이 정의할 필요가 없다. 또 개념의 의미를 한두 문장으로 분명하게 정의내릴 수 있는 경우라면 서론에서 개념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좋지만, 개념 정의가 한두 문장 이상으로 복잡하다면 서론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럴 때는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본론의 첫 문단에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좋으며, 혹은 문제 삼는 개념이 논의될 문단에 개념 정의가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좋다.

② 시사적인 내용을 언급하면서 시작하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대중 매체를 통해 여론화된 내용을 언급하면서 시작하는 방식으로 최근의 사건, 충격적인 사건일수록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그

러나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어서 참신한 느낌을 줄 수 없을 때도 있으므로 일장일단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글을 쓰는 시점에 시사성을 띤 사건, 시의적절한 관찰 사실이나 통계, 논술 주제의 쟁점이 담겨 있는 시사적인 사건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시사적인 사건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논술 주제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③ 세부 사실을 언급하면서 시작하기

앞에서 서론의 시작은 일반적인 진술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그러나 모든 서론을 이 규칙에 맞출 수는 없다. 너무나 ‘일반적인’ 생각인 나머지 무미건조할 때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화제 도입과 문제 제기를 구분하여 서론을 쓰려고 헛된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 처음부터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면서 화제를 독자에게 제시하고 동시에 글의 논의 방향을 알리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④ 질문하면서 시작하기

일반적으로 질문 형식의 서론은 독자들의 대답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지 글쓴이의 의견이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여학생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보다는 ‘여학생회란 과연 필요한 것일까?’,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비행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보다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과연 불행한가?’라는 질문 형식으로 서론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들 방식 이외에 제시문의 내용을 적절히 변형하면서 시작하기, 문제점을 논의하면서 시작하기, 논제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시작하기, 일반적인 지식을 언급하면서 시작하기 등 여러 방식이 있다. 어떤 방식이든 서론에서 적절한 화제를 도입하여 독자의 관심을 끌고, 본론의 논의 방향을 알려 주는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것은 지켜야 한다.

(라) 서론을 쓸 때 유의할 점

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간결하게 구성하라.

대입 논술에서는 서론을 적절한 분량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대개 한 단락이면 충분하다. 짧은 글에서 서론을 두 단락으로까지 만들면 화제 도입과 문제 제기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울 경우가 많다. 너무 짧아서 화제를 도입하고 논술 주제

의 핵심을 제시하기가 어려울 정도면 곤란하지만, 글의 분량이 제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간결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다. 서론이 길어 지만 본론에서 쓸 내용이 부족해지기 쉽다. 따라서 상식적인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는다는 것, 문제의 중요성을 필요 이상으로 과장한다는 것 하는 것은 좋지 않다. 특히 문제의 배경을 살핀다고 역사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알맹이 없이 긴 서론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자연스럽게 문제를 제기하라.

‘알아보자, 살펴보자, 고찰해 보자, 이야기하겠다, 서술하겠다’ 등 서로 자주 쓰는 상투적인 표현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너무 틀에 박힌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좀 더 자연스럽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 또한 논술 문제의 질문을 서론에 그대로 옮겨 놓는 것은 금물이다. 자기 방식에 따라서 다른 표현으로 바꾸거나 재구성하면서 질문의 핵심을 이끌어 내는 것이 좋다.

나. 본론쓰기

(가) 논거 제시

자신이 선택한 결론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는 일이 바로 본론에서 이루어진다. 얼마나 논거를 잘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힘 있어 보일 수도 있고 빈곤해 보일 수도 있다. 주어진 논제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을 밝힌 다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제시하는 것이 본론의 역할이다. 결국 글의 논리를 세우는 곳은 본론이다.

논거를 제시할 때, 제시문에 논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제시문 내용을 재구성하는 수준에 그치는 학생들이 많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평가를 받기 힘들다. 제시문에 나온 논거를 정리하고 보완 설명하는 수준에 그치지 말고, 추가적인 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논거의 양으로 승부하려고 하지 말고 논거의 질을 중시하라는 것이다. 논거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설득력이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많은 논거들을 가볍게 건드리는 것만으로는 설득력을 높일 수 없다. 오히려 가장 적절

한 두세 가지 논거를 선택하여 각각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설득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다. 한 가지 논거라도 확실한 논거만 있으면 논증은 성공하게 된다.

(나) 짜임새 있는 문단 구성

본론에서는 한 문단에 한 가지 내용을 배치하면서 각 문단의 연결에 논리적인 비약이 없도록 전체를 짜임새 있게 구성해야 한다. 본론은 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 제시 등이 다루어지므로 한 편의 글에서 가장 비중이 크며 양도 가장 많다. 그러므로 서론이나 결론이 한 문단으로 처리될 수도 있는데 비해 본론에서는 문단이 여러 개로 나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 한 문단 안에서의 체계적인 구성, 그리고 문단 사이의 논리적 정합성이 글 전체의 논리성을 확보하는 관건이다. 그래서 문단을 적절한 곳에서 나누어주고 문단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 나가느냐는 것은 특히 본론에서 중요하다.

간혹 내용과는 어울리지 않게 너무 문단을 잘게 나누거나 본론이 한 문단으로 서술되어 있어 문단 구분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이 경우에는 문단이 사고의 논리적 단위를 적절히 표현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격이 된다. 또 인터넷 글쓰기의 영향으로 습관적으로 줄을 자주 바꾸는 학생들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글에 흐름이 없고 형설수설하는 인상을 주게 된다. 문단은 한 생각을 마무리하는 ‘사고의 단위’이므로 함부로 줄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글이 길어지니까 적당히 문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중심 생각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 불필요한 문단 나누기는 제한된 글의 분량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글의 연속적인 흐름을 끊어 놓는다. 문단이란 하나의 중심 생각에 묶일 수 있는 문장들의 집합이자 하나의 중심 생각을 보여주는 ‘사고의 전개 단위’이다. 문단은 일종의 소주제라 할 수 있는 ‘중심 생각’이 다룰 때만 구분된다. 특별히 중심 생각이 바뀌지도 않는데 문단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 본론이 한 문단으로 되어 있거나 불필요하게 많은 문단으로 되어 있는 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많은 경우 한 문장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다는 점이다. 때문에 본론에서 효과적으로 문단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장을 짧게 표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원칙적으로 말해 문제의 요구에 따라 문단의 수나 문단의 길이를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론에서는 특히 문단 사이에 논리적인 연결이 잘 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문단의

내용들 간에 모순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문단들의 내용이 ‘따로 노는’ 식 이어서는 곤란하다. 앞의 문단을 바탕으로 해서 뒤의 문단이 전개됨으로써 자기가 전개하고자 하는 논지가 점차 심화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 문단의 맨 끝이나 새로 시작하는 문단의 맨 앞에 두 문단을 논리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적절한 매개문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말하자면, 문단을 바꿀 때 그냥 문단을 바꾸지 말고 다음 문단의 내용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를 미리 만들어 놓고 넘어가는 것이다.

(대) 상대 입장에 대한 대응

본론에서 폭넓은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 입장을 비판하거나 예상되는 반론을 논박해야 한다. 우선 내 주장에 대하여 예상되는 반론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재반론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견고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상대 입장의 문제점을 밝혀내어 강하게 논박하는 내용도 들어가는 것이 좋다.

상대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상대 입장의 타당한 점이나 자신의 약점을 슬며시 인정해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편협한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입장에 서있음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후의 논의에 설득력을 더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너무 강하게 인정하면 자신의 논지가 흔들리게 되므로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결론쓰기

(가) 결론의 역할

결론이 일반적으로 하는 역할은 본론의 주장을 다시 정리하고, 그 주장을 확대(제언, 전망)시키는 것이다. 본론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논지를 분명하게 밝혀 주기 위한 것이다. 결론에서 본론의 주장을 확대시키는 것은 주장한 내용이 갖는 의미를 짚어 주거나, 주장을 좀 더 차원 높은 논리와 연결시켜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흔히 결론에서 전망을 제시하라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대입 논술 답안처럼 비교적 짧은 분량의 글을 쓸 때에는 본론을 요약, 정리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제한된 분량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요약은 불필요할 경우가 많다. 그리고 요약을 할 경우에는 본론의 내용을 길게 정리하지 말고 핵심 논증만 간략하게 재구성하여 요약해야 한다. 요약 외에 자기가 선택한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고 본론의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 예를 하나 더 제시하거나 자기가 선택한 입장에 대해 본론에서 거론하지 않은 또 다른 타당한 근거를 보충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전망을 제시한다고 해서 사족같은 결론에 그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에 대해 살펴보았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단순 요약하는 내용으로 결론 단락을 메운 다음, “~하는 것이 인류의 공영을 위한 길이다.”라는 식의 거창한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바로 이것이 사족같은 결론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결국 결론이 답아야 할 내용은 ‘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환기, 본론 근거들 요약, 핵심 주장 제시’인데, 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자체가 논술문 전체의 내용이기도 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주어진 논제에 대해 짧은 글을 새로 쓴다는 기분으로 쓰는 것도 결론 쓰기의 한 가지 요령이다.

(나) 결론 쓰기에서 주의할 점

① 상투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보자.

“앞서 ~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흔히 쓰는 방식도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상투적인 방식에서 벗어나는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다. 결론이 하나의 완결된 글이라는 느낌으로 논제와 관련된 상황을 서론과 달리 지적하면서 결론을 시작해 볼 수도 있다. 서론이나 결론에서 논제와 관련된 단적인 예를 사용하면 독자를 논제로 집중시키기가 쉽다. 만일 서론에서 사례를 통해 독자의 주의를 끌었다면, 결론에서는 이 사례를 일반론적으로 표현하고, 만일 서론에서 그냥 일반론 차원으로 논제를 소개했다면 결론에서 사례를 제시하는 식으로 쓰면 된다.

② 본론 내용을 요약할 경우, 표현까지 그대로 되풀이하지 말고 일반화해서 간략하게 표현하자.

본론에서는 주장의 근거가 제시된다. 따라서 결론에서 핵심 주장을 부각시키려면 근거를 다시 정리해서 지적해주는 일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미 충분히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장황하게 정리하게 되면 중복해서 논의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근거의 핵심만을 밀도 있게 추리고, 표현도 본론과는 다르게 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③ 핵심 주장을 강조하되, 자신의 주장 속에 담긴 사회적 의미를 충분히 부각시키면서 전망이나 해결 방향의 제시를 함께 하도록 힘쓰자.

본론이 잘 짜여졌다면 독자는 필자의 핵심 주장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결론에서 또 그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면 효과적인 설득이 힘들어진다. 이럴 경우에는 핵심 주장을 제시하되 문제를 바라보는 각도를 바꾸어 접근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이 가진 사회적 함축을 부각시키는 것도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특히 논술의 기본 성격은 문제 해결을 겨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에서는 자신의 주장과 연관해서 실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

④ 불필요한 말을 쓰지 말자.

결론 부분에 불필요한 말을 써서는 안 된다. 결론 부분에서 말을 잘못 쓰게 되면 한 순간에 글의 일관성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어쨌거나, 어차피, 여하튼, 좌우지간” 등은 자신의 논리를 스스로 무너뜨릴 위험이 있는 말들이다.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말들의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

④ 도덕적 훈계와 당위적 주장에서 벗어나자.

많은 학생들은 결론을 항상 너무 도덕적으로만 맺으려고 한다. 계몽하고 훈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우리는 위에서 논한 두 가지 측면 중 나쁜 점은 피하고 좋은 점을 살리도록 해야겠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 정의롭고 근면해야겠다.”라는 식의 결론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론에서 ‘잘해 보자, 반성해야 한다, 촉구한다, 밝은 사회를 만들자’ 따위의 말은 너무 뻔하고 진부하기 때문이다.

⑤ 의식의 각성을 촉구하는데 그치지 말자

결론에서는 ‘의식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글을 흐지부지 맺는 경우도 많다. ‘관용 정신을 갖자’라든가, ‘대중 문화를 바로 세우려는 태도를 확립하자’라든가, ‘외래 문화 수용시 주체성을 가지자’라든가, ‘올바른 교육관을 확립하자’는 식이다. 하지만 이처럼 모든 문제를 의식에만 돌려서는 곤란하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해서 여러 사회 문제들이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더 깊이 있게 반성해보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사회적 현실적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식을 각성하자’는 안이한 결론에 머무르지 말고, 주어진 논제와 관련된 사회적 상황을 둘러보면서 사회적 상황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그 방법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⑥ 목표만 제시하지 말고 방법을 제시하자.

결론에서 대책을 제시할 경우, 일반적으로 목표만 추상적으로 밝혀서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즉 목표 제시에 그치지 말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성적이 떨어진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성적을 올리자.”라고 추상적인 목표만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어떻게 해야 성적을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당위적인 원칙만 제시하는 것은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다. 다각적인 접근은 특히 문제의 해결책을 요구하는 논술 문제에서 우수 답안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자주 작용한다. 다음 세 가지 방식을 고려하면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 i) 차원, 수준, 영역의 구분 :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 혹은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 혹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으로 나누어서 접근할 수 있다.
- ii) 주체의 구분 : 그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들을 빠짐없이 고려하게 되면 다각적 접근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체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당국, 정부, 언론, 시민단체 등 관련 당사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므로 이들이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검토해 볼 수 있다.

iii) 단계별 구분 :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단계별로 접근하면 다각적 접근이 될 수 있다.

(3) 퇴고

일반적으로 글은 스스로 비판적 독자의 관점에 서서 많이 수정할수록 좋은 글이 된다. 따라서 글에 대한 수정은 마지막에 부가되는 작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비중을 가지는 작업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대입 논술에서는 수정할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작성한 글이기에 항상 실수를 범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짧은 시간일지라도 핵심적인 내용들을 검토해서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 수정 작업의 기본 원칙

(가) 통일한다

논지와 관련이 없거나 논지와 직접 관련 없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제거함으로써 글의 통일성을 높인다.

(나) 조직한다

비판적 독자를 계속 염두에 두고 논리적 비약이나 논리적 연결에 약점이 있는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다) 분명하게 한다

애매모호한 문장을 선명하게 하고, 이행어들이 적절한지 점검하며, 자신의 입론이 적절하게 지지되는지 점검함으로써, 글을 분명하게 한다.

나. 구체적인 점검 사항

(가) 주제가 명료하게 드러나 있는가?

학술 에세이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한 글이다. 그러므로 그 주장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야 한다. 논지가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거나 논지가 주제에서 벗어나 있다면 기초가 무너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검토해야 한다.

- ① 명료하게 진술된 주제문이 있는가?
- ② 주제문은 애초에 자신이 의도했던 바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혹 엉뚱한 방향으로 빗나가 버리지는 않았는가?
- ③ 주제 이외의 다른 부분이 오히려 더 부각되지 않았는가?
- ④ 주제문 이외의 다른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주제문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가?

(4) 문단 구성에는 문제가 없는가?

결론만이 아니라 결론으로 이끌어가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 서론의 문제 제기와 본론의 근거 제시가 계획대로 나타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각 문단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각 문단마다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 ① 서론에서 이 논술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들고있는 예가 혹 주제와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 ② 본론이 배열되어 있는 순서는 적절한가? 논리적 순서가 잘못되어 있지는 않은가? 문단과 문단을 연결하는 접속어가 논리적 맥락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가?
- ③ 각 문단의 길이는 적절한가? 너무 길거나 짧아 전체의 균형을 일그러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 ④ 본론에서 들고 있는 예나 근거는 적절한 것인가?
- ⑤ 각 문단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가? 혹 논의 전개상 불필요한 문장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어 하나하나에는 문제가 없는가?

요컨대 문단과 문단 사이, 그리고 한 문단 내의 논리적 연관을 검토해 보라는 이야기이다. 특히 접속어가 적절한지, 불필요하거나 논지를 흐리는 문장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문단의 배열이 잘못 되었다든지 하는 큰 잘못이야 알아도 바로

잡기가 힘들지만, 접속어의 수정이나 잘못된 문장의 삭제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접속사 하나 때문에 논리 구성 면에서 감점을 당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참고로 논술에는 다음과 같은 접속어들이 많이 쓰이는데 글을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글을 검토할 때 특히 이런 접속어들의 사용을 잘 검토해야 한다. 접속어가 잘못 사용되면 논리적인 결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 기능에 따른 접속어 분류 >

- i) 예시하기: 예를 들어, 가령, 예컨대
- ii) 연결하기: 좀더 중요한 반론은..., 좀더 강한 예는..., 가장 좋은 이유는...
- iii) 논리적으로 연결하기: 이렇게 하여, 결과적으로, 그러므로, 따라서,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점이 따라 나온다
- iv) 비교하기: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마치--와 같이, 유비적으로
- v) 대조하기: 다른 한편으로, 대조적으로, 그러나, 하지만
- vi) 요약하기: 요컨대, 간단히 말해서

(다) 각 문장들에는 문제가 없는가?

글 전체의 주제에서부터 각 문단의 논리적 연결, 문단을 구성하는 문장들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를 점차 좁혀 가면서 검토하고 나면 마지막은 개별 문장과 표현을 문제 삼을 차례이다. 문장들이 어법에 맞고 그 의미가 명료한지, 어색한 표현이나 용어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

- ㉠ 각 문장이 뜻하는 바는 분명한가? 혹 지나치게 감정에 호소하고 있지는 않은가? 의미 없는 동어반복식의 문장은 없는가?
- ㉡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인가? 주어와 술어는 잘 호응하고 있는가?
- ㉢ 더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은 없는가?
- ㉣ 글의 문맥에 맞게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쓸데없이 추상적이고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 ㉤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어긋나는 곳은 없는가? 문장 부호는 바르게 쓰였는가?

여기서 특히 주의를 해야 할 것은 주어와 술어의 호응 관계 문제이다. 우리말에는 주어를 생략해도 어색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경우도 주어와 술어의 연관은 정확해야 한다. 이 주어-술어 관계를 비롯하여 학생들의 글에 부정확한 부분이 많은 것은 문장이나 표현을 되씹어 보지 않고 그저 생각나는 대로 글을 쓰기 때문이다. 일단 머릿속에서 문장을 구성해 보고 옮겨 적는 것이 좋다. 또 가능하면 짧고 간결한 문장을 써야 한다. 문장이 길어지면 각 부분의 호응 관계가 어긋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의미도 불명확해질 여지가 많다.

3. 우수 답안 사례 분석

대입 논술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현장성이 강한 글쓰기라는 것이다. 두세 시간 남짓한 시간에 논제와 제시문을 분석하고 글을 완성해야 한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쓰는 일반적인 논설문 작성의 방법만으로는 준비가 부족하다. 우선 시간과 분량에 적응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결점 없는 완벽한 답안은 쓰기 힘들지만, 치명적인 약점을 피하여 큰 감점을 당하지 않는 기본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수이다. 나아가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을 모색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수 답안으로 평가받게 되는 요인들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실제 답안 둘을 검토하면서 그 중 일부를 정리해 보자.

(1) 문제와 답안

가. 답안 1 : 2004년 성균관대학 논술 경시대회 대상작

<논제의 요지>

OECD국가에서 1위의 자살증가율을 보인 한국의 현실을 설명해보라. 한국인의 사회, 경제, 문화의 어떤 변화가 그런 자살율의 변화에 인과적 책임이 있는가를 밝히라. 정확히 말하면 '자살'의 원인을 분석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10여 년에 걸쳐 한국인의 자살률이 왜 급격히 높아졌는가를 분석해 보라는 문제이다.

<답안>

(A) 근래에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 가족 동반 자살이나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사람들끼리의 집단자살을 비롯한 각종 자살들에 관한 내용이 많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의 최근 10년 간 연평균 자살 증가율이 OECD 가입국 중 1위를 차지했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자살율의 급격한 증가는, 자살하는 사람들의 개인적 이유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크기에 그 원인을 집단적이고도 사회학적 이유에서 찾아야 한다.

(B) 최근 10년 간 한국사회는 다방면에 걸쳐 빠르게 변화해왔다. 정보화·다원화와 같은 세계적 흐름뿐만 아니라, IMF위기나 집권당의 교체라는 여러 특수한 요인들로 인해 변화해왔다. 대체로 이러한 변화들은 단기간에 급속도로 일어나다 보니 아노미와 같은 집단적 혼란상태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구성원들을 미처 손쓸 틈도 없이 예전보다 훨씬 악화된 상황으로 내몰았다. 예를 들어, IMF이후 지속된 경기침체는 청장년층을 조기실업에 처하게 했으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켜 빈곤층에게 더욱 큰 타격을 주었다. 게다가 진보와 보수 간의 극심한 갈등은 사회적으로 더 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C) 현재의 이런 변화들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전후세대로서, 힘든 일들을 많이 겪어보지 못했다는 데에도 자살율 증가의 원인이 있다. 물론 자살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 이후 고도성장을 해온 한국사회에서 성장한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 최근의 극심한 불황은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무슨 일이든지 쉽게 풀리고, 잘 되어 가는데 익숙한 현 세대들은 이에 따라 비교적 경미한 일에도 쉽게 좌절되고, 잘 안 풀리는 일에 직면하게 되면 손쉽게 그것을 탈피하고자 자살까지도 고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힘든 상황을 헤쳐 나가는데 익숙하지 못한 성향은, 정보화에 따라 가속화된 생명경시풍조와 개인의 고립화와 함께 자살충동을 부채질한다.

(D) 게다가, 죽음으로써 현재의 고통이나 부정적 상황을 탈피하고자 하는 심리는 현대 자본주의의 대량생산방식이 널리 퍼뜨린 유행이라는 현상에 힘입어 사회적으로 자살률을 증가시킨다. 즉, 유행의 기저에 깔려있는 모방심리가 비단 청소년들뿐

만 아니라, 유행을 체험하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전반적으로 침투해 있다보니, 자살에 대해서도 별다른 거부반응 없이 모방이 이루어지기가 쉬워진 것이다. 예를 들어, 평소에 패션유행을 좇는 것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이, 감당하기 힘든 빛에 쬔들리게 되자 자살하는 풍조에 대해서도 마치 옷을 따라 입듯이 쉽게 따라하는 것을 들 수 있다.

(E) 자살율의 사회적 증가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빠지는 일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는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해 주는 등의 낙오자들의 재기를 돕는 일로서 가능할 것이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타인의 행동에 무분별하게 휩쓸리는 일이 없도록 가치관을 정립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죽음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게끔 하는 일일 것이다.

나. 답안 2: 2004학년도 이화여대 모의평가 우수답안

<논제>

다음 (가), (나)의 지문을 읽고 사이버 세계의 유용성에 관한 글쓴이의 입장을 정리한 후, 이에 대해 가능한 반론을 제시해 보라.

<제시문> (두 제시문은 같은 저자의 글이다)

(가)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한편으로는 우주의 신비가 풀렸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까지도 물질주의적 관점에서 해석됨으로써 인간의 영혼 및 정신이 들어설 자리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는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공간, 곧 물질로부터 자유롭고 공간이동 또한 무한대로 자유로운 사이버 공간의 출현을 목격하고 있는데 사이버 공간 역시 과학의 산물임에도 오히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과 상상의 세계를 열어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답안>

[ㄱ] 현대 우주론의 눈부신 발전을 가능케 했던 공간의 동질화는 물질의 물리적

실재만을 인정하게 했다. 비물질적이라는 전제 하에서 성립 가능했던 영혼의 공간을 물질적 공간이 무한히 확장되면서 침범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인간의 물질적 측면이 비물질적인 면보다 큰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 문제점을 극복하고 인간의 정신적인 면을 활성화시킬 공간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사이버세계이다. 사이버 공간은 기존의 물리적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혁명적인 공간이다. 물리적 실재관이 철저하게 거부된 이 공간 안에서 인간은 고유의 정신체계를 확립하고 개개인의 정신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사이버 세계의 유용성 때문인지 이 공간은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며 거대화되고 있다.

[ㄴ] 그러나 사이버 세계가 정말 인간의 정신적 결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간인가? 물론 개개인이 제한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기에 상상력과 창의력이 충분히 발휘되고 또 그런 능력이 가치 있게 받아들여지는 곳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사이버 세계에도 물리적 공간과 마찬가지로 물질적 가치가 엄연히 존재하며, 그 물질적 가치에 의해 좌우되는 면도 분명히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이버 공간에서 가상인물 키우기 게임은 현실에서의 물질적 가치가 사이버 공간까지 연결 확대된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물질적 가치의 개입 없이 순수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사이버 공간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었고, 사이버 세계를 인간의 정신적 측면만을 위한 공간이라고 속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ㄷ] 그리고 인간의 정신은 고차원적이고 무한한 영역이므로 단순히 사이버 세계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수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이버 세계의 의의는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의 확장에 있지만 영역의 확장이 곧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코 맹신할 수 없다.

[ㄹ] 물론 사이버 세계는 앞으로도 무한히 발전할 것이고 먼 훗날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실재적 공간을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인간의 정신적인 면을 위한 영역은 여전히 인간 스스로의 정신 그 안에서 찾아나가고 발전시켜야지 단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대리 만족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사이버 세계는 오직 인간의 활동영역이 될 수 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사이버 세계의 자유로운 걸모습에 도취되어 그 세계에 빠지고 헤어 나오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인간의 정신적 자유로움의 만족이라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口] 사이버 세계가 절대적이고 체계적인 정신적 영역,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이상의 안정적인 영역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그 안에서 물질적인 면에 속박된 인간의 정신적인 면이 완전하게 풀리지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지금 당장의 효과나 유용성만 보고 사이버 세계의 장점만을 무조건 맹신하는 것도 시기상조라 할 수밖에 없다. 사이버 세계가 진정한 인간의 활동영역이 되려면 좀 더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2) 답안 분석

가. 서론 문단을 효율적이고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두 답안 모두 서론 문단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점이 좋다.

먼저 답안 1은 짧은 분량으로 서론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점이 좋다. 서론은 일반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① what?(무엇에 관해 글을 쓰고자 하는가) ② why?(왜 그것을 쓰고자 하는가) ③ how?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다 밝혀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답안 1의 (A)단락은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자살율 증가의 이유를 분석할 것인데(what), 자살 증가율이 OECD 가입국 중 1위일 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분석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why), 개인적 차원이 아닌 집단적, 사회학적 차원에서 접근해 볼 것임을(how) 짧은 문단 안에서 잘 밝히고 있다.

답안 2는 서론([ㄱ]문단)을 효율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 글쓴이의 입장을 정리하라는 문제의 첫째 요구사항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과제이다. 따라서 논의의 대부분을 더 중요한 요구사항인 반론 제시에 투여하기 위하여 서론에서는 글쓴이의 입장을 자기 방식대로 잘 요약정리 함으로써 첫째 요구사항에 대한 답을 제시하면서 문제 제기도 동시에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제한된 지면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본론에서 심층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은 본받을 만하다.

나. 깊이 있는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두 답안 모두 깊이 있는 접근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본받을 만 하다. 깊이 있는 접

근은 겉으로 드러난 요인만 파악하는 피상적인 접근에 머무르지 않고, 내적인 요인과 연관을 밝혀내는 것이다.

먼저 답안 1은 (B) 문단에서는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정치 경제 상황이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은 자살률 증가의 직접적 원인이나 충분조건을 밝혀주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 조건이 되는 시대 상황과 현상을 다루고 있다. (C) 문단에서는 전후 세대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들의 특수한 성장 환경을 분석하여 파악하고 있다. (D) 문단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유행이라는 현상을 기반으로 자살률 증가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일단 깊이 있는 분석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겉으로 드러난 외부적 요인(정치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자살하는 주체들의 내적 요인(성장 환경)을 분석한 다음, 한 단계 더 들어가 그런 내적 요인 배후에 놓여 있는 결정 요인(유행)을 분석하려고 시도한 셈이다. 물론 (D)의 분석에서 유행은 자본주의의 일반적 현상이기 때문에 하필이면 우리 사회의 자살 증가율이 가장 큰 이유로 적절한 것인지 따져 보고 반론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점점 더 내적인 본질을 드러내는 쪽으로 나아가려고 한 시도가 돋보인다.

답안 2는 논거 제시에서 상식적이고 상투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고 논거를 확장해 가면서 나름대로 심층적인 논의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깊이 있는 접근의 또 다른 형태로 볼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상당수의 학생들은 사이버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한 인터넷에 초점을 맞추어, 그 상식적인 폐해를 서술하는 등의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우수답안이 되기 위해서는 사이버 공간 자체의 본질적 특성과 가능성에 주목하여 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이 답안은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우선 사이버 세계가 인간의 영혼이나 상상력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하여 물질주의의 폐해가 사이버 공간에 침투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ㄴ]문단) 다음으로 설사 이러한 물질주의 폐해가 없다 하더라도 사이버 공간이 본질상 인간 정신의 자유로움을 대리 만족하는 공간일 수밖에 없음을 논거로 들고 있다.([ㄷ],[ㄹ]문단) 이렇게 논거를 확장해 가는 것도 깊이 있는 사고를 보여주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우수답안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덕목이다.

다. 균형 잡힌 객관적인 입장에 서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답안 2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제시문 입장에 대하여 뚜렷하게 반론을 제기하면서도, [ㄴ]와 [ㄷ] 단락의 전반부에서 사이버 공간의 긍정적 측면과 장기적인 가능성을 나름대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반론을 제기할 때에도 반론에만 몰입하지 말고 상대 입장의 타당한 점은 슬며시 인정해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편협한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입장에 서있음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후의 논의에 설득력을 더할 수 있다.

IV. 논술 지도

논술 지도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지도의 주제, 지도의 양상, 지도의 범위 등을 고려할 때 그 개념의 폭과 깊이는 다각도로 확장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도 방법 역시 여러 차원으로 유형화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가장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첨삭 지도’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한다.

1. 첨삭 지도의 특징과 종류

논술 지도에서 첨삭 지도는 다른 모든 지도 방법과 병행되는 기본적인 지도 방법이다. 학생들이 직접 논술문을 작성하는 훈련과 그에 대한 검토 및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송환(feedback)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도가 바로 첨삭 지도이다.

첨삭 지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퇴고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첨삭 지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미진하거나 내용의 **보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충하며, 잘못된 논리나 구성을 바로 잡는 재구성의 세 요소이다.

일반적인 첨삭 지도의 방법은 학생의 논술문을 놓고 직접 마주 대하여 지도하는 ‘대면 첨삭’과 첨삭 지도용으로 만들어진 논술문 작성지에만 첨삭 지도를 하는 ‘지면 첨삭’이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첨삭’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온라인 첨삭의 경우는 특별한 양식을 활용하지 않는 한 ‘지면 첨삭’과 큰 차이는 없다.

(1) 대면 첨삭 지도

대면 첨삭 지도의 장점은 글로만 지도하는 것보다는 지도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 정도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따르고 많은 학생들을 지도할 경우에 시간 활용과 배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2) 온라인 첨삭 지도

온라인 첨삭 지도의 경우 지면 첨삭 지도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지면 첨삭에 비해 질의 및 응답을 활용하기가 좋다는 장점이 추가 된다. 하지만 원고지를 사용한 논술문이 아니라서 띄어쓰기나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과 같은 사항에 대한 지도를 하기가 어렵다. 단순한 오타인지 기초적 문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3) 지면 첨삭 지도

지면 첨삭 지도의 장점은 지도 교사의 재량에 따른 시간 배분이 용이하다. 하지만 송환효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없으며 대면 첨삭 지도에 비해 지도 내용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지면 첨삭 지도가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이유는 다른 지도 방법들과 병용해서 사용될 수 있으며, 모든 첨삭 지도 형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면 첨삭에 비해서 지도 내용이 보관된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온라인 첨삭 역시 지면 첨삭이 활용된 형태이다.

본 장에서 다루는 첨삭 지도의 실재와 사례 역시 지면 첨삭 지도에 기초한 내용들이다.

2. 첨삭 지도의 절차

첨삭 지도는 글 전체에 대한 지도와 부분적인 사항에 대한 지도로 이루어진다. 효

과적인 지도는 전체적인 검토 사항을 먼저 확인하고 세부적인 단계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논술에서 일차적인 중요성을 차지하는 것은 구체적인 표현보다 글 전체의 짜임새이기 때문이다.

대략적인 지도 절차는 아래와 같지만 그 순서를 아주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분적으로는 그 절차 혹은 순서가 바뀌어도 무리는 없지만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지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1) 글 전체에 대한 지도

- ① 문제의 요구 사항에 맞게 논지를 설정했는가?
- ② 글 전체의 일관성이 잘 유지되고 있으며, 자신의 입장을 명료하게 드러냈는가?
- ③ 단락 구분 등의 형식적 구성이 적절한가?
- ④ 서론이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는가?
- ⑤ 본론에서 서론의 논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설득력 있는 논증을 전개하고 있는가?
- ⑥ 결론이 서론과 본론에 나타난 입장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있는가?
- ⑦ 정해진 분량을 비롯하여 유의 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는가?

(2) 세부 사항 지도

- ① 단락 간의 연결이 자연스러운가?
- ② 논증에서 주장과 근거의 관계가 잘 설정되어 있는가?
- ③ 논술에 적합한 문장들을 사용하였는가?
- ④ 문장 간의 연결이 논리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접속 관계 등을 잘 표현하고 있는가?
- ⑤ 문장 표현이 문법에 맞게 표현되고 있으며, 문장의 수식 관계가 적절한가?
- ⑤ 문장에 사용된 어휘들은 적절한가?
- ⑤ 원고지 사용법이나 교정 부호를 정확하게 사용하였는가?

3. 첨삭 지도 요소

(1) 개요 작성 지도

논술 고사에서 개요 작성은 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학생들에게 논술문을 쓰기에 앞서 반드시 개요를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개요는 미술이나 건축에서의 설계도와 같은 것으로 글의 짜임새를 강화하고 논점을 일탈하지 않고 일관성을 잘 유지하게 한다. 아울러 퇴고할 때에 글의 내용이 주제에 맞게 서술되었는가를 효과적으로 검토하게 하는 기준이 된다.

각 단락의 형식적인 역할을 설정하는 정도로 개요를 작성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요는 단락별 핵심 내용을 구체적인 문장 형태로 표현하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완성된 문장은 논술문을 작성할 때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요의 일반적인 형식 중 하나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개요의 일반적인 형식

<서론>

1. 주제설명
- 2. 주제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 제시
- 3. 논의 순서 제시
- (4. 자신의 입장 및 주장 예시)

<본론>

1. 주제논의에 대한 조건 I 제시 → 주장에 대한 근거 I 제시
2. 주제논의에 대한 조건 II 제시 → 주장에 대한 근거 II 제시
3. 주제논의에 대한 조건 III 제시 → 주장에 대한 근거 III 제시
- (4. 대립 주장에 대한 비판)

<결론>

1. 주제 환기

→ 2.근거들 요약

→ 3.핵심 주장 제시

→(4.전망 제시)

*()안의 내용들은 글의 논제와 성격에 따라 생략될 수도 있는 내용이다.

이 개요의 형식에서 본론의 논증의 수는 논의해야 할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

(2) 서론 쓰기 지도

서론은 글 전체의 첫 인상을 결정하고 논지를 밝혀주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매끄럽고 인상적인 서론은 글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한다.

서론은 주어진 논제와 제시문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논의의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는 부분이다. 서론에 들어 갈 내용으로는 문제를 둘러싼 일반적인 상황, 문제에 대한 접근, 문제의 심각성과 영향 등이 적절하다.

서론의 구성은 전반부의 도입부와 중심부 그리고 후반부의 글 안내부로 구성된다. 도입부와 중심부에서는 글 읽는 사람의 관심을 자아내는 소재를 택해 문제가 요구한 사항으로 연결되도록 해 주어야 한다. 서론의 전반부를 구성하는 요령은 문제의 특성이나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나뉜다. 일반적인 방법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① 문제와 연관된 사실을 직접적으로 기술하는 방법
- ②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다루려는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
- ③ 주제의 핵심 개념에 대한 정의, 또는 설명으로 시작하는 방법
- ④ 자신의 입장과 반대되는 주장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는 방법
- ⑤ 문제와 연관된 인용이나 비유로 도입부를 구성하는 법

서론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글 안내부는 문제의 요구 사항에 대해 어떻게 다루겠다는 것인가를 밝혀 주는 내용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도식적이고 형식적인 표현보다는 부드러운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

서론에 대한 첨삭 지도를 할 때 일반적으로 지적해야 할 사항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①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장황한 논의로 화제 도입을 하는 경우
- ② 화제 도입과 문제 제기의 연결이 억지스러운 경우
- ③ 지나치게 현학적인 표현으로 문제를 과장하는 경우
- ④ 의문문이나 청유형 문장 등의 상투적인 표현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서론을 쓸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① 분명한 문제의식의 명시
- ② 문제 의식과 요구 사항 간의 일치
- ③ 도입부와 중심부의 논리적인 연결
- ④ 문제 의식과 글 안내부의 일치
- ⑤ 도입부와 문제의식의 신선함
- ⑥ 부드러운 글 안내부의 작성

(3) 본론 쓰기 지도

본론은 본격적인 논증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글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 논술에서 본론을 쓴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 보이는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서론과 결론을 잘 썼다고 하더라도 서론에서 밝힌 논지나 결론에서 최종적으로 밝힌 주장과 본론의 내용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내용이 부실한 글이 되고 만다.

우선 본론은 주어진 논술 문제가 논의하기를 요구하는 사항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론을 잘 쓰기 위해서는 이미 서론에서 논술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짚어 내어 간략하게 정돈하는 것이 좋다. 이런 점을 고려한 본론의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① 서론에서 약속한 내용과 일치되게끔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 내야 한다.
- ② 각 단락마다 주장하는 작은 결론을 담아야 한다. 이 때 하나하나의 작은 결론들은 서론에서 밝힌 서술 계획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 ③ 각 단락에서 끌어내는 작은 결론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대로 제시해야 한다.
- ④ 단락과 단락 간의 논리적 연결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즉 단락들 간의 내용에도 모순이 없어야 한다. 가능하면 앞 단락을 바탕으로 해서 뒤의 단락을 전개시킴으로써 자기가 전개하고자 하는 논지가 심화되는 방식으로 구성해야 한다.

(4) 결론 쓰기

결론은 서론에서 본론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자신의 주장이나 입장을 최종적으로 재확인하고 강조하는 곳이다. 그러나 자칫 학생들은 단순히 결론에서 제시한 주장들을 하나하나 가져와서 그대로 반복하는 단순 요약으로 결론을 마무리하는 경향이 있다. 반복적인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면 읽는 사람에게 식상한 느낌을 줄 수 있으며, 결론은 있으나마나 한 부분이 된다.

결론을 작성하는 가장 바람직한 지침은 결론 자체가 동일한 주제에 대한 아주 작은 논술이라고 생각하고 쓰는 것이다. 즉 비록 적은 분량이지만 그 안에서도 도입, 전개, 결말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글의 말미에 전망을 덧붙이면 자신의 주장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글의 완성도를 높이고, 글 전체를 더 의미 있게 만들게 된다. 하지만 전망은 논의한 주제와 구체적으로 연관되는 내용이어야 한다. 서론의 장황함도 문제지만 결론의 거창함도 글에 대한 신뢰도를 반감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결론의 주의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되, 본론에 들어 있는 내용을 되풀이하듯 표현을 그대로 옮기지 말고 더 확장된 내용으로 일반화해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결론 앞부분에 “이상에서 ~을 살펴보고 ~을 살펴보았다.”라는 도식적인 문장 형식 대신에 주어진 문제의 주의 사항과 관련된 최근의 상황을 서론의 것과는 달리 제시

하는 것이 좋다.

- ③ 가능하면 “만약 ~한다면, ~하게 될 것이다.”는 식의 전망을 덧붙이는 것이 좋다.
- ④ ‘밝은 사회’, ‘이상 사회’ 등등을 거론하는 거창한 전망을 해서는 안 된다. 문제가 요구하는 주제와 연관된 분야에 집중하는 구체적인 전망을 해야 한다.

(5) 논리 구조 분석 및 지도

첨삭 지도를 할 때에는 부분적인 문장 표현에 대한 세밀한 지도도 필요하지만 글 전체의 논리적인 구성에 대한 검토 및 지도가 필수적이다. 부분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논증과 표현이 들어 있다고 해도 그것이 글 전체의 맥락 혹은 일관성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학생 글을 논리적으로 분석할 경우에 단순히 학생의 글에 대한 개요를 짜주듯이 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글 전체의 개요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연결이 잘 된 것은 잘 된 대로, 그렇지 못한 것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설명하는 형태의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때 학생이 개요를 작성하듯 상세하게 반복할 필요는 없다. 다만 글 전체의 논리적 흐름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정도면 된다.

학생의 글이 갖추고 있는 논리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 재구성을 위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에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학생의 본래 의도를 최대한 살려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 자신감과 의욕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전면적으로 새로운 구성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경우의 대부분은 학생이 논리 구조의 문제 이전에 문제에 대한 이해나 제시문에 대한 독해를 근본적으로 잘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면적인 재구성을 필요로 하는 글은 단순히 논리 구조에 대한 지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논리 구조에 대한 지도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① 단락의 배분이 적절하며 각 단락의 일관성이 잘 유지되고 있는가?
- ② 단락들과 문장들의 연결에서 논리적인 모순은 없는가?
- ③ 반박이 이루어지는 경우 반박해야 할 입장을 명료하게 설정하였는가?

- ④ 근거나 사례 등이 주장을 잘 뒷받침하고 글 전체의 주제에 맞는가?

(6) 문장 및 표현 지도

논술문에서 사용하는 문장의 생명은 정확성이다.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표현해야 하므로 화려한 수사법을 사용하는 서술 방식은 어울리지 않는다. 논리적인 문장을 구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서술문의 형태로 문장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논증적인 부분은 주장과 근거가 명제화된 문장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문장은 가능한 간단명료해야 한다.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쫓기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문장을 늘여서 표현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이는 문장을 멈추면 다음 문장을 또 생각해야 한다는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연체 문장은 의미 전달에 방해가 되고 산만한 느낌을 주게 된다. 문장을 길게 표현하다보면 수식 관계를 부정확하게 표현하기도 쉽고, 문장 성분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쉽다. 이런 습관을 초기에 방지하면 잘못된 습관으로 굳어진다. 그러므로 지도 단계의 초기에 만연체 문장을 표현하는 습관을 고치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접속 관계에 대한 지도를 함께 해야 한다.

현학적인 표현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학생들은 어려운 개념어를 사용하면 글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좋은 글은 어려운 주제에 대한 자기의 주장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것이지, 쉬운 주제를 어렵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주지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문장 표현에 대한 첨삭 지도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문법적인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가?
- ② 어휘 사용이 적절한가?
- ③ 문장의 호응 관계나 수식 관계가 적절한가?
- ④ 애매하거나 모호한 표현은 없는가?
- ⑤ 중언부언하는 문장들은 없는가?
- ⑥ 문장의 길이는 적절한가?
- ⑦ 불필요한 의문문이나 수사법을 남발하지는 않는가?

- ⑧ 상투적인 표현들은 없는가?
- ⑨ 과장된 표현이나 비약은 없는가?
- ⑩ 지나치게 현학적인 표현은 없는가?

(7) 총평과 세부 항목 평가

총평은 학생이 자신의 글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이다. 총평을 작성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이다. 일반적으로는 세부 항목 평가 내용에 따라서 서술하는 방식, 지난 과정과 비교하여 발전된 정도나 보완할 점을 서술하는 방식, 글의 장점과 단점을 집중적으로 서술하는 방식 등이 있다. 물론 각각의 방식들을 조합해서 지도할 수도 있다. 학생들의 개성과 교사 자신의 개성에 맞추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서술 방식을 택하면 된다. 평가 점수에 민감한 학생들에게는 세부 항목 평가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다. 실력의 진전을 확인해줄 필요가 있을 때는 지난 과정과 비교하는 방식 등을 택하면 된다. 그리고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지도방향이 효과적이다.

세부 항목 평가는 논술의 주요 평가 기준이 되는 요소들에 대한 계량적 평가이다. 세부 요소들로는 문제 파악 능력, 표현의 정확성 사고의 독창성, 내용의 깊이, 구성의 논리성, 논거의 적절성 등이 있다.

4. 침삭 지도 사례

(1) 서론 지도 사례

가. 상투적 표현 및 도입

가) 광범위한 도입

학생 글 “㉠<현대에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변화의 과정에서 여권의 신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목소리 중에 여성의 병역 의무 수행에 대한 얘기도 있다.”

침삭 글 ㉠은 도입부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은 어느 주제에도 쓸 수 있는 말이다. 바꿔 말하면 특색이 전혀 없는 문장이다. 가령 정보화 사회, 평등, 과학 기술 등 어느 주제에도 이 말이 쓰일 수 있다. 결국 현대 사회가 빠르게 변화한다는 문장은 너무 광범위해서 주제를 암시할 수는 없다. 도입부의 소재는 주제와 연관된 것으로 찾아야 한다.

해 설 문제는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여성의 병역 의무 수행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이다. 학생은 주제를 끌어내기 위해서 도입부를 광범위하게 제기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정해진 주제와 상관없이 포괄적인 얘기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좀 더 구체적으로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쓰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상투적인 도입

학생 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에서 살아가지 않은 인간은 없는 것이다.”

침삭 글 이 문장은 너무 자주 인용되어 상투적이다. 많은 학생들이 이런 문장을 쓴다면 글의 참신한 맛은 전혀 없게 된다.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 설 문제는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때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가?”이다. 그런데 사회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대다수의 학생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표현을 한다. 각 대학에서 틀에 박힌 글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게 마련이다. 실전에서 대학 채점자들은 수천 명이 쓴 원고가 이런 식으로 천편일률적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특색 없는 글에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다. 너무 잘 알려진 내용은 쓰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대중 매체에서 언급되는 내용을 인용

학생 글 “㉠<‘인생은 미완성. 그러다 마는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이곡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하고, 이루고자 하는 바를 다 이루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가치 있게 살아야 한다고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삶의 의미나 목적을 주체적으로 깨닫지 못하거나 삶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

첨삭 글 ㉠에서 노래 가사를 인용한 것은 너무 기교에 치중한 느낌을 준다. 가능한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화제가 좋지만, 학문 연구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논술 시험을 실시한다는 점을 놓쳐서는 곤란하다.

해설 예증이나 예시로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은 매우 많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은 TV나 유행가 가사를 인용하고, 그것을 논제와 연결시키려고 한다. 가급적이면 풍부한 배경지식을 자랑할 수 있는 예를 찾아서 인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학술적 글쓰기가 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와 관련된 예보다는 책 내용을 인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라) 주관적 체험을 통한 도입

학생 글 “주변을 둘러보면 자신의 앞에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찬성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 지역이기주의가 극에 달한 것이다.”

첨삭 글 도입부 소재는 전체 주제를 이끌기에 비교적 좋다. 그렇지만 “내 주변”에 대한 문장과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 사회적 현상을 굳이 주변의 상황으로 한정시킬 필요는 없다. 오히려 쓰레기 소각장 건립 반대의 목소리를 일반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설 문제는 “지역 이기주의의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하라.”라는 것이었다. 흔히 글쓰기의 기본은 개인적 체험을 솔직하게 쓰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렇지만 논증을 담아야 하는 글에서는 개인적 체험을 보편화시키지 않고 서술을 했을 때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개인적 체험을 보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나. 중심부

(가) 중심부에서 논제를 갑자기 제기하는 경우

학생 글 “국방이란 외부의 무력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군인들은 끊임없이 몸을 단련시키고 비상전시훈련을 한다. 한마디로 군대는 전사를 위해 있는 것이고 최상의 병력으로 적을 제압하기 위해 국방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여성이 남녀평등이라는 명목으로 군입대를 하게 된다면 이견 이 름만 내건 복무일 뿐 실용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첨삭 글 ㉠은 논제를 제시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은 앞 문장들과 매끄럽게 연결 될 수 없다. 앞에서는 국방은 늘 최상의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반면 ㉠은 남녀평등이라는 명목으로 여성의 입대는 비실용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남녀평등에 관한 문장이 추가되든지, 아니면 여성의 군복무가 최상의 상태가 될 수 없다는 단서를 제공해야 한다.

해설 문제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여성이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가?”이다. 많은 학생들이 나름대로 참신한 도입문을 쓰고 싶어하지만 정작 그것을 논제와 어떻게 연결시킬지는 제대로 고민하지 않고 글을 쓰는 경우가 많다. 위 사례도 이와 마찬가지다. 이런 경우 도입부와 논제 연결을 위해 중심부가 어떤 식으로 보완해야 하는지 설명하면 된다.

(나) 강조해야 할 내용을 제대로 강조하지 못한 경우

학생 글 “우리나라에서 교육문제는 항상 뜨거운 감자였다. 그동안 수많은 교육정책들이 발표되었지만, 누구나 만족하는 정책은 없었다. 현재 고교평준화에 맞춰진

교육 정책도 차츰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첨삭 글 서론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잘 이끌고 있으며 특히 고교 평준화를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출발한 것은 아주 좋은 시도이다. “그동안 수많은 교육정책들이 발표되었지만, 누구나 만족하는 정책은 없었다.”라고 지적한 것도 잘 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만족하는 정책이 나타나지 않았는지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전체 주제인 ‘고교 평준화’를 보는 관점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고교 평준화를 왜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고교 평준화를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자연스럽게 제기하면서 대안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관점을 근거로 고교 평준화 반대를 주장하는 입장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이 관점만 잘 이야기해도 서론 자체가 풍성할 것이다. 지금 서론에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 것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좋은 진단을 했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설 문제는 “고교 평준화를 폐지할 것인가”이다. 위 학생의 경우 중심부를 이끌어 위한 소재를 잘 지적했지만, 그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면서 소재를 강조하지 못해 쟁점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다) 억지로 논제와 연결시키는 경우

학생 글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 만큼, 여성의 사회진출 속도도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빨라지고 있다. 그로인해 여성부가 생기고 각종 시민단체에서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매우 바람직하며 앞으로도 옛인습에 억눌린 여성들의 권익을 지속적으로 신장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양성평등의 움직임 속에 남녀 공동 군 복무에 대한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첨삭 글 여성의 권익 신장을 앞에서 언급하고 있고, 그 뒤에는 곧바로 남녀 공동 군복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두 이야기가 어떻게 성립되고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억지로 논제와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은 논제와 상관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논제이므로, 이를 앞의 이야기와 효과적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을 삭제하고 새로운 문장을 삽입해서 여성의 병역

의무에 관한 논쟁을 제기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보자. 가령 “권익의 신장은 의무부과와 연결된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여성의 병역 의무 부과가 사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문장을 하나 추가하고, 논제와 연관된 문장도 다듬어 보자.

해설 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주제를 담은 문장을 생각하다가 곧바로 논제와 연결시키려고 한다.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두 이야기가 양립되기 어려운지 말해주고, 보완될 내용도 반드시 언급해 주면 된다.

다. 논제 제시부

(가) 논술에서 적합하지 않은 표현

학생 글 “그러므로 나는 여성의 병역 의무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첨삭 글 ‘나는 ~라고 생각한다.’ 혹은 ‘~ 본다.’는 표현은 논술에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다.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글을 써야 한다. 그래야 독자도 학생의 주장에 동의할 수 있게 된다.

해설 첨삭 지도를 받지 않은 학생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 중 하나가 ‘~라고 생각한다.’ 혹은 ‘~라고 본다.’ 따위의 표현을 쓰는 것이다.

(나) 상투적인 논제 제시

학생 글 “요즘 고교 평준화라는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 제시된 지문도 고교 평준화를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다양화, 전문화, 특성화를 시키고 많은 문제점들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보완 또는 폐지를 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도대체 고교 평준화라는 제도가 어떻게 이런 주장들이 나올까?”

첨삭 글 의문문으로 논제를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문문 사용은 그만큼 논제를 이끌기 위해서 강조나 쟁점 부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서술형 문장으로 고쳐보자.

해설 문제가 “고교 평준화 폐지할 것인가?”인 경우, 왜 폐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지, 혹은 폐지 반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지 서론에서 어느 정도 언급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학생이 생각하는 궁극적인 주장이 암시될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이를 하지 못하면 어정쩡하게 의문문으로 논제를 제시하게 된다. 자문자답은 매우 인위적인 방식처럼 보인다. 이렇게 하지 않고 글을 쓸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 바람직하지 않은 논제 제시(문제 요구에서 벗어난 논제)

학생 글 “현대 사회에 이르러 우리는 수많은 발전과 사회변동을 겪어왔다. 그 중 하나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찾아온 '양성평등'에 관한 논란이다.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금껏 남성을 중심으로 흘러온 불평등한 제도가 많이 열린 편이다. 이것은 해마다 증가하는 여성취업률을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선진국과 같은 시민의식은 아직 사회변화의 물결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다. 때문에 우리나라가 양성평등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아직까지도 차별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 수준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이다.”

첨삭 글 지금 문제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여성의 병역 의무 수행이 정당한가?”이다. 그런데 학생은 양성평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 문제 요구에서 벗어난 논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서론 전체를 재구성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논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글을 쓸 수 있어야 한다.

해 설 단답식 문제의 경우에는 흔히 발생하지 않지만 복잡한 문제의 경우는 문제 요구를 잘못 파악해 논제를 엉뚱하게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학생들에게 먼저 출제 의도, 문제 요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논제로 제시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언급해 주어야 한다.

(라) 문제를 단순 반복하는 경우

학생 글 “유토피아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는 않는 곳'이라는 뜻이며, 현실 비판적인 측면과 현실 도피적인 측면으로 나뉜다. 현실 비판적인 측면은 긍정적인 면이고 현실 도피적인 측면은 부정적인 면이다. ㉠<여기서는 제시문에 나타난 유

토피아의 현실 비판적 측면과 현실 도피적 측면을 밝히고, 그것을 우리 현실에 비추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첨삭 글 ㉠은 문제를 단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얘기할 것인지 밝힐 수 있도록 문제 제기를 바꾸도록 하자.

해설 문제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중 일부를 제시문으로 주고, “제시문을 읽고 현실 비판적 측면과 현실 도피적 측면을 밝히고, 우리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제시문의 입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였다.

라. 기타 사례

(가) 서론이 없는 경우

학생 글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우선, 남성과 비교했을 때 여성은 신체구조상 열악하다. 조물주가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남성을 힘이 있도록 만들었다. 수렵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시대에도 남성이 사냥과 같은 힘을 요하는 일들을 주로 행하였으며 따라서 남성들이 지배자로 군림하였다. 또한 여성의 생리적 현상도 국방의 의무를 행하게 하는데 제약을 주기도 한다.

여성들이 출산을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다면 여성은 출산을 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들은 미래에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주역들을 탄생시키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생명창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아무리 찬란하게 쌓아온 문명이라도 여성들이 출산을 하여 후손들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그 문명들을 계승해나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양성평등 정신과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양성평등이 남성과 여성 간에 모든 의무를 똑같이 지고 모든 권리를 똑같이 누려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남성과 여성 간의 차별은 지양해야 하지만 상호 간의 차이는 인정해 주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서로가 화합하여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더욱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하는 것이다. 남녀가 서로간의 차이를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공존할 때 비로소 사회는 올바른 양성평등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첨삭 글 이 글에서는 서론이 없다. 본론의 주장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있다. 서론을 한 단락으로 만들어 보자. 학생이 본론에서 언급한 내용을 근거로 서론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

서론에는 기본적으로 세 요소가 있음을 알아두자. 먼저 도입부. 간단한 문장을 통해서 주제와 연결될 수 있는 윤곽을 그린다. 가령 이런 글에서는 "양성평등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만큼 여성의 권익이 신장되고 있는 것이다." 또는 "최근 한 여학생이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이렇게 쓰면 주제와 연관된 개념이나 사건을 기술하게 된다. 그리고 소재(양성평등, 혹은 여성의 병역 의무)를 강조하라. 가령 "여성의 권익이 신장된 만큼 사회적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권리의 신장은 사회적 의무 부과와 같은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여성의 병역 의무 수행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술하면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제를 압축적으로 제시해서 다음에 연결된 내용을 암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그러나 여성의 병역은 양성평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와 같이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주제문을 쓰도록 하자.

해설 학생들이 서론을 쓰지 않은 이유는 논술문의 기본 형식을 모르거나 대다수가 어떻게 서론을 쓰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서론을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되, 서론의 각 요소와 함께 전체 밑그림을 그려주어야 한다. 또한 학생의 전체 글과 어울릴 수 있도록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가령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여성의 병역 의무가 수행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시됐다면, 학생은 여성의 병역 의무 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음에도 서론으로 구성된 내용이 여성의 병역 의무 수행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제시하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4) 중심 논제에 관해 단순한 배경 설명만으로 이루어진 서론

학생 글 "지금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사유 재산을 바탕으로 한 사회이다. 사유 재산을 중시하기 때문에 각각의 개인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돈

을 벌게 된다. 그래서 개인은 자신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그 각각의 노력이 지금의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었다. 이는 지금의 현대인들에게 과거와는 다른 큰 문화 혜택을 주었다. 하지만 개인의 능력에 따라 돈을 벌기 때문에 가진 자는 더욱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더욱 없게 되었다. 그러나 빈부의 격차는 현재 너무나 작아진 ‘십분위 분배율’에서 볼 수 있다. 그것은 하위 40%의 소득분의 상위 20%의 소득을 구한 것인데, 그것의 값이 계속 작아지고 있다. 쉽게 말해서 점점 더 큰 빈부의 격차가 생기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 사회가 위협받고 있다.”

첨삭 글 일반적으로 서론은 중심 논제의 배경을 포함한다. 중심 논제가 어떤 배경에서 문제시 되는지 밝히는 내용은 주제를 부각시키고, 논증을 좀 더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글의 서론은 핵심 논제에서 너무 먼 내용이다. 이번 문제에서 중심이 되어야 하는 내용은 랑베르와 리유, 두 인간형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라는 것이다. 물론, 문제에는 자본주의 현실을 배경으로 하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론의 전부를 핵심 논증과는 상관이 없는 자본주의 구조에 관한 일반론으로 채운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자본주의 인간 유형에 대한 소개를 담은 내용이나 앞으로 전개할 논지의 실마리를 소개하는 내용이 좋겠다.

해설 문제는 까뮈의 소설 『페스트』의 일부 지문을 주고, “랑베르와 리유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대립되는가를 설명하고, 오늘날의 자본주의 현실을 배경으로 두 인간형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라.”라는 것이었다. 위 학생의 경우는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현상을 중심으로 서론을 작성하고 있다. 이럴 경우 논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설명하고 자본주의 일반적 성격과 관련된 내용을 본론에서 적절히 소화할 수 있도록 요구하면 좋다.

(다) 제시문을 거의 그대로 베낀 경우

학생 글 “요즘 자본주의는 '소비'가 중요시 되고, 이런 소비는 사람이 심미적인 가치를 따지게 만들었다. 심미적인 가치는 귀족적 대중문화를 이루어 내었고, 대중물화는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대가 되었다. 이 사실은 어느 누구라도 인정할

것이다.”

첨삭 글 학생의 서론은 제시문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쁜 시도는 아니다. 그렇지만 어떤 주제로 제시문을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 서론을 보면 내용 이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글을 정리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제시문을 활용하더라도 자기 식의 이야기로 풀어서 쓸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내용과 서론이 따로 노는 식이 된다. 가령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서론을 쓸 수 있다.

“흔히 요즘 사회를 소비 사회라고 한다. 인간의 지위를 소비로 판별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상품을 소비하느냐에 따라 상류층과 하류층을 나누는 시대인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소비를 부추기는 것은 유행이다. 이렇게 본다면 유행은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 유행은 사회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유행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이며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유행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긍정적 시각이 필요한 것이다.”

해설 문제는 “다음 제시문은 유행을 자본주의 시장의 필수적인 메카니즘으로 보면서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시키면서 반론을 제기하는 글을 작성하라.”였다. 제시문은 학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학생이 무리하게 이를 서론에 요약하면서 논의를 시작하려고 했다. 이런 경우 베끼기 서론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제시문을 활용해서 학생이 적당히 가공하면 좋은 서론이 될 수도 있다. 위 첨삭 사례에서는 이를 잘 지적해주었고, 학생의 글을 토대로 서론을 재구성해 주었다.

마. 서론 전체 첨삭 사례

(가) 1차 첨삭

학생 글 “요즈음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성이 미치는 영향력은 예전에 비해 괄목상대할 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내 이웃들만 보더라도 거의 절반 이상이 맞벌이 부부일 정도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러

한 사회 분위기를 타고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힘을 모으고 있다. 과연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녀야 하는가?”

첨삭 글 도입부를 일상생활의 체험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현상으로 풀어 쓰려는 시도는 좋다. 그러나 ‘내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는 지나치게 개인적인 체험을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라 아쉽다. 사회 현상을 말하면서 지엽적인 예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좀 더 일반화된 현상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이 ‘맞벌이 부부’라고 말하는 것도 어색하다. 맞벌이는 남녀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적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차라리 여성이 사회 요직에 대거 진출하고 있다는 식의 언급이 바람직하다.

중간에 “그런데”로 시작하는 문장도 매끄럽지 않다. 이런 사회 분위기를 타고 여성의 국방 의무 수행이 논의된 것은 아니다. 정확한 표현이 아니므로 고쳐야 한다.

마지막 문장도 고쳐야 한다. 의문문으로 논제를 제시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서술형으로 자기주장을 피력하는 편이 낫다. 그래야 본론과도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다. 가령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켜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할 수 있도록 문장을 배치하라.

도입부의 소재도 ‘양성평등’이나 ‘국방의 의무’로 하든지, “한 여학생이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헌법 소원을 냈다.”라는 식으로 논제와 어느 정도 연관될 수 있는 문장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2차 첨삭

학생 글 “한 여학생이 여성도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헌법 소원을 냈다. ㉠최근 사회 분위기가 여성의 권익 신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여성의 병역 의무가 논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병역 의무는 바람직하지 않다.”

첨삭 글 지난 번 글보다는 형식적으로는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논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다. ㉠은 앞 문장과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다. 이 문장을 삭제하고 ㉡으로 곧바로 연결시키는 편이 매끄럽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왠지 허전하다. 아무래도 쟁점을 부각시키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간

에 문장을 추가적으로 삽입하는 편이 좋겠다. 가령 “그 여학생은 양성평등을 위해서 여성에게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발상은 양성평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동반되었다고 할 수 없다. 양성평등은 양성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장을 추가하면 글의 전체 윤곽을 알 수 있게 되고 논의도 풍성해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논제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해설 단 일회의 첨삭으로 학생의 글이 완성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나마 학생들이 좀 더 완성된 단계로 접어들 수 있게 하려면 무엇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만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그 방법과 내용을 함께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위 사례에서도 1차 첨삭에서 글쓰기의 문제점을 자세하게 지적했지만, 그 내용을 학생이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2차의 경우에도 글을 매끄럽게 전개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 첨삭 지도가 효과적으로 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일차적인 방법으로는 서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만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밑그림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힘들더라도 글의 전체 윤곽을 자세하게 언급하되, 반드시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2) 본론 지도 사례

가. 상투적이고 판에 박힌 표현들

(가) 자문자답 형식의 구성

학생 글 “이 같은 부작용의 극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그 대답은 현대인들의 자아실현에서 얻을 수 있다.”

첨삭 글 자문자답 형식을 써서는 안 된다고 정해진 규칙은 없으나 학생들이 워낙 자주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에게 표현력이 빈곤하다는 느낌을 주게 된다. 한 문장으로 자신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표현해 보자.

학생이 수정한 글 “이와 같은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대인의 자아실현에

대한 올바른 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해설 학생의 글은 본론의 첫 문장에 표현된 것으로 서론에서 지적한 부작용에 대한 처방을 제시하려는 의도를 표현했다. 이렇게 본론을 자문자답 형식으로 구성하게 되는 이유는 새로운 단락을 자연스럽게 시작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학생의 수정된 글은 더 자신감 있는 표현으로 여겨진다.

(나) 만연체 문장

학생 글 “두 측면의 삶의 개선을 동시에 서로 조화롭게 되어 발전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이제는 지나친 환경오염으로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으므로 환경적 삶의 개선에 중점을 둔 정부의 정책과 경제적 발전을 피하여야 하겠다.”

첨삭 글 문장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어 의미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만연체’는 논술의 적이다. 지루하고 산만한 느낌을 주며, 수식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적절한 접속어를 활용하여 절이 바뀌는 곳을 기준으로 나누어서 문장을 좀더 간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학생이 수정한 글 “물론 깨끗한 환경과 경제 발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실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환경 친화적인 정책에 더 역점을 둔 상태에서 경제 발전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설 만연체 문장은 반드시 지적해 주어야 한다. 문장을 길게 쓰는 습관을 고쳐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의미가 나누어지는 곳을 지적해주거나 나누어진 형태의 문장을 대안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문장 표현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기본적으로 나누어야 할 기준장도만 지적하면 된다.

(다) 의도적인 반복을 이끌어 내는 표현

학생 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의식의 전환이 없는 제도적인 개선책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

첨삭 글 문법적으로 잘못된 표현은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반복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하지만’이라는 도식적인 안내를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강조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분량이 얼마 안 되는 글에서는 중언부언을 합리화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해설 논술문을 작성하는 학생들도 자신이 반복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도 달리 내용을 연결할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일부러 강조한다는 듯이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지적을 하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쓰게 된다.

(라) 현학적인 표현

학생 글 “평준화가 유지되어야 할 이유 중 또 하나는, 이미 그 정책이 충분히 교육의 질을 높여왔다는 것에 있다.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학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얼마 전 OECD의 교육국 부국장을 맡고 있는 베르나르는 한국의 평준화 정책은 효과적이었다고 했으며, 이런 방식으로 학생 선발시 성적이 더 올라갔다는 증거는 세계적으로도 많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러 학생들이 함께 공부시킬 때에 전체적인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역설한 바 있다. 동종교배(同種交配)는 경쟁을 통한 진화는커녕 퇴화할 뿐이다.”

첨삭 글 평준화를 유지해야 할 근거를 제시하면서 국제기구의 전문가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근거의 신뢰도를 높여주고 있다. 하지만 “동종교배(同種交配)는 경쟁을 통한 진화는커녕 퇴화할 뿐이다.”라고 표현한 마지막 문장은 문맥에 맞지 않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교육의 문제에서 대학이 모교 출신자를 위주로 교수로 뽑는 관행에 대해 비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지 고교 평준화의 문제에 적용하는 표현은 아니다. 문맥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면 의미도 모르는 채 현학적으로 보이려고 사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밑줄 친 문장의 앞 문장만으로도 이 단락은 마무리 할 수 있으므로 밑줄 친 문장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

해설 이 학생의 글은 많은 자료를 참고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맥락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해서 자료의 내용을 충분히 소화하지 않았

다는 점이 드러나고 말았다. 논술은 유식함을 뽑내기 위한 글이 아니다. 이런 경우 전형적으로 삭제의 원칙을 적용하여 첨삭 지도를 하게 된다.

나. 잘못된 논증 지도 사례

(가) 오류 논증

학생 글 “하지만 유행은 꼭 이렇게 악영향만 있는 것일까? 그건 아니다. 유행에도 충분한 장점이 있다. 그중 한 가지는 유행은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모두가 원하는 것이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시장에서 유행을 하려면 무엇인가 훨씬 더 이익이어야 한다. 어떤 물건이 유행이라고 한다면 그 물건은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들보다 더 나은 점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물건을 써도 되는데 굳이 그 물건이 유행할 이유는 없다.”

첨삭 글 유행의 긍정적 측면을 주장하는 첫째 논증은 논리적으로 합당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의 주장을 간단히 요약하면 “어떤 것이 유행한다는 것은 다 좋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식의 주장은 유행은 반드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유행을 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행하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반박을 당할 수 있다. 이러한 반박을 염두에 둔 논의가 먼저 논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논증은 단순한 추측과 자의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논리에서는 이러한 논증의 오류를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라고 한다. 즉 이 글의 논증에 앞서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안게 되는 오류라는 것이다.

학생이 수정한 글 “하지만 유행이 반드시 악영향만 끼치는 것은 아니다. 유행의 장점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유행은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유행은 사람들의 욕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해 주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을 많이 낼 수 있는 사업 분야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설 위 학생의 글에서는 자문자답식 구성이나 문장 표현의 부정확성 등도 보이지만 특별히 논증의 오류가 더 심각하기에 논증에 대한 지적에 국한시켜 첨삭 지도하고 있다. 물론 나머지 내용들은 문장 표현 지도 등에서 다룰 수 있다. 수정된 학생의 글은 논증적인 성격이 강화되었으며, 문장 표현도 많이 좋아졌음을 알 수 있다. 첨삭 교사는 학생의 의도를 충분히 살리면서 완성도가 높은 본론을 구성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도를 해야 한다.

(나) 비 논증적인 본론

학생 글 “얼마 전 군대 내에서 한 사병의 총기난사에 의해 8명의 국군장병이 희생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처음엔 사고 혹은 우발범죄라 예상했지만, 철저한 계획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였음이 밝혀지고 난 후 온 국민은 경악했다. 사형제도, 누구의 손을 들어야 할 것인가.'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했다. 하지만, 내가 그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라면, 혹은 피해자의 가족이라면 그 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첨삭 글 본론 첫 문단에서 총기 사건의 문제와 사형제도의 존속과의 연관관계가 설명되지 않았다. 온 국민이 경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형 제도의 존속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학생의 의도에 따라 이 글을 연결시키려면 “사형제도, 누구의 손을 들어야 할 것인가”라는 다소 웅변조의 문장을 쓰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웅변조의 표현이나 설의법은 자칫하면 읽는 사람에겐 동의를 강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이 수정한 글 “철저한 계획 살인으로 무고한 청년들의 목숨을 여럿 앗아간 이러한 사건의 경우 정말 피의자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 경우 피의자의 생명권 보다는 이러한 범죄의 재발로 인해 미래에 또 어느 누군가가 생명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걱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해설 학생의 글은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자신의 주장을 논증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웅변적이고 설의적인 표현은 논리적인 설득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설득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첨삭

교사는 학생의 글이 논증이 아닌 수사적인 표현으로 본론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안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대안이나 대안의 방향을 제시하는 첨삭은 학생들에게 지도 내용을 이해시키고 잘못을 수정하는데 한결 효과적이다.

학생의 수정된 글은 아직 주관적인 표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한결 쟁점을 잘 부각시키고 있다.

(다) 부분적인 문제를 지나치게 과장하여 반박하는 본론

학생 글 “여성단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단기간에 여성의 권리가 커지면서 사람들은 무엇이 양성평등인가 그 기준이 모호해졌다. 차이와 차별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여성의 군 입대는 차별뿐 아니라 차이마저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군대에는 남성스러움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사라진다면 이 세상에는 여성이나 남성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될 것이다. 요즘은 난자만으로도 인공수정이 가능한데다 남성은 수술을 통해 여성이 될 수 있으므로 전 세계 사람들이 여성이 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이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여성스러움과 남성스러움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다.”

첨삭 글 본론 첫 단락의 첫 문장은 주술 관계가 잘못되었으며, 무엇을 주장하는 것인지 의미도 불분명하다. 이 문장의 실질적인 주어는 ‘사람들은’이다. 그런데 술어 부분은 “그 기준이 모호해졌다.”라고 표현되고 있다. 물론 “그 기준이 모호해졌다.”라는 부분만 보면 주어는 ‘기준은’이 되고 술어는 ‘모호해졌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에 상응하는 술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사람들은 무엇이 양성 평등인가에 대해 그 기준이 모호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정도로 고쳐야 한다. 그리고 문장 자체의 내용도 자의적이다. 여성 운동이 활성화된 것이 어떻게 양성 평등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었다는 것인지 전혀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본론 첫 단락의 내용 모두는 총평에서 지적한 대로 비현실적이며 자의적이다. 남성과 여성의 필요성을 가르는 기준이 단순히 군대를 가고 안 가고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발상이 나오게 된 이유는 문제의 중요성을 너무 과장하거나 문제의 사안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문장에서 직접적으로 비웃는 표현은 없지만 이런 식의 조소적인 태도를 논리학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비웃음의 오류에 속한다고 말한다.

해설 문제는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라는 것이었다.” 학생의 글은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논증의 내용이 매우 비약적이고 자의적이다. 학생의 글은 비단 논증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서 이 부분의 문제를 모두 지적하고 있는 침삭이다.

(라)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

학생 글 “흑인 음악에서 유래하는 힙합의 경우 음악적 가치가 전혀 없는 통속적 대중음악에 불과하다. 왜냐 하면 가사의 저속함과 주류 문화에 대한 열등감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젊은이들이 맹목적으로 열광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침삭 글 힙합이라는 장르가 상당히 거친 가사를 담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악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모든 음악은 각각의 장르적 특색이 있고 음악성은 그러한 장르의 고유성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이 수정한 글 “최근 유행하는 힙합의 경우 우리가 맹목적으로 수용하기에는 문제가 많은 음악이다. 힙합은 미국의 뒷골목에서 탄생한 흑인 음악의 일종이다. 출발부터 힙합은 가사의 저속함과 폭력성을 바탕으로 등장했는데, 그것을 기성의 질서나 주류 문화에 대한 저항이라고 미화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해설 위 학생의 글은 자의적인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나 근거 등은 이 밖에도 잘못된 통계나 역사적 사건을 인용하는 중에 종종 범하게 된다. 수정된 글에서도 여전히 ‘미국의 뒷골목에서 탄생한 음악’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부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이라고 보기까지는 어렵다.

(마) 주관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

학생 글 “대중 매체에 나오는 인기 연예인들의 의상이나 행동을 모방하려는 청소년들이 많다. 나는 이러한 현상을 저기 존재의 바른 가치를 망각한 행동으로 본다. ①이런 청소년들은 그렇게 모방하지 아니하면 자기만 소외된다고 느낄 것이 틀림

없기 때문이다.

모든 열등감은 자신만이 유행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따라오는 것이다. ㉠‘나는 누가 뭐래도 나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굳게 서 있는 사람이라면 유행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을 것이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사실 유행을 창조하는 사람들도 열등감이란 전혀 없을 수는 없다. ㉡내가 창조하는 유행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은 나라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첨삭 글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느낌만을 근거로 삼고 있으면서 마치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인 양 표현하고 있다. 밑줄 친 ㉠, ㉡, ㉢은 개인의 주관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며, 표현 방식 자체가 주관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학생이 수정한 글 “대중 매체에 나오는 인기 연예인들의 의상이나 행동을 모방하려는 청소년들이 많다. 이러한 현상을 저기 존재의 바른 가치를 망각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청소년들은 유행을 따라가지 않으면 자기만 소외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모든 열등감은 자신만이 유행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따라오는 것이다. ‘나는 누가 뭐래도 나일뿐이다’라는 생각이 굳게 서 있는 사람이라면 유행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사실 유행을 창조하는 사람들도 열등감이란 전혀 없을 수는 없다. 내가 창조하는 유행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은 누구나 가지기 마련이다.”

해설 주관적인 표현의 문제는 단순히 표현 형식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생각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논술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전적으로 주관적이어서는 안 되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생각에 부합하는 자신의 생각을 찾아내서 써야 하는 글이다. 학생의 수정된 글에는 주관적인 표현들이 많이 사라졌음을 볼 수 있다.

(바) 부적절한 비유

학생 글 “유행은 제멋대로이고 불안정하며 성실한 사회인보다는 정열적 보헤미안

에 더 가깝다. 하지만 이미 유행은 한국 현대 사회의 필수적 사회 자극제가 되어 버렸고, 당분간은 우리와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

첨삭 글 너무 힘이 들어간 표현이고 필요하지 않은 표현이다. ‘유행’은 사회적인 현상을 표현하는 추상적인 개념어이다. 논술에서 개념적인 언어는 비유나 상징을 통해 구체화될 수도 있지만 신중하게 쓰이지 않으면 정확한 의미전달을 방해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유행’은 사람이 만들 뿐 그 자체로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보헤미안의 자유분방함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논술답안을 쓸 때 비유나 상징을 남발하다 보면 논리성이 사라지고 문학적인 표현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많다.

학생이 수정한 글 “유행은 제멋대로이며 불안정하다. 그러나 그것은 유행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유행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행을 예측할 수 없는 이유는 새로운 유행 속에 변화를 추구하는 인간의 창의적인 삶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행의 변화는 그 사회의 역동성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

해설 표현을 멋지게 하려는 의도는 자칫하면 부적절한 비유나 맥락에 맞지 않는 상징을 생각하게 해 결과적으로는 우스꽝스러운 표현이 되기도 한다. 수정된 글에서는 비록 근사한 수사법을 동원하지는 않았지만 논증적인 구조를 잘 갖추었다는 점에서 논술에 훨씬 어울리는 서술이라고 볼 수 있다.

다. 내용이 부적절한 본론

(가) 제시문의 분석에만 치우친 본론

학생 글 “제시문에서 ‘음악’이라는 공통의 화제에 대해 프란츠와 사비나는 서로 상반되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우선 프란츠에게 음악은 고독과 한적, 그리고 책 먼지로부터의 해방이다. 그는 자신의 재능 덕택에 학문적 출세의 길이 보장되었다. 그래서 그의 미래는 대학 연구실, 공립 도서관, 강의실에서 삶의 대부분을 보내는 것이다. 때문에 그는 자신의 그런 장래를 생각하면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낀다. 그런 그에게 음악은 장르를 막론하고 심리적인 해방감을 주는 존재이다. 반면에 사비나에게는 음악은 속박, 구속의 의미 이상을 갖지 못한다. 대학 시절의 방학 동안

그녀는 공동 숙박소에서 생활을 하며, 아침 5시에서 저녁 9시까지 도처의 확성기에서 울려 나오는 음악을 피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그런 음악은 ‘달라붙는 사냥개’이고, 소음을 뿐이다. 이처럼 두 사람은 각자가 겪어온 경험과 생활환경의 차이로 하나의 주체에 대해 상반되는 견해를 갖게 되었고, 그것이 둘 사이의 이해의 벽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

참삭 글 제시문을 논의의 실마리로 삼으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논의를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제시문의 논의를 논지 전개 소재로 활용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단락처럼 거의 전체 분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본론의 주요 단락을 온통 제시문에 대한 요약으로 일관하면 이 글은 논술이 되지 못하고 요약문에 그치게 된다.

핵심적인 내용으로만 요약을 줄이고, 제시문 분석에서 이끌어낸 판단을 토대로 우리 사회의 구체적인 문제에 적용시키는 단락을 새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학생이 수정한 글 “제시문에서 ‘음악’이라는 공통의 화제에 대해 프란츠와 사비나는 서로 상반되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평생을 학자의 삶으로 지내야 할 프란츠에게 음악은 해방을 주는 요소이다. 반면에 대학시절 방학 내내 억지로 음악을 들어야 했던 사비나에게 음악은 숙박, 구속의 의미 이상을 갖지 못한다. 이처럼 두 사람은 각자가 겪어온 경험과 생활환경의 차이는 하나의 화제에 대해 상반되는 견해를 갖게 하여 둘 사이의 이해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 역시 상호 이해의 부족에 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하는 원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 바탕에도 역시 갈등의 주체들이 겪은 경험과 생활환경의 차이가 존재한다. 지역, 세대, 그리고 계층이라고 하는 구분 그 자체가 이미 다른 생활환경을 배경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해설 이 문제는 밀란 쿤데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일부의 내용을 제시문으로 주고, 제시문을 실마리로 사람들 사이의 상호 이해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들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라는

것이였다. 허용된 분량은 800~1,000자 정도였는데, 위 학생은 글의 주요 내용을 거의 제시문 요약에 할애하였기에 이를 지적하였다.

학생이 수정한 글은 제시문에 대한 요약을 한결 줄였으며, 논증의 형태를 갖춘 새로운 단락이 포함되어 완성도가 높아졌다.

(나) 사례 서술에만 치중한 본론

학생 글 “유행은 무조건 안 좋은 거다.' '팬히 친구들에게 소외받고, 무시받게 하는 그런 존재이다.'한 사건이 있기 까지 유행에 대한 나의 생각이였다.

「그렇다. 우리는 지난 2002년 정말 큰 저력을 보여주었다. 축구의 4강신화도, 응원하고 나서 길거리 치우는 것도, 그리고 지금 내가 말하려는 Be the Reds! 옷도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것이였다. 그렇다. 2002년에는 Be the Reds! 옷이 정말 불티나게 팔렸다. 그 때문에 옷을 만들 빨간 원단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선호하였다.

심지어 우리학교에서는 축구경기가 있는 날에는 교복 대신 Be the Reds ! 옷을 입고 와도 된다고 허용한 적도 있을 정도이다. 축구장에서 응원할 때나 거리응원을 할 때나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그 똑같은 빨간 Be the Reds! 옷을 입을 때 정말 가슴에 뭔가 모를 뜨거운 걸 느꼈음을 이루 말할 수 없다.

대한민국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입었다는 Be the Reds! 옷을 만지며 나는 큰 애국심을 느꼈고, 대.한.민.국!을 외치며 자부심을 느꼈다. Be the Reds! 옷의 유행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그동안 침체되었던 경제가 활성화 되었으며, 또 소비자는 역시 애국심과 자부심을 느꼈던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

첨삭 글 이 글에서는 밑 줄 친 부분이 실질적인 본론 전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본론에는 논증도 없고 주장도 보이지 않는다. 단지 2002년 월드컵 당시의 유행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본론은 제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서술 방식도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이 수정한 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유행에 잘 따르면서도 유행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내리지만은 않는다. 하지만 종종 유행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을 볼 수 있다. 2002년 월드컵 당시에 나타난 유행 역시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지난 2002년 정말 큰 저력을 보여주었다. 축구의 4강신화도, 응원하고 나서 길거리 치우는 것도 모두 세계를 놀라게 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Be the Reds!’ 옷도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것이었다. 2002년에는 ‘Be the Reds!’ 옷이 정말 불티나게 팔렸다. 그 때문에 옷을 만들 빨간 원단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선호하였다.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축구경기가 있는 날에는 교복 대신 ‘Be the Reds!’ 옷을 입고 와도 된다고 허용한 적도 있을 정도이다. 축구장에서 응원할 때나 거리응원을 할 때나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그 똑같은 빨간 ‘Be the Reds!’ 옷을 입을 때 정말 가슴에 뭔가 모를 뜨거운 걸 느꼈음을 이루 말할 수 없다.

대한민국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입었다는 ‘Be the Reds!’ 옷을 만지며 누구나 일체감을 느꼈고, 대.한.민.국!을 외치며 자부심을 느꼈다. 비록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하면 작은 정도겠지만 ‘Be the Reds!’ 옷의 유행은 일정 정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유행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다.

해설 본론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논증이다. 본론에서 이루어진 논증을 바탕으로 자기주장의 설득력을 가져야 하는데 원래 학생의 글은 문장 표현도 주관적이며 정서적이다. 하지만 수정된 글에는 정서적인 표현도 줄었고 사례를 검토한 판단도 설득력을 더 얻고 있다.

(다) 설득력 없는 반론이 포함된 본론

학생 글 하지만 “양성평등의 글자 그대로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의 군복무를 의무화 해야한다.”는 주장은 현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지며 평등자체의 의미로만 보아도 어긋나는 발상이다.

우선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여성의 군 입대가 의무화되었을 때 필요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숙소부터 의복, 숙우, 생필품까지. 일부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다고 해도 일정나이가 지난 성인여성을 모두 수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어마어

마할 것이다.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 꼭 필요하지도 않은 여성의 군입대 의무를 단지 평등의 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주장이다.

과거 조선시대 때 기회평등을 위해 평민에게 과거를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탓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실과 괴리된 이상은 실현되기 어렵다.

참사 글 경제가 어려운데 여성 군 입대까지 필요하다는 지적은 좋은 지적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지적은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비용대비 산출에서 여성의 군 입대는 사회적 손실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아도 낮은 출산율을 감안해보면 여성의 군 입대가 출산에 도움을 줄 리는 만무하다는 측면도 사회적 비용으로 추산해 볼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 과거의 예는 별로 적절하지 않다. 평민에게 과거를 치르게 해야 하는 것은 기회의 균등상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꼭 필요한 일이면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라도 실현시켜야 하는 것이지 포기하고 정당화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의 군 입대가 과거시험의 기회균등만큼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예를 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학생이 수정한 글 “하지만 양성평등의 글자 그대로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의 군복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지며 평등자체의 의미로만 보아도 어긋나는 발상이다.

우선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여성의 군 입대가 의무화 되었을 때 필요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숙소부터 의복, 속옷, 생필품까지. 일부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다고 해도 일정나이가 지난 성인여성을 모두 수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예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는데 국방 예산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단순히 국방비 부담만의 문제는 아니다. 빈곤층 해소와 같은 사회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에도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남녀의 평등은 동일한 일을 하는 것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무시하는 사

고는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확실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해설 학생의 글은 여성의 군 입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본론의 서술 방식은 여성의 군 입대를 주장하는 입장에 대한 반론적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주요 논지가 상황 논리(경제가 어렵다는 상황)에 의존하고 있다.

상황 논리는 현실의 문제를 적절히 반영하는 관점이 되기도 하지만 상황의 변화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함부로 끌어들이 수 없는 논리이다. 학생의 글에 대해서 첨삭 교사가 지적하는 문제점의 핵심이 바로 유동적인 상황에 좌우되는 관점은 논박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수정된 글에서는 경제적 상황의 변화와 상관없이 여성의 군 입대는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부적절한 역사적 사례는 삭제하고 본래 논제에 충실한 내용으로 대신했다.

(라) 부적절한 어휘 선택으로 의미가 불분명한 본론

학생 글 ㉠먼저, 국민 모두의 의견을 통합할 수 없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정치를 행하게 된다는 것이 다수결의 근본 이유인데, “국민 모두의 의견을 통합할 수 없다.”는 것의 이면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묵과할 수 없다. ㉡실제로 뛰어난 지식인들은 다수이기보다는 소수쪽이라는 것이 다수결의 뼈아픈 맹점이다. 그래서 실제 다수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언론이 큰 영향력을 미치고, 그 언론은 소수(국민 전체에 비해서)가 운영하고 있으므로 다수는 일부 소수에 의해 결정하게 된다. 결국 다수결의 원리는 진리를 획득하는 데에 있어서는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지식인층들만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에 위배된다. 점점 지식인층이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사실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국민들이 한 두 명이 아니다. 무관심도 큰 문제지만 국민들이 다수결에 있어서나 정치를 참여하는데(선거 등)에 있어서 해박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다수결이 정말 그 뜻 그대로 ‘다수가 선택한 올바른 결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문화 수준을 비롯하여 많은 측면에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하고, 일부 무지인들을 위해서 무료 교육을 하는 등 정부측, 개인측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참삭 글 <문장 표현> 밑줄 친 ㉠과 ㉡은 전형적인 만연체 문장이다. 만연체 문장은 바람직한 표현이 아니다. 문장이 길어지면 주술 관계가 혼동될 수 있으며,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핵심을 쉽게 파악하지 못하게 할 우려도 있다. 모든 문장을 50자 내외 정도의 문장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글을 써야 한다. ㉠에서 “묵과할 수 없다.”라는 표현은 흔히 잘못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다.

밑줄 친 ㉡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이다. 주어와 술어의 내용이 전혀 맥락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다수결의 뼈아픈 맹점이라 하면 다수결의 원리 자체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한계여야 하는데 이 글에서는 지식인들이 한 사회의 다수를 이루는지 소수를 이루는지와 같은 별개의 문제를 연결짓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뛰어난 지식인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다. 뛰어난 사람의 의미가 도덕적으로 옳은 결정을 한다는 의미인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인지, 여론 주도층을 말하는 것인지, 출세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 밝히지 않으면 그들 소수의 결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머리가 좋은 지식인들이 사회적인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는 자기들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소수의 현명한 사람들의 판단이 다수의 어리석은 판단보다 더 나은 것일 수 있는 가능성을 다수결의 원리는 놓칠 수 있다는 취지의 표현으로 바꾸어 보도록 하자.

㉡에 포함된 ‘무지인을 위한 무료교육’도 모호한 표현이다. 무지인의 기준을 무엇으로 볼 것이며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교육하라는 것인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무지인’이라는 표현 자체도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어휘이다. 여기에서는 시민들이 훌륭한 정치적 판단을 하도록 참여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도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학생이 수정한 글 먼저, 국민 모두의 의견을 통합할 수 없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정치를 행하게 된다는 것이 다수결의 근본 원리이다. '국민 모두의 의견을 통합할 수 없다'는 것의 이면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실제로 현명한 지식인들은 다수에 속하기 보다는 소수 쪽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잘못된 결론에 다수가 동참하더라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다수결의 뼈아픈 맹점이다. 그

래서 실제 다수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언론이 큰 영향력을 미치고, 그 언론은 소수(국민 전체에 비해서)가 운영하고 있으므로 다수는 일부 소수에 의해 결정하게 된다. 결국 다수결의 원리는 진리를 획득하는 데에 있어서는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지식인층들만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에 위배된다. 점점 지식인층이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사실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국민들이 한 두 명이 아니다. 무관심도 큰 문제지만 국민들이 다수결에 있어서나 정치를 참여하는데(선거 등)에 있어서 해박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다수결이 정말 그 뜻 그대로 ‘다수가 선택한 올바른 결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문화 수준을 비롯하여 많은 측면에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민들을 위해서 무료 교육을 하는 등 정부와 개인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해설 좋은 논거를 가지고 참신한 논증을 하고 있어도 구체적인 표현에서 그 의도를 잘 살려주지 못하면 좋은 글이 되지 못한다. 읽는 사람들이 알아서 의도를 헤아려 주는 것은 아니다. 원래 학생의 글에서는 만연체 문장과 모호하게 사용된 표현들이 수정된 글에서는 간결해지고 분명해졌다.

(3) 결론 지도 사례

가. 상투적인 표현

(가) 틀에 박힌 형식

학생 글 “㉠<지금까지 우리는 민족주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민족주의가 생긴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다르기에 민족주의는 어쩌면 구시대의 산물일 수도 있다.”

첨삭 글 ㉠은 전형적인 결론의 도입부이다. 긴 글의 경우 앞에서 무엇을 말했는지 하나씩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러나 논술에서는 이런 표현이 적합하지 않다. 본론

에서 언급한 내용 중 강조해야 할 것을 서술형 문장으로 만들면 된다. 오히려 이런 표현이 상투적이라 감점 요인이 된다.

해설 결론의 도입으로 흔히 ‘알아보았다’ ‘살펴보았다’는 표현을 많이 쓴다. 이런 글은 너무 틀에 박힌 표현 방식이라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나) 상투적인 표현

학생 글 ①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을 민족주의에 적용하면 과거 민족주의가 지녔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민족주의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 민족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세계 안에서 투쟁이 아닌 세계와의 협력과 타협이라는 모습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 글 ② 그렇지만 이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지금이야 말로 우리들이 세계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민족주의를 더욱 견고히 해야 할 시기라는 것이다. ‘온고지신’이란 말이 있듯이 옛것 중에서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택하여 그것을 새로이 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지양해야 할 바람직한 민족주의 민족성의 길이다.

첨삭 글 ‘온고지신’이라는 말은 참 좋다. 그리고 민족주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온고지신’이라는 단어를 찾은 것도 잘 했다. 그렇지만 ‘온고지신’이란 말은 어디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많은 학생들이 쓰고 있다. 참신한 맛이 전혀 없다. 이 단어 외에 다른 개념이나 용어를 찾아서 쓰면 좋겠다.

해설 ‘온고지신’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는 좋다. 또한 민족주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온고지신’이라는 고사성어를 적절하게 인용한 점도 좋다. 그렇지만 ‘온고지신’이란 말은 어느 상황에서나 적용이 될 수 있고, 많은 학생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참신한 맛이 전혀 없다. 이 단어 외에 다른 개념이나 용어를 찾아서 쓰면 좋겠다.

나. 본론에서 벗어난 결론

(가) 새로운 논의로 된 결론

학생 글 “과학의 가치 중립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학은 도구일 뿐이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과학 발전과 더불어 나타나는 각종 폐해들은 과학이나 과학자 단독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과학이라는 도구를 악용한 사람들과 제도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과학의 법칙이나 이론이 개인의 가치관에 의해 주도된다고 볼 수는 없다. 도 과학적 지식이 그 자체로 가치에 관한 판단이나 결정을 내려 준다고 할 수도 없다. 또 과학적 지식이 그 자체로 가치에 관한 판단이나 결정을 내려 준다고 할 수도 없다. 시야를 좁게 하면 가치 중립성이 인정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과학의 도구화는 필연적이다. 과학 기술 폐해로 고통스러워하는 지금, 과학자들은 지식과 가치의 통합, 목적과 방법의 통합에 힘써야 한다.”

첨삭 글 결론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자기 주장의 제시, 입장의 정확한 천명에 있다. 우리가 어떤 글이 잘 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 글이 지닌 주장과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합리적이고 타당할 때이다. 따라서 근거와 주장의 관계는 논술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입장에 대해 비판하거나 반박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글일 경우에는 상대 입장의 주요 근거를 반박하고 비판하는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상대 주장이 갖는 강점을 인정하거나 자기 논리의 약점을 드러내는 방식의 서술은 오히려 자신의 논지를 약화시킨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답안의 경우는 결론에서 다루기에 부적절한 논의가 많으며, 더불어 상대 입장을 고려하면서 자기 주장을 위축시키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논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내기에는 부적절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해설 문제는 “현대 과학 기술이 낳은 각종 폐해들이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과학 발전을 위해 과학자가 가져야 할 태도를, 제시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목적과 방법의 분리, 지식과 가치의 분리 문제를 중심으로 논술하시오.”였다. 학생은 본론에서 가치 통합에 관해서 논의했다. 그런데 결론에서는 과학의 가치 중립성에 대해서 옹호하는 주장을 제시함으로써 논리의 혼선을 가져왔다. 이런 경우 논술의 기본 요령이라고 할 수 있는 논쟁에서 상대의견을 어

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지도해 주어야 한다.

(나) 본론에서 다루지 않은 대안 제시

학생 글 “위에서 현대사회에서 갖는 민족주의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민족상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자민족 중심주의에 빠져서 폐쇄적이고 국수적인 방향이 아니라 타민족을 존중하고 공존·공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열린 민족주의’이고 ‘열린 한민족 공동체’의 이념이다. 즉, 어느 한 문화의 동질성을 강요하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문화가 어느 면이 같고, 어느 면이 다른지를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다름’을 우열의 개념이 아닌 차이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결국,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관용과 개방성, 그리고 다양성 가운데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내와 양보가,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민족상의 열쇠인 셈이다.”

첨삭 글 열린 민족주의 혹은 열린 한민족 공동체의 이념을 말한 것은 잘 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본론에서 어느 정도 언급되어야 한다. 최소한 이런 얘기를 암시할 수 있는 주장이 있어야 한다. 문제의 요구가 바람직한 민족상을 논하라는 것인데, 정작 중요한 내용을 결론에서만 읊기는 우를 범한 것이다. 중요한 개념은 본론에서 언급하고 결론에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강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해설 문제는 “21세기를 맞는 시점에서 민족주의에 대한 새로운 의미 규정이 요구된다. 아래의 두 지문을 근거로 하여 민족주의가 갖는 의의와 한계를 지적한 후, 바람직한 민족상을 제시하라.”였다. 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론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바람직한 민족상(혹은 어떤 문제에 대한 대안)을 지적해야 한다. 흔히 어떤 대안을 논하라는 문제가 제출되면 학생들은 결론에 모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심 내용은 본론에서 미리 언급하고 이를 결론에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다) 논리 비약적인 결론

학생 글 ① “바람직한 민족주의는 우리 사회를 선진 한국으로 이끌 수 있다.”

학생 글 ② “고교 평준화가 폐지되면 우리 교육의 미래가 장밋빛으로 변할 수 있다.”

첨삭 글 선진 한국이니 밝은 사회, 명랑 사회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바람직한 민족주의가 선진한국으로 이끌 수 있는 필요조건인지는 몰라도 충분조건은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해 열린 민족주의가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더라도 선진국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전망이나 제언의 수준을 문제의 요구 범위에서 해결해야 한다. 가령 “바람직한 민족주의는 ~이다.”나 “바람직한 민족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적 태도에서 벗어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도의 범위에서 논의를 마무리하는 편이 낫다.

해설 결론 마지막 부분에 논제에 대한 간단한 전망이나 제언을 덧붙일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도한 경우 모두 동일한 귀결로 나타나게 된다. 밝은 사회, 명랑 사회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경우 본론의 논의를 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문제 요구를 다시 확인해 주는 것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다. 중언부언

학생 글 “(본론 마지막 단락)사회의 본래 목적인 개인의 자아 실현이 이루어지기 힘든 현실엿 자칫 개인이 사회를 구성하는 부속품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개인은 사회의 부속품으로 전락할 위험을 극복하고 사회의 주체로서 자아 실현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들은 먼저 자신의 가치를 인식해야 한다. ‘내가 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가?’와 같은 자신의 가치를 묻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에 대한 가치 인식을 바탕으로 개인은 사회의 주체는 바로 자신이라는 적극적 삶의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결론)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을 사회 구성을 위한 부속품으로 만든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 주체로서 자아 실현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은 개인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묻는 것이다. 이런 물음을 통해 자기

반성된 개인이 적극적인 삶이 된다.”

첨삭 글 대안에 관한 논의까지도 본론 마지막 단락에서 전개되었기 때문에, 이 글의 결론은 본론 마지막 단락을 반복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없었다. 이미 언급된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하려고 하지 말고 같은 이야기를 세련되게 강조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마무리하면 어떨지 생각해 보자.

영화 ‘모던 타임스’에서 찰리 채플린은 공장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기계에 붙박인 채 단순한 조립만을 한다. 이 영화는 공장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개인의 자아 실현 욕구가 희생됨을 보여 준다. 현대 사회에서도 ‘모던 타임스’에서의 경우와 비슷하게 개인의 자아 실현 욕구가 경시된 채 사회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 개인의 모습이 나타난다. 개인이 현대 사회에서 도구로 전락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옳지 못한 현대 사회상은 고쳐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개인은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신이 바로 사회의 주체임을 깨닫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 더 이상 개인이 영화 속의 찰리 채플린처럼 사회에 의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해설 많은 학생들이 결론에서 일차적으로 본론에서 언급한 근본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라고 하면 그대로 문장을 옮기거나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이럴 경우 논의를 효과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적절한 사례 하나로 전체를 마무리할 수 있음을 제시하면 좋다.

(4) 논리구조분석

가. 학생이 개요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가) 전체 글을 문장 개요로 만들어 주는 경우(학생이 개요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학생 글 (A) 최근 교육 때문에 자녀가 유학을 가면서 홀로 남겨진 기러기 아빠가 급증한 가운데 그로 인해 가정 붕괴까지 이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또 집 값

안정을 위해 학군을 조정해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엄청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시문에서는 고교평준화를 폐지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 시켜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교평준화를 폐지함으로써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다양화, 전문화된 공교육으로써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B1) 그러나 얼마 전 신문 보도에 의하면 자립형 사립학교나 특수목적고에 다니는 학생들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68%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입시위주, 학벌중시 풍토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수단으로써 전략해버린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는 향상된 교육의 질이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오히려 대학 입시를 고등학교, 더 나아가 중학교 입시로 연장시켜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각 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게 되면 학교간 교육의 질적 차이는 더욱 심화된다. 학교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자율화하면 좋은 질의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그로 인해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고 계층 간의 격차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B2) 한편 일부에서는 고교 평준화가 학력 저하를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고교 평준화 체제에서는 우수한 인력 양성과 발굴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수준의 학생이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양성,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재능을 키우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B3) 위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교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다양한 수준의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입 예정인 AP과정과 같이 심화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우수한 인력이 고등학교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대학과 연계하여 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프랑스의 교육 제도와 같이 기능 전문 학교를 더욱 세분화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인문계의 경우 종전에 보충 수업으로써 행해지던 특기 적성 교육을 확대 시켜 적극 활용해야 한다. 기본 교과 과정 뿐만 아니라 외부 강사 도입, 타학교 교사 초빙 등을 통해 학생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 21세기는 우수한 인력을 두루 갖추는 것이 곧 그 나라의 경쟁력이 된다. 오래 전부터 이어온 우리나라의 교육열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내어 국가 경쟁력이 되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또한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교육 시스템을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사 글

A- 고교 평준화 폐지에 대한 제시문 요약

-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다양화, 전문화된 공교육으로써 충족시켜야 한다.

B1 반론 제기

- 고교 평준화는 유지되어야 한다.
-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에 다니는 학생들도 여전히 사교육을 받고 있다.
- 자율화하면 학교마다 교육질의 차이가 심해진다.

B2. 평준화 부작용

- 학력저하 발생
- 교육의 다양성 전문성 확보가 어렵게 된다.

B3. 대책

- 수준별 학습- AP 과정 도입
- 직업교육의 확대 및 특기 적성교육

C

- 고교평준화 바탕으로 한 전문화된 교육 시스템을 통한 우수인력 양성 필요 제기.

학생의 논리구조를 보면 대략 위와 같은 개요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본론 B1/B2의 관계를 살펴보자. 학생은 궁극적으로 평준화를 지지하는 입장인데, B2에서 폐지론자의 입장을 옹호하려는 것처럼 주장을 정리하고 있다. 즉, B1/B2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한 채 별개의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두 단락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별개의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B2단락은 B1과 B3 단락에서 보충적으로 논의되는 편이 낫다.

해설 학생이 ‘개요’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떤 식으로 개요를 작성하면 되는지 알려줄 수 있도록 첨삭지도를 하면 좋다.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개요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있다. 논리구조 분석을 통해서 개요 작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각 단락의 구성에 대해서 언급하면 좋다. 이럴 때 가급적이면 첨삭 교사도 화제 개요보다는 문장 개요로 논리구조를 분석하면 좋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어떻게 ‘개요’를 작성할지 알게 된다.

(나) 논리 구조를 화제 개요로 작성한 경우

학생 글

(가) 우리나라에서 교육문제는 항상 뜨거운 감자였다. 그동안 수많은 교육정책들이 발표되었지만, 누구나 만족하는 정책은 없었다. 현재 고교평준화에 맞춰진 교육 정책도 차츰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나) 현 고교평준화 제도 하에서는, 학생들의 개인적 취향에 맞는 교육이나 능력에 따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학생의 수준과 적성에 맞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일부에서 말한다. 그렇게 해서 학생을 위한 학교로 더욱 다양화 하고, 전문화 하여 살아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 내용이다.

(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맞는 현실은 아닌 것 같다. ‘점차’라고는 하지만, 평준화 제도를 없앤다면 우리가 그 이전에 겪었던 문제에 또다시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현 상태에서 특성화 학교를 점차 늘리는 방안이다. 혹자는 고교평준화를 없애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고 할지 모르지만,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평준화는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대신 일반고와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인식과 본질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라) 우선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늘리고, 일반고와의 상호 연계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잘못된 진로선택에 대해서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마) 또, 일반고와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일반고와 특성화고는 배우는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이지, 절대로 질적 문제나 학생의

성품과 연관시키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바) 의식 변화가 쉽지 않을 경우 일반고에서 특성화된 교육을 함께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외고’, ‘공고’, ‘상고’하는 식의 이름이 아니고, 이름도 일반고와 같이 하는 등의 대안이다.
- (사) 마지막으로, 교수진들의 실력과 분야도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각 특성에 맞는 전문가와 학생도 교사나 교과과정을 일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의 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아) 무엇이든 누구에게나 완벽한 정책의 존재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절충은 있을 수 있다. 현 제도의 변경이나 전환은 또 다른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차츰차츰 성질의 변화가 필요하다. 학생과 학교의 자율도 결국 나라의 수요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첨삭 글

서론 (가) - 고교평준화 정책 보완 필요성

본론 (나) - 폐지론자의 입장. -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교육 필요성 제기

고교 평준화 정책 보완 방법

- (다) - 평준화 정책 내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활성화가 필요하다
- (라) - 특성화 학교와 일반고의 상호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 (마) - 일반고와 특성화 고교에 대한 의식 개선 필요
- (바) - 일반고에서 특성화 교육도 가능하다.
- (사) - 교수진들의 실력 배양 필요

결론 (아) - 현 제도의 유지 필요.

위의 내용은 각 단락의 핵심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주장에 따른 근거를 정리하고 싶었지만 정리할 수가 없었는데, 이는 근거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단 단락 구성부터 살펴 보면, 서론은 좀 더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서론에서 고교 평준화를 우리 나라 교육제도에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출발한 것은 훌륭하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을 보면, “그동안 수많은 교육정책들이 발표되었지만, 누구나 만족하는 정책은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잘 한 것이지만, 왜 이렇게 만족하는 정책이 나타나지 않았는지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전체 주제인 ‘고교 평준화’를 보는 관점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고교 평준화를 왜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고교 평준화를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자연스럽게 제기하면서 대안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관점을 근거로 고교 평준화 반대를 주장하는 입장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서론 자체가 풍성할 것이다. 지금 서론에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 것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좋은 진단을 했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령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외면한 채 땀질식 처방만 했기 때문이다.”이라는 문장을 더 써 보자. 그 다음 “고교 평준화도 경쟁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고교 평준화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다. 교육 기회 균등을 외면하고 성숙한 인간을 만들 수 없다.”는 식으로 주장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해 보자.

본론 첫 번째 단락(나) : 논의는 비교적 잘 정리했지만 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더구나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단락을 할애하고 있다. 상대방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굳이 한 단락으로 쓸 필요는 없다. 위에서 대안으로 간단하게 쓴 문장을 다시 보면, 폐지 주장의 핵심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상대의 입장은 아주 간략하게 언급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주장을 담을 수 있는 문장을 써야 완성된 본론의 한 단락을 구성할 수 있다.

단락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사)까지 한 단락으로 묶을 필요가 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모두 대안 제시적인 성격으로 묶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학생은 나열하다시피 한 단락씩 풀어쓰고 있다. 일차적으로 (다)의 주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새롭게 구성하여, 일차적으로 왜 고교 평준화를 말하면서 특성화 고교를 말하는지 그 근거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설 화제 개요로 논리 구조를 분석해 준 경우 학생들이 일차적으로 <개요 작성>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얻어갈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전체 글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리고 논리 구조 분석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새

롭게 구성되어야 할 구조를 간단하게 언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처음 지도하는 학생의 경우는 가급적이면 문장 개요로 논리 구조를 지도하는 편이 낫다.

나. 전체 논증 구조에 대한 대안 제시(개요 작성을 한 경우)

학생 글

<서론> 자본주의는 경제 주체의 경제 행위로 형성, 발전하고 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본주의 경제 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때 건전한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경제 행위인 것이다. 이는 약자에게도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으로 생각할 수 있다.(중략)

<본론 1> 정의로운 경제 행위는 단순히 양육강식의 논리가 아니다. 양육강식은 강자에게 한없이 힘을 주고, 약자에게는 강자에 종속되게 마련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경제 행위는 자칫 양육강식의 논리가 되기 십상이다. 왜냐하면 경쟁을 기본 모델로 사회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중략)

<본론 2>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의로운 경제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경우는 독점이다. 생산과 판매의 독점은 자본주의의 기형적 구조를 양산한다. (중략)

<결론> 결국 정의로운 경제를 가능하게 하려면 독점을 없애야 한다. (생략)

참삭 글

학생의 논리구조는 <개요 작성>에서 잘 정리되어 있다. 자, 함께 둘러보자.

1. <서론>의 문제 제기는 ‘경제 행위’라는 주제를 자연스럽게 끌어낸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나름대로 한 단계씩 분석해 들어가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논증성을 살리고 있다.

2. <본론 2>에서 독점형태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잘 전개하고 있다. 학생 나름의 언어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도 참신하게 다가온다.

3 <결론>의 내용은 <본론 2>와 같은 수준에서 이야기해야 할 내용이다. 그러니

까 이 부분은 <본론 3>으로 구성하는 편이 합당하다. 그리고 <결론>은 다시 구성하는 편이 낫다. 학생의 논리 구조는 이렇게 다듬어 볼 수 있다.

<서론> 문제 제기

- 정의로운 경제 행위에 대한 물음을 끌어낸다.

<본론> 1. 정의로운 경제 행위의 의미

2. 독점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경우 분석

3. 경쟁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경우 분석

<결론> 우리 사회의 경제 현실에 대한 반성

해설

학생이 <개요> 작성을 잘 했고, 그 내용이 본문에서 충실하게 반영되었다면 각 단락별로 칭찬과 함께 좀 더 논리적인 글을 쓰기 위한 논리 구조를 함께 제시하면 좋다. 논증 구조 분석은 단순히 학생의 글이 논리적으로 구성된 것인지 알기 위해서 하는 것만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위 첨삭 사례에서는 학생 글에서 잘 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 단락에서 결정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까지 비교적 친절하게 다루고 있다.

다. 단락별 논증 구조 분석

학생 글

<서론> 시대가 어지러울수록 비합리적인 사고 판단이 활개를 친다. 그중 풍수지리가 대표적이다. (중략)

<단락 가> 사고 판단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풍수지리설은 경우에 따라서는 맞는 경우도 있다. 가령 햇빛이 잘 드는 집에서 살면 더 활동적이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힘들다(중략)

<단락 나> 풍수지리설은 조선시대에도 유행하던 것이다. 풍수지리설에 근거한 판단은 합리적이지 않다. 유행에 불과한 것이다. 조선시대를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다. 조선시대는 과학이 부족해서 미신에 의존한 사고를 했다. 이것이 바로 풍수

지리설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풍수지리설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생략)

첨삭 글 학생 글의 논리 구조는 <개요> 작성과 같다.

1. ‘풍수지리설’을 과학성(혹은 합리성)의 관점에서 평가하라는 문제의 요구사항은 충실히 지키려고 한 것 같다. 그러나 ‘풍수지리설’에 대한 학생의 생각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내용의 일관성을 잃고 있다.
2. 본론 (나) 단락의 근거 제시가 너무 일방적이고, 그에 대한 설명, 즉 논증이 없다. 풍수지리설에 왜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으므로 이를 추가해야 한다.
3. 과학성 혹은 합리성의 의미설명이 명확하게 없다. (나) 단락의 풍수지리설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비논리적, 비합리적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학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는 부분이 빠져있다.
→ 대다수 학생이 자료를 읽은 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설명해야 할 내용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글을 쓸 때는 그런 자료를 읽지 않은, 즉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써야 한다. 논술은 자신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글이다. 상대방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상관없이 쉽고 평이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설 전체 밑그림이 어느 정도 완성된 글의 경우 단락별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다시 지적해 주는 방식으로 논증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위 첨삭 사례에서는 전체가 논리적으로 구성된 것을 전제로 각 단락에서 보완할 부분을 중심으로 언급해 주고 있다.

(5) 총평

가. 평가 항목 중심으로 첨삭하고자 할 때

첨삭 글 전체적으로 문제 파악 능력과 표현, 그리고 구성이 지적할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잘 이루어졌다. 문제 파악도 출제자의 의도와 일치하며, 구성도 체계적이고 표현 역시 모나지 않게 잘 표현했다. 앞으로 글을 쓰는 데 이 부분은 별로 신경 쓰지 않더라도 무방할 듯하다. 그러나 글의 독창성과 깊이는 다소 떨어진다. 이는 문제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폭넓은 지식을 통한 사고의 독창성과 내용의 깊이에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해설 논술에서 기본적인 평가 항목들이 있다. 각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잘 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총평이다. 무리 없는 총평이다.

나.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하면서 첨삭하고자 할 때

첨삭 글 지난번에 지적한 유의 사항을 지키려고 한 흔적이 보인다.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럼에도 본론 이후의 서술에서 착각한 것 때문에 글 전체가 산만해졌다. ○○학생은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 절대 실망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보자. 다음번에는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해설 총평에서 그다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칭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위의 사례에서는 학생에게 가능성을 확인시켜주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다. 잘못된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첨삭하고자 할 때

첨삭 글 학생의 글을 읽으면, 학생은 막연하나마 풍수지리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런데 막상 과학성의 관점에서 이를 평가하라는 문제가 나오

자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옹호할 수도 없고, 문제를 보아하니 비판하라는 얘기 같아 생각에 혼란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논술은 논리적인 일관성이 깨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스스로 생각이 오락가락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만약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 자료를 참조해서 개념에 대한 이해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논술을 할 때는 늘 미리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것을 객관화시키는 연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분량이 다소 부족하다. 본론 (나)를 내용에 따라 구분해 주고 논증을 보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설 글 전체에서 풍기는 인상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주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왜 잘못이 발생한 것인지 적절한 지적과 함께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지적해 주면 좋다.

라. 당부를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첨삭하고자 할 때

첨삭 글 학생의 글을 보면 앞으로 자신의 주장을 좀 더 세련되게 다듬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부분에서는 이미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넓히고, 기존 지식을 세련된 주장 표현과 함께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관찰력이 중요하다. 사태에 이런 면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고, 그것을 이런 주제와 연관시키면 어떻게 될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된다. 그에 따라 자신의 경험을 구체화할 수 있는 여러 표현도 떠오를 것이다. 더불어 배경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관련 책도 많이 읽어 보기 바란다.

해설 당부를 중심으로 총평을 하게 되면 하나하나한 것처럼 보이기 십상이다. 그렇지만 학생의 입장에서는 다르다.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줄 뿐 아니라 이제 무엇인가 하나 배웠다는 인상을 준다. 그에 따라 성취감도 높아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총평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찰도 배려에서 시작할 수 있다. 단순히 일회적인 첨삭 지도를 이런 식으로 꾸미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6) 주제 및 개념 확장

학생들의 논술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다고 생각되는 단계에 이르면 주제 및 개념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논술 요령과 연관된 지도보다는 더 세련된 표현과 개념적인 용어들을 자연스럽게 응용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학생 글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환경오염이 언제나 과학기술을 실제 적용하고 난 뒤 나타난다는 것이다.> 인간은 신이 아니어서 지구의 환경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측은 물론이거니와 사후에도 수습할 길을 찾지 못한다. 한마디로 ‘벌여놓고 보는’ 게 바로 과학 기술이다. 또한 혹시나 연구를 거듭해서 그 대책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벌여놓은 일이 너무 커져있기 때문에 실행은 매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고작해야 그것을 중단하는 것 외에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예를 들어, 온실효과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은 세계 곳곳에 기상이변과 함께 피해를 가져왔지만 세계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거라곤 온실효과를 가져오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뿐, 이미 진행된 지구 온난화 현상은 온갖 과학기술을 동원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일부 과학기술 옹호자들은 과학으로 인해 일어난 문제는 과학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다.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본다면 그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도저히 신뢰가 가지 않는 주장이다. 과학으로 환경을 다시 정화시킨다는 눈에 띄는 사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환경은 점점 더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의 환경은 그들의 낙관적 미래를 기다려 줄 여유가 없다. 당장 세계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느끼기 때문이다.

첨삭 글

자신의 논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논의 순서를 조금 바꾸는 편이 낫겠다. 먼저 첫 문장(㉠)은 서론 내용과 충분히 연관되면서도 단락 전체를 이끌 수 있는 문장으로 구성하면 좋겠다. 첫 번째 문장의 경우 불필요한 문장처럼 보인다.

예를 들면 “환경오염을 과학기술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의 진보는 더 큰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와 같은 방

법으로 단락의 핵심 내용을 앞에서 논의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빼면 학생이 강조하려는 내용과 그대로 연결시킬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주장+ 근거+ 부연설명+ 사례제시’의 순서로 자연스럽게 단락이 구성될 수 있다.

참고로 배경 지식을 넓히기 위해 내용에 관한 조언을 하자면, “과학기술을 발전하면 왜 환경오염이 더 심각해질까?”,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와 같은 문제 제기를 해 볼 수 있다. 중간에 이와 유사한 문제 제기를 “벌여놓고 보는 게 과학 기술이다”라는 문장으로 하고는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되는 분야에서 발전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자정을 위한 분야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상품화를 통해서 이윤을 획득하게 되는데, 환경오염을 줄이거나 자정하는 분야는 상품화될 수 없기에 이런 상품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상품의 원가를 높이게 되는 빌미가 된다. 기업은 최소 투자를 통해 최대 이윤을 얻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환경 정화 관련 상품은 이를 힘들게 만든다.

예를 들어서 공장 굴뚝에 매연을 줄이게 해주는 장치를 설치했다면, 설치하는 데도 돈이 들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데도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공장에서는 이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지 않을뿐더러 설치하더라도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도 이미 학생이 “국가적으로 환경오염을 줄이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과학기술이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학생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이런 지식을 알고 있다면 중간에 효과적으로 과학 기술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해설 1차 첨삭을 했거나, 학생의 글이 완성도가 있는 경우에는 역지로 학생 의견에 꼬투리를 달기 보다는 좀 더 심화된 내용을 언급함으로써 학생의 배경 지식을 확장시켜주면 좋다. 위 학생의 경우 문단 자체에서는 언급할 대목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완성도가 있는 글이다. 이런 경우에는 주제나 개념을 좀 더 설명하고 확대된 주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다.

(7) 전체 첨삭 지도 사례

학생 글 (가) 다수결이 우리 사회에서 주어지는 의미는 어떤 정책이나 시행에 대해서 결정의 척도로 알고 있다. 현재 민주주의 사회란 이름아래서 대통령 투표나 국회의원 투표들을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있다.

(나) 만인은 공평하다는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정책이나 시행은 공화정의 정치에 부합되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화정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엔 과거의 그리스처럼 지역적으로도 소형인 폴리스와 같지 않아서 시행할 수가 없다는 것에서 다수결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고려하는 대신 시험처럼 일정한 보기를 주고 그중에서 선택률이 가장 높은 것을 이상적인 해결방식으로서 판단하고 행한다. ㉢ 과연 이러한 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다) 다수결은 우선 사회적으로 굉장한 지역적 이점이 있다. 어떤 선택에 있어서 공화정의 방식을 그대로 따른다면 아마 국회 앞마당에서도 시행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다수결은 지역적으로 나누어서 투표하나만 시행하여도 가능하다. 그만큼 국가적으로 소비적이지 않고 어느 정도 자본주의 사회에 부합되는 효율성도 가지고 있다. 이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너무도 매력적인 것이다.

(라)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이 장점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느정도 반이상 선동을 하여도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적게 만들면 된다. 이로서 그 정책의 결과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 또, 자신의 의견이 불분명하거나 정책의 시행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일종의 편의를 줄 수도 있다.

(마) 그러나 다수결은 사회적으로 어떤 인식의 개혁이 없는 이상 일정한 답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지역주의같은 다수결의 폐해가 있는 것이다. 예를들어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인한 뿌리깊은 호남의 반한나라당 정서,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으로 인해 경상도 경제가 망쳤다고 생각하는 경상도 사람들. 인맥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서 진실된 다수결의 의미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 있다.

(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각자의 의견이 묵살되어 버릴 소지가 많다. 어떤 이의

의견이 있는데 단지 다수결로 인해 다수가 선택한 것이 옳다고 단정함으로써 소수의 의견이 묵살 되는 것이다. 이로서 소수의 올바른 의견이 다수의 잘못된 의견에 의해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율곡이이의 십만양병설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오랫동안 평화가 지속되어 오다 보니 우매한 봉당들은 지금의 평화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믿고 십만양병설을 묵살하고는 후에 임진왜란이 터져서 후회하는 봉당원들. 이것도 일종의 다수결의 폐해라고 할 수 있다.

(사) 이런 것을 보아도 다수결이 항상 올바른 해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그러한 단점마저도 포용할 수 있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효율성 때문에 지금까지도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실행될 것이다. 하지만 이이의 십만양병설과 같은 소수의 올바른 의견조차 묵살해버리는 다수결의 단점은 절대로 넘어갈 수는 없는 요점이다. 이 단점을 극복하지 않는 이상 다수결은 진정한 정치가 될 수 없으며 국민에 대한 일방적인 기만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첨삭 글

<논리구조 분석과 글의 구성에 관하여>

이 글의 기본적인 논리 구조는 다음과 같다.

서론 -(가)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사회의 결정의 척도이다.

(나) 다수결은 모든 사람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선택률이 높은 것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본론 -(다) 다수결은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효율성에 잘 어울린다.

(라) 선동을 통한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마) 지역주의와 같은 다수결의 폐해가 있다.

(바) 다수결의 원리로 개인의 의견이 묵살될 수 있다.

결론 -(사) 다수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 글은 문단이 원칙 없이 나누어져 있다. 글을 작성하기에 앞서 반드시 개요 작성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이와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서이다. 서론은 글 전체의 논지를 정하는 부분이며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 글의 실질적인 서론은 (나) 단락까지 넘어온다. 그러므로 분량이 많지 않은 논술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 단락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문제 제기 방식도 문제 상황을 담은 서술문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글을 작성하기에 앞서 반드시 개요 작성을 하는 습관을 가지기 바란다.

본론에서는 다수결의 장점과 단점을 나누어 기술하고 있는데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한 편이다. 지역주의가 일종의 세력 싸움으로 비춰진다고 할 수는 있지만 다수결의 폐해라고는 볼 수 없다. 다수결의 원리를 수용하는 모든 나라에서 지역주의가 일반적인 사회 문제로 드러난 경우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결론의 전망은 지극히 피상적이고 자의적이다. 조선 시대는 다수결을 의사 결정의 원리로 채택한 사회는 아니다. 그러므로 본론에서 사용한 이율곡의 사례 역시 좋은 사례라 할 수 없다. 하물며 결론에서까지 다시 언급하는 것은 논의력의 빈곤을 드러낸다.

<주장과 근거에 관하여>

이 글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치밀한 논증이 없이 단편적인 생각만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다수결의 장점에 대한 서술을 보겠다.

① “다수결은 우선 사회적으로 팽창한 지역적 이점이 있다. 어떤 선택에 있어서 공화정의 방식을 그대로 따른다면 아마 국회 앞마당에서도 시행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다수결은 지역적으로 나누어서 투표하나만 시행하여도 가능하다.”

②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이 장점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반 이상 선동을 하여도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적게 만들면 된다. 이로서 그 정책의 결과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 또, 자신의 의견이 불분명하거나 정책의 시행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일종의 편의를 줄 수도 있다.”

다수결의 장점이라고 제시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다수결의 의미를 제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다. 제시문에서 글(가)는 공화정 체제가 선택하는 다수결에 따른 결정의 장점을 말하고 있는데, 학생의 글 ①에서는 공화정과 다수결의 원칙이 서로 별개의 체제인 양 전제하고 있다. 즉 공화정의 의사 결정 방식이 다수결의 원칙과 다

른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②에서는 민심이나 여론을 조작하는 선동 정치의 가능성을 다수결의 원리가 가지는 장점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그 다음 단락에서 사례로 든 지역주의를 조작하는 정치와 별 차이가 없는 내용이다. 지역주의 역시 지역적 세력을 정치 기반으로 삼는 정치인들에 의한 선동 정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다수결의 단점이라고 지적한 지역주의 문제는 다수결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한국 정치의 특수한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다수결을 의사 결정의 기본 원리로 택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지역주의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소수의 의견을 묵살할 가능성을 지적한 것은 다수결이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표현에 관하여>

밑줄 친 ㉠은 주제와 연관된 개념들에 대한 오해가 표현을 정확하지 않게 만든 경우이다. 공화제의 형태는 그리스의 도시 국가에서만 선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대 아테네의 공화제와 오늘날의 공화제의 차이는 직접 민주주의 형태를 취하느냐 간접 민주주의 형태를 취하느냐의 차이, 공화제냐 아니냐의 차이는 아니다. 문장 표현 자체도 생략된 요소가 많아 정확한 문장이라 보기도 어렵다. 이 문장 이외에도 문장 성분이 생략된 문장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는 이유는 말하는 습관대로 문장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은 “...그리스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된 이래로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정치 원리로 공화제를 정치 형태로 삼고 있는 경우 의사 결정의 중요한 원리가 된다.”로 고쳐야 한다.

㉢도 다수결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다수결은 모든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 다수가 선택하는 의견을 따르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의 의견을 묻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수결은 모두의 의사를 묻되 현실적으로 만장일치의 의견이 나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차선택의 의사결정의 원리로 받아들여진다.”라는 정도의 내용으로 고쳐 보자.

㉣은 전형적인 상투적 문제 제기 방식이다.

<총평>

논술문 작성의 기본적인 요령을 익혀야 하겠다. 띄어쓰기나 원고지 사용법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물론이고 단락 구성이나 문장 표현의 원칙에 대한 이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선 원고지 사용법 등과 같은 원칙을 익혀야 한다. 그 다음 문장을 간단하게 표현하면서 정확한 문장 표현 능력을 기르도록 연습할 필요가 있다. 단락 구분의 원칙까지 익숙해 진 이후에 본격적인 논지 전개 훈련을 해야 할 것이다.

학생이 수정한 글

다수결은 어떤 정책이나 시행에 대해서 결정의 척도이다. 현재 민주주의 사회란 이름아래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투표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있다. 만인은 평등하다는 의미에서 어떤 정책이나 시행의 결정은 만장일치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차선택으로 선택되는 원리가 다수결이라 할 수 있다. 그리스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된 이래로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정치 원리로 공화제를 정치 형태로 삼고 있는 경우 의사 결정의 중요한 원리가 된다. 그러나 다수결의 원리에 다른 결정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다수결은 우선 민주주의를 유지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결정 방식이다. 어차피 만장일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치 않다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의 동의에 의한 결정이 민주주의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수에 의한 결정은 결과에 대한 구성원들의 저항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때문에 일의 추진도 수월하게 한다. 이는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효율성의 원리에도 잘 부합하는 장점이다.

하지만 다수결은 정치인으로 하여금 대중에 대한 선동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를 하게 할 수 있다. 대중들의 절반 이상 선동을 하기만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적게 만들면 된다. 이로서 그 정책의 결과를 자기 뜻대로 관철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다수결은 사회적으로 어떤 인식의 개혁이 없는 이상 일정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지역주의와 같은 문제가 존재하는 한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항상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만 할 수 없다. 지역주의 자체가 다수결의 결과는 아니지만 지역주의가 결정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면 다수결에 의한 결정 역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인한 뿌리 깊은 호남의 반 한나라당 정서,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으로 인해 경상도 경제가 망쳤다고 생각하는 경상도 사람들의 정서 모두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각자의 의견이 묵살되어 버릴 소지가 많다. 어떤 이의 의견이 있는데 단지 다수결로 인해 다수가 선택한 것이 옳다고 단정 지음으로써 소수의 의견이 묵살 되는 것이다. 이로서 소수의 올바른 의견이 다수의 잘못된 의견에 의해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아도 다수결이 항상 올바른 해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그러한 단점이 있음에도 다수결은 지금까지도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실행될 것이다. 하지만 다수결이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원리가 되려면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의식이 건전해야 한다. 아울러 다수결을 악용하는 정치적 의도가 사라져야 하고, 소수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지 않는 이상 다수결은 진정한 정치가 될 수 없으며 국민에 대한 일방적인 기만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해설 전체적으로 기본 실력이 많이 부족한 학생의 글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인 잘못은 지적해 주어야 하지만 총평에서는 내용 자체보다는 학습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 수정된 학생의 글도 아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 글보다는 많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V. 논술 평가

1. 논술 평가 원리

(1) 평가목적에 맞는 평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선택하고 조직하여 이를 표현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 논술형 문항이 보다 적절하며, 논술형 검사문항의 진술에 있어서도 단순한 회상을 요구하는지, 어떤 원리의 적용이나 분석을 원하는지, 어떤 현상을 요약하거나 비평하기를 원하는지는 바로 주어진 평가목표에 따라 검사문항의 표현방식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논술 검사문항이 객관성·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술식 검사문항을 출제할 때에는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평가목표에 적합한 정신기능(특히, 고등 정신기능)이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2) 교육과 평가의 연계

대학입시에 논술이 반영되면서 논술 평가의 본질은 도외시되고, 평가를 위한 또는 대학의 선발을 위한 것인 듯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논술은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논리적인 사고를 전개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거나 설득하는 글을 생산해 내는 능력으로 실제로 논술은 모든 학문분야의 주요한 교육목표로 인식되어 왔으나 현대의 평가가 고도의 객관성과, 효율적인 평가를 강조하면서 간접적인 평가로 바뀌었다. 그러나 논술고사의 측정 목적을 생각할 때 교육과정과의 연계 하에 수업시간에 수업내용과 연계 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입시를 치르기 위한 통과외레로서의 논술이 아닌 모든 교과 지식이 바탕이 되어 수업의 과정에서 종합적 사고를 형성하고 표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따라서 논술평가도 이런 수업의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대입논술도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사고력 및 종합적인 능력의 평가

논술형 평가의 가장 중요한 장점 중 하나는 다른 문항형식에서 측정하기 어려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사고력, 추리력, 종합력, 비판력, 표현력, 창의력과 같은 고등정신기능의 측정이 용이하다는 데에 있다. 논술의 이러한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평가목표의 진술된 의미를 분명히 채움미하고 그에 맞는 문항을 제작해야 한다. 그래야만 논술 평가의 장점이 가장 잘 부각될 수 있다. 논술평가에서 지나치게 객관성과 효율성만을 따져서 평가기준을 세분화하고, 채점자의 자율적 판단을 제한할 때 선택형 검사와 마찬가지로 사실적인 지식만을 측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4) 대화적 평가

대화적 평가는 논술평가에서 매우 중요한데 평가 수행에서 교사와 학생의 대화와 협의를 강조하는 원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평가는 교사나 평가자가 절대적인 위치에서 학습자의 수행이나 결과를 평가하는데, 이런 평가 형태에서는 ‘의사소통’ 또는 대화가 빠져 있다. 즉, 학생들은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할 뿐이고 교사는 감시자의 역할이나 평가자의 역할만 할 뿐이다. 이러한 평가 상황에서는, 학생이 왜 이런 결과물을 산출하였는지, 이러한 결과물은 학생의 수준이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과연 잘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등에 대한 해석과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정보를 세밀하게 해석하고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내용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도 교사와 학생의 의사소통이 중요한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원리가 바로 대화적 평가의 원리이다.

평가의 대화적 원리는, 평가할 내용을 대화의 화제와 주제로 삼아 교사와 학생이 협의하는 활동을 주된 평가 활동으로 삼는다. 교사가 먼저 학생 필자의 수행이나 결과물을 검토하고 난 후,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협의하고 대화하며 평가를 진행할 수도 있고, 교사와 학생이 같이 산출한 결과물을 읽어가면서 평가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결과물을 자료로 삼아 학생 필자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논술문을 더 잘 쓰기 위해 학생 필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조언해 줄 수 있

다. 이 방법은 기술식으로 평가 내용을 알려주는 것보다 세부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고 학생 필자의 반응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평가 내용을 제시할 수 있어 효율성이 매우 높다. 또한 학생 필자에게 동일한 시간에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대화를 중심으로 한 평가는 교사와 학생이 일대일로 할 수도 있고, 학생 필자들이 소집단으로 구성하여 일대다의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어떠한 방식이 좋은가는 공식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학생들의 논술 능력과 태도, 작문 교육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형식을 선택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학생 필자들을 소집단으로 구성할 때에는 동질적인 수준의 집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질적 수준의 학생 필자들은 비슷한 인지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번에 동시적인 문제 해결 전략을 제공해 줄 수 있어 효율적이다.(원진숙, KICE-TLC 사이트 내용중에서 인용)

2. 논술 평가의 문제점

(1) 채점의 어려움(비용과 노력)

논술평가가 학습의 능력을 제대로 측정해 주고, 학습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끈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면서도 논술평가를 주저하는 이유는 전통적인 선다형 문항에 비하여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선다형 검사는 많은 지식 영역을 상대적으로 적은 문항으로 측정할 수 있고, 컴퓨터의 도움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채점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이랄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논술평가는 채점자 비용, 채점자 연수 비용의 문제 뿐만 아니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비용등이 많이 들고, 사람이 채점하여야 하므로 시간이나 노력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논술평가에서는 채점비용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실제로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에서는 컴퓨터 채점 또는 채점 자동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고 실제로 이런 연구가 실현 단계에 이르렀다. 따라서 채점 자동화가 이루어진다면

대규모 검사에서 채점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므로 우리도 이런 연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2) 논술 평가의 양면성

논술을 대학입시에 또는 공정성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시험에 도입하게 된 이유는 선택형, 객관식 검사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다. 전통적인 객관식 지필고사는 객관성과 실용성 측면에서는 우수하지만 교육적 측면에서 그리고 타당도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선택형 검사의 지나친 남용으로 인하여 실생활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사실적 지식만을 암기한다는 비판과 능력을 키우기 보다는 시험요령만을 익히게 된다는 비판은 뼈아프다. 최근에 이런 비판에 대응하여 많은 시험이 실제 생활과 접목된 고차적인 사고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논술 형태의 자유-반응형 문항을 도입하고 있다. 논술은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 창의력, 조직력, 표현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매우 타당도가 높은 평가방법이다. 그러나 공정성을 요하는 선발고사에서 시험의 신뢰도는 필수인데 논술평가에서 시험의 공정성과 시험의 타당도를 둘 다 갖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시험 결과에 의해 개인의 운명이 바뀌는 선발검사에 공정성과 신뢰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교수학습 상황에서 논술평가가 아닌 선발시험에서 논술평가에서는 시험의 타당성도 중요하지만 채점의 객관성과 신뢰도도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 두 가지가 양립하기가 쉽지 않다. 가장 객관성을 높이는 채점은 분석적 방법으로 하나 하나의 채점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ACT, SAT 등의 여러 시험에서는 총체적 채점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짐에도 이런 채점 방법을 채택한 것은 총체적 채점방법이 논술평가의 목적에 맞다는 판단과 함께 채점자 훈련과 채점과정의 표준화에 공을 들인다는 것이다. 이런 노력은 논술 채점의 신뢰도를 어느 정도까지는 높여 준다 할지라도 여전히 공정성, 신뢰도의 문제는 남는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낮은 나라에서는 더욱 이런 문제가 크게 제기된다.

(3) 신뢰도(객관성)의 문제

논술 평가에서 가장 큰 문제는 채점의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에서 여러 채점자가 채점하였을 때, 채점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불일치의 정도가 다른 평가방법에 비하여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같은 채점자가 두 번 다른 시기에 채점하였을 때도 그 결과가 거의 일치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논술 평가의 이런 문제점은 명확한 채점 기준 제시, 모범 답안 작성, 공동채점, 채점 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 실제로 명확한 채점기준을 제시하고, 채점자 훈련을 통한 엄격한 채점을 하였을 때 채점자 신뢰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진다. 그러나 이런 객관성 부재의 문제는 논술평가가 숙명처럼 안고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논술평가 시에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엄격한 채점 체제를 갖추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4) 글쓰기 요령만의 평가(평가를 위한 글쓰기 교육)

이제까지의 객관식 선다형 평가는 지식의 재인이나 암기력을 측정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실제로 학습자들은 실제 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교과서 지식을 암기하는데 치중하였다. 이런 관행을 탈피하기 위하여 논술평가가 도입되었으나 대학입시로 논술이 채택되고, 각 학교의 시험에서 논술형 또는 서술형 문항이 채택되면서 학생들은 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과 과외를 더 많이 하게 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실제 논술의 목적인 교수학습을 통한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의 신장이 아닌 단순히 글쓰는 요령만을 배운다는 비판도 있다.

논술을 평가하는 이유는 고등 정신 능력의 함양과 교수학습의 변화를 위한 것이다. 논술교육과 논술평가의 본질은 당면한 문제를 깊이 있고 폭넓게 바라보고, 그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성찰결과를 논리적 방식으로 표현해 내는 능력을 길러주고, 그런 능력을 평가하려는 것이다. 논술에서 지나치게 객관성과 공정성만을 강조하여 본질을 잃어 버릴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논술 문항 설계와 채점 시에는 이런 점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3. 논술 평가 방법

논술 평가의 가장 큰 난점인 채점의 비신뢰성(객관성의 결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채점방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에 따른 엄격한 채점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논문형 문항의 채점방식은 「채점단위」에 따라 분석적 방법(analytical method)과 총체적 방법(global method)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어떤 채점방법을 사용할 것인가는 각 방법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평가목적, 경제성, 신뢰도에 따라 달라진다. 학생들의 서열을 매기는 것이 목적이라면 총체적 방법이 적절하고, 학생에 대한 이해와 진단을 통한 피드백 제공이 목적이라면 분석적 방법이 적절하다. 또한 총체적 채점은 시간이 분석적 채점 시간의 4분의 1밖에 걸리지 않으므로 경제적이다 할 수 있다. 신뢰도 측면에서 본다면 채점기준이 더 명확하게 제시된 분석적 채점이 더 신뢰롭다고 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두 방법 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한 가지 방법보다는 두 가지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1) 총체적 방법

총체적 평가는 논술문을 부분 부분을 나누어서 보지 않고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논술문 전체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총체적 평가로 불리거니와, 논술문을 분석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석적 평가와는 대립적인 성격을 지닌다. 수험생의 답안지를 한 개의 단위로 보고 전체적, 총체적 관점에서 채점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문항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채점하는 것으로, 반응의 자유도가 대단히 커서 도저히 분석적으로 채점하기 곤란한 논문형 문항의 채점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문항의 채점기준에 대해서 합의하고 있어야 한다.

총체적 평가가 지닌 장점은 논술문을 총체적인 수준에서 고려하여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를 수행하는 물리적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이다. 따라서 평가 대상에 비해 평가하는 사람이 적을 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 점에 비추어 보면 총체적 평

가 방법은 논술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논술 교육의 장면은 한 명의 교사가 여러 명의 학생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지도와 평가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사실 적절한 논술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생 필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평가’가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바, 평가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가 논술 교육의 비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총체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논술 교육을 시행한다면 일정 부분 효율성을 거둘 수 있다.

총체적 평가에서는 논술문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평가 하기 때문에 그만큼 평가 기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거시적인 관점은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평가 척도를 구체화한 기준의 설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 평가에서는 논술문을 거시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논술문을 구성하는 주요 범주를 평가의 척도로 삼는다. SAT와 ACT는 논제에 대한 입장 취하기, 주제에 대한 초점, 자신의 주장에 대한 합리적 논거 사용, 논리적인 아이디어의 조직, 언어 구사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원진숙이 제시한 총체적 평가방법의 예시를 보면 범주를 내용, 구성, 표현으로 하고, 6점 척도로 일반적 특징과 구체적 특징으로 하여 준거를 제시하고 있다.

<표 7> 총체적 평가 기준의 예시

척도	일반적 특징	구체적 특징
6점	논술적 표현 및 논술문의 특징이 매우 우수함. 일반적 작문 전략 및 기능이 우수함	논술문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전략과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논술 과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타당성 있는 근거를 들어 필자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문단과 문단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체계적이며,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논술문의 구성이 잘 짜여져 있다.
5점	논술적 표현과 논술문의 특징이 우수함. 일반적 작문 전략 및 기능이 우수함.	논술문의 특징이 일반적으로 잘 드러나도록 전략과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논술 과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필자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 근거의 타당성이 다소 부족한 것이 있다. 또한 논술문의 구성이 대체로 잘 짜여져 있고 문단과 문단의 연결이 자연스럽지만, 체계성이 다소 부족하다.
4점	논술적 표현과 논술문의 특징이 보편적인 수준임. 일반적 작문 전략 및 기능은 대체로 우수함.	논술문의 특징이 드러나도록 전략과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논술 과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하였으나, 필자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이 분명하지 않으며 그 근거의 타당성도 부족하다. 또한 문단과 문단의 연결은 자연스럽게 논술문의 구성은 일반적인 원칙을 따랐지만, 그 체계성은 다소 부족하다.
3점	논술적 표현과 논술문의 특징이 다소 부족함. 일반적 작문 전략 및 기능은 보편적인 수준임.	전략과 기능의 사용이 논술문의 특징을 잘 보여 주지 못하고 있음. 논술 과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하였으나, 논술문의 내용은 과제와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이 들어 있음. 필자의 주장이나 의견이 명료하지 못하고 그 근거도 타당성이 다소 부족함. 문단과 문단의 연결은 자연스럽지만, 논술문의 구성은 체계가 다소 불완전함.
2점	논술적 표현 및 논술문의 특징이 부족함. 일반적 작문 전략 및 기능이 부족함.	전략과 기능의 사용이 논술문의 특징을 잘 보여 주지 못하고 있음. 그래서 논술문인지 단순한 수필인지도 분명치 않음. 논술문은 논술 과제가 요구하는 내용과 거리가 먼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필자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과 근거가 관련성이 적음. 문단의 연결이 다소 부적절하며 논술문 구성의 체계가 불안정함. 어법의 오류가 많아 의미 전달도 분명치 않은 것이 있음.
1점	논술적 표현 및 논술문의 특징이 매우 부족함. 일반적인 작문 전략 및 기능도 매우 부족함.	전략과 기능의 사용이 논술문의 특징을 전혀 보여 주지 못하고 있음. 논술의 과제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제 요구 내용과 논술문 내용이 부합하지 못함. 필자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도 일관성이 없고 단편적인 정보나 사실을 단순히 나열하고 있음. 사실과 의견의 구별이 모호하고 어법의 오류가 매우 많음. 문단의 구분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논술문의 구성도 이루어지지 않음.

(2) 분석적 방법

분석적 방법은 채점의 기준을 요소로 분석해서 배점하고, 각 기준에 따라 채점한 다음 득점을 합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채점의 객관성과 폭넓은 점수분포가 요구되고,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문항의 채점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점기준의 합치도를 유지하기 위한 합의를 충분히 보장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논술문의 구성 범주보다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삼아 평가를 하기 때문에, 분석적 평가는 총체적 평가에 비해 미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총체적 평가에서는 논술문 전체를 큰 시각에서 보았던 것과는 달리, 분석적 평가에서는 세밀한 기준에 따라 학생 필자가 완성한 논술문을 낱낱이 분석하고 해부하여 평가를 하게 된다.

분석적인 평가가 지닌 장점은 이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논술문 쓰기와 관련한 학생 필자들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총체적 평가에서는 논술문을 거시적인 범주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학생 필자가 구체적으로 논술문 쓰기에서 무엇을 잘 하고 무엇을 잘 못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분석적 평가에서는 세밀한 기준에 따라 논술문 평가를 수행하기 때문에 학생 필자가 논술문 쓰기에서 무엇을 잘 하고 무엇을 잘 못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분석적 평가에서는 평가 범주보다 평가 요소의 세밀한 설정이 중요하다. 그런데 평가 요소를 세밀하게 설정하기 위하여 평가 범주를 고려하는 것이 유용하므로 총체적 평가와 같이 범주를 설정하고 그것을 더 세분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는 달리, 평가 범주를 설정하지 않고 평가 요소만을 세분하여 나열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일련번호를 붙이기도 하고 무순으로 배열하기도 한다.

분석적 평가에서는 논술문 쓰기에서 강조하는 내용에 따라 평가의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총체적 평가라고 해서 이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분석적 평가의 경우가 가중치의 방법을 적용하기가 수월하다. 평가 범주에 따라 평가 항목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지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논술문 쓰기에서 ‘논리적 근거의 제시’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면 논리적 근거 제시와 관련된 평가 요소를 많이 설정함으로써 이를 세밀하게 평가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학생 필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원진숙이 예시로 제시한

분석적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평가요소와 세부평가기준을 제시하고, 각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평정하도록 하고 있다.

<표 8> 분석적 평가 기준의 예시

관점	평가 요소	세부 평가 기준	척도
문제 파악	1. 문제분석력	논술 과제의 요구를 올바르게 파악했는가?	5-4-3-2-1
	2. 논지의 정확성	과제의 의도에 맞게 논지를 설정했는가?	5-4-3-2-1
내용	3. 내용의 통일성	내용이 통일되어 있고 주제가 명료한가?	5-4-3-2-1
	4. 내용의 독창성	내용이 새롭고 독창적인가?	5-4-3-2-1
	5. 내용의 정확성	다루는 내용은 정확한가?	5-4-3-2-1
구성	6. 논리의 구체성	필자의 주장이나 의견은 구체적인가?	5-4-3-2-1
	7. 논리의 일관성	필자의 주장이나 의견은 일관성이 있는가?	5-4-3-2-1
	8. 근거의 타당성	근거는 적절성과 타당성이 있는가?	5-4-3-2-1
	9. 문단의 연결	문단과 문단의 연결이 자연스러운가?	5-4-3-2-1
	10. 논술문의 구조	논술문의 전체적인 구성이 체계적인가?	5-4-3-2-1
표현	11. 단어의 정확성	단어의 선택이 적절하고 정확한가?	5-4-3-2-1
	12. 문장의 정확성	문장이 어법에 맞고 문장이 정확한가?	5-4-3-2-1
	13. 문장의 연결	문장과 문장은 긴밀하게 연결되었는가?	5-4-3-2-1
	14. 담화 관습	논술문의 담화 관습을 잘 따르고 있는가?	5-4-3-2-1
태도	15. 탐구적 태도	문제를 탐구적인 태도로 접근하는가?	5-4-3-2-1
	16. 논술의 실천	논술문 쓰기를 생활 가운데 실천하는가?	5-4-3-2-1
	17. 논술문의 활용	주장이나 의견을 논술문을 활용하여 표현하고자 하는가?	5-4-3-2-1
	18. 공적 의사소통	완성한 논술문을 기고하거나 투고하는가?	5-4-3-2-1

* 원진숙이 쓴 KICE-TLC의 논술평가 부분에서 인용

4. 논술 채점

논술형 평가에서는 학생의 응답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정답과 오답으로 양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의 응답에 어떤 점수를 부여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렵다. 학생들의 수행 능력이 몇 가지 수준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각각의 수행에 대해 어떠한 점수를 부여 해야 하는지, 점수를 부여하는 원칙은 어떠한지 등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주관적일 수 있다. 이런 주관성을 배제하고 채점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가 설계 시에 명확한 채점기준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

(1) 채점기준표의 제작

채점 기준표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수행이나 산출물의 질을 구별하기 위한 일련의 지침을 말한다. 채점기준표를 제공함으로써 내용 전문가가 채점을 하든 교사나 비전문가가 채점을 하든 일관성 있는 채점이 가능하게 된다. 채점기준표는 하나의 척도로서 한 연속선상에서 학생의 수행 수준을 의미하는 수행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수한 답안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가 주어지고, 만족스럽지 못한 수행일수록 낮은 점수가 주어진다.

채점기준표는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답안의 판단 준거 또는 차원, 준거 또는 차원을 평정하기 위한 수준의 수나 척도, 답안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구성된다. 채점기준표는 선정된 준거마다 일일이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을 정의하는 진술문으로 구성되는 형태를 띠거나 그 기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행동이나 전형적인 행동을 예시하는 형태를 띤다. 채점기준표를 만들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수행의 각 수준을 나타내는 예시를 포함해야 한다. 둘째, 채점자가 수행의 수준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평가항 영역들과 각 수행 수준의 차이가 현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준의 차이가 신뢰로와야 한다. 셋째, 수준의 수가 충분히 많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최상의 수는 4~7개 정도이다. 넷째, 각 수준을 나타내는 예시들의 차이는 가능한 완만해야 한다. 예시들 사이의 차이가 균일한 동간척도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 그 과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채점기준표를 작성하

는 것이 보다 높은 타당도를 유지할 수 있다.

채점기준을 명료히 하는 일은 채점의 비신뢰성이라는 논술 평가의 최대 난점을 해소하는 첩경이라 할 수 있다. 수험생의 답안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요소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채점자들끼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채점기준에 대한 합의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여기에서는 채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채점기준을 제작하는 절차를 예를 들어 간략히 제시한다.

첫째, 채점기준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먼저 학생들의 응답 표본을 수집한다.

둘째, 학생들의 응답 표본들을 검토한 후 수준의 수를 정한 다음 등급화 한다.

셋째, 각 수준에 해당하는 응답들의 예를 제시한다. 이때 각 수준별 응답은 가능한 동간척도가 되어야 한다.

넷째, 설정된 수준들은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 또는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정렬하여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도표화 한다.

(2) 주요 입시 논술의 채점 기준표 예시

가. 서울대

서울대는 분석적 채점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대학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이해력, 분석력, 논증력, 창의력, 표현력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 각 부분에 대한 배점은 학교 측에서 밝히지 않고 있다. 부록에 제시된 “서울대 모의 논술 채점 예시”를 보면 이해력 20점, 논증력 30점, 창의력 40점, 표현력 10점으로 창의력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서울대학교 논술 평가 채점 기준표

구 분	평 가 내 용 및 기 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감점	·답안길이 미충족 ·필기구 종류 및 색깔 위반 ·응시자의 신원노출
이해 · 분석력	·주어진 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분석 능력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분석(독해) 능력 ·논술문이 논제에 충실한 정도 ·제시문을 적절히 활용한 정도
논증력	·근거 설정 능력 - 주장에 대한 적절하고 분명한 논거 제시 여부 - 주장과 논거의 논리적 타당성 - 논제에 대한 분명한 견해 표현 - 표현 견해가 제시문의 논의에 의거해 적절한 뒷받침 ·구성 조직 능력 - 전체 논의 전개에 정합성 및 일관성이 유지 - 전체 논의 전개에 있어 논리적 비약은 여부 - 글의 전체적인 흐름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
창의력	·심층적인 논의 전개 - 본인의 주장이나 논거에 대해 스스로 가능한 반론들의 고려 - 본인의 논의가 지니는 더 나아간 함축이나 귀결들에 대해 고려 -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맥락이나 배경 상황에 대한 적절한 고려 - 묵시적인 가정이나 생략된 전제에 대한 더 나아간 고찰 ·다각적인 논의 전개 - 발상이나 관전 전환을 시도 - 가능한 대안들에 대한 고려 - 여러 개념들의 종합 - 암묵적으로 가정된 전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독창적인 논의 전개 - 주장이나 논거에 새로움 - 문제를 통찰함에 있어 특이함 - 관점이나 논의 지평에 참신함
표현력	·표현의 적절성 - 문장표현의 매끄럽고 자연스러움, 적절한 비유 등 - 단락구성 및 어휘 사용 -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

나. 고려대

고려대학교의 경우 매 해 채점 기준표가 바뀐다고 한다. 매 해 출제자가 만든 채점기준표를 활용하여 채점한다. 따라서 출제자와 문제에 따라 채점기준이 바뀌지만 매 해 일관되게 제시되는 채점 준거는 다음과 같다.

- 공통주제를 밝혔는가?
- 제시문 간의 연관관계를 밝혔는가?
- 연관관계 규명이 논리적인가?
- 공통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가?
- 논거가 적절하고 논지의 설득력이 있는가?
- 원고지 사용법, 문법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가?
- 표현이 적절한가?(문장력)
- 제시문의 문장을 반복해서 사용한 경우 감점
- 정해진 분량을 벗어난 경우 감점
- 외국어나 기타 부적절한 어휘를 사용한 경우 감점

다. 성균관대

성균관대학교도 분석적 채점방법으로 채점한다. 평가 범주로 이해력 및 통계자료 해석능력, 논리성 및 문장력, 독창성 및 비판능력을 제시하고, 세부평가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배점을 보면 제시문 이해력 및 통계자료 해석능력이 가장 높아서 제시문 이해능력을 중요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성균관대학교 논술 평가 채점 기준표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요소	비 고
이해력 및 통 계자료 해석능 력	50	제시문의 내 용 이해 (20)	- 제시문에 대한 내용 이해가 잘 되어있으면 20점을 배점함. - 제시문에 대한 이해가 잘못될 경우 각각 5점까지 감점함.
		기술의 충실 성 및 표현의 적절성 (20)	- 제시문의 논점 및 시사하는 바를 충실히 요약하고 어휘선택 및 표현이 적절한 경우 20점을 배점함. - 요약이 충실하지 못하고,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면 각각 5점까지 감점함.
		통계자료 해 석능력 (10)	통계자료의 의미를 충실히 해석할 경우 10점을 부여함.
논리성 및 문 장력	30	논 리 전 개 의 명확성 (20)	전체적, 종합적으로 평가함.
		표현, 어법, 맞춤법 (10)	표현, 어법, 맞춤법에 대하여 각 3점까지 감점함.
독창성 및 비 판능력	20	주장의 창의 성 (10)	- 주장이 창의적이면 10점을 배점함. - 평균점수는 7점으로 함.
		비 판 능 력 과 통찰력 (10)	- 비판능력과 통찰력이 있는 경우 10점을 배점함. - 평균점수는 7점으로 함.

라. SAT 논술 평가의 채점 기준

SAT 논술도 총체적인 방법으로 채점을 하며 6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두명의 훈련된 채점자가 각 피험자의 논술을 읽고, 채점한 후 두 채점자의 합산된 점수를 제공한다. 두명의 채점자의 점수차가 1점 이상일 때는 제3의 채점자가 평가하고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엄격한 채점자 훈련으로 인하여 채점자간 차이는 답안의 8% 보다 적다. 채점은 6점 척도로 학생들은 2~12점까지 점수를 받고, 논술 문제와 상관없는 답안을 0점 처리한다. SAT 답안지는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채점자에게 보내고, 채점자는 역시 온라인으로 채점자리더에게 훈련을 받고, 온라인 채점을 한다. 채점자는 다음의 <표 11> 채점기준표를 이용하여 채점한다.

<표 11> SAT 논술 평가 채점 기준표

척도	일반적 특징	구체적 특징
6점	사소한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논의 띄는 우수한 논술	• 우수한 비판적 사고과정을 거쳐 이슈에 대한 관점을 효과적이고, 통찰적으로 전개함. • 글이 잘 조직되어 있고, 명확히 초점이 있으며, 내용전개가 통일성이 있고, 논리정연함 • 언어 사용이 능수능란하고, 다양하고 정확하며, 쉬운 어휘를 사용하여 표현함 • 문법, 작문기법, 활용에서 실수가 없음
5점	질적인 면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지만 합리적이고 일관된 논의를 한 효과적인 논술	• 비판적 사고를 잘 나타내고, 이슈에 대한 초점을 효과적으로 잘 맞추고, 적절한 예와 추론, 논거를 일반적으로 잘 사용함 • 글이 잘 조직되어 있고, 글의 초점이 있으며, 내용전개가 통일성이 있고, 논리정연 함 • 언어 사용이 능숙하고,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여 표현함 • 문법, 작문기법, 활용에서 실수가 약간 있음
4점	질적인 면에서 실수가 있지만 적절히 숙달된 한 지식을 갖고 우수한 논술	• 비판적 사고과정을 보여주고, 이슈에 대한 초점이 있고, 적절한 예와 추론, 논거를 사용함 • 글이 일반적으로 조직되어 있고, 초점이 있으며, 내용전개에 약간의 통일성이 있고, 논리가 있음 • 언어 사용이 적절하기는 하나 능숙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여 표현함 다양한 문장구조를 사용한 것이 나타남 • 문법, 어법, 작문기법에서 실수가 있음
3점	적절한 지식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부적절한 논술	• 약간의 비판적 사고과정을 보여주고, 이슈에 대한 초점은 있으나 일관성이 없고, 예와 추론, 논거가 적절하지 않음 • 제한적이거나 글의 조직과 논점이 있으나 내용전개가 미흡하고, 논리가 없음 • 언어 사용이 능숙하지 못하고, 어휘 선택이 적절하지 못함 문장구조가 다양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음 • 문법, 어법, 작문기법에서 실수가 많음
2점	거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 심각하게 제한된 능력만을 보여주는	• 이슈에 대한 초점은 있으나 애매모호하고, 비판적 사고가 거의 없고, 예와 추론, 논거가 적절하지 않고 불충분함. • 글의 조직과 논점이 없고 내용전개와, 논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 • 언어 사용이 부적절하고, 제한된 어휘만을 사용하고 부적절

	논술	한 단어를 사용함. • 문법, 어법, 작문기법에서 실수가 많음
1점	지식도 없고, 심각하게 제한 된 능력을 보 여주는 논술	• 이슈에 대한 초점이 없고, 논거도 거의 없거나 제시하지 못 함 • 글의 조직과 논점이 없고 내용전개와, 논리가 없음 • 어휘와 문장구조에 심각한 실수가 있음. • 문법, 어법, 작문기법에서 실수가 많아서 의미이해가 어려 움
0점		논제와 관련 없는 논술

마. ACT 논술 평가의 채점기준

ACT에서 논술평가는 피험자의 선택이고, 아직까지는 시험성적에 합산되지 않는다. ACT 논술은 SAT 논술과 같이 총체적 방법으로 채점하고, 두 명의 훈련된 채점자가 각 학생의 논술을 읽고 채점한 후 두 채점자의 점수의 합산된 점수를 제공한다. 두 명의 채점자의 점수차가 1점 이상일 때는 제3의 채점자가 평가하고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채점은 6점 척도로 학생들은 2~12점까지 점수를 받고, 이 점수와 함께 긍정적이고 교육적인 문장으로 된 피드백을 같이 받는다. 구체적인 채점 기준은 <표 12>과 같다.

<표 12> ACT 논술 평가 채점 기준표

척도	일반적 특징	구체적 특징
6점	논제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보여줌(effective skill)	과제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이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갖고 비판적인 맥락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논의하고, 이슈를 의미있게 평가함에 의해서 자신의 입장에 반대되는 관점을 적절히 논박하였다. 아이디어의 생성이 풍부하고, 구체적이며, 논리적이다. 논술의 조직은 명확하고, 저자의 논술 목적에 따라 조직되어 예측 가능하다. 아이디어는 논리적으로 전개되었고, 내용전개는 예측 가능하기는 하지만 저자의 논리대로 이루어졌으며, 전체 내용에 통합되게 되었다. 서론과 결론은 효과적이며, 명확하고 잘 진술되었다. 논술은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이루어졌고, 다양한 문장을 사용하고, 단어 선정은 다양하며, 정확하다. 독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실수는 거의 없거나 아주 적다.
5점	논제에 대하여 우수한 능력을 보여줌(competent skill)	과제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이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갖고 광범위한 맥락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슈에 대한 다양하고 복잡한 관점을 부분적으로 논의하고, 이슈를 의미있게 평가함에 의해서 자신의 입장에 반대되는 관점을 논박하였다. 아이디어의 전개는 구체적이고 논리적이다.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일반적인 진술에서 구체적인 이유, 예, 상세한 진술로 정교하게 진술되었다.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논점이 명백하다. 내용전개는 예측 가능하긴 하지만 비교적 명확하다. 아이디어는 단순하고 뻔한 전개이긴 하지만 논리적으로 전개하였다. 서론과 결론은 명확하며, 일반적으로 잘 진술되었다. 논술은 언어를 잘 구사하여 이루어졌고, 약간 다양한 문장을 사용하고, 단어 선정은 때때로 다양하며, 정확하다. 독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실수는 약간 있는 편이다.
4점	논제에 대하여 적절한 능력을 보여줌(adequate skill)	과제에 대해 이해하고, 이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갖고 일정한 범위의 맥락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자신의 입장과 반대되는 관점을 논박함에 의해서 논제의 복잡한 문제를 다루었다. 아이디어의 전개는 일반적인 진술에서 구체적인 이유, 예, 상세한 진술로 적절히 진술되었다. 논제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초점은 전반적으로 유지되었다. 내용조직은 예측 가능하긴 하지만 명백하다. 아이디어는 단순하고 뻔한 전개이긴 하지만 몇몇 논거는 명확하다. 서론과 결론은 명확하며, 약간 잘 진술되었다. 논술의 언어사용은 적절하며, 약간 다양한 문장을 사용하고, 단어 선정은 때때로 적절하다. 독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실수가 있다.

3점	논제에 대하여 일부능력 개발이 필요함 (some developing skill)	과제에 대해 약간 이해하고, 이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으나 맥락없이 논의를 진행하였다. 자신의 입장과 반대되는 관점의 존재를 인정하나 전개가 단순하고 명확하지 않다. 아이디어의 전개는 제한적이고, 반복되며, 일반적인 진술에서 구체적인 이유, 예, 상세한 진술의 전개가 적다. 일반론적 관점에서 논의 초점이 이루어지고 있다. 내용조직은 단순하고, 논술의 일부분에서 논리적으로 묶어서 전개하고 있긴 하지만 논거가 명확하지 않다. 내용전개는 단순하고 너무 상식적인 수준이다. 서론과 결론은 있지만 잘 진술되지 못하였다. 논술의 언어사용은 보통이고, 문장은 다양하지 않고, 단어 선정은 때때로 적절하다. 독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실수가 많아 이해가 방해한다.
2점	일관성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함. (inconsistent or weak skill)	과제에 대해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이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지 못하였거나 입장을 취하였더라도 그런 입장을 갖게 된 이유를 밝히지 못하였다. 자신의 입장과 반대되는 관점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한다. 논술을 거의 전개하지 못하고, 예를 제시하였더라도 일반적이거나 적절하지 않다. 단순히 자신의 아이디어를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논의 초점이 이루어지고 논제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 내용조직은 단순하고, 논술의 일부분에서 논리적으로 묶어서 전개하고 있긴 하지만 논거가 명확하지 않다. 내용전개는 단순하고 너무 상식적인 수준이다. 서론과 결론은 있지만 잘 진술되지 못하였다. 문장은 단순하고, 단어 선택도 매우 단순하다. 독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실수가 많아 이해가 방해한다.
1점	논제에 대하여 아무 능력도 보여주지 못함 (little or no skill)	과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지 못하였거나 입장을 취하였더라도 그런 입장을 갖게된 이유를 밝히지 못하였다. 논술을 거의 전개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논제를 반복적으로 제시할 뿐이다. 일반론 수준에서 초점을 맞추어 반복적으로 진술한다. 논거가 거의 없고, 서론과 결론도 구분이 되지 않는다. 문장은 단순하고, 단어 선택도 매우 단순하다. 독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실수가 너무 많아 이해가 어렵다.
0점		공란, 주제와 관련 없는 논의, 해독 불가능, 비언어 사용 등

5. 논술 채점시 유의사항

(1) 평가목표

논술 채점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은 평가목적이 무엇인가이다. 논술평가 형태는 논의한 바와 같이 효율성과 신뢰도가 떨어지는 평가형태이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논술평가를 하려는 것은 논술평가의 타당도, 교육목표와 관련하여 가장 교육목표를 잘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논술도 평가이므로 공정성, 객관도, 신뢰도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에 지나치게 얽매어서 본연의 논술평가의 목적을 잃어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논술 채점시에 논술평가의 목적이 피험자의 사고력, 고차원적인 사고능력 및 태도를 측정하려는 것이므로 지나치게 세부적인 평가 관점을 갖기보다는 교육목표와 관련하여 채점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SAT나 ACT 논술과 같은 시험에서는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총체적 채점방법을 취하고 있다. 논술은 세부적인 평가 요소를 채점하여 합산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하여 채점하는 것이 평가목적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채점자는 채점기준과는 상관이 없는 피험자의 글씨나 문체, 그리고 논술문의 길이에 따라 선입견을 갖기 쉽다. 따라서 채점자는 채점시 논술평가의 목적을 명심하고, 이런 선입견을 갖지 않고 채점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2) 객관성

논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채점이 공정한가,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타당한 채점인가이다. 따라서 논술 채점 시에 최대한으로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채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논술문항의 가장 큰 약점이 채점을 객관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으므로, 채점을 보다 공정히 하기 위해서는 채점기준을 문항 속에 아예 밝혀주는 것이 좋다. 특히 채점기준을 미리 제시하면 수험자의 반응을 한 곳으로 방향 짓는 데 도움이 되

며, 수험자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유리한지 그 기초를 알리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② 논술 검사문항의 객관성 문항제작 동시에 모범답안지를 작성하여 참조한다.

모범답안지를 문항제작과 동시에 만들어서 검사문항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항에 포함시킬 채점기준을 명료히 할 수 있다. 즉 그 문항이 어떤 자료를 동원해야 하는지, 어떤 조직이 타당한지, 또 결론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채점기준의 방향을 시사받을 수 있다. 특히 모범답안 없이 채점하면 비록 기준이 서 있어도 채점 도중에 채점방향이 채점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변해 버릴 가능성이 있다. 모범답안지를 문항제작과 동시에 작성할 때 수험자에게 나올 수 있는 가능한 답을 미리 고려할 수 있고, 어떤 답안이 나올 가능성이 큰지, 어떤 가능한 조직이 있을 수 있는지 예견할 수 있다.

③ 채점 전에 채점자 훈련을 하거나 사전 채점을 통하여 채점자간 채점기준에 대한 합의과정이 필요하다. 몇 개의 표집된 답안지를 채점하여 보고 전반적인 답안의 수준을 파악하고, 나름대로의 채점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전 채점을 통하여 채점자간의 차이를 줄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④ 가능한 여러 사람이 채점하는 것이 좋다. 채점자 수를 늘리는 것은 채점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여 준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비용과 노력 측면에서 본다면 실제 논술 채점에서는 난점이 있다. 몇 명의 채점자수가 적정한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것은 채점자의 수준, 채점 과제수, 채점자 훈련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의 많은 연구는 최소한 채점자의 수를 2명 이상할 것을 권하고 있다.

(3) 신뢰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채점시에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① 채점기준을 사전에 명료히 함으로써 채점자간 오류와 채점자내 오류(비일관성

의 오류)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때의 채점기준은 채점의 요소와 각 요소의 채점이 분명하게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채점자의 일관성 있는 채점을 위해 모범답안을 제작해볼 필요도 있다.

② 문항간의 비중을 너무 넓게 설정하지 않는다. 즉 문항간의 비중이 크지 않도록 함으로써 특정내용이 지나치게 전체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사고력과 표현력’을 재는 문항을 출제할 경우 문항간의 비중을 크게 달리 하는 것은 합리화되기 어렵다.

③ 학생단위가 아닌 문항단위로 채점한다. 이것은 채점기준이나 결과가 다른 문항에 영향을 주는 것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채점자의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고 채점을 보다 신속히 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④ 출제자가 채점에도 참여하여야 하고, 여러 사람에 의하여 채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한 사람의 채점보다는 능력을 갖춘 여러 사람에 의해 채점되는 것이 채점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⑤ 채점자의 수 및 채점시간을 최소화하여 채점자간 및 채점시간의 차에서 올 수 있는 오류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채점의 긴박성, 그에 따른 1인당 채점 분량, 능력 있는 채점자 차출 가능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⑥ 표현능력 채점시 필체, 띄어쓰기, 철자법 등은 점수산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⑦ 채점시에 채점자가 나타내는 편견이나 오류를 극소화하여야 하고, 채점에서 생기는 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채점자를 한 장소에 모아 채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채점은 중간 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해가며 맑은 기분으로 차분하게 해야 한다. 제한된 기간 내에 다량의 답안지를 채점하는 과정에서 범하기 쉬운 잘못은 초반에는 답안을 정독하고 채점기준과 일일이 대조해가며 꼼꼼하고 엄격하게 채점하다가,

후반에 이르러서는 피로와 싫증이 누적된 나머지 대충 훑어보고 적당히 채점해 버리는 일이다. 이렇게 되면 답안지의 뒷부분에 있는 응시자가 득을 보게 된다. 채점자 자신의 채점결과에 대하여 자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연히 점수를 후하게 주는 쪽으로 기울게 되는 것이 인간의 상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점 작업은 중간에 휴식을 취해 가며 맑은 기분으로 차분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채점기간을 너무 길게 잡거나, 하루 동안 집중적으로 많은 양을 채점한 뒤 다음 날은 완전히 쉬어 버리는 방식을 택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실제로 적용되는 채점기준이 변하여 채점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4) 평정의 오류

평정의 오류는 평정자가 채점시에 부지불식간에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공정성의 문제와는 다른 것으로 의도하지 않았으나 실제로 평정자들이 많이 행하게 되는 오류이다. 이런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채점자들은 이런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평정시에 채점자들이 흔히 하게 되는 오류는 다음의 6가지가 있다.

첫째, 집중화경향의 오류(error of central tendency)이다.

이것은 평정이 중간부분으로 너무 지나치게 모이는 경향을 말하는데, 훈련이 부족한 평정자가 잘 저지르는 착오이다. 착오의 원천은 주로 극단적인 판단을 꺼리는 인간심리와 피평정자를 잘 모르는 데에서 온다. 이 같은 착오를 피하기 위해서는 중간 평정점의 간격을 넓게 잡는 것이 좋다.

둘째, 인상의 오류(error of halo effect)이다.

‘성적이 좋은 아동’, ‘잘 아는 아동’, ‘말썽꾸러기 아동’ 등 자아관여(ego involvement)가 되어 있는 아동의 다른 특성에 대한 평정을 보다 좋게 혹은 나쁘게 평정하는 경향을 말한다. 보다 좋게 하는 경우를 관대의 착오(error of leniency)라 하고, 보다 나쁘게 평정하는 경우를 엄격의 착오(error of severity)라 한다. 전자는 후한 채점자, 후자는 박한 채점자가 저지르는 착오이다. 원천은 대개 평정특성이 분명히 정의되어 있지 않거나 쉽게 관찰할 수 없는 것, 도덕적으로 중요한 항목에 그러한 경우가 많다. 모든 피험자를 한 번에 한 가지 특성만 평정하게 하고, 한 페이지

에 한 가지 특성만을 평정하게 하며, 강제선택법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오류를 제거할 수 있다.

셋째, 논리적 오류(logical error)이다.

이것은 전혀 다른 두 가지 행동특성을 비슷한 것으로 생각해서 평정하는 현상이다. “사교성이 있으면 명랑성도 있다”든가 “정직성이 낮으면 준법성도 신통하지 않다”라는 논리적으로 모순된 판단이 평정결과에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30명의 여러 가지 행동특성의 상호상관 평균이 .493이었는데, 이것을 객관적인 기록을 자료로 다시 평정하니 .141이었다고 한다. 이 두 상관계수의 차는 결국 논리적 오류에 의한 차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오류는 객관적인 자료 및 관찰을 통하거나 특성의 의미론적 변별을 정확히 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넷째, 표준의 오류(error of standard)이다.

이것은 평정자가 표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생기는 오류이다. 7단계 평정에서 어떤 평정자는 3을 표준으로 어떤 평정자는 5를 표준으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서로 상치되는데, 서로 표준을 달리 두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오류는 척도에 관한 개념을 서로 정립시키고 평정항목에 관한 오차를 줄임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다섯째, 대비의 오류(contrast error)이다.

이것은 평정자가 갖고 있는 속성이 평정 받는 피험자에게 있으면 신통치 않게 평정하고, 자기에게 없는 속성이 평정 받는 피험자에게 있으면 좋게 보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영향이 행동특성을 있는 사실 그대로 평정하지 않고 ‘사실보다 과대·과소 평가’ 하는 경향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반동형성 혹은 투사현상과 비슷하다.

여섯째, 근접의 오류(approximate error)이다.

이것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가깝게 있는 특성들이 상관이 높아진다는 현상이다. 시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에 비슷하게 평정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성질을 띤 측정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이 좋다.

참고문헌

- 교육부(1997). 『199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
- 김형자(2002). 논술의 성격 규정에 대한 관점의 비교와 대학 입학 논술고사 분석. 이화여대 석사논문.
- 남명호·김성숙·지은림(2000). 『수행평가-이해와 적용』 . 서울: 문음사.
- 박도순(2000). 『문항작성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
- 박도순, 홍후조(1999).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 서울: 문음사.
- 서울특별시교육청(2005). 『논술지도 매뉴얼-서울 학생 학력신장을 위한』 . 서울특별시교육청 논술지도자료집.
- 성태제(1996). 『문항제작 및 분석의 이론과 실제』 . 서울: 학지사.
- 이형근(2003). 논술교육을 위한 쓰기 영역의 지도방안 연구. 국민대 석사논문.
- 원진숙. 논술지도. <http://classroom.kice.re.kr>.
- 지은림(1999). 사회과 보고서 수행평가를 위한 총체적 채점과 분석적 채점의 비교. 『교육평가연구』 12권 2호. pp. 11-24.
- Breland, H. M.(1996). *Writing Skill Assessment: Problem and Prospects*. ETS research report.
- McMillan, J. H.(2004). *Classroom assessment principle and practice for effective instruction*. Boston : Allyn & Bacon.
- Wiggins, G. P.(1998). *Educative Assessment-Designing Assessment to Inform and Improve Student Performance*.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ACT(2005). *Writing Test Score*. <http://www.act.org/aap/writing/sample/rubric>.
- Collegeboard(2005). *Essay Scoring*. <http://www.collegeboard.com/highered/ra/sat>.
- Wayne, J.C.(2003). *Scoring the Essay on the SAT Writing Section*. The College Board Research Summary.

2. 면접

I. 심층 면접의 시행 배경

심층 면접(oral test)의 원래 명칭은 심층 구술 면접 시험이다. 말인 즉, 구술(口述)의 방식을 통해 관련 분야 혹은 영역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사고 능력, 그리고 상황적 적합성을 고려한 이해 및 표현 능력 등을 측정하려는 평가 방식이다. 형식은 듣기와 말하기를 통한 대화이지만, ‘말로 지어낸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이름에서부터 이 평가 방식이 실제로는 논리성과 체계성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평가 방식이 도입되기에 이른 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배경이 있다. 하나는 대학의 학생 선발권의 실질적 보장 요구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평가 방식의 형식화 경향이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자격시험으로서 시행되었지만, 그 자격을 부여하는 주체가 대학이라는 점에서 선발 시험의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동안 이 시험 제도의 계획이나 시행, 평가와 같은 전체 과정은 국가에 의해 사실상 주도되었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는 선발권자로서의 권한이 제한되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대학들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외의 평가 방식들을 도입하려 하면서 일차적으로 논술 시험을 선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90년대 중반에 부활된 논술 시험이 차츰 주제와 분량, 평가 시간 모두에서 심화되고 확장되었던 사실을 기억해 보자. 이것은 일부 대학들이 선발권자로서 일정한 자율성 내에서 학생들의 자질과 능력의 준거를 설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적으로는 자체선발시험을 운영하겠다는 기대를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논술 시험의 요구 분량이 늘어난 것의 표면적인 논리는 기왕의 논술 시험이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과 학습 수준을 측정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이었다. 사실 90년대 중반의 논술고사는 800~1,000자 정도의 분량으로 논증을 위주로 한 독립 과제형 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다양한 문제 유형과 풍부한 자료가 뒷받침되는 조건에서는 학교나 학원에서 암기를 통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런 까닭에 9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논술 시험은 1,200~2,000자에 이르는 심층 분석형 평가 방식으로 차츰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바칼로레아 같은 시험을 염두에 두었던 일부 대학들의 평가 의도는 학교에

서 대응할 수 있는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던 데다가, 시험 시간이 100분이든, 200분이든 간에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 여전히 모범 답안 중심으로 시험에 대비하는 사태가 다시금 재현되고 있다. 말하자면, 대학은 교육 정상화도, 평가 내실화도 제대로 얻지 못했던 셈이다. 심층 면접이 치러지게 된 것은, 이렇듯 대학이 암기할 수 없는 평가 문제와 답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한편 대학 내의 분과 학문들이 자체 시험을 희망한 것도 심층 면접의 등장 배경이 될 만하다. 논술 시험은 대학 내의 각 분과 학문들 간의 이해 관계를 반영하며 치러진다. 어떤 학생이 입학하는가 하는 문제가 어떤 졸업생을 배출하는가 하는 문제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상황에서는 각 단과 대학, 혹은 학부(학과)마다 자신들의 교육 조건에 부합하는 학생을 뽑기 위해 평가의 내용과 형식에 이러저러한 입장을 개진하게 마련인데, 그것은 채점뿐 아니라 출제에서도 이루어진다. 하지만 시행상의 어려움 때문에 모든 전공에 적합한 보편적 문제를 출제한다거나 혹은 모든 전공마다 그에 맞는 특수 문제들을 출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것은 많거나 적거나 간에 누군가의 불만을 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런 배경에서 심층 면접이 선발 시험의 유력한 방식으로 등장했다. 이 시험은 단과 대학이나 학부(학과)의 전공 특성에 부합하는 과제들을 따로 평가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계열별 논술 시험에 비해서도 융통성이 있는 평가 방식으로 인정되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는 가능한 한 심층 면접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이에 대비한 적합하고 적절한 평가 지도 방법을 모색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이 새로운 평가 방식이 어떤 한계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해야 비로소 ‘기능주의’적 타성에 빠지지 않고 심층 면접의 진정한 장점과 가능성을 최대한 살려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Ⅱ. 평가로서의 심층 면접

1. 면접 시험의 이해

(1) 면접 시험의 목적과 기능

면접 시험은 대학수학능력시험처럼 응시자의 대학수학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이다. 면접 시험은 평가 방식의 특성상 대화를 중심으로 한 상황 맥락적 판단력, 가치관과 인성, 내면화된 지식과 소양, 의사소통능력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물론 모든 면접 시험이 통합적 평가는 아니다. 면접 시험이 치러졌던 초기에는 주로 인성 중심의 형식적 평가가 위주였고, 논술 시험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던 90년대 후반부터는 적성 및 소양을 묻는 지식 중심의 평가가 이뤄졌으며, 최근 몇 년 동안은 과거 본고사 방식의 지식 적용 능력을 묻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도 새로운 평가 기술들이 계속 개발될 것이다.

평가 기여도 면에서 보면, 면접 시험은 상대적으로 대학에 변별도 높은 평가 자료를 제공한다. 대학마다 면접에 대한 비중이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학 신입생의 합격 공헌도 비중에서 보면 면접 시험, 특히 심층 면접의 기여가 가장 크다고 한다.

평가 내용 면에서 보면, 면접 시험은 수험자의 네 가지 내면적 요소를 모두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면접 시험이 평가할 수 있는 네 가지 요소란 다음과 같다.

- ① 자질 : 면접 시험은 수험자의 가치관이나 개성, 사고방식, 인격 등을 물음으로써 대학생으로서, 그리고 전공 분야의 지적 탐구자로서의 자질을 평가한다. 주로 면접 시험 중 수험자가 보이는 태도나 행동, 발화 내용을 통해 평가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주관적이기는 하나, 태도나 행동, 발화 내용만을 따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 과

정 전체를 총체적으로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자질 평가에서는 주로 관점의 문제를 다루며, 자주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쟁점들을 끌어들인다.

- ② 적성 : 면접 시험은 해당 전공과 관련된 인성적 특성, 즉 성향이나 습성, 기질 등을 살핍으로써 수험자의 전공 적합성을 평가한다. 대개 적성은 직접적으로 행동화되거나 발화를 통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관찰함으로써 판단하는 것이 적합하다. 판단과 태도가 다를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문항 판별 검사를 통한 적성 검사에도 한계가 있다. 그 대신 면접 시험에서는 수험자로 하여금 과제에 대해 시연하게 하거나 집단적 활동(토론 등)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관찰 평가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 ③ 소양 : 계열이나 전공 분야의 기초 지식이나 교양 등을 물어 수험자의 지적 수준과 학습 능력 등을 평가한다. 소양 평가에서 묻게 되는 것은 주로 내면화된 지식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식을 묻거나 이론을 정리하게 하기보다 시사적인 문제를 통해 문제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시사적인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이 내면화된 지식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능력 : 면접 시험은 전공 분야의 이론적, 실천적 문제를 물어 수험자의 사고력, 그 중에서도 주로 심층적 분석 및 추론 능력 같은 판단력을 평가한다. 전공 지식도 원리적 지식이나 체계적인 지식을 중심으로 물을 수 있다. 다만 단순 지식보다는 지식의 적용 같은 고차적 능력을 묻는 데 초점을 둔다.

면접 시험은 대개 예측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다른 평가 방식과는 달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도 많지 않아 수험자로서 할 수 있는 대비책이 많지 않다. 대부분 예상 문제를 정리해서 외우는 정도이지만, 논술을 구두로 수행하는 시험 정도로 면접 시험을 제한하기에는 그것의 의미와 가능성이 훨씬 크다. 따라서 그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수험자가 면접 시험의 중요성이나 평가 내용을 제대로 안다면 시험에 대해 느끼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수 있을 것이다.

(2) 면접 시험의 특성

면접 시험은 담화적 상황을 전제한다. 한쪽에 평가자가 있고, 다른 한쪽에 수험자가 있는 구조이다. 상황은 대화의 진행에 따라 계속 바뀔 수 있다. 따라서 면접 시험은 이를 반영하여 수험자의 실제 능력을 평가하기에 적합하다.

이 과정은 언어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구술 담화는 면접 시험의 근본적 조건이다. 구술 담화의 특성을 이해하면 면접 시험에 대비하기도 그만큼 쉬워진다. 다만 면접 시험은 수험자의 ‘말’을 듣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하는 평가 방식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면접은 평가자가 수험자의 녹음해 둔 목소리를 듣는 과정과는 전혀 다르다. 어떤 의미로 보면, 면접 시험은 표현력보다는 이해력에 초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면접이라는 평가 방식이 형식은 대화적이기는 해도 실제로는 일상적 대화와 매우 다른 상황적 조건을 갖기 때문에, 수험자는 대부분 자신이 위축됨을 느낀다. 수험자는 심문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기도 한다. 이 때문에 사고 과정이 경직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지나치게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평가자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수험자들과의 능력 차이를 변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평가자는 그것을 고의적으로 이용하는 존재는 아니다. 때로 평가자는 이 위기를 수험자가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황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수험자는 편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평가자가 그렇게 하는 것은 수험자를 평가하려는 목적 때문이다.

이것이 면접 시험에서 평가자의 역할이다. 평가자는 첫 질문에 이어 둘째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준비된 것일 수도 있지만, 즉흥적인 것일 수도 있다. 이것은 수험자를 도울 수도 있지만 때로는 수험자를 위기 상황에 빠뜨릴 수도 있다. 두 번째 문제를 알 수 있다면 첫 번째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문제는 평가자로부터 그것의 단서를 얻어내는 것이다. 이것은 수험자가 해야 할 일이다. 아무리 당황스럽고 난감하고 긴장되었다 하더라도, 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시하기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수험자는 대개 미리 첫 번째 문제를 받는다. 잠시 동안 답변을 준비할 기회가 있다. 첫째 문제를 대했을 때, 수험자는 둘째 문제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 수험생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평가자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한

다. 수험자는 평가자를 변화시켜 둘째 질문을 첫째 질문의 보충으로 삼게 할 수도 있으며, 첫째 답변을 보완할 기회를 제공하게 할 수도 있고, 첫째 답변을 강화하도록 자극하게 할 수도 있다. 아니면 두 번째 질문은 없거나 더욱 곤란한 것이 될 수 있다. 어떤 질문을 두 번째 것으로 받게 될 것인지 결정하는 것, 이것도 수험자가 해야 할 일이다.

일반적으로 평가자는 관심이 가는 수험자에게 더 질문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곤혹스럽게 면접을 마치고서도 행복한 결과를 얻게 되는 일이 종종 있다. 따라서 수험자는 곤란한 문제 상황에 당황할 필요가 없다.

면접은 수험자에 대한 주관적인 인상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 면접이라는 평가 방식이 면대면(face to face)의 직접적인 관계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자는 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험자의 발언 내용과 형식, 태도, 표정 등에서 적성과 자질, 소양과 능력 등을 함께 본다.

면접 시험은 평가자와 수험자의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 진행된다. 대면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수험자를 총체적으로 보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3) 면접 시험의 유형

가. 평가의 초점에 근거할 때

면접 시험은 수험자의 내면적 요소 중 어느 것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인성 평가적 면접과 적성 평가적 면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인성 평가적 면접

수험자의 자질이나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으로, 대개 일반적인 면접이 여기에 해당한다. 선발 시험에서는 배점이나 비중이 그리 크지 않고, 정밀한 변별도보다는 적합성 판단, 즉 선발 여부의 결정에 오히려 더 큰 의미를 지닌 면접인 경우이다.

논술 시험이 수험생의 학업 적성이나 능력을 평가하는 유력한 방안이었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면접 시험은 주로 인성 평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모 대학의 2001학년도 면접 시험 결과 분석에 따르면 인성이 전공 적성보다 높은 성적 반영

비율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나) 적성 평가적 면접

최근 몇 년 동안 면접 시험은 인성 평가적 면접에서 적성 평가적 면접으로 바뀌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들의 적성이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대안적 평가로 인정받았던 논술 시험이 점차 변별도 면에서 장점을 잃어가게 되면서 또 다른 대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적성 평가적 면접은 전공 분야에 대한 수험자의 적성이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이다. 인성 평가적 면접이 지능을 문제 삼았다면, 이 적성 평가적 면접은 성취도나 가능성을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그것과 구별된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심층 면접도 학업 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적성 평가적 면접은 크게 두 가지 평가 요소를 지닌다. 전공 분야에 대한 수험자의 관심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학습 태도가 그 중 하나이며, 다른 하나는 특정 전공 분야의 학습 능력과 높은 수준의 사고력, 그리고 잠재적 가능성이다.

이러한 평가에서는 특히 전공 지식을 묻는 질문들이 학생들에게 쉽지 않다. 용어의 기본 개념에서부터 답하기 어려운 다양한 전공 지식이 출제되어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한다. 어쩌면 이런 현상이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지만, 여전히 이 평가의 핵심은 현재보다 미래를 평가하는 것이다.

나. 평가의 형태에 근거할 때

면접의 형태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개별 면접과 집단 면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개별 면접

개별 면접은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의 평가자가 한 명의 수험자와 면접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화식 개별 면접, 발표식 개별 면접, 시연식 개별 면접 등으로 나뉜다.

개별 면접에서는 수험자 개인의 자질이나 적성, 소양, 능력 등의 전 영역이 평가될 수 있다. 곧 심층 면접의 일반적인 형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개별 면접 중 대화식 개별 면접이 특히 이러한 가능성을 높게 지니기 때문에 심층 면접에서도 가장 많이 선택되는 면접 형태가 된다. 대화식 개별 면접에서는 평가자가 수험자와 대화적 상

황을 만들고,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대화적으로 구성해 가면서 면접을 진행한다. 답변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만들기 때문에 형식은 대화적이지만 진행 여하에 따라 논쟁적, 혹은 탐구적 상황이 핵심이 되기도 한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평가자가 수험자의 적성이나 소양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호적인 대화 접근이, 수험자의 자질이나 능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결적인 대화 접근이 이루어지게 된다. 물론 수험자는 평가자의 질문 내용을 통해 현재의 면접이 어떤 대화 상황으로 전개될지 판단할 수 있다. 만약, “학생은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가?” 하고 물을 때, 그 의미는 ‘자네는 자네가 지원한 학과가 어떤 전공인지 이해하고 있는가?’이지만, 같은 속뜻을 지닌 “학생은 우리 과가 무엇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과인지 알고 있는가?” 하고 물을 때와는 평가적 상황이 다르다. 전자는 수험자의 전공 적합성을 주로 묻게 되는 반면, 후자는 수험자의 전공 이해도를 주로 묻게 되기 때문이다.

발표식 개별 면접은 평가자가 사전에 수험자에게 면접 평가 문항을 제시하고 일정한 시간 동안 준비하게 한 후 발표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화를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독화로서의 성격을 분명하게 갖추는 방향으로 평가 상황이 전개된다. 대개 논리성, 합목적성, 타당성, 독창성 등의 평가 요소와 이해력, 구성력, 표현력, 설득력 등의 평가 지표를 갖춘 평가 방식이 된다. 이 평가 형태는 수험자의 잠재적 가능성보다는 현재적 능력을 평가하는 데 좀 더 유용하다. 발표식 개별 면접에서는 자료 해석이나 논리 구성, 표현 효과, 전달 효과 등이 중요하다. 전공 분야의 능력 평가가 주된 목적일 때 선택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시연식 개별 면접은 발표식 개별 면접과 유사하되 발표의 형태가 프레젠테이션 방식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평가의 초점도 약간 달라서 이해력, 구성력, 표현력, 설득력 등이 모두 평가되면서 여기에 기획력이 추가로 평가된다.

(4) 집단 면접

집단 면접은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의 평가자가 둘 이상의 수험자와 동시에 면접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다시 비교 면접과 토론 면접으로 나뉜다. 개별 면접과는 달리 집단 면접에서는 수험자 간의 비교 평가가 기본적으로 전제되기 때문에 자질이나 능력 중심의 평가 형태로 나타날 때가 많다.

비교 면접은 동일 질문에 대해 여러 수험자가 각자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으로

상호 비교가 되게 하는 면접 형태이다. 비교적 단순한 형태로서 시간 비용이 적게 드는 경제적인 방식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평면적 비교에서는 먼저 답변하거나 나중에 답변하는 순서에 따라 평가 결과가 매우 큰 차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다른 평가 형태와는 달리, 이럴 경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정 작업을 하기가 쉽지 않다.

비교 면접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방법이 토론 면접이다. 토론 면접에서는 여러 명의 수험자가 정해진 주제에 대해 일정한 입장을 가지고 참여하고, 평가자가 이를 관찰하여 평가하는데, 참여 방식에서는 대결적 참여와 협력적 참여가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대학 입시라는 평가의 성격에는 대결적 참여보다는 협력적 참여가 적절하다.

보통은 기업체의 주요한 입사 시험 방식으로 치러진다. 왜냐하면 이 방식에서는 협조성이나 포용력 같은 ‘조직 내의 협력 요소’가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 입시에서는 이 요소가 평가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도, 이해력, 표현력, 적극성 등을 중심으로 협력적 참여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보통이다.

2. 심층 면접의 성격

(1) 답화 상황에 근거한 심층 면접의 성격

가. 심층 면접은 쓰기 평가다.

심층 면접의 본래 명칭이 구술 고사였음은 이미 밝힌 바와 같다. 여기서 ‘구술(口述)’이라는 단어에 ‘말로 글을 짓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언어 형식은 ‘말’이지만, 구현 상황은 ‘글’과 같다는 것이다.

쓰기와 말하기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하는 ‘상황 의존성’을 심층 면접은 거의 지니고 있지 않다. 심층 면접에서도 화자와 청자가 대면하고 있고 서로 말을 주고받기는 하지만 대개의 말하기 상황과는 달리, 심층 면접에서는 공유된 상황 맥

락이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상황은 그 반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까닭은 심층 면접의 평가자가 의도적으로 그 맥락을 무시한 채 수험자에게 그 맥락에 대해서 답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어려움은 수험생이 이러한 구술의 상황을 대개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수험생은 대화 상대인 평가자를 인격체로 보며 자신의 답변이 불완전한 구문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대충 말해도 뜻이 통하는 대화적 장면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그러니, 평가자는 질문을 던진 다음, 곧장 뒤로 물러서서 메타(meta)적 입장을 취한다. 이것은 심층 면접의 평가자가 ‘질문하는 목소리’로서만 기능하는 평가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결과 심층 면접은 ‘아는 자가 묻고, 모르는 자가 답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고 만다.

나. 심층 면접은 말하기 평가다.

심층 면접은 읽기 평가가 아니다. 사전에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 모범 답안을 준비해 와서 외운 대로 말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는 뜻이다. 미리 답안을 준비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겠거니와,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심층 면접이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이 아니다. 평가자들은 심층 면접 과정에서 피험자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말하는 과정을 평가한다.

심층 면접은 쓰기 평가에 준하지만, 수험생 쪽에서 보면 말하기의 능력과 충족 요건을 획득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심층 면접에서 수험생은 최대한 상황적 맥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수험생은 평가자를 대화 참여자로 끌어들여야 한다. 수험생은 생각하고 답하고, 묻고 답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앞서 이미 언급한 대로 이 대화 상황은 매우 특수하다. 왜냐하면 언제나 대화의 주도권을 평가자가 가지고 있으며, 그가 이 주도권을 수험자에게 넘겨줄 의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수험자는 대화의 흐름에 유의하며, 계속되는 질문을 놓치지 말고, 답변의 첫 문장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다. 심층 면접은 듣기 평가다.

어떤 의미로 보면, 심층 면접은 말하기 시험이 아니라 듣기 시험에 가깝다. 왜냐하면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제대로 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층 면접에서는 질문이 어려운 경우는 드물다. 어려움은 답변을 도출해 내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문제의 난이도는 답변 과정의 심도, 복잡성, 지연 정도 등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답변의 깊이는 근본적으로 질문의 이해 수준에서 정해진다. 따라서 얼마나 질문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 이해했느냐가 답변의 질을 결정하는 관건이 된다.

대개의 경우, 평가자는 질문을 어렵게 하지 않는다. 톱 던져 놓는 식으로 질문을 한다. 그런데도 수험자가 이 질문을 어렵게 느끼는 것은, 그가 질문으로부터 답변을 곧바로 이끌어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사실 대부분의 심층 면접은 곧장 답변을 끌어낼 만한 문제를 제시하지 않는다. 그만큼 수험자는 질문을 잘 듣고, 그 질문이 의도하고 있는 바를 바르게 파악하여, 그 의도에 실한 답변을 해야 한다. 이것이 소통이다. 이것이 평가자가 바라는 바이다.

따라서 질문의 의도가 명료하게 파악되지 않는다면 이를 평가자에게 묻고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되물음 자체는 감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평가 상황에 근거한 심층 면접의 성격

가. 심층 면접의 평가 특성

심층 면접은 다음과 같은 평가의 특성을 지닌다.

첫째, 심층 면접은 심층 사고 과정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평가 방식이다. 따라서 문제에 대한 가능한 관점은 적어도 둘 이상이고, 문제 분석과 해석 자체가 쟁점이 되며, 해결 방안이라는 것들도 긍정적 효과뿐 아니라 부정적 과급력도 지니게 마련이다. 이런 평가에서는 시험을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느냐와 관계없이 가치관이나 신념 외에는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게 된다. ‘사려 깊음’이 수험생에게 가장 소중한 덕목이다.

둘째, 심층 면접은 분과 학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소양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구술 고사라는 표현 대신 심층 면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어느 정도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는 효과가 있다. 심층 면접에서는 수험자가 ‘어느’ 대학에 들어가느냐가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전공, 혹은 ‘어느’ 학문에 입문하게 되느냐가 문제이다.

셋째, 심층 면접은 수험생의 인격을 드러내게 하는 평가 방식이다. 원칙적으로는 논술 시험도 그러하지만, 특히 심층 면접은 수험자의 네 가지 내면적 요소—자질, 적성, 소양, 능력—를 모두 평가하는 방식이다. 영화 「더티 해리(Dirty Harry)」에 보면, 주인공 해리 켈라한 형사는 경위 선발을 위한 면접 시험에서 이렇게 묻는다. “자, 여기 범인이 있고, 그는 총으로 인질을 겨누 채 자네에게 열을 썰 동안 총을 내려놓으라고 한다. 자네는 어떻게 하겠나? 하나, 둘, 셋, 넷…….” 심층 면접은 이렇게 묻지 않는다. 결단력이나 순간 판단력을 따지지 않는다. 그리고 수험생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 대신 심층 면접의 수험생은 항상성에 관심을 갖는다.

나. 심층 면접의 문제점

실제로 심층 면접을 치를 때에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 상황이 발생한다. 이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유념해 두어야 한다.

(가) 실제성 문제

심층 면접이 수험자의 심층적 사고 과정을 실제로 묻지 못한다는 관점이 있다. 초기의 심층 면접은 말 그대로 ‘면접’과 ‘구술 고사’의 경계를 분명히 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구술 고사로서의 성격을 점차 분명히 갖게 되었다. 문제는 수험생들이 심층 면접의 상황에서 평소와 같은 심층적 사고를 전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심층 면접을 보기 전 10분 내외의 시간을 주어 미리 문제를 읽고 대비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지만, 이런 방안으로도 심층적 사고를 전개하는 데 요구되는 근본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 사고를 활성화하고 제약 없이 전개할 수 있게 하는 충분한 시간, 자연스러운 환경, 그리고 참조할 수 있는 자료들

을 충분히 제공하는 일은 심층 면접의 명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절대적인 조건이 된다.

(나) 적합성 문제

심층 면접의 문제들이 평가 문항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있다. 몇 년 전부터 심층 면접의 문제는 전공 영역의 기초 학문 능력을 묻는 방향으로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달리 말하면, 특정 교과에 해당하는 영어나 수학 능력을 대놓고 묻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사 성격의 논술 시험을 금지하면서 심층 면접이 어느 정도 탈출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에 관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III. 심층 면접의 방법

1. 설득을 위한 논리의 구성

심층 면접은, 대화 형식으로 보면 독화(獨話)이며 발화 성격으로 보면 사고의 과정을 드러내 보여주는 재현적 발화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보다는 논증에 치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평가로서의 심층 면접이 독화를 다시 대화로 발전시켜야 하는 까닭에, 설득은 수험자의 답변이 취해야 할 지배적인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 엄밀히 말해서는 평가자를 설득한다기보다는 수험생 자신을 설득한다고 하는 편이 더 나을것이다.

이제 수험생이 취할 설득의 방책들을 살펴보자. 『삼국지(三國志)』에 등장하는 지혜로운 책사(策士)들이 그들의 주군에게 진언했던 방식대로 하책(下策)과 중책(中策), 상책(上策)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1) 하책(下策)으로 접근한다.

평가자는 논리적인 사고에 익숙해 있다. 대부분의 평가자들은 논리적 사고 훈련에 익숙하다. 또한 그들에게는 논리적 사고 활동이 일상적이기도 하다. 그들은 개념과 용어들의 논리적 조작에 익숙할 뿐 아니라 그것의 중요성을 다른 사람들보다 분명히 인지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사고의 논리적 구성을 위해 조작적 개념들을 자주 동원한다. 이 개념들은 일상적이지 않다. 사실 그들의 용어법 자체가 일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들의 말과 글은 일상생활에서는 널리 소통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그들의 말과 글을 가리켜 세상에서는 ‘학문의 담론’라고 한다.

문제는 이제 수험자가 그들을 상대로 면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대학 밖에서 그들을 만났다면 수험자는 별로 고민할 이유가 없다. 거기서는 일상적인 대화가 오고 간다. 하지만 지금은 ‘대학’이라는 ‘학문의 담론’이 소통되는 공간에 들어서려고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무의식적으로 논리적 사고를 선호하는 평가자들에게 ‘설득력 있는’ 답변은 당연히 논리적인 구성을 취하는 답변일 수밖에 없다. 개념이 불명료하거나 개념간의 관계가 모호한 경우, 또는 사실과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진술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경우, 진술 주체가 불분명하고 진술 대상이 모호한 경우……. 이런 경우들은 일상적 대화에서는 상황 맥락으로 보충되지만, 심층 면접에서는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평가자들에게는 일상적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들이다.

따라서 논리적 사고에 뒷받침되는 답변을 마련하는 것은 심층 면접의 기본적 요구이다. 하지만 이것은 하책(下策)일 뿐이다.

(2) 중책(中策)으로 접근한다.

평가자는 ‘진실의 담론’에 취약하다. 명시적으로 밝히는 사람은 매우 드물지만, 평가자들의 대부분은 평가의 최종 단계에서 진실의 담론에 의지한다. 학문이 객관성과 합리성, 엄밀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것은 다소 낮은 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앞서 평가자들에게 논리적인 사고가 일상적이라는 말을 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상식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사실이다.

심층 면접에서 질적 평가를 위해 평가자들이 부여하는 정성적 평가 요소의 대부분은 진정성이나 인격성 등에 대한 인정이다. 이는 그들이 진실을 바꾸어 말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다. 사실 교사들도 이런 방식으로 수행 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가치적’ 평가 결과에 대한 우리 자신의 불만을 완화시키곤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진실을 드러내 놓고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이는 진실이 궁극적으로 그들 자신의 가치관과 관련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가치관은 역사적 승리자의 것과 동일하지는 않다. 뒤집어 말하면, 이것은 경우에 따라 역사적 소수의 것과 일치할 수도 있다.

‘진실의 담론’은 고백과 신조를 특성으로 한다. 심층 면접에서 고백과 신조를 밝힐 기회가 많다고 할 수는 없다. 실제 평가에서는 상당한 힘을 발휘한다. 평가자들은 암묵적으로 고백과 신조가 다수의 의사(즉 여론), 논리적 당위, 현상적 사실, 절대 진리

등에 대한 맹목에서 벗어나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그러기를 기대한다.

소수의 목소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보호될 만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수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둘러 말하자면, 소수의 의견이 평가자에 의해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다수의 의견에 비해 오히려 더 크다고 할 만하다.

심층 면접의 결정적인 국면에서 진실은 평가자에 대한 강제가 된다. 이때 수험자에게 정말로 중요해지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자신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을 사실이 그렇다는 것으로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믿음에 일정한 결함이 있을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잘 ‘정치적 올바름’과 연결이 된다. 그러나 이것을 신념이나 신조처럼 무겁게만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대개의 경우는 판단의 구체성, 즉 체험에 근거한 판단과 근접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중책(中策)이다.

(3) 상책(上策)으로 접근한다.

평가자는 창의적인 문제 접근을 고평한다. 대학에서는 꽤 오래 전부터 학문을 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덕목에 대해 이야기해 오고 있다. 첫째, 학문적 소양. 공부에 소질도 있어야 하고 머리도 좋아야 하며 해당 분야의 지식도 상당한 수준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성실성. 열심히 공부하고 쉽 없이 공부하며 항상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창의성. 문제 해결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며, 문제 자체를 새롭게 발견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뛰어난 학자를 전제하여 요구되는 덕목일 것이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학자들이 많아지기를 희망한다. 특히 핵심적인 덕목인 창의성을 갖춘 학자들이 많아졌으면 한다.

평가자들이 수험자들에게 요구하는 최고의 자질과 덕목도 창의성이다. 물론 사실을 들어 이야기한다면, 대학에서 수학하는 모든 학생들이 창의성을 가져야 하는 것

은 아닐 것이다. 또 그게 가능할 것 같지도 않다. 말 그대로 이것은 평가자가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갖추기를 원하는 자질과 덕목에 오히려 더 가깝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자들이 수험자들에게 창의성을 기대하는 것은, 그들이 수험자들을 ‘제자’이자 ‘후배’로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맞이하기 때문이다. 그들 수험자 중 몇몇은 나중에 자신의 뒤를 이어서, 혹은 자신과 함께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뛰어난 제자를 길러내어 스승으로서의 빛을 보고 싶은 것이다. 이것은 평가자의 직업적, 학문적 욕망이다. 그리고 심층 면접이 대학 신입생을 선발할 목적을 지니고 있는 이상, 이 욕망은 평가의 결정적인 추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미 밝힌 바이지만, 평가자들이 창의성을 강조하는 이유를 다시 들어 본다. 심층 면접의 질문들은 대개 이미 사회적 현안이 되어 있는 것들이어서 찬반, 혹은 주요 선택적 제안들을 포함하고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질문이 수험자에게 던져질 시점에는 이미 이에 대한 여러 입장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개진되고 세밀하게 검토되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 수험자들은 약간의 수고만으로도 잘 구성된 모범 답안들을 취할 수 있게 된다.

많은 경우 평가자들은 유사한 도식적인 답변을 수십, 혹은 수백의 수험자들로부터 듣게 될 것이다. 이제 평가자들이 수험자들의 답변을 변별해 내기 위해 곤란한 시험 무대에 서게 된다. 어떻게 그들의 답변을 변별해 낼 수 있을까?

평가자들은 대개 이때 얼마나 문제에 창의적으로 접근했느냐를 판단의 척도로 삼는다. 여기서 ‘창의적’이라는 말은, 상황에 따라서는 ‘개성적’, ‘구체적’, ‘현실적’ 등으로 바뀌어 사용될 수도 있다. 창의적 문제 접근은 자명해 보이는 것에서 새로운 사태를 야기한다.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 보통 수험자들은 사태를 수습하려 하지만, 평가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수습책이 아니라 수습의 과정이다. 대부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은 문제를 더 큰 시각이나 관점, 혹은 범주에서 다루어야 풀리게 된다. 이것을 ‘과정으로서의 문제 산출’이라 한다. 이 방법을 선택한다면, 매우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상책(上策)이다.

2. 요소별 조건 구비

하책, 중책, 상책은 수험자의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준을 나누어 제시한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상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항상 옳거나 좋은 것은 아니다. 실제 면접 과정은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없는 상책은 당위로서만 기능하는 전략일 뿐이다. 하책을 필요에 따라 잘 쓰는 것, 이것이 대책 없는 상책보다 더 낫다는 점을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어떤 면접 상황인지를 고려하여 그에 맞는 구체적인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야 각각의 대응 전략들이 최고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

(1) 평가자를 인격화하라.

이 전략의 핵심은 평가자의 체험을 환기시킴으로써 그로 하여금 수험자에게 공감적 이해를 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답변에서 수험자는 자신이 체험한 것을 평가자도 체험하였는지 묻는다. 물론 심층 면접에서 평가자는 답변하지 않을 것이다. 혹 답변하는 경우라도 그 답변이 수험자의 답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체험으로 연결된 수험자와 평가자의 관계에서, 평가자는 인격화한다. 드러내고 의견을 나타내지 않더라도 평가자의 평가 태도에는 변화가 생긴다.

평가자를 인격화하여 수험자의 진술에 인격적 반응을 하게 만드는 것, 이 전략에서는 심리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요점이다.

(2) 자신의 특수한 체험을 보편화하라.

어떤 수험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신의 자랑스러운 독서 경험을 밝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도 한다. ‘현학적인 수험자’가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답변에는 전문서적이 인용되기도 하고, 특별한 인물이나 사건이 소개되기도 한다. 하지만 어떻게 노력하더라도 수험자의 지식은 평가자에 미치지 못한다.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지혜를 자랑하라.’는 격언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식의 활용은 보충적일 때 빛을 발한다. 구체적인 사안이 관련되어 있다면, 가능한 한 자신의 체험에 바탕을 두고 답변을 전개하도록 한다. 또한 판단의 핵심은 판단의 근거보다 먼저 제시하도록 한다. 심층 면접이라는 평가의 상황이 귀납보다는 연역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 전략의 핵심은 평가자로 하여금 수험자의 배경 지식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공감적 이해를 높이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

(3) 모르면 물어라.

이 당연한 이치도 심층 면접의 상황에서는 전략이 된다. 금기(禁忌)처럼 여기는 경향도 있지만, 질문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면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차선이지만 그 상황에서는 이미 최선인 전략이다.

‘답변의 가능성과 한계’보다는 ‘답변의 한계와 가능성’이 더 낫다. 한계를 인정하고 이로부터 최선을 다해 더 나아가는 것이 평가자로 하여금 수험자가 진실의 담론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고 신뢰하게 만든다. 부분적 결함은 전체 진술을 믿을 만하게 만들어 준다.

여기서는 절대 유의할 점이 있다. 수험자는 문제의 핵심 내용을 ‘몰라서’는 안 된다.’ 허용되는 질문은 문제의 핵심 내용으로 가는 길에 관한 것일 뿐이다. 비유컨대 무슨 자물쇠인지는 물을 수 있어도, 어떤 열쇠로 풀지는 물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 전략의 핵심은 평가자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다시 질문하게 하는 데 있다. 수험자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던져진 질문을 좀 더 유리한 질문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평가자를 유도한다.

(4) 맥락을 만들어 구체화하라.

심층 면접에서 수험자는 평가자와 공유된 의미의 맥락이 없는 조건에서 문제에 관

한 모든 정보를 이끌어 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답변에 앞서 진술의 맥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맥락을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주어진 질문을 익숙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마치 프로 축구 경기에 나선 양 팀이 어떤 이해 관계를 가지고 경기에 임하느냐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양 팀은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서로 경쟁해야 하지만, 그러면서도 스포츠 정신은 지켜야 하며, 동시에 관중을 위해 신나는 경기를 보여주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 모순이 뒤엉켜 있으면서도 이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프로 축구 경기처럼 이 문제도 ……”

평가자는 수험자가 문제 상황과 비유 상황을 유사성의 관계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이미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그 관계가 동의할 만한 유사성의 관계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평가자의 평가가 달라진다. 따라서 수험자는 반드시 제한적 단서를 달아두어야 한다. 비유는 비유로서, 비교는 비교로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해 두어야 한다.

이 전략의 핵심은 평가자로 하여금 수험자의 사고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게 도움으로써 답변의 신뢰성과 공감도를 높이는 데 있다.

(5) 맥락을 뒤집어 답변의 가치를 각인시켜라.

답변으로서 가장 큰 효과를 갖는 것은, 이러저러한 상식을 따를 때에는 부정적 가치를 갖지만 또 다른 상식을 따를 때에는 긍정적 가치로 바뀌게 되는 발상을 바탕으로 두는 경우이다. 이것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평가자로서는 수험자의 문제 산출 능력을 신뢰하게 된다.

이 전략은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본다. 평가자는 인간의 행동이 궁극적으로 이기주의에 기반을 두는가, 아니면 이타주의에 기반을 두는가 하고 물었다. 수험자는 영화 <타이타닉(The Titanic)>을 생각해 냈다. 이 영화에는 침몰 직전의 배에서 여성과 노약자에게 구명정을 양보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선원들과 또 다른 승객들이 등장한다. 이들의 행동은 ‘이타주의(利他主義)’로 설명할 수 있다. 수험자가 택한 방법은 해당하는 사례를 찾고 그로부터 직접적으로 주제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주류적 상식이다. 수험자는 ‘자기애’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은 타자를 향한 사랑이라는, 주류적 상식을 따랐다. 사랑에 더 크고 작은 것이 있을 수 있고, 더 큰 사랑이 자기가 아니라 타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윤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개인주의보다 더 가치 있는 이념이 있음을 드러내는 방증(傍證)처럼 인용되기도 한다. 같은 이념의 계열은 아니지만, 민족주의는 이타주의의 매우 높은 수준이고, 사회동포주의는 궁극의 완성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당연히 평가자는 이를 시험해 볼 것이다. 수험자가 비교적 손쉽게 선택한 길을 따져 물으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검증하려 할 것이다.

또 다른 수험자는 ‘더 큰 자아’를 설정하여 이 문제(이기주의 대 이타주의)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공리주의적 입장이 그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수험자는 평가자가 설정한 문제를 밖으로 나가버리게 된다. 치명적이다.

다른 수험자는 이타적 행동이 이기적 본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앞서의 주류적 상식을 뒤집는다. 이기심이 물질적 충족뿐 아니라 정신적 충족을 위해서도 발휘된다고 설정하고, 목숨을 담보로 한 선행이나 희생을 근본적인 자기 정체성인 정신적 생명을 아끼고 지키기 위한 이기적 행동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말하자면 남을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죽는 것이라는 뜻이다.

이 전략에 대해 설명하면서 ‘또 다른 상식’을 따른다고 하였거니와, 실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전적으로 독창적인 것은 아니다. 평가자는 이런 해석을 어떤 수험자는 반드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논박 당하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런 답변은 수험자가 문제 상황을 표피적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정보를 평가자에게 제공한다. 수험자는 쟁점을 만들 줄 알며,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평가자는 수험자를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 전략의 핵심이다.

(6) 두 번째 용례를 익혀 두라.

정확한 용어는 정확히 알고 있는 데서 도출된다. 뒤집어 말하면,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에는 개념이나 용어를 선택할 때 특히 유념해야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심층 면접의 과제들은 주로 개념 분석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수험자는 전공

분야의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해서는 개념을 정확히 파악해 두어야 한다. 면접에서는 기본적인 개념 파악을 일차로 묻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심층 면접에서는 그 이상을 묻는다. 대화식 면접일 경우나 집단 면접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답변 중에도 개념을 동원해야 할 경우도 있다. 이러한 평가 장면은 모두가 용어의 또 다른 함축, 혹은 개념과 관련한 쟁점을 알고 있는지를 다룬다. 이것은 심층 면접이 개념적인 사고보다는 그 적용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념의 일차적 의미는 심층 면접의 문제에서 사용하기에는 꽤나 매력적이지만, 답안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지나치게 상식적이다. ‘정치 부정부패’를 문제로 삼은 심층 면접을 예로 삼아 보자. ‘부정부패’는 이미 가치평가적인 용어이므로, 이것으로는 다른 답이 나올 법하지도 않다. 하지만 ‘부정부패’가 법률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에 착안하면, 논쟁의 진폭은 꽤 넓어질 수 있다. ‘부정’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공무원의 촌지 수수는 국가마다 다르게 이해된다. 그렇다면 ‘부정부패’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가, 아니면 그것이 발생하게 된 환경이나 국민들의 의식이 문제가 되는가? ‘부정부패’가 법률적 개념이 아니라면, 법률적 개념으로 이를 대체하여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사회 전체의 도덕률을 높이기 위한 윤리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좋은가?

‘정치 부정부패’의 일상화된 용례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도덕적 타락과 결부되어 나타나지만, 그것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뇌물 수뢰나 직무의 사적 이용 같은 사례들에 적용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회적 차원에서의 공정 경쟁 규범과 관련지어 논의할 수도 있다. 이 두 번째 용례는 첫 번째 것에 비해 중요성이나 빈도 면에서 떨어지기는 하지만 상식을 깨뜨리는 데에는 그만큼 효과적이다.

이 전략의 핵심은 평가자로 하여금 수험자의 답변에 대해 깊은 인상을 갖게 하는 것이다.

IV. 심층 면접 지도

1. 일반 원칙

(1) 수업에서의 면접 지도

논술 지도를 하듯이, 심층 면접 지도를 하기는 어렵다. 우선 교사들의 대부분이 말하기·듣기 전공자가 아니다. 일반 성인들처럼 교사들도 구술 담화에 대한 정상적인 언중(言衆)의 상식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다. 다만 교사들이 일반 성인들과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면, 의도하고 계획하여 이를 다루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평상시의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완전하고 독립적인 발화를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일상의 대화 상황에서 쉽게 목격되는 과도한 지시어와 대용어들을 모두 제거하고, 완결된 문장을 사용하며, 접속 관계를 논리화하였는지 점검해 주어야 한다. 또한 보통 때에는 눈에 거슬리지 않았을 동어 반복과 감정적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사실 말하기 활동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교사들은 가르칠 것이 있다기보다는 먼저 고쳐야 할 것이 있다. 수업 상황에서 교사들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설명하고 질문하며 시간을 보내지만, 정작 답변을 듣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것을 학생 탓으로 돌릴 수도 있지만, 그 또한 결과적으로는 교사들에게도 문제의 소인이 있는 것이다.

교사들이 던지는 질문 가운데 많은 부분은 답변을 조급하게 요구하는 추가적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다. 앞서 던진 질문에 대해 학생들이 바로 답변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곧 이어 추가적 질문들을 하곤 한다. 그러나 이렇게 질문을 낭비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충분히 생각하고 정리하여 답변을 내놓게 하지 못한다. 게다가 학생들은 스스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즉, 이 말은 ‘답을 알지 못하는’, 또는 ‘질문에 대응하는 적절한 사고를 하지 못하는’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것에 대해 자책하게 만든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질문에 소요되는 시간에는 답변에 필요한 충분한 사고의 시간이 포함시켜야 한다. 다시 말해 사고하고 준비하고 말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관용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방법의 문제이다.

만약 답변에 값하는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도 답변을 얻지 못한다면 그때 교사는 다시 질문해야 한다. 이때 질문의 내용을 바꾸어서는 아니 된다.—그런 연후에도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것은 분명 잘못된 질문일 수밖에 없다.—이 훈련을 반복하고 그에 따라 학생들이 이런 방식의 대화 상황에 익숙해진다면, 그때 비로소 학생들은 심층 면접에서 요구하는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상적인 수업 상황에서 교사들이 해야 할 또 다른 활동은 학생들의 필기 지도이다. 이때의 필기지도는 불러 주는 대로, 써 주는 대로 바르게 썼는지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써야 할 것을 찾아 썼고, 쓸 만큼을 찾아 썼는지를 확인하고 안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이 공책에 기록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을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하면, 첫째는 교사의 질문이며, 둘째는 학생의 질문이고, 셋째는 학생의 질문에 대한 교사의 안내이다. 특히 교사가 ‘살아 있는 교과서’가 될 요량이 아니라면, 교사의 안내는 학습법(요즘 용어로는 정보 검색법)이어야 한다.

(2) 질문 분석하기 지도

평가자가 던지는 질문의 의도와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심층 면접을 대비하는 훌륭한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학생들로 하여금 평가자들이 어떻게 질문하는지를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마땅히 필요한 교수·학습의 과정이라 하겠다.

여기에 네 가지 지도 내용이 있다. 첫째는 <다중 질문 분석하기>, 둘째는 <핵심 질문 분석하기>, 셋째는 <질문의 단계 분석하기>, 그리고 넷째는 <상충하는 질문 분석하기>이다.

평가자들은 대개 하나의 질문 안에 다수의 물음들을 담아두곤 한다. 하나의 논리에는 그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또 다른 논리(경우에 따라서는 상위의 논리)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질문을 던졌을 때, 이미 평가자는 수험자의 답변에 이어질 또 하나의 질문을 준비하고 있기 마련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질문이 연속되거나 혹은 그것으로 끝나거나 간에 수험자는 어떤 후속 질문이 이어질 수 있는지를 미리 생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질문이 갖는 논리의 층위를 파악하는 것이 선결 요건이다. 예컨대, ‘9.11 테러’는 2001년을 뜨겁게 달군 주요 질문 중 하나였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은, ‘모든 테러는 정당(혹은 부당)한가’라는 상위의 질문과 논리를 지니고 있으며, 대응 논리들(항일 무장 투쟁의 정당성, 테러와 전쟁의 차이, 전쟁의 특수 상황들, 우리 마음속의 테러 등)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 평가자는 의도적으로 테러가 발생하게 된 부당한 원인을 문제 제기하여 수험자의 논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 평가자가 이런 곤혹스러운 질문을 하는 것은 수험자가 자신이 만들거나 혹은 만들 개연성이 있는 논리적 혼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알고자 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치에서 질문이 구체적일 때에는 그 질문의 논리 층위를 따져 우선 그보다 추상적 층위의 답변을 제시하고 그로부터 도출되는 구체적 층위의 답변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평가자는 이것을 물어 저것을 평가하려 한다. 심층 면접에서 이런 유도성 질문들은 때때로 예외적이거나 상상적 상황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논리의 허점을 의도적으로 노출시켜 이를 어떻게 해소하는지 그 과정을 확인하겠다는 뜻이다.

예컨대 2002년 한 대학 면접에서 ‘착하고 진실하게 살면 모두 성공하는가.’하는 물음이 있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분명하고 간단해 보이지만, 답변이 그렇게 도출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묻는 것은 ‘성공’의 개념 규정과 이를 위한 논리 구성이기 때문이다.

물론 쉽게 답변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가 쉬운 답변이다. 이렇게는 초등학생들도 답할 수 있다. 하지만 평가자가 이러한 답변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을 터이니, 이와는 다른 논리로 답변을 구성해야 한다. 만약 이 물음에 ‘긍정의 답변’을 하려 한다면 수험자는 다음과 같이 구체에서 추상으로, 다시 추상에서 구체로 논리의 층위를 옮기며 개념을 새로 정의하고 이것으로 논리의 연결점을 새로 맞추어야 한다. 결코 쉬운 과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착하고 진실한’ 삶은 그것과 다른 가치 체계에 있는 ‘성공’이라는 사회적 성취와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 ‘성공’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물질적

차원에서 사회적 성취를 얻는 것이지만, 정신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성취도 존재한다. → ‘성공’은 외적인 규정처럼 보이지만, 성취감이 없고서는 ‘성공’의 의미가 완성되지 않는다. → 정신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성취는 ‘성공’의 성취감을 동반한다. → ‘착하고 진실한’ 삶은 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자기목적적인 과제이자 목표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는 정신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성취감을 얻게 될 것이며, 이것은 곧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심층 면접의 과정 자체가 복수의 단계적 질문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때 각 질문은 ‘만약 ..., 그렇다면 ...’의 조건적 충족 관계에 놓인다. 첫 질문에 깊이 생각하고 답하지 못한다면 잘못 끼운 첫 단추처럼 오갈 데 없는 논리가 만들어지고 만다. 수험자들은 이런 경우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핵심은 진실성(혹은 진정성)이다. 이것은 구체적 진술 층위에서 수험자의 논리적 허점이 밝혀지는 경우에도 추상적 사고 층위에서 논리를 방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때로는 평가자가 논리에 대한 수험자의 분별 능력을 측정하려 할 수도 있다. 이때 상호 충돌하는 논리에 대해 양시론, 양비론, 절충주의를 경계하는 것은 기본적 요구이다. 상황 논리는 반드시 숨겨진 다른 논리의 이름을 되찾아야 한다. 예컨대, ‘주5일 근무제 시행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시기적 부적절함을 들어 반대하는 것을 ‘상황 논리’라고 하지만, 이것은 논리라기보다는 논리의 유보에 가깝다. 의견에는 찬성하지만 찬성에 따른 판단을 잠시 유보해 두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답변은 쟁점이 있는 질문에서는 절대로 답변으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 원칙의 문제에서는 절충은 있을 자리가 없다.

수험자가 모든 시사 문제에 정통할 수도 없고 또한 그럴 필요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낮은 질문에 마냥 당황하는 것은 결코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니다. 이 경우 심층 논리가 도움이 된다. 그러나 심층 논리와 구체 논리는 서로 층위가 다르므로, 앞의 것으로 뒤의 것을 직접 설명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논리를 환원주의라고 한다.

(3) 답변 구성하기 지도

심층 면접은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담화적 권력 관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것

을 인정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아는 자가 묻고, 모르는 자가 답하는’ 대화의 규약을 통해 한쪽(평가자)이 다른 한쪽(수험자)에 대해 대화의 주도권을 쥐는 불평등성이 이 관계의 핵심이다.

그런데 종교 담화, 법조 담화, 경찰 담화, 의료 담화, 교육 담화 등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불평등성이 하필 심층 면접에서 문제되는 까닭은, 수험자가 자신이 아는 것을 답하더라도 그것이 맞았는지, 혹은 틀렸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심층 면접에서는 물음에 대해 답을 해 보았자 하나의 담화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의 취조 과정을 상상해 보자. 진술을 했든, 혹은 자백을 했든 간에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그러니 이러한 담화는 평가자가 원하는 답을 제시함으로써 완성될 수밖에 없다. 경찰이 ‘당신에 대한 혐의가 풀렸다.’ 그래야 비로소 용의자 신분에서 선량한 시민 신분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것처럼 심층 면접에서는 평가자가 답을 해 주어야 비로소 수험자는 자신이 옳은 답을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평가자는 답을 해 주지 않고 미소를 짓는다. 불안하고 불편하다.

그렇다면, 평가자는 어떤 답을 원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답해야 하는가? 교사는 여기에 대해 세 가지 지도 내용을 갖는다. 첫째는 <가설-진술로서의 답변 구성하기>이고, 둘째는 <서사로서의 답변 구성하기>, 셋째는 <대화로서의 답변 구성하기>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평가자는 결과적으로 도출된 명제적 진술이 아니라 과정으로 제시되는 가설-증명의 진술을 듣고자 한다. 예를 들어, 한 대학의 역사학과 심층 면접에서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기술될 내용의 연대적 하한선은 어디까지인가? 현 정권에 관한 내용도 교과서에서 다루어야 하는가?’라는 과제가 제시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수험자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

오래 생각할 것도 없이, 답은 둘 중의 하나이다. ‘현 정권에 관한 내용도 다룰 필요가 있다’이거나 ‘현 정권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이때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의 의미는, 이러한 답변이 그 자체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묻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제 관심사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느냐?’로 옮겨지게 된다. 이때 초점은 객관적인 근거에 있다기보다는 배경이나 동기 쪽에 놓인다.

‘가설-증명’으로서의 답변은 “저는 이러저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저러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제시되지 않고, “이 문제는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저러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러저러한데, 그것은 이러저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면 이러저러하게 해결하는 것이 이러저러한 해결 방법보다는 현실적/합리적/논리적/실제적/윤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제시된다.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기술될 내용의 연대적 하한선은 어디까지인가? 현 정권에 관한 내용도 교과서에서 다루어야 하는가?’라는 과제는 ‘역사의 임무’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이고, 역사가 현실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현재의 국사 교과서(이것은 공적 기록이다.)가 현재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정치적 해석을 하면서 이해 관계의 충돌을 겪게 되었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해 이 문제는 국사 교과서가 현재를 다루었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문제가 과거에서 그치지 않고 현재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따라서 문제의 본질은 기록의 하한선이 아니라 역사 기술의 태도인 것이다. 답변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수험자는 자신이 선 관점과 입장을 밝히고 시작해야 한다. 밝히지 않아도 평가자는 다 안다. 하지만 밝히지 않았을 때 평가자는 의심하게 된다. 의심할 만한 일들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판단의 동기나 배경에 초점을 두고 보자면, 수험자는 심층 면접에서 인격성과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둔다. 수험자는 논리적 연산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 자체에 논리적 오류가 발견될 수도 있고, 부정확한 지식이 폭로될 수도 있다. 그러나 평가자들이 그런 곤란스러운 질문을 하는 것은 수험자를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판단 준거를 밝히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평가자가 원하는 것은 잘 연마된 ‘작은 학자’가 아니라 변화하고 성장할 풍부한 가능성을 지닌 ‘학생’인 것이다.

‘서사로서의 답변’도 인격성을 지닌 답변의 일종이다. 다만 초점은 답변을 지나치게 논리화하는 대신 배경이 있고 과정이 있고 현재와 미래 전망이 있는 이야기로 만든다는 데 있다. “환자분께서는 고열량 에너지를 섭취하고도 운동을 거의 하지 않으셨군요. 담배와 술을 자주 드시기까지 해서 혈압에 상당히 나쁜 영향이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되면 ……” 이러한 의사의 진단은 서사다. 교회의 설교나 성당의 강론에도

서사는 있고, 법정의 논고나 변론이나 판결에도 서사가 있다. 교실에도 서사가 있다. 그리고 심층 면접의 답변에도 서사가 있다.

“모국어 습득과 외국어 학습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물었다. 이 문제는 한 번에 끝날 것 같지 않은 질문을 가지고 있다. 만약 “모국어는 지능 발달 단계로 보아 언어 학습의 최적기인 유아기에 습득되는 반면, 외국어는 대개 그 단계를 훨씬 지나 다른 학습 능력이 활성화되는 시기에 학습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언어 사용 환경이나 학습 목적, 학습 방법 등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습 과정에도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답했다고 하자. 이걸 근거를 따져 증명을 하는 답변이다.

평가자는 아마도 “그 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다시 물을 것이다. 순서로 보면 두 번째 질문이 먼저 와야 적절하다.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첫 번째 질문에서 수험자가 한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지를 중심으로 답변을 했다면, 이 두 번째 질문이 부족한 답변에 대한 확인 질문의 성격을 띠지는 않았을 것이다.

서사는 답변 속에 이야기를 만들어 넣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 답변 구성 방식의 핵심은 수험자가 문제를 하나의 사건으로 인식한다는 데 있고, 이 사건의 주체들이 있고, 주체들 간의 만남과 협력과 갈등과 분쟁이 있고, 그래서 문제적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의 해결 실마리가 있고, 해결을 위한 인간의 노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학과 선택의 동기’를 묻는 질문은 비록 심층 면접의 핵심적인 질문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당락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성공적인 답변은 ‘왜 이 학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답변이 될 것이고, 수험자에게 닥친 문제 상황을 사건으로 하여 주인공 수험자가 이 사건을 해결해 가는 이야기가 답변으로는 제격일 것이기 때문이다.

동기나 배경보다는 그 비중이 덜하지만, 판단의 객관적인 근거에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평가자가 기대하거나 예상하는 합당한 사고의 경로가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자가 마련하는 대화의 규칙과 순서가 무엇이며, 그것을 통해 평가자가 어떤 답변을 구성해 가기를 원하는지를 파악할 때, 답변의 객관적인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순서와 규칙을 지켜 대화를 하는 것을 ‘역할 주고받기(turn-taking)’라 한다. 평가자와 수험자의 높은 유대감은 높은 평가를 보장한다. 그리고 이 유대감을 만들어 내는 것은 ‘똑같은 생각’이 아니라 수험자가 평가자를 향해 열어 놓는 대화의 순서이다. 물론 앞서 밝혔듯이 평가자는 미소만 띠면 채 답변하지 않을 것이다. 대화적 면접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평가자는 묻는 사람이지만 답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말을 하지 않는다고 반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무언의 답변은 표정이나 태도, 행동 등을 통해 수험자에게 송환될 수 있다. 그러니 수험자는 그렇게 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자의 대화 참여를 촉발해야 한다.

적절한 순간에 답변 속에 약간의 빈틈을 만들어 평가자가 개입하게 하는 방법, 평가자뿐 아니라 답변의 주체 또한 인격화하는 방법, 확언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평가자가 대화 참여자로서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유보적이거나 완화된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사용될 수 있다.

2. 심층 면접 훈련 : 학생들을 위한 지침

학생들을 위한 교수 지침을 간단히 정리해 본다. 마음가짐과 몸가짐에 대한 짧은 답론이다. 이 둘은 결국 같은 것이지만 굳이 구분하여 제시한다. 위험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면 그만큼 이해하기에는 편하다.

(1) 자기 조절

평가자들은 수험생을 “척 보면 안다.” 그렇게들 말한다. 상당 부분 이 말이 사실이다. 마음가짐은 태도를 통해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표정을 통해 우회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다. 수험자의 불안한 마음은 아무리 당당한 태도와 자세로 숨기려고 해도 표정이 그 속내를 폭로한다. 그러니 마음부터 바꾸는 방법밖에는 없다.

여기에는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지켜야 할 마음가짐’을 정리한다. 이름 붙여 ‘자기 조절’이라고 했는데, 실행하는 사람은 뭐라 이름 불러도 상관 없다. 중요한 것은 심층 면접에서 수험자가 자기 자리를 분명히 이해하는 일이다.

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수험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관심’과 ‘겸손함’이다. 대개 수험자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면접이 시작되면 5분을 넘기지 말고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무의식적으로 수험자들은 문제를 풀기 위해 심층 면접 시험장에 들어온 것으로 자신의 위치를 정한다. 문제를 푸는 데 온 정신을 집중한다. 문제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찾았다고 판단되면 의기양양해지고, 그렇지 못하면 좌절해 버린다.

하지만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수험자는 독화적 상황을 대화적 상황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내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다. 그래야 심층 면접에서 성공한다. 이것은 기

술이 아니다. 대화적 상황이 되어야 평가자(자신이 이해하고 있는—평가자가 선택한 문제는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다.—문제를 수험자도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는 바로 그 평가자)가 자신의 문제 이해를 슬슬 수험자에게 풀어놓게 된다. 그리고 그런 조건에서 수험자가 답변을 해야 비로소 평가자가 만족하게 된다.

‘관심’은 바로 평가자에 대한 관심이자 평가자의 생각에 대한 관심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되는 것이다. 그 역은 항상 참은 아니다.

수험자는 또한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 ‘겸손함’은 물러서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그리고 그러한 때에는 단순히 틀렸다고 인정하기보다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무엇 때문에 잘못 생각했는지를 분석해 보여 주는 것이 낫다.— ‘겸손함’은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겸손함’은 듣는 자세이자 대화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주장하는 자’가 아닌 ‘제안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 역은 항상 참은 아니다.

나. 지켜야 할 마음가짐

수험자가 지켜야 할 마음가짐은 ‘자신감’과 ‘집중력’이다. 심층 면접을 치를 수험자들이라면 대개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면접이 시작되면 5분도 안 되어 잃어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말을 잘 하는 것이 복된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말을 잘 못한다고 복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답변을 잘 하지 못했다면 말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야 한다. 달리 말하자면, 말을 못하기 때문에 불리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기 때문에 불리한 것이다. 평가자는 느닷없이 질문하지 않는다. 짧지만 주어지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깊이 생각하고 달리 한 번 생각한 뒤, 다시 한 번 달리 생각하여 내린 판단이면, 준비는 다 되었다. 첫 번째 생각은 첫 번째 답변으로, 두 번째 생각은 두 번째 답변으로, 세 번째 답변은 자신의 답변이 가질 수 있는 한계를 인정하고 개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최종 답변으로 마음에 새긴다. 어눌하거나 말을 더듬는 것에 주눅 들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당당히 어눌한 말을 하라.

평가자가 전공 지식을 묻는다고 가정하자. 이 불행한 사태가 수험자에게 필연적인

상황이 될 가능성은 ‘불행하게도’ 꽤 높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요구하는 지식은 대학 수준의 그것이 아니다. 전공 분야나 영역의 기초 개념을 묻기도 하지만 그보다 상세하고 전문적인 하위 개념들을 묻지는 않는다. 대중적 저널(신문이나 잡지)을 통해 소개된 개념들의 본래적 의미를 물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독서 체험과 학습을 근거 삼아 답변하면 된다. 다만 구체적인 예를 들어 바로 답하려고 하지 말라. 역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연역적 설명이나 증명이 더 낫다.

‘집중력’은 평가자에게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기도 하지만, 수험자에 대한 평가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변인이기도 하다. 처음에는 평가자의 질문을 얼마나 주의 깊게 듣고 정확히 듣고 전후 맥락을 파악하여 이해하는지를 결정한다. 질문이 계속되면 각각의 질문들을 관통하는 더 크고 결정적인 질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내기 위해 평가자의 머릿속으로 들어갈 때 이것이 다시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면 수험자는 급격히 ‘집중력’이 떨어지게 된다. 대부분의 수험자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때를 위해 명심해야 한다. 의사소통은 서로의 ‘의도’를 교환하는 과정이다. ‘집중력’은 평가자의 의도를 놓치지 않는다면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다.

(2) 자기 통제

면접에 대한 모든 설명들이 한결같이 몸가짐을 강조한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호감을 주는 첫인상’, ‘정결한 생김새’, ‘단정한 옷차림’, ‘당당한 목소리’, 이런 것들이 중요한 덕목의 요소들이 된다. 하지만 선발하는 사람의 취향조차 근거가 될 수 있는 취업 면접이 아니고서, 이런 요소들을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수험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면접을 치르는 것이다.

여기서는 ‘가져야 할 몸가짐’과 ‘지켜야 할 몸가짐’을 정리한다. 이것은 외양을 말하는 용어가 아니라 태도를 말하는 용어이다. 이를 붙여 ‘자기 통제’라 하였는데, 역시 실행하는 사람이 이를 뭐라 부른다고 해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심층 면접에서 수험자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일이다.

가. 가져야 할 몸가짐

수험자가 가져야 할 몸가짐은 ‘적극성’과 ‘예의’이다.

‘적극성’은 적절한 반응이다. 말로만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표정으로, 눈빛으로, 그리고 적절한 자세로 수긍하고 의아해 하고 질문할 것을 예고하고 답변할 수 있다고 신호를 보내는 몸가짐이다. 평가자는 자신을 ‘질문하는 목소리’로 규정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평가자는 수험자를 ‘답변하는 목소리’로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다. 평가자에게 수험자는 ‘친절한 대화자’여야 한다. 이것이 아이러니처럼 느껴지더라도 어쩔 수 없다. 그것이 심층 면접의 담화 상황이다. 수험자는 그 상황을 대화로 만들어가야 하며,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적극성’인 것이다.

‘예의’는 단지 말투나 표정, 자세 등의 범절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말할 만큼 말하고 그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몸가짐이다. 담화의 격률(maxim)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역할 주고받기(turn-taking)’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평가자가 질문을 할 때에는 그 다음 차례를 생각한다. 그 다음 차례는 수험자가 내놓는 답변의 핵심에 관한 것일 거다. 그런데 만약 수험자가 필요 이상의 답변을 내놓거나 혹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답변을 내놓으면 평가자는 질문을 하면서 내심 생각해 두었던 그 다음 차례에 혼선을 겪게 된다. 핵심적인 두 번째 질문은 사라지고, 평가자는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당연히 두 번째 질문은 느닷없는 질문이 되고, 대체로 비효율적이며 비핵심적인 질문이 된다. 대화의 자연스러움은 흐트러지고 그 자리에 ‘논쟁’이 들어서게 된다. 심층 면접이라 하더라도 최선은 평가자와 수험자의 호흡이 맞을 때, 평가자는 수험자에게 편안함을 느끼며, 호감을 느낀다. 그것이 ‘예의’다.

나. 지켜야 할 몸가짐

수험자가 지켜야 할 몸가짐은 ‘단정함’과 ‘안정감’이다.

‘단정함’은 옷차림과 두발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추하지 않은 몸가짐이다. 자신 있되 자만하지 않고, 비판하되 깎아내리지 않는 태도이다. 좀 더 유리해지기 위해 손 벌리거나 손사래 치는 경박함을 이겨내는 참을성이다.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들에 대한 인정이고, 어렸을 때부터 혹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갖게 된 믿음과 신념과 가치관에 대한 긍정이다. 그럴 때 쉽게 흔들리지 않고 제 모습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단정함’을 지키기 위해서 수험자는 자기를 긍정해야 한다.

‘안정감’은 수험자가 면접이 시작하기 전부터 애써 지켜내고자 노력하는 매우 중요한 심리적 태도이다. 마음이 몸가짐으로 나타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이다. ‘안정감’은 평소에는 수험자와 함께 있다가 그(그녀)가 평가자의 손에 들린 문제 쪽지를 보는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불안함이 그 자리를 침노한다.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수험자는 애써 ‘안정감’을 지켜내야 한다. 마음은 벌써 절반쯤 불안함이 자리를 꿰어 차고 있더라도 짐짓 아닌 듯이 안정된 몸가짐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 수험자는 잊지 말아야 한다. 평가자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답하려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재기 넘치는 수험자라도 평가자의 뒤이은 질문까지 미리 생각하고 답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 첫 번째 질문을 접하면 수험자는 더 흔들리게 된다. 서두르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착지에 실패하여 발을 빼끗하는 것처럼 고통을 느끼게 된다. 그렇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을 붙잡을 줄 알아야 한다.

바둑을 둘 때 몇 수 앞까지 예측하며 하나의 돌을 놓듯이, 평가자가 질문할 때 질문지에 없는 예비 질문은 무엇일지 예측하며 짧지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연은 평가자로 하여금 수험자가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물론 실제로 깊이 생각해야 한다.

<부록> 서울대 모의 논술 채점 예시³⁰⁾

【논제】

[제시문 1]은 기계의 발달이 시장체계를 발전시켰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고, [제시문 2]는 철도의 부설이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변화시켰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두 제시문의 논지를 발전시키고 그것들을 서로 연결하여 산업혁명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계의 발전이 인간의 ①사회적 관계와 ②문화적 양식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으며, 이러한 변화가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논술하시오.

【제시문 1】

정교한 기계는 매우 비싸기 때문에 대량의 상품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거래되지 못한다. 그것은 상품의 판매가 적절하게 보장되고 기계에 투입할 원료가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을 때에만 손실없이 작동될 수 있다. 상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은 모든 생산 요소가 구매 가능하다는 것, 즉 돈만 내면 얼마든지 이것들을 사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대규모 전문화된 기계를 이용한 생산은 자기 자금을 투입하는 상인의 관점에서나 수입·고용·공급을 지속적 생산에 의존하게 된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나 상당한 위험을 떠안게 될 것이다.

그런데 농업사회라면 그러한 조건들이 당연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들은 창조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조건들이 비록 점진적으로 창조된다고 해도 거기에 포함된 놀랄 만한 변화의 본질은 여전히 같다. 이때의 변화는 사회 성원들의 행위 동기의 변화를 요구한다. 즉 생산의 동기가 이윤 동기로 대체되어야 한다. 모든 거래는 화폐거래로 바뀌고 또 교환의 매개체가 경제생활의 모든 마디 속에 끼어들 것을 요구한다. 모든 소득은 무엇인가의 판매로부터 나오게 된다. <시장체계>라는 용어 속에는 이 말에서 느껴지는 단순한 의미 이상의 것이 함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체계의 가장 놀라운 독특성은 일단 이것이 성립되면 외부 간섭없이 기능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사실에 있다. 이익은 더 이상 자동적

30) 여러 대학의 모의 채점 예시 답안을 구하려고 하였으나,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한 대학의 자료만을 포함시켰다.

으로 보장되지 않으므로 상인은 그의 이익을 시장에서 만들어내야 한다. 가격은 스스로 규제되도록 허락되어야 한다. 이 같은 시장의 자기조정적(self-regulating) 체계야말로 우리가 <시장체계>라는 용어로서 의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전의 경제로부터 이러한 체계로의 전환은 지극히 완벽한 것이어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라는 말로서 표현하기보다도 차라리 애벌레의 탈바꿈으로 표현하는 것이 나아 보인다. 여기에서 생산자의 행위를 생각해 보라. 그는 판매를 위해서 구매자를 직접 찾을 필요가 없다. 그는 단지 시장에 상품을 내놓으면 된다. 한편 그가 구매하는 것은 원료와 노동, 즉 자연과 인간이다. 이 역시 시장에서 얻을 뿐이다. 상업사회에서 기계제 생산은 결과적으로 사회의 자연적·인간적 실체를 상품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토지나 노동 같은 것은 분명 상품이 아니다. 매매되는 것들은 모두 판매를 위해 생산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가정이 이 두 가지에 관한 한 적용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상품에 대한 경험적 정의를 따르자면 이것들은 상품이 아니다. 노동이란 인간 활동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인간 활동은 인간의 생명과 함께 붙어 다니는 것이며, 판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유에서 생산되는 것이다. 게다가 그 활동은 생명의 다른 영역과 분리할 수 없으며, 비축할 수도 없고, 사람과 떼어 내어 동원될 수도 없다. 그리고 토지란 단지 자연의 다른 이름일 뿐인데, 자연은 인간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과 토지를 상품으로 묘사하는 것은 전적으로 허구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노동과 토지가 거래되는 현실의 시장들은 바로 그러한 허구의 도움을 얻어 조직된다. 이것들은 시장에서 실제로 판매되고 구매되고 있으며, 그 수요와 공급은 현실에 존재하는 수량이다. 어떤 법령이나 정책이든 그러한 생산 요소 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억제한다면, 결과적으로 시장체계의 자기조정을 위태롭게 만든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 허구는 사회 전체와 관련하여 결정적인 조직 원리를 제공하는 셈이며, 이 원리를 사회의 거의 모든 제도에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제시문 2】

증기기관에 의해 인간과 세계의 공간은 단축되었다. 철도의 출현으로 이질적인 공간은 균질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거리의 마찰이 극복됨으로써 각 지역의 고유성은 파괴되고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공간으로 흡수되었다. 철도가 이동하는 곳마다 도시들이 솟아났다. 철도는 인간의 공간지배력을 급속하게 넓혔다. 상품 유통이 촉진됨에 따라 자족적인 지역경제는 국민경제로 수렴되었다. 또 인간이 자연의 순환적 리듬에서 벗어나 인공의 기계적 리듬에 호흡을 맞추게 된 것도 철도 때문이었다. 철도는 인간에게 기계적 시간을 강제했다. 철도시간표는 지역적 시간을 해체하고 통일적인 시간을 부여했다.

철도가 공간과 시간을 없앤다는 생각은 그때까지 우리 마음 속에 각인되어 있던 교통 기술이 갑자기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었다고 느끼는 인지(認知)의 현실 상실로 이해할 수 있다. 철도가 만들어낸 공간-시간 관계는 과거 수송수단이 만들어냈던 공간-시간 관계에 비하면 추상적이고 방향성을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 철도는 더 이상 이전의 마차와 길처럼 전경(前景)이라는 공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공간을 관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이네는 전통적인 공간-시간 의식이 이렇게 혼란을 겪게 된 순간을 포착해냈다. 1843년 파리에서 루앙과 오를레앙으로 가는 노선이 개통되었을 때 그는 <무시무시한 전율, 결과를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 혹은 전례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느낌>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그는 철도를 화약과 인쇄술 이래로 <인류에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삶의 색채와 형태를 바꾸어놓은 숙명적 사건>이라고 불렀다.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제 우리의 직관 방식과 우리의 표상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임에 틀림없다! 심지어 시간과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도 흔들리게 되었다. 철도를 통해서 공간은 살해당했다..... 이제 사람들은 3시간 반 내에 오를레앙까지, 그리고 꼭 같은 시간 내에 루앙까지 여행한다. 이 노선들이 벨기에와 독일까지 연결되고 또 그곳의 철도들과 연결된다면, 어떤 일이 초래될 것인가? 내게는 모든 나라에 있는 산들과 숲들이 파리로 다가오고 있는 듯하다. 나는 이미 독일 보리수의 향내를 맡고 있다. 내 집 문 앞에는 북해의 파도가 부서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동일한 하나의 변화가 지나는 두 가지 모순적인 계기들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철도는 한편으로 이제까지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공간

들을 열어놓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일을, 그 사이의 공간을 없앴으로써 가능하게 했다. 느리고 노동집약적인 원시기술적인 수송에서는 완전히 감내해야만 했던 사이 공간 혹은 여행 공간이 기차 수송에서는 사라졌다. 기차는 단지 출발과 목적만을 안다. 1840년에 쓰여진 프랑스의 한 텍스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철도는 단지 장소로 드러나는 출발, 정지 그리고 도착만을 안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철도는 이들 사이를 가로질러 가고, 거기에서 단지 쓸모없는 구경거리만 제공하는 그 사이 공간들과는 아무런 연관도 갖지 않는다.>

전통적인 여행 공간이었던 목적지들 사이의 공간이 사라지면서, 이 목적지들은 서로서로 접근하고 충돌도 한다. 이 목적지들은 과거의 ‘지금’과 ‘여기’를 잃어버렸다. 이런 것들은 중간의 사이 공간을 통해 규정되어 왔다. 그 안에서 장소들이 서로서로에게 공간적 거리를 생겨나게 했던 고립이 지워져버린 것이다.

다. 출전과 출제의도

· 출 전

제시문 1: 칼 폴라니(Karl Polanyi), 거대한 변환: 우리 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 민음사, 1991 (박현수 역)

제시문 2: 볼프강 쉬벨부쉬(Wolfgang Schivelbusch), 철도여행의 역사, 궁리, 1999 (박진희 역)

· 출제의도

두 제시문은 우리 시대의 특징을 기계의 발전이라는 점과 연결짓고 있다. 제시문 1은 “자기조정적 시장체제”의 발전이라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사회 내에 시장이 존재하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회, 곧 인간과 자연이 각각 노동력과 원료 제공원으로 축소된 사회를 뜻한다. 제시문 2는 철도의 등장이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극적으로 변화시켰음을 말하고 있다. 걷거나 마차를 타는 정도의 속도에서는 인간이 이동하는 공간을 온전히 느끼지만, 기계의 힘으로

빠른 속도로 지나가게 되면 이동하는 ‘사이 공간’은 그냥 스쳐가는 대상이 된다. 그 결과 시간에 대한 인식 역시 변하고 만다. 이 두 제시문을 아울러서 정리하면 기계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존재 양식 자체가 큰 변화를 겪게 되었고 자신이 놓여있는 시공간에 대한 인식도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다.

논제는 우선 이와 같은 두 글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수험생에게 요구하였다. 기계의 발전이 새로운 경제체제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면, 새로운 경제체제에서 인간의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변모하였는가를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는 점에서는 문화적 양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서술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논점을 발전적으로 전개시켜 나갈 때 현대 사회의 특징을 비판적으로 파악하여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두 제시문의 논지를 정확히 이해한 뒤, 그것을 독립적으로 병치시키지 말고 논리적으로 연결지어 공통의 주제를 도출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한 하나의 주제를 설정하고 여러 사례를 나열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주제에 대한 다각도의 논리를 세우고 각각의 논리에 대해 반성적으로 살펴보면서 결론을 이끌어야 한다. 답안의 길이와 시험 시간이 길어진 이유도 이처럼 분석·종합할 수 있는 사고력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채점 항목 및 기준

구 분	평 가 내 용 및 기 준
지시사항 불이행으 로 인한 감점	·답안길이 미충족 ·필기구 종류 및 색깔 위반 ·응시자의 신원노출
이해·분석 력 (20점)	·주어진 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분석 능력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분석(독해) 능력 ·논술문이 논제에 충실한 정도 ·제시문을 적절히 활용한 정도
논증력 (30점)	·근거 설정 능력 - 주장에 대한 적절하고 분명한 논거 제시 여부 - 주장과 논거의 논리적 타당성 - 논제에 대한 분명한 견해 표현 - 표현 견해가 제시문의 논의에 의거해 적절한 뒷받침 ·구성 조직 능력 - 전체 논의 전개에 정합성 및 일관성이 유지 - 전체 논의 전개에 있어 논리적 비약은 여부 - 글의 전체적인 흐름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
창의력 (40점)	·심층적인 논의 전개 - 본인의 주장이나 논거에 대해 스스로 가능한 반론들의 고려 - 본인의 논의가 지니는 더 나아간 함축이나 귀결들에 대해 고려 -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맥락이나 배경 상황에 대한 적절한 고려 - 묵시적인 가정이나 생략된 전제에 대한 더 나아간 고찰 ·다각적인 논의 전개 - 발상이나 관전 전환을 시도 - 가능한 대안들에 대한 고려 - 여러 개념들의 종합 - 암묵적으로 가정된 전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독창적인 논의 전개 - 주장이나 논거에 새로움 - 문제를 통찰함에 있어 특이함 - 관점이나 논의 지평에 참신함
표현력 (10점)	·표현의 적절성 - 문장표현의 매끄럽고 자연스러움, 적절한 비유 등 - 단락구성 및 어휘 사용 -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

※ 실제 논술고사에서는 위 배점이 조정될 예정임

모의논술고사 결과 분석: 학생들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시사항 불이행

모의 논술고사인 점과 감점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길이 및 필기구에 의한 감점은 적용하지 않았다. 답안 길이 기준(2500자 $\pm$ 300)에 미달한 답안은 26개였으며 그 가운데 1400자 이하는 7개였다. 실제 논술고사에서는 감점 사항이 적용될 것이며, 특히 길이 기준에 크게 미달한 답안은 과락 처리할 수 있다. 신원을 노출시킨 학생은 없었다.

이해분석력

이해분석력이란 논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논제와 제시문의 의미를 찾아 연결하는 능력이다. 제시문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접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과 표현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런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익숙한 주제인 기계문명의 폐해에 초점을 맞추었다. 두 제시문은 기계문명의 폐해라는 피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기계적인 체계의 인위성과 자연성사이에 놓인 인간의 모순적 상황을 다루고 있다. 기계의 발전 과정이나 산업혁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인간을 둘러싼 인위적 체계가 작동하는 양상을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해분석력을 키우려면 다양한 텍스트를 접하고 그 속에서 핵심 어구를 찾아내는 연습이 필요하다.

논증력

논증력은 주장과 논거의 논리적 연관, 논제의 정합성 및 일관성을 의미한다. 자신의 주장을 제시함에 있어서 일관적이지 못한 글의 흐름과 논리적 비약은 빈번히 나타나는 문제점이고 무엇보다도 반대 주장과 논증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형식적으로는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논의가 전개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또한 자신의 주장을 제시한 후 논거나 사례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그것들이 자신의 주장을 적절히 뒷받침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제시문 2】와 관련하여 ‘사이 공간’의 소멸을 말할 때 고속철의 예는 속도의 문제일 뿐 본질적으로는 같은 내

용의 반복이다. 일관적인 논리와 적절한 증명 능력은 자신의 주장을 납득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예증을 할 경우에는 논리의 적합성에 대해 깊이 검토해야 한다. 논증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평소에 자신이 쓴 글을 반복해서 읽고 검토하는 습관과 함께 자신의 글이 갖는 문제점을 다른 사람과 함께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의력

여러 평가 항목 가운데 가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점수 편차가 가장 심한 항목이다. 창의력은 심층적·다각적 사고를 통한 주장 및 관점의 독창성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비슷한 문장으로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교훈조의 결론으로 끝맺는다. 이는 기존 논술 참고서에 제시된 정형화된 방식에 기초하여 비슷한 예상 문제를 가지고 연습한 결과로 추정된다. 학생들은 자신의 독자적인 사고능력을 표출하기보다는 예상문제에 대한 답안을 암기하는 방법으로 논술에 대비하지 않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논술의 원래 목표인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의 표출을 도외시키고 모범답안의 작성에 치중한다면 결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번 채점 결과에서도 독창적인 논리를 전개한 답안은 예외 없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표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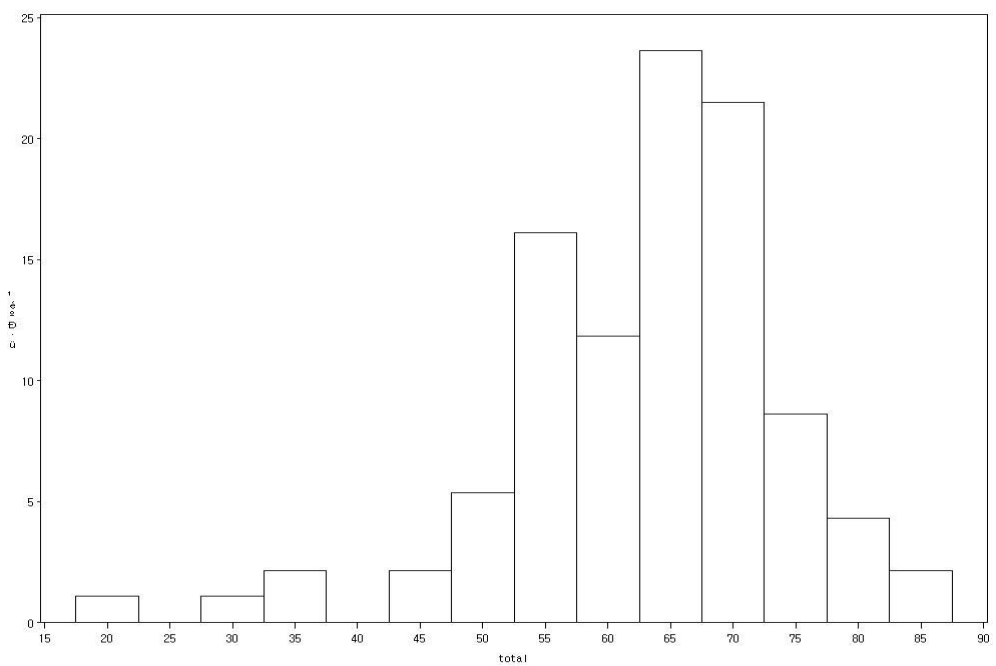
표현력은 단락의 구성 및 어휘사용의 적절성, 어법에 맞는 글쓰기 및 원고지 사용법 등을 말한다. 채점 결과 드러난 대표적인 잘못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구어적 표현
- 불분명한 지시 대명사의 남발
- 논리 전개와 무관한 접속사 사용
- 잘못 사용된 현학적인 어휘
- 부적절한 조사
- 띄어쓰기, 원고지 사용법, 정자법 미숙
- 의미 없는 단락구분

<평균 및 표준편차>

이해분석력	논증력	창의력	표현력	총점	표준편차	최대	최소
13	19	23	6	63	14	86	17

<총점 점수분포>



논술고사 준비를 위하여

논술고사는 글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 창의적으로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창의력이란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논제에 접근함으로써 독창적인 사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번 모의 논술고사에서 학생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창의력이었다. 창의력의 부족은 무엇보다도 제시문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못했기 때문이지만 단편적 암기를 통한 점수 위주의 교육에 익숙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초·중·등 교육에서의 자기 주도적 학습, 토론 및 탐구학습, 독서교육, 수행평가 등 새로운 교육 환경조성은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다. 좋은 답안은 암기를 통해 기술하는 모범 답안이 아닌 독자적인 사고를 보여주는 답안이다. 논증력과 창의력을 평가하기 위해 논술고사에서는 일정한 정답이 기대되거나 특정 분야에 치우치는 문제보다는 여러 학문 영역의 관점에서 두루 조망할 수 있고 주어진 논점을 자유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될 예정이다. 즉 논술은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에 고등학교 수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논제를 제시할 것이며 제시문들도 논제에 대한 다각도의 논리를 전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이다. 또한 답안의 길이도 과거 1,600자 내외에서 모의 논술고사처럼 2500자 수준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답안의 길이가 늘어난 것은 단기간의 학습을 통해 외어서 쓴 답안과 창의적인 사고를 보여주는 답안을 구별해 내기 위함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논술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독서와 깊은 사색에 기초한 꾸준한 글쓰기 연습과 토론이 필요하다. 선생님의 지도 하에 학생들이 간단한 명제를 가지고 다각도의 반론을 제기한 뒤 각각의 반론이 정당하다는 논증을 해보고 서로의 생각에 대해 토론해 보는 것도 논술 준비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모의 논술고사 예시 답안 및 평가서

예시답안 및 평가서 1

옛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산에 원숭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원숭이가 자연 속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던 어느 날, 여우가 꽃신을 들고 찾아왔다. 이걸 신으면 발에 돌이 박히지 않고 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여우의 말에, 원숭이는 그 후로 계속 여우가 준 꽃신을 신고 다녔다. 처음에는 여우의 말대로 더 많은 자유를 얻은 것 같았지만, 여름이 되어 꽃신을 벗자 발바닥이 아파 더 이상 맨발로 걷을 수 없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원숭이는 뒤늦게 여우가 자신에게 준 꽃신이 더 큰 자유가 아닌 무서운 속박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원숭이와 꽃신의 관계는 인간과 기계문명사이의 관계와 같다. 산업혁명이후로 계속된 교통과 통신 등 과학기술의 발달과 공업의 발달은 인류에게 많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한 베이컨의 발전지향적 사고에 따라 노력해 온 결과, 재화의 생산량은 증대되고 공간거리는 단축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원숭이가 더 이상 맨발로 걸을 수는 없었듯이, 문명의 발달에 따른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났다.

제시문 1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계문명은 인간을 기계화, 상품화했다. 카프카의 소설 ‘변신’에서 보면 주인공 그레고르는 회사에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집안의 경제 또한 책임지는 성실한 사람 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일어난 그레고르는 거울 앞에서 두꺼운 등껍질을 가진 벌레로 변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늦게까지 일어나지 않는 그레고르를 이상하게 여긴 가족들은 닫힌 문 밖에서 그레고르를 걱정한다. 이에 아직 사회와 자신의 유대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기쁨으로 닫힌 문을 열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 그의 모습을 본 가족들은 기겁해서 도끼로 그를 위협하며 다시 문을 닫는다. 일할 수 있는 손대신 징그러운 많은 다리를 가지게 되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그레고르는 가족에게 외면 받는 것이다. 이는 사회의 최소 구성단위인 가정마저도 인간의 기계화와 상품화란 현대문명의 영향력속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문명에 의한 사회적관계의 변화는 이 뿐만이 아니다. 기계의 발달로 인한 시장체계의 성립은 대량생산으로 인한 인류의 몰개성화를 야기했다.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사회적 변화들은 인간의 본연성으로 부터의 이탈, 즉 인간소외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시장자본주의에서 인간은 단지 한 단위의 노동요소로 간주된다. 소설 ‘변신’에서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한 날만 걸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걸어 그레고르를

몰염치하고 불성실한 무뢰한으로 몰아붙이는 회사의 태도를 보면 인간소의현상을 볼 수 있다. 일말의 인간애도 없이 결근의 대가로 해직을 선고하는 회사의 행동은 인간자체보다 그 인간의 노동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기계문명의 발달은 문화적 측면에서도 여러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문화의 획일화를 가져왔다. 발달한 정보매체와 운송수단을 통해 중심지의 문화가 주변의 문화를 흡수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문명의 발달은 행위동기를 이윤동기로 변화시켰다. 제시문 2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차는 단지 출발과 목적만은 아는 것이다. 자신의 목표, 즉 이윤이외의 중간지들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이다. 문명발달은 사람들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의식에도 혼란을 가져왔다. 문명사회는 인류에게 생각의 변화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변화는 다음의 두가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이윤동기가 판단의 주요한 요소가 됨에 따라 소유양식의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서 보면 주인공 싱클레어는 가정에서 어머니의 무조건적이고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산다. 언제나 화목한 이 독실한 크리스티교 가정은 존재양식적 삶을 대변하고 있다. 반면에 싱클레어가 사회에서 접하게 되는 아이인 크로머는 소유양식적 삶을 살고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싱클레어가 사과를 훔쳤다고 거짓말한 것을 빌미로 싱클레어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다.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이기주의적이고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소유양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도 기계문명아래 오로지 성장과 발전만을 목표로 자연과의 생태학적 관계나 다른 구성원과의 유대는 고려하지 않으며 달려나가고 있다. 결국 이것은 현대사회 역시 소유양식적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둘째는 전통의식의 혼란에 따른 아노미현상을 들 수 있다. 증가하고 있는 자살이나 반인륜적 범죄는 아노미현상을 의미한다.

그간 인류는 기계의 발달을 통해 물질적 풍요라는 혜택과 시공간의 단축이라는 혜택을 향유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인간을 자연으로 부터 분리 시켰고 지역의 고유성을 파괴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결국 이것은 현대사회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이익사회라는 것을 알려준다. 이익사회는 소유양식의 삶을 의미한다. 요즘음 불고있는 슬로우 푸드, 느리게 살기 운동은 이익사회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며 미래의 우리사회, 문화적 모습은 이익사회의 부작용들을 어떻게 고쳐가느냐에 달렸다.

구분	심 사 평	점 수
이해·분석력	제시문에 대한 충실한 이해에 바탕을 두고 제시문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창조적인 논의 또한 가능했다. 아쉬운 점은 제시문 밖에서 제시된 예들에 대한 논의가 제시문에 나오는 논의들보다 양적으로 많다는 점과 문화적 양식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16점
논증력	본인의 주장과 제시문의 주장이 적절하게 결합되어 있다. 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서론과 본론 그리고 결론으로 이어지는 논리적인 전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기계의 발달이라는 제시문과 논제의 취지에 충실하게 논지를 전개시킨 것이 아니라 이를 현대사회의 제반 문제들로 확장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식의 논지전개가 갖는 문제는 현대사회의 문제에 관한 천편일률적인 논의로 흐르기 쉽다는 점인데 이 글은 창조적인 예들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피해가고 있다.	26점
창의력	이 글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 바로 창의적인 논리 전개이다. 특히 문학작품에 대한 풍부한 예들과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논의를 결부시킴으로써 글의 흐름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한 것은 이 글의 돋보이는 점이다. 특히 도입부에 나오는 우화는 문제를 고찰하는 신선한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논의의 중요한 마디마다 구체적인 작품에 대한 검토를 집어넣음으로써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해준다.	35점
표현력	이 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표현력이다. 문장이나 어휘의 구사력은 전반적으로 매끄러우나 특히 띄어쓰기의 경우 여러 군데에서 틀린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반드시 시정해야 할 단점이다. 또한 한 문단이 지나치게 길게 작성된 것도 이 글의 단점 가운데 하나인데, 전체를 4문단으로 구성하기보다는 보다 문단을 세분화했으면 더 좋은 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든다.	9점
최종평가 결과		86점

예시답안 및 평가서 2

현재 우리는 ‘제 3의 물결’이라 불리우는 정보 혁명에 의해 이루어진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이룩은 산업혁명에 의해 나타난 근대 사회라는 기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전근대 사회의 막을 내리게 한 ‘제 2의 물결’인 산업 혁명 또한 정보 혁명 못지 않은 충격을 동반하며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는 이야기이다.

간단히 살펴보면, 산업 혁명은 경제적 개념에 기초한 근대 사회를 성립시켰으며, 인류 사회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지배되는 시장 체제로 편입시켰다. 산업 혁명을 가능하게 한 가장 결정적인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인간 스스로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고안해낸 기계이다. 즉, 현대 사회는 기계의 발전이 아니고서는 나타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삶을 윤택하게 하고자 노력하는 인간의 노력에 힘입어 현대 사회에서의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 기계 문명을 보며, 우리는 이러한 기계의 발전인 인류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왔길래 현재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오늘날 우리가 유지해가고 있는 사회의 성격을 규명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히 개혁하여 더 나은 인류의 미래 사회를 만들어 가기위해 필수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먼저, 기계의 발전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켜왔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제시문1>에서 언급된 것처럼, 시장 체제에서는 인간과 자연마저도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된다는 허구가 기본 원리가 된다. 따라서 노동력을 가진 인간은 스스로가 판매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되어 타인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게다가 인간 사이의 상호 작용은 경제적 거래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인간 관계와 경제적 개념은 결코 따로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이해 타산적인 인간 관계는 인간 소외 등의 어두운 면만을 연상하게 하기가 쉬우나, 생각을 달리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도 있다. 합리적인 인간 관계가 사회에 미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시장 체제 내에서 개인은 자유를 보장받게 되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한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사회의 존속을 위해 법률에 의한 통제도 뒤따른다. 하지만 폐쇄적인 신분제에 의해 지배와 예속의 관계가 당연하게 여겨졌던 전근대 사회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그에 따른 대등한 인간 사이의 존중에서 오는 평등주의는 가히 혁명적인 성격의 것이라 하겠다.

<제시문 2>에서 철도의 발전이 인간의 시간 개념을 변화시켰다는 주장도, 철도가 정시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시간의 정밀성을 시계로 측정하며 시간약속을 중시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잘 설명해준다. 더욱이 ‘약속’의 개념은 그것을 준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상대에 대한 신뢰도를 다르게 매기는 신용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사회 구조적으로 보면, 생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 조직이 발달하고, 이는 관료제의 성격을 강하게 띠는 점이 눈에 띈다. 산업 혁명은 개인주의를 보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을 사회 조직의 구성원으로 규정지으면서 인간에게 다소 모순적인 역할을 부여한 셈이다.

사회를 이루고 사는 구성원들은 그 사회에 알맞은 문화를 창조해낸다. 그렇다면, 산업 혁명이 일어나면서 새롭게 나타난, 문화적인 변화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시장 체제에 의해 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것은 공동체 문화이다. 자유주의가 심화되어 개인주의를 불러옴으로써, 농경 사회에서 강조되던 가족 등의 혈연 공동체와 지연 등은 그 비중이 점차 약해지고, 비인격적이고 간접적인 관계가 만연하게 되었다. 핵가족이 일반화되고, 개인의 삶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 공간, 상품 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시장 체제보다는 철도로 대표되는 교통의 발달이 그 역할이 더 크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바꿔놓음으로써, 상호 교류는 확대되었고 세계적으로까지 문화가 통합화되기에 이르렀다. 이제는 철도만이 공간을 넘나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비행기, 심지어는 전파까지도 세계문화를 긴밀하게 묶어놓고 있다.

대중 매체의 발달은 전파로서 설명될 수 있는데, 대중의 의식을 성장시켜 대중 문화를 성립시켰으며, 유행이라는 것을 전세계로 퍼뜨리기도 한다. 기계적인 문명이 발달하면서, 자연을 적절히 개발하는 것도 문화의 새로운 측면으로 등장했다. 인공미를 더욱 중시한다는 점에서 다분히 비판의 여지가 있으나, 인간에게는 또 다른 가능성과 창조의 여건이 주어졌다 하겠다.

위에서 살펴본 변화들은 현대 사회가 있기까지의 극히 적은 부분이다. 그러나 이들은 공통적으로 좀더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진보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요구하며, 자신의 가치를 더욱 올리기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

위에서 보이는 공동체의 약화, 인간소외 등의 문제점을 극복한다면 우리가 보다 나은 미래를 맞이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구분	심 사 평	점수
이해·분석력	이 답안은 논제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지만 제시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고 있다. 각 제시문의 논지를 발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논제와 제시문 1의 논지를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제시한다. 따라서 이해타산적인 인간관계의 문제점, 자유시장 체계의 장점, “시장체계”, “교통발달”이 논지와 갖는 관계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특히 “약속”에 관한 논지 전개는 제시문을 잘못 이해하고 분석한 사례이다. 제시문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개된 글은 불확실한 자신의 생각만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채워지기 쉽다. 지문을 좀 더 활용하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점은 다소 아쉽다.	16점
논증력	전체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잘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는 정보화시대와 산업사회의 기반이 기계의 발명과 발전에 기인하였다고 기술하며 자연스럽게 본론으로 유도하였고, 본론에서는 산업화시대에 인간사회의 변화와 문화적 변화를, 그리고 결론에서는 변화에 대한 진보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경제적인 인간관계와 이해타산적인 인간관계를 동일한 개념으로, 합리적인 인간관계와 평등한 인간관계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한다. 또한 제시된 주장의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 특히 철도발전이 사회조직의 발달 (예를 들어, 관료제의 형성), 개인주의 보장, 모순적인 역할 부여에 영향을 주었다는 근거가 없다. 개인주의를 비인격적 관계로 간주하는 해석은 문제의 여지가 있다. 또한 철도가 가져온 상호교류는 인간관계를 근접시키고, 문화를 통합시켰다고 주장하면서도 앞에서는 철도의 발전이 비인격적이고 간접적인 관계를 이끌었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적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의미를 파악하기 힘든 주장들이 있는데, “인공미... 인간에는 또 다른 가능성과 창조의 여건이 주어졌다.”고 했는데 그 가능성과 창조의 여건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23점
창의력	기계의 발전이 인간사회에 미친 일면적인 측면만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대사회의 변화를 균형잡힌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시장체계와 철도가 인간관계(사회구조 개인화, 혈연공동체 붕괴)에 끼친 영향을 필자 고유의 관점에서 제시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엿보인다. 또한 대중매체가 문화의 변화에 끼친 영향에서도 필자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논의들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기계에 의한 여러 변화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지만 이런 평가가 어떻게 가능한 지 자신의 관점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다.	29점
표현력	글쓰기에서는 다소 미숙한 면(“불리우는“ ”현대사회의 이룩“, “연상하게 하기가“, “성격의 것이라 하겠다“, ”노력하도록 한다“)도 눈에 띈다. 띄어쓰기에서의 잘못, 불필요하게 단락을 변경하거나 “-이야기이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던 점 등은 좋은 문장을 많이 접해보고, 자신의 글을 점검받는 과정을 통해 좀더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사항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무엇을 지시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지시대명사와 부적절한 접속사 • 용변적 표현과 구어적 표현들: “--의”란 표현은 소유의 경우가 아니면 의미 전달의 명료화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비문들: “위에서 살펴본 ... 적은 부분이다“, ”위에서 보이는“	7점
최종평가 결과		75점

예시답안 및 평가서 3

영화 '모던타임즈'를 보면 노동자들은 기계가 가동함에 따라 쉼없이 일하고 기계가 멈추는 사이 식사를 한다. 아침마다 버스시간에 맞추기위해 밥도 먹지 못하고 달리는 나를 볼 때마다 나는 그 영화를 떠올린다. 언제부턴가 인간은 대부분이 거대한 사회시스템에 맞추어 비슷한 시간에 별다른 것없는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보인다. 언제부터 우리는 이러한 거대한 틀에 갇히게 되었을까.

제시문 1을 보면 대규모 전문화 된 기계가 시장체계에 준 영향을 알 수 있다. 거대한 기계는 대량생산을 바탕으로 이용가능하다. 여기서 대량 생산은 다시 상품의 판매와 언제든지 생산요소를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두어야 가능하다. 즉 화폐를 통해 시장에서 상품이 거래되고 생산 요소도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시장은 이윤을 목적으로 돌아가고 서로에 이윤추구에 의해 가격이 조절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생산자가 시장을 통해 생산요소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산요소라는 것이 원료와 노동, 즉 자연과 인간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품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연과 인간을 구매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들의 거래가 있어야 시장체계가 가능해진다. 즉 이것은 인간이 자연과 심지어는 스스로를 도구로 간주하게 만드는 것이다.

요컨대 거대한 기계는 인간이 이용하기 보다는 이용되어지며 이러한 사실이 인간과 물질의 가치가 전도되는 모순들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제시문 2를 보면 증기기관차에 의한 공간과 시간인식에 대해 적고 있다. 철도에 의해 지역과 지역을 구분해 주던 사이 공간이 사라졌다. 철도는 출발과 도착지점만을 생각하고 그 사이 공간을 지워버렸다. 그로인해 지역의 고유성은 사라지고 상품유통은 촉진되면서 각 지역들은 하나의 큰 시장으로 통합되어 갔다.

하이네는 내가 있는공간에 다른 모든 공간이 다가온다고 말하면서 공간-시간 의식 변화가 초래할 혼란을 경계하고 있다.

즉 철도의 출현으로 공간과 공간을 구분지어주던 사이공간이 사라지면서 각 공간이 갖는 고유성과 지역적 시간이 해체되어 버린 것이다. 이것은 인간을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통합시키고 그와 더불어 과정을 없애 버림으로써 다양성도 사

라지게 되었다.

이것은 인간이 세상을 단순화시켜 바라보고 효율성만을 인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얼마전에 나는 친구와 서운산을 다녀왔는데 그 친구는 산행내내 자기 발밑만 보며 빠르게 걷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 등산은 말그대로 산을 오르는 것이었다. 그에게 산은 정상을 정복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다. 이에 반해 우리조상들은 등산을 입산이라고 표현했다. 산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이고 이로써 산과 하나가 되어 한발 한발을 음미하고자 했던 것이다.

앞에서 말한 두가지 기계의 발달은 인간을 도구화하고 결과만을 위해 질주하도록 만들었다. 더이상 인간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는 것이 어색하지 않으며 인간을 평가할 때 그의 연봉과 직결시키는 것을 무리없이 받아들인다. 점점 더 인간은 자기를 목적으로 두어 자아실현을 꿈꾸지 않고 자기를 수단으로 생각하고 이윤을 목적으로 두게 되었다. 거대기계가 꿈꾸는 대량생산과 극대이윤을 인간이 스스로를 도구화하여 이루어 주고 있는 것이다.

공간이 더욱 가까워진다는 것은 공간의 사이가 사라진다는 것을 말하며 공간끼리의 차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문화는 문화적 교류를 통해 서로 발전하기 보다는 상품의 유통이 원활한 그런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무비판적인 수용을 통해 문화를 상실하고 있다. 인간 문화의 양식은 더이상 과정을 높게 평가하지 않으며 이세상의 아름답고 가치있는 것들을 극대이익을 위해 축소시켜야 하는 것으로 탈바꿈해 놓았다.

더 이상 사람들은 여행을 과정이라 여기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으로 여긴다. 이것은 인간을 도구화하여 도구를 목적으로 바꾸어 놓는 것과 닮은 꼴이다. 더이상 사람들은 여행을 하는 과정을 생각하지 않으며 일을 하는 도중에 왜 일을 하는지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은 노동력, 즉 생산수단으로 바라보고 생산시스템과 판매시스템속에서 인간의 활동은 통합되고 있다.

인간은 수단이 된데에 있었던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인간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건전한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

구분	심 사 평	점 수
이해·분석력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양식의 변화의 관련성이라는 논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두 제시문의 내용에 대한 기술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지문 자체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본인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15점
논증력	기계의 발달에 따른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을 잘 제시하고 그에 따른 인간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증을 하였다. 특히 기계에 의한 시장체계를 물질주의와 인간소외로 연결시키고 있는데 체계가 가진 인위성에 주목했다면 도 좋았을 것이다. 한편 문화적 양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을 하지 못하였다. 본인이 예로 들고 있는 것은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대한 예로는 어느 정도 타당하지만, 문화적 양식에 대한 것으로는 부적절하다. 공통된 주제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결론 부분도 한 쪽으로 치우친 채 애매한 수사로 기술되어 있다.	19점
창의력	잘 알려진 영화를 첫머리에 제시하여 독자를 자극한 것은 나름의 독자성도 보이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 그냥 지나치기 쉬운 사실을 예로 든 것은 참신하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단편적인 논의 전개에 있다. 논의를 더 다각화하고 사례를 주장에 더 긴밀히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25점
표현력	띄어쓰기, 불완전명사, 수식어 등에서 잘못이 많다. 문장부호를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의문문에는 ‘?’를 사용하여 의미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의미전달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길이에 대한 고려와 함께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적절한 접속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6점
	최종평가 결과	65점

예시답안 및 평가서 4

100년 전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현재의 물질 문명과 정신 문화는 과거와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과거 300년 전과 200년 전의 차이와 비교해 본다면 이것은 역사상 유례없는 정도의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차이는 어떻게 생긴 것일까?

사람들은 대개 이런 차이의 시작을 산업혁명으로부터 찾는다. 산업혁명이 탄생시킨 증기기관은 대량 생산 시대를 열었고, 대량으로 생산된 상품을 유통시키고 그 원료를 수급하기 위해 철도같은 교통·운송 수단이 발전하였다. 이처럼 넓어진 시장과 늘어난 상품 물량을 소화하면서 시장 경제는 발전하였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단순히 물질 문명의 변화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정신 문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변화가 정신 문화에 끼친 영향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인간의 상품화이다. 산업 사회에서 생산의 동기는 이윤 추구로 대체되었다. 이윤을 추구함에 따라 사회에는 점차 물질을 중시하는 태도가 변해 나갔다. 이는 배금주의로 이어졌다. 또한, 산업사회에서는 시장 체계의 유지를 위해 토지와 노동을 필연적으로 상품화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자연과 인간을 상품화함을 의미하고 이는 다시 인간을 하나의 부속품으로 보는 관점, 곧 인간의 부품화를 불러왔다. 이렇게 나타난 배금주의와 인간의 부품화가 융합되어 인간을 물질의 도구로 전락시켰고, 이것은 인간 소외 현상으로 발전해갔다.

두번째 영향으로는 효율성 추구하고 정신의 획일화이다. 철도 등의 교통 수단이 발달하면서 시간과 공간은 인간에 대한 구속력을 잃어갔다. 더욱 빠르게, 먼 지역과 접촉이 가능해지면서 자유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렇게 속도의 추구가 일반화되면서 인간은 차츰 사회적인 속도, 즉 효율성도 추구하게 되었다. 또한, 더 멀고 넓은 지역과의 접촉은 이질적으로 살아온 지역들의 문화를 융합시켰다. 뿐만 아니라 통신의 발달이 더해지면서 특정한 생각이나 사상의 전파가 더욱 빠르고 용이하게 되었다. 이는 점차 사람들의 정신을 획일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셋째로는 결과론적 태도이다. 교통 수단의 형태의 변화는 더욱 빠른 철도나 비행기같은 형태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공간은 사람들로부터 유리되었고, ‘여정’이라는 개념은 사라져갔다. 이런 중간 과정의 실종은 사람들에게 목적지나 목표만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는 사고 방식에도 영향을 끼쳤다. 그 영향의 결과로 결과론적 태도가 사람들의 의식을 점령해갔다.

증기기관같은 기계의 발달은 우리에게 축복과도 같은 물질적 풍요를 안겨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아무 대가 없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우리들 자신의 정신적 풍요를 대가로 내놓아야 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풍요와 효율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들 마음의 여유를 지불한 것이다.

구분	심사평	점수
이해·분석력	제시문에 대한 이해와 활용 정도는 높은 편이나, 논제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기계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양식”의 변화 양상과 의의에 대해 논의하기보다는 물질문명과 정신문화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물질과 정신의 구분하지 말고 그것들에게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변화의 양상을 기술했어야 한다.	15점
논증력	논의 전개에 있어서의 일관성과 글 전체 흐름의 체계성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 문명의 영향으로 지적인 세 가지 현상들을 심도 있게 논증하지 못하고 단순히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그 현상들 간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논의가 중복되었다. 이 항목이 요구한 내용을 담기에는 답안의 길이가 짧아 보인다.	19점
창의력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보다는 산업혁명 이후의 변화에 대한 일반적 설명에 의거해 논술하고 있다. 기계 발전의 영향을 정신문화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통해 살펴려함으로써 구체적인 사회 관계와 문화 양식의 변화를 다루지 못했다. 물질문명으로 인해 세 가지의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느니, 결과론적 태도가 사람의 의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추가되었으면 조금은 나아졌을 것이다.	20점
표현력	띄어 쓰기와 원고지 사용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동어반복적인 용어의 사용과 제시문의 과도한 차용은 피하는 것이 좋다. 전체적으로 표현이 너무 건조하고 서술적이다.	6점
최종평가 결과		60점

예시답안 및 평가서 5

인류가 지구상에서 출현한 후에, 그들은 직립보행과 그로인한 두손의 자유로 도구를 사용할수있었고, 불을 사용함으로써 다른동물과 비교하여 급격히 발전하였다. 급격히 발달하면서 인류는 자연을 이용하는 법을 터득하였고, 마침내 그들은 ‘기계’라는 비생명체를 이용할수 있게 되었다. ‘기계’는 생명체와는 달리 자원만 있으면 계속 일을할수있었다. 18세기 영국에서는 방직기와 방적기를 이용하여 의류생산의 대량화를 이루어 내었고, ‘스팀’의 원리를 이용한 기관차가 발명됨으로써, 그 이전에는 가장빠른 운송, 운반수단이었던 마차를 퇴보시켰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업혁명’의 시작이었다. 산업혁명이후 인류는 상품생산의 대량화와 운송시설의 발달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여기서 우리는 기계와 철도시설이 우리의 생활자체를 다른차원의 세계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수있다. 일단 기계의 등장과 발전으로 인하여 ‘자급자족’에 가깝고, 작은시장에 불과했던 시장체제가 범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기계를 이용한 정확하고 정밀한 작업을 통해 품질좋은 생산품을 대량생산화 할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거대기업이 생겨났다. 거대기업들의 등장으로 ‘인류’는 단순히 생산품의 대량화뿐만이 아니라 품질면에서도 서로 경쟁하는 ‘시장체계’를 만들어냈다. 거대기업들은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게 되었고,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춰 생산품을 공급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계를 이용한 생산체제에서 운송수단은 정말 중요한 필수요소였다. 물론 인간의 이동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대량생산에 맞춘 철도의 부설은 현재시장과 ‘공생관계’라고 말할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생산품이 있더라도 수요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시장체계’에서는 속도가 생명이었고 그에따라 철도시설도 발달해 왔다. 원시시절의 그 누가 한반도에서 유럽까지 갈 생각을 하겠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철도의 부설은 기계의 발달만큼 중요하게 볼수 있을 것이다. 기차의 발명으로 인간은 육지에서 원거리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원거리이동이 가능해짐으로써 타문화와 타인류, 타국가와의 접촉이 가능해졌다. 물론 시장의 발달을 이끈 것 또한 철도시설의 발달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철도시설의 발달은 그만큼 여러분야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기계와 철도 시설은 인간의 생활자체를 다른차원으로 만들어 냈다. 기계를 이용한 대량생산화로 인해 ‘기업’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기업속에서도 자금과 자본을 대는 ‘자본가’와 기계를 조작하는 ‘근로자’라는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졌다. 기계의 발달이 사람의 지위와 역할까지 생산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흔히 기업에서 ‘기계’로 만든 생산품을 접한다. 그 중에서도 컴퓨터는

또 다시 ‘인류’를 다른차원의 세계로 가게 하였다. 다른기계와 마찬가지로 무한한 에너지를 지녔지만, 컴퓨터는 단순히 물건을 생산하는 것이아니라 인간이 생각하고 사고할수있는 영역을 넓혀주었다. 일상생활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생활이 마비될 정도로 컴퓨터라는 기계는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지금 풀고 있는 이 문제조차 컴퓨터로 제작하였으니 컴퓨터라는 기계의 중요성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수 있을 것이다. 기계의 발달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류를 급속히 발전 시켰지만, 한편으로는 막대한 이윤을 챙기려는 대에서 생기는 이기심, 막대한 자연파괴, 인간 소외현상 등을 야기시켰다. 컴퓨터라는 기계는 우리에게 문서편집기능, 동영상기능, 제품구입기능, 채팅, 인터넷 등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채팅을 통한 국어훼손, 범죄에 악용, 정보의 범람 때문에 생긴 정보의 가치성하락등 많은 문제를 파생시켰다.

한편 철도시설의 발달은 인류에게 원거리 이동을 가능케 하였다. 또한 원거리 수송도 가능케 함으로써 원자재와 생산품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최근에 우리는 ‘지구촌시대’라고 흔히 말한다. 지구가 한 마을의 개념이 된 것이다. 이런 말을 이끈 주인공은 바로 철도시설이라고 말할수 있을 것이다. 물론 ‘비행기’라는 더빠른 수단이 출현하였지만, 역시 철도의 대중성과 육지운송수단이라는 점을 간과할수 없다. 철도시설로 인하여 인류는 많은이동을 하게되었고, 그에따라 지역성이 많이 퇴화되어가고 있다. 실제로 외국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수용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지구촌 시대’의 증거이다. 그런대 너무 외국문화를 수용함으로써 그지역고유의 문화가 퇴폐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근래에 인류는 철도시설에서 또 한번의 도약을 하였다. 초고속열차를 개발하여 300km/h의 속도로 물품과 인간을 이동케 하였다. 이로써 인간은 더빠른 이동을 할수있게 되었고 더 많은 시간을 절약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곳이 2시간대에 이동할수있게 된것이다. 이처럼 철도의 눈부신 발달로 우리는 많은 이익을 얻었지만, 지역적특색과 정체성 또한 야기되었다.

인류는 지구상에 출현한 이후로 끊임없는 발전을 위하여 힘썼고 발전을 해왔다. 그런과정에서 기계를 사용하는법을 알고, 사용하여 지금의 우리로서 발전가능케 하였고 철도의 발달로 원거리 이동을 가능케 하여 인간의 활동범위를 넓혀주었다. 물론 발달의 과정에서 부작용을 파생시켰지만 그것은 인간의 발전욕망때문에 본의 아니게 생긴것이다. 앞으로 인류는 더 많은 발전을 꿈꿀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관점을 살피어 발전을 해가야 하며, 그렇게 할 것이다. 그 것이 또 다른 발전을 낳을수 있기 때문이다.

구 분	심 사 평	점 수
이 해 · 분 석 력	필자는 제시문의 논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논제에서 짧게 소개된 제시문 1, 2의 논지만을 이용하여 자신의 논증을 전개하고 있다. 논제는 각 제시문의 논지를 연결하여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였지만 필자는 논제에서 소개된 논지만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제시한다. 제시문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기계와 철도의 발달이 인간사회에 미친 변화를 나뉠대로 서술하고 있는 듯 하다. 초기 단계의 논증에서 상품생산 대량화, 운송시설 발달이 시장의 확산을 야기했다는 주장을 통해 두 논지를 연결시키고자 하지만 글의 중반부터는 두 논지를 연결하지 않고 기계의 유용성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필자는 제시문 1에서 생산의 동기가 이윤 동기로 대체된다는 주장 그리고 노동과 토지가 시장에서 갖는 허구적 상품성을 갖는다는 주장이 함축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야 했고, 그 내용을 제시문 2에서 철도 건설이 야기한 시간, 공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연결시켜야 했다.	11점
논 증 력	이 답안의 가장 큰 문제는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갈 때 글의 핵심주장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글의 체계 또는 조직을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렵다. 필자가 제시한 논증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글의 도입부는 산업혁명이 도래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그 다음, 상품생산 대량화, 운송시설의 발달을 통한 시장체계의 확산과 함께 운송시설(철도)의 중요성을 제시하면서 다시 시장의 발전을 언급한다. 이어서, 다른 문화에 대한 접근, 기업의 탄생, 새로운 계급구조의 탄생, 컴퓨터가 갖는 유용성과 의미를 제시한 후, 다시 철도의 장점(원거리 이동을 가능하게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지구촌화, 외국문화의 영향, 고속철도가 주는 혜택을 제시한 후, 결론으로 기계발전의 부작용과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이런 구조는 필자의 핵심주장이 이후 제시되는 하부주장들 그리고 그 주장을 위한 증거 진술들과 어떻게 일관되게 연결되는 지 보여주지 못한다. 산업혁명의 도래과정과 “채팅을 통한 국어훼손, 범죄에 악용, 정보의 반감”이 글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없다. 주장하려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그 주장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7점
창 의 력	전체적으로 심층적인 논의전개가 부족하다. 필자가 제시하는 주장 또는 논거에 가능한 반론을 고려하지 않는다. 기계화가 가져온 시장체계, 기업형성, 새로운 계급구조의 형성을 주장하지만 어떤 관점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만약 긍정적 관점에서 그런 결과를 고려하였다면 그런 결과가 갖는 부정적 역할을 고려할 때 필자의 주장이 어떻게 방어될 수 있는 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논지가 제시하는 관점을 비판하고 그 비판을 바탕으로 자신	20점

	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관점을 익숙한 예들을 통해서 독자에게 다시 제시하는데 불과하다. 컴퓨터의 예는 필자의 독창적인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예가 글 전체의 논증에서 갖는 역할, 의미, 중요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덧붙여 필자는 지문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심층적이고 독창적인 논의를 전개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개진하는 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결론 부분에서도 물질문명의 발전이 부작용을 낳은 것은 “인간의 발전 욕망 때문에 본의 아니게 생긴 것”이라고 막연하게 마무리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와 결부된 새로운 문제제기를 하였다면 좋았을 것이다.	
표 현 력	원고지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탓인지 띄어쓰기를 비롯하여 많은 잘못이 반복되고 있고, 단락구성도 대체로 논지의 전개나 흐름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는 매우 많다. • “그로 인한 두 손의 자유로” • “다른 동물과 비교하여 급격히 발전하였다”(무엇이 발전하였는가?) • “마침내 그들은”(여기서 그들은 누구인가?) • “마차를 퇴보시켰다”, • “~의” 표현은 소유의 의미가 아니면 피해야 한다. • “운동시설의 발달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무엇의 발전인가?) • 부적절한 구어 표현	3점
최종평가 결과		51점

예시답안 및 평가서 6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다양한 사회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 중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산력의 획기적인 증가로 생산물을 팔아 자신의 다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장이 형성되었다. 시장체계의 생성과 발달로 인해 인간은 외부의 간섭을 받지않고 좀 더 자유로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었다. 또한 기술은 교통의 발달에도 영향을 주었다. 180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시간적 거리는 3일이었으나, 오늘날에는 2시간 가량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과거에는 존재조차 알지 못하였던 나라들을 쉽게 오갈수 있게 되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술의 발달은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그 영향들이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을 높여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한다.

과거에 인류는 자연과 더불어 살며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생산하는 자급자족의 삶을 살았다. 그러다 자신이 생산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는 이웃과 교환하는 물물교환 방식을 가지고 살았었다. 이 당시에는 자신의 필요 이상의 물건을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김이란 없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 개인이기주의도 지금보다 많지 않았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은 개인의 욕망을 무한히 자극하였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인간을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처럼 무한히 제조하였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회는 점점 삭막하고 각박해져가고 있다. 그리고 두레, 향약, 품앗이 같이 우리 조상들의 공동체적 삶의 모습을 더 이상 우리 곁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기술은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을 뿐, 인간이 개인이기 이전에 한 사회를 구성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망각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기술은 교통의 발달을 가지고 왔다. 이 발달은 먼 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다. 지리상 거리가 어느 정도 이던지, 시간적거리만을 중시하는 풍토를 가지고 왔다.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빨리빨리문화’도 시간적거리만을 중시하는 풍토에 기초하여 생겨난 것 이다. 이 풍토로 인하여 개인에게 수치상으로 볼 수 있는 많은 시간적 이익을 가져다 주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이익 뒤에는 숨겨진 많은 손해들이 있다. 법정스님의 ‘무소유’의 한 구절을 인용해 본다면, 사람은 버스 속에서 차창밖으로 재빨리 지나가는 먼 풍경을 볼 수 있어도, 천천히 걸을 때 볼 수 있는 길가에 핀 작은 꽃 한송이를 보는 즐거움을 느낄수 없다. 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우리가 시간의 단축을 중시한 나머지 천천히 행동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경시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이처럼 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 시간상의 이익 등 많은 것을 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익 쟁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그 이익 뒤에 숨어있는 많은 손실들을 생각지 못하고 있다. 기술은 우리에게 이익을 주기는 하였지만, 오히려 인간을 더욱 억압하고, 물질, 시간의 노예로 전락시켰다. 이를 생각해 본다면 법정스님처럼 무소유, 느낌의 미학으로 돌아감으로서 본디 자연 그대로의 인간 모습을 찾는 것이 어떠할까.

구분	심 사 평	점 수
이해·분석력	제시문의 내용이 충실하게 요약되어 있지 않다. 또는 요약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시문의 내용을 기계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주어진 문제에는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양상의 두 가지에 대해 논의하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적 양상에 관한 논의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를 동일한 문제로 혼동하고 있다.	11점
논증력	논의의 초점이 기계의 발달이 미친 영향과 그 의미로 집중되어 있지 않고 기술 발달이 가져온 일반적인 문제 또는 현대 사회의 문제 일반으로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추상화되어 있어서 본인의 주장을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서론과 본론을 통해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되게 하지 않고 결론 부분에 와서 본인의 주장만을 제시하다보니 글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론 자체는 진부하지만 진부한 결론이더라도 서론과 본론의 논리적 흐름에 연결시켰더라면 훨씬 좋은 글이 되었을 것이다.	15점
창의력	제시문에 나타난 주장만을 따라가는데 급급하다 보니 자신의 생각을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펼치지 못했다. 또한 너무 짧은 분량으로 논의를 전개하기 때문에 제시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얼마든지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생각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논의가 전개되지 못한 것도 창의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주된 결과 가운데 하나이다.	15점
표현력	띄어쓰기의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특히 문단 구성에 있어 매우 중대한 문제가 있다. 글의 길이가 아무리 짧다하더라도 3개의 문단만으로는 그 글의 논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보다 섬세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7점
최종평가 결과		48점